

제1편 양평의 지리와 환경



제1장 자연환경

제2장 인문환경

제3장 친환경적인 생활공간으로서의 양평군

제1장 자연환경*

제1절 위치 및 면적

양평군은 한반도의 중서부에 있는 경기도의 북동부에 위치한 지역이다. 북동쪽으로는 강원도 홍천군, 동쪽으로는 강원도 횡성군, 남동쪽으로는 강원도 원주시, 남쪽으로는 경기도 여주군, 남서쪽으로는 경기도 광주시, 서쪽으로는 경기도 남양주시, 북쪽으로는 경기도 가평



그림 1. 양평군의 지리적 위치

* 제1장은 박의준 집필임.

1) 양평군, 2000, 『양평군 통계연보』, 통계청.

표 1. 양평군의 수리적 위치

	소재지	경도	위도
극동	청운면 도원리	127° 51' 02"	37° 33' 01"
극서	양서면 양수리	127° 18' 46"	37° 30' 45"
극남	양동면 단석리	127° 45' 47"	37° 21' 33"
극북	서종면 수입리	127° 25' 37"	37° 40' 07"

군과 인접한 곳이다(그림 1). 양평군이 차지하는 경·위도상의 수리적 위치는 동경 127° 18' 46"~127° 51' 02", 북위 37° 21' 33"~37° 40' 07"이다(표 1).¹⁾

양평군은 원래 양근군(楊根郡)과 지평군(砥平郡)을 합친 군이다. 양근군은 고구려 때는 양근군 또는 항양군(恒陽郡)이라고 불리었으며, 신라는 이를 빈양(濱陽)으로 개칭하여 기천군(沂川郡)의 영현(領縣)으로 삼았다. 고려는 이를 다시 양근으로 바꾸었고, 그후 고종 때 영화(永化)라 하였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다시 양근군이라 칭하였다.

지평군은 본래 고구려의 지현군(砥峴郡)이었는데 신라는 이를 지평이라 고쳐 삭주(朔州)의 영현으로 삼았다. 고려 현종 때 광주(廣州)에 속하였다가 우왕 때 현(縣)으로 승격하였고, 1895년(고종 32) 군(郡)이 되었으며, 1908년 양근군과 합쳐 지금의 양평군이 되었다. 1914년 군·면 통폐합에 따라 남종면(南終面)이 광주군으로 옮겨가고, 1942년 설악면(雪岳面)이 가평군으로 이속(移屬)되었다. 1963년 여주군 개군면(介軍面)이 편입되고, 1973년 서종면(西宗面)의 일부가 가평군으로 편입되었으며, 1979년 양평면이 읍으로 승격하였다(표 2).²⁾

표 2. 양평군의 연혁

~1900년	양근군	고구려시대 : 함양군
		신라시대 : 빈양으로 개칭
		고려시대 초 : 양근으로 개칭하고 광주에 속함
		고려(고종) : 영화라 칭함
		고려(공민왕) : 군으로 부활되면서 양근군으로 개칭(1356년)
	지평군	고구려시대 : 지현군
		신라시대 : 지평
		조선시대(고종) : 지평군(1895년)
1908년 9월	양근군과 지평군을 합병하여 양평군으로 속함	
1914년 3월	양평군 관할 남종면이 광주군으로 이속	
1942년 4월	양평군 관할 설악면이 가평군으로 이속	
1963년 1월	여주군 관할 개군면이 양평군으로 편입	
1973년 7월	서종면 삼회리와 노문리 일부가 가평군으로 이속	
1979년 5월	양평면이 양평읍으로 승격	

2) 양평군지편찬위원회, 1991, 『양평군지』, 양평군.



그림 2. 양평군의 행정구역 변천과 현재의 행정구역(1914~2002)

2002년 현재 양평군의 행정구역은 양평읍(楊平邑)과 강상면(江上面)·강하면(江下面)·양서면(楊西面)·옥천면(玉泉面)·서종면(西宗面)·단월면(丹月面)·청운면(靑雲面)·양동면(楊東面)·지제면(砥堤面)·용문면(龍門面)·개군면(介軍面) 등 1읍 11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그림 2), 군 전체의 면적은 878.21km²으로, 경기도의 8개 군 가운데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³⁾

제2절 지세 및 지질

1. 지세개관

양평군의 지세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해발고도 400m 이상의 산지를 중심으로 발달해 있으며(그림 3), 산지 주변에 다양한 지형들이 곳곳에 나타난다. 산지 지형의 대표적인 예로는

3) 양평군, 1998, 『양평군 행정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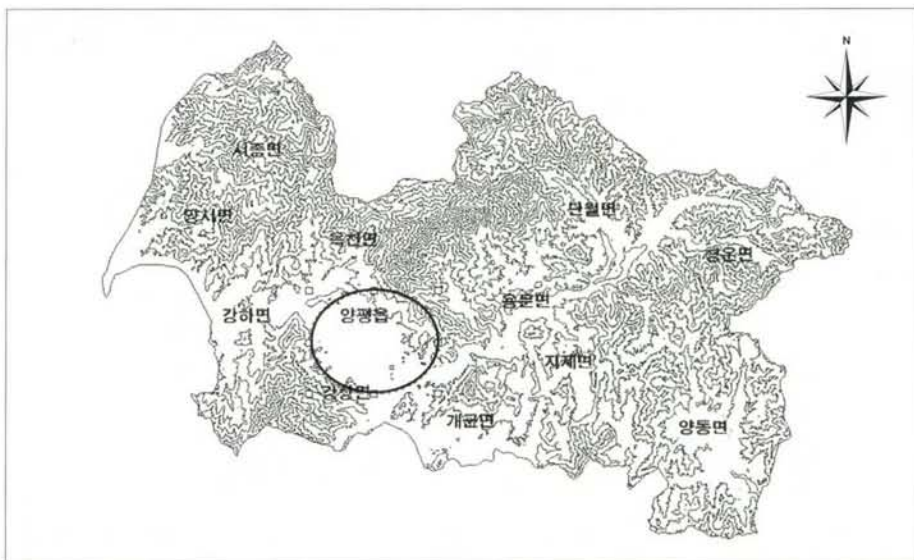


그림 3. 고도 200m 단위의 분포로 본 양평군의 전체적인 지세. 그림에서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은 양평읍을 나타내는데, 지질적인 배경으로 인해 다른 지역과는 확연하게 다른 침식분지 형태의 평지지형이다.

산지 사이에 발달한 다양한 규모의 산간분지, 산지하천이 만들어 놓은 계곡지형[開析谷地], 산지와 산간분지를 연결하는 경사가 완만한 사면지형[山麓緩斜面, piedmont]*과 구릉지를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산지지형은 경기도 북부 및 강원도 서부의 높은 산지지형들과 연결이 된다(그림 4).

또한 산지지형과 함께 양평군의 지세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지형은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규모의 하천과 관련된 하천지형이다. 비록 산지지형에 비해서 그 면적은 협소하지만, 충적지와 범람원, 하안단구 및 하중도 등의 지형이 하천 주변 곳곳에 나타나기 때문에 양평군의 지세를 논하는 데 하천지형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같은 하천지형은 양평군 서남부의 여주·이천 평야지대와 접미지대를 이루면서 발달하고 있다(그림 5).

요약하면, 양평군의 지세는 중서부와 북부지역을 아우르는 산지지형과 한강을 중심으로 하는 하천 및 하천 연변의 충적지지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서부와 남부의 하천지형은 그 발달 범위가 상대적으로 협소하고 규모도 작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세는 산지지형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세는 지질분포 및 하천의 영향을 잘 반영하고 있다.

* 산록완사면 : 산록완사면은 배후의 산지와 전면의 평지를 연결하는 경사가 매우 완만한 사면지형을 가리키는 지형 용어이다. 우리 나라의 크고 작은 산지 지역에는 어김없이 이러한 산록완사면이 나타나 취락입지 지역으로 이용되고 있다. 산록완사면의 생성요인은 크게 과거 건조한 기후 환경의 페디먼트와 마찬가지로 기반암의 풍화와 삭박작용에 의하여 형성되었다는 학설과 선상지와 마찬가지로 산에서 흘러내리는 산지하천에 의하여 퇴적물이 공급되어 형성되었다는 학설로 이분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성요인에 대한 논란과는 상관없이 산지와 평지 사이의 경사가 완만한 지형 용어를 산록완사면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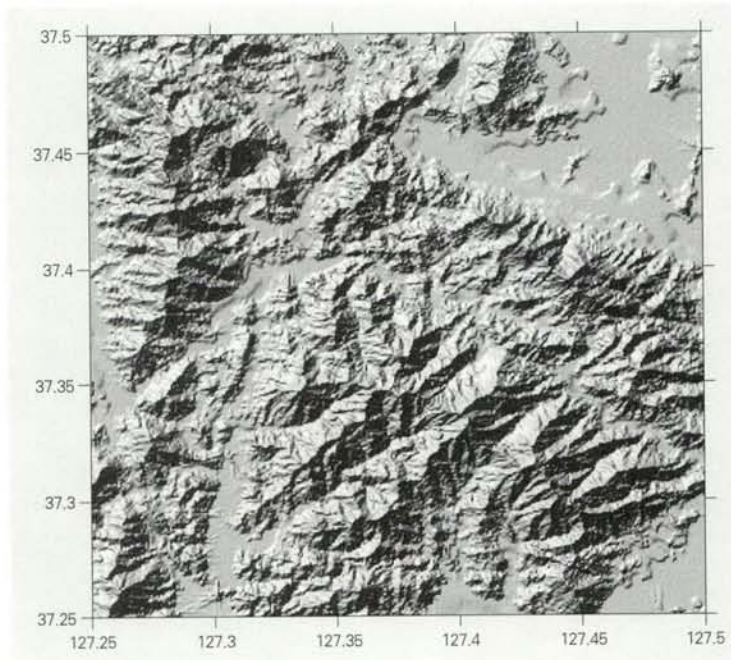


그림 4. 음영기복도로 살펴본 양평군 북동부지역의 산지지형(출처 : 1:50,000 여주 도엽 고도 데이터를 Surfur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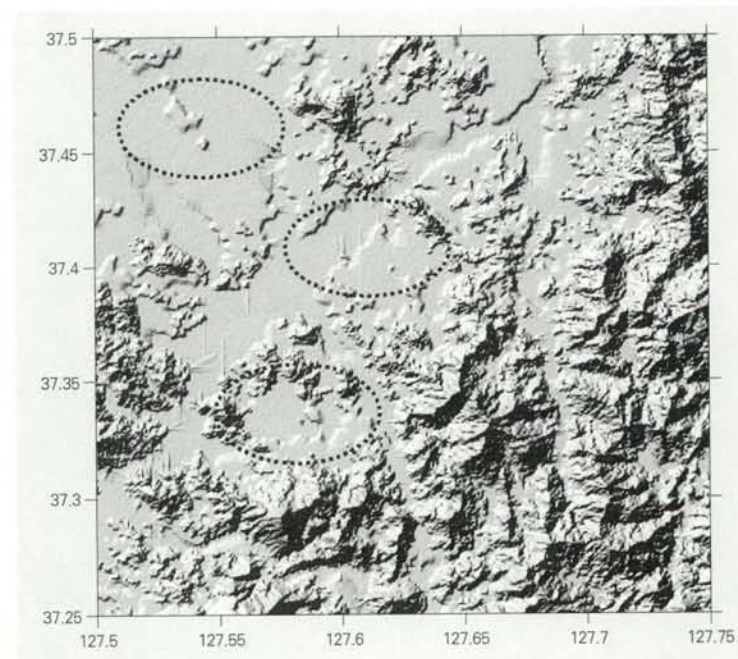


그림 5. 음영기복도로 살펴본 양평군 남부 한강유역에 발달해 있는 평탄지 및 구릉지. 점선은 양평읍과 개군면에 발달해 있는 대표적인 하천지형(출처 : 1:50,000 여주 도엽 고도 데이터를 Surfur로 재구성)

2. 지질분포

양평군 전 지역은 지체구조상 경기육괴(京畿陸塊)에 속하는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복합체(變成岩複合體)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를 이루는 암상(岩狀)은 경기변성암복합체의 호상편마암이고 호상편마암 주변으로 반상변정질편마암·경기층군의 편암류와 편마암류·춘천계층군의 편암류가 산재하며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남동부의 지체면과 양동면 지역에는 중생대 쥐라기에 관입한 대보화강암이 노출되어 산지를 이루고 있고, 중부의 양평읍 지역은 시대가 밝혀지지 않은 화성복합체 화강암을 기반으로 하는 넓은 분지가 발달해 있다. 그리고 하천 주변에는 신생대 제4기에 하천에 의해 퇴적된 충적층(沖積層)이 발달해 있다(그림 6).⁴⁾

표 3. 지구의 나이와 지질시대

이언(eon)	대	기	세	100만년 전
현생 이언	신생대	제4기	현세	현재
			홀로세	0.01
			플라이스토세	1.6
		제3기	플라이오세	5.3
			마이오세	23.7
			올리고세	36.6
			이오세	57.8
			팔레오세	65.0
	중생대	백악기	144.0	
		쥐라기	208.0	
		트라이아이스기	245.0	
	고생대	페름기	286.0	
		석탄기	360.0	
		데본기	408.0	
		실루리아기	438.0	
		오르도비스기	505.0	
		캠브리아기	545.0	
선캠브리아 이언	원생대	2,500.0		
	시생대	3,800.0		
초창기 이언		4,600.0		

암석학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변성암류는 암상의 변화가 심하다. 변성암류는 화강암화 작용 및 변성작용의 정도와 양상에 따라 편마암류와 편암류로 구분된다. 원래의 이질암(泥質

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1, 『1:250,000 지질도 : 서울 도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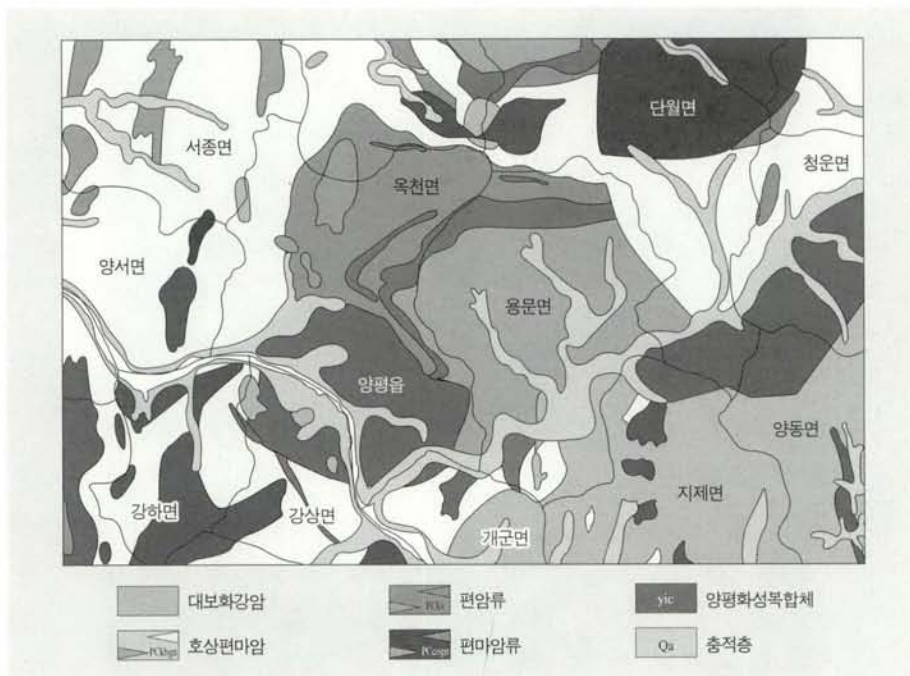


그림 6. 양평군의 표층 지질과 주요 암상(출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250,000 지질도). 양평읍에 나타나는 양평화성 복합체의 분포 면적과 그림 3의 점선으로 표시된 양평읍 침식분지의 분포 면적은 거의 일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양평읍의 입지 및 발달이 양평군의 지질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岩)은 운모류를 많이 포함하는 편암 및 편마암류로, 사질암(砂質岩)은 사질이 풍부한 편마암 및 편암류로 변성되었다.⁵⁾

편마암류는 선캠브리아기의 퇴적분지에서 퇴적되어 조산운동을 받은 후, 광역변성작용 및 반산화강암류 관입 때 편마암화 작용 또는 화강암화 작용을 받았다. 그리고 대보화강암의 관입으로 열(熱) 변성작용도 일부 받았다. 이 가운데 호상편마암(弧狀片麻岩)은 용문산 동남부의 산록과 청운면 성지봉(聖地峰) 주변 단층계곡에 널리 분포한다(사진 1). 호상편마암은 흑운모의 유색광물부분(paleosome)과 석영·장석의 집합체인 우백질 부분(neosome)이 번갈아 나타난다. 양서면 목왕리(木旺里)와 강하면 성덕리(聖德里) 부근에서는 얇은 반상변정질 편마암층이 호상편마암의 현리와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강원도에서 발원하여 경기도로 연결되는 광주산맥의 화강암 저반에 속하는 화강암류는 중생대 쥐라기 말에 관입한 대보화강암(大寶花崗岩)으로 대표된다. 지제면 목곡리(木谷里) 일대의 서쪽 산록에 분포하는 대보화강암은 경기편마암복합체를 관입하여 분포하며, 편마암류

5) 대한지질학회, 2001, 『한국의 지질』, 시그마 프레스.



사진 1. 청운면 성지봉 주변 단층계곡의 호상편마암질 암괴류. 암괴류는 과거 주빙하 기후 환경에서 기계적 풍화작용의 결과 나타나는 지형으로, 절리면이 발달한 기반암에서 잘 나타난다



사진 2. 용문산 일원에 나타나는 기계적 풍화산물. 호상편마암의 수평절리를 따라 진행되는 기계적 풍화작용의 결과 마치 망치로 바위를 깨어 놓은 듯한 형태의 각력이 산재해 있다

의 엽리(葉理) 방향과 동일한 분포를 보인다. 이 암석은 흑운모나 각섬석을 함유하는 경우도 있고 포획암(xenolith)을 함유하기도 하며, 반상화강암은 화학적 풍화작용에 약하여 심층풍화와 구상풍화(球狀風化)의 산물인 핵석(核石, core stone)을 생산하기도 한다.⁶⁾

목왕리 청계산(淸溪山)과 양동면 일대에 분포하는 화강암은 추가령구조곡을 중심으로 장축을 갖는 저반의 서남단에 위치한다. 이 암석은 암석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융기하면서, 지하에 있을 때 가해졌던 압력이 급격히 약화됨에 따라[荷重除去, unloading] 상대적으로 암

6) Thomas, M.F., 1974, *Tropical Geomorphology*, Blackwell.



사진 3. 양동면의 산간곡지에 나타나는 화강암 풍화산물

석의 약한 부분이 쪼개지는 기계적 풍화작용을 활발하게 받아 형성된 것이다. 현재 이 암석은 남한강 주변 구릉산지 주변에 암괴류(block stream)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시대 미상의 양평화성복합체 화강암은 양평읍 곳곳에서 심층풍화에 따른 침식분지와 새프롤라이트(saprolite)*를 형성하고 있다. 용문산 일원에서는 북동(NS)과 동서(EW) 절리계(節理系)가 우세하게 발달하였으며,⁷⁾ 이 결과 석회암 지역의 카렌(karren)과 같은 지형이 나타나기도 한다(사진 2).⁸⁾

산지 지형이 주를 이루고 있는 양평군에는 지질구조를 반영하는 산간곡지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남동부의 양동면 일대에는 하천에 의한 기반암의 침식작용과 물리적 풍화작용, 기후변화에 따른 화학적 풍화작용과 연이은 하천의 풍화산물 제거 및 삭박작용의 결과에 따른 화강암 풍화지형이 나타난다(사진 3). 이러한 산간곡지의 발달은 양평군의 하계망의 분포와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7)⁹⁾

한강 연변과 하천 주변에는 홍수 때의 범람과 하도 변화 때 퇴적된 층적층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층적지는 자연제방·범람원·배후습지 등의 지형적 특성을 보이며, 자갈·모래·점

* 새프롤라이트(saprolite) : 기반암이나 암석이 지중(地中)이나 지하에서 화학적 풍화작용을 심하게 받아(심층풍화) 토양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외부로 노출된 이른바 '푸석돌'이라고 지칭하는 지형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암석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손으로 만지면 부서질 만큼 매우 약화된 풍화산물로서, 여름철 집중호우시 산사태의 원인이 되는 지형이기도 하다. 이러한 새프롤라이트가 지속적으로 풍화를 받게 되면 토양으로 발달하게 된다.

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1, 「1:50,000 지질도 : 원주 도엽」.

8) Jennings, M., 1967, *Karst Geomorph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9) 양평군의 산지 사이를 흐르는 하천은 지형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는, 지형형성요인의 내적 요인, 즉 구조운동의 결과 형성된 단층계곡 사이를 흐른다는 점이고, 둘째는, 이러한 계곡 사이를 흐르는 하천은 그후 지형형성요인의 외적 요인, 즉 하방 및 측방침식을 통하여 풍화산물의 제거와 같은 2차적인 지형형성을 유도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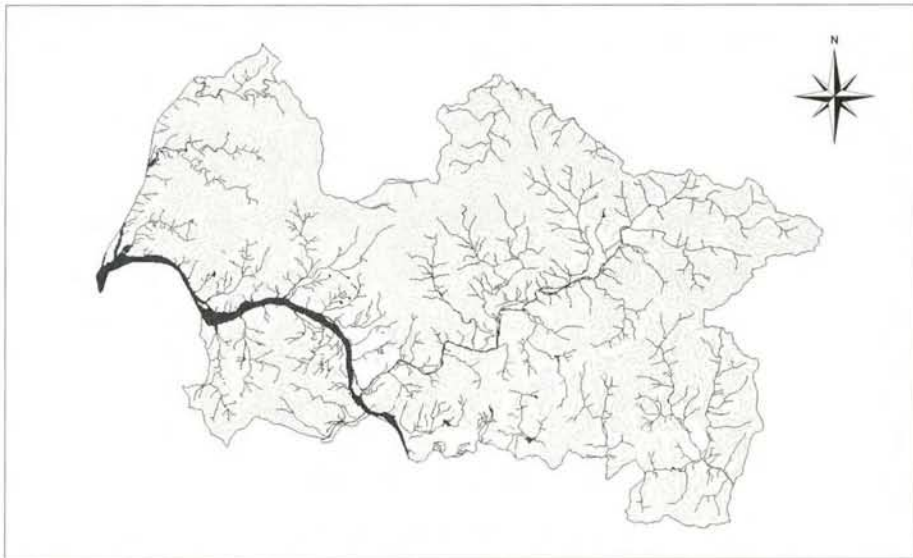


그림 7. 양평군의 지형 기록과 하계망의 관계. 점선은 등고선(100m 간격)이고, 실선은 하계망이다



사진 4. 추가령구조곡 연장선상의 단층계곡. 사진은 청운면 용두리로 양평군의 북동쪽 추가령구조곡의 연장선상에 형성된 단층계곡에 발달한 산지하천 지형의 일부이다

토 등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유량이 풍부하고 규모가 큰 한강의 배후지라는 점, 다른 지역의 하천 연변지역에 비해서 비교적 기반암의 노출이 많고 주변경사가 급하다는 지형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배후습지의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양평군의 지질을 논하는 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지형은 강원도에서 발원한 광주산맥이다. 양평군을 대표하는 용문산이 속한 광주산맥은 추가령구조곡을 사이에 두고 마식령산맥과 마주보고 있으며 북동부의 명지산(1,267m), 국망봉(1,176m), 광석산(1,046m), 용문산

(1,157m) 등의 높은 산으로 구성된 산맥이다.¹⁰⁾ 지질은 주로 호상편마암과 대보화강암이며 오랜 시간 침식과 풍화작용을 활발히 받아 북동부에서 서남부로 이동하면서 점차 고도가 낮아지며, 이는 서울 북동부의 인젤베르그(Inselberg) 산지지형 및 구릉지로 이어진다.

제3절 기상 및 기후¹¹⁾

양평군은 한반도의 내륙지방에 위치하였다는 지리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한랭건조하고 여름철에는 고온다습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높은 산지지형 및 산간분지 지형이 군 전체의 지형을 대표하기 때문에, 해마다 겨울철에는 전국에서 가장 추운 지역으로 기록되고 있다.¹²⁾

1. 강수량

양평군의 최근 10년(1990~2001)간 연평균 강수량은 1,301mm로서 전국 평균 강수량 1,150mm, 경기지역 평균 강수량 1,278mm에 비해서 높은 값을 가져 경기도 지역 중에서는 다우지역에 속한다(표 4, 그림 8). 기상 측후소가 있는 경기도의 기타 4개 지역(인천광역시, 수원시, 강화군, 이천시)의 데이터와 비교하였을 때에는 이천시의 1,330mm, 강화군의 1,317mm 다음의 순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화군은 섬 지역으로서 해안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륙지역인 양평군의 강수량은 경기도 지역 중에서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10)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7, 『한국지리 : 지방편 III』.

11) 일반적으로 한 지역의 기후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기상데이터는 30년 주기 데이터를 많이 사용한다. 그 이유는 기후의 정의 가운데, "장기간 동안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기상상태의 종합"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및 이상 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양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데이터 수집 기간을 10년으로 줄여서 분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집필에서도 이와 같은 인식하에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후 부분을 분석하였다.

12) 본 집필에서 이용된 기온 및 강수량 데이터는 양평군 측후소에서 직접 측정한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표 4. 월별 평균 강수량(1992~2001)

(단위 : mm)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양평	20.3	22.4	43.5	76.4	96.5	138.7	341.8	305.0	143.0	45.4	44.3	23.6	1,301
인천	20.8	20.5	40.8	70.7	91.3	110.9	261.5	289.0	127.0	48.9	49.2	22.3	1,152
수원	23.5	24.0	47.0	76.0	94.8	133.2	302.7	306.0	134.0	52.3	51.0	24.1	1,268
강화	15.9	19.3	38.1	80.6	99.3	132.8	315.2	354.0	142.0	49.3	48.4	21.4	1,317
이천	23.3	24.6	49.6	87.4	98.5	146.4	328.0	292.0	159.0	49.1	46.4	25.7	1,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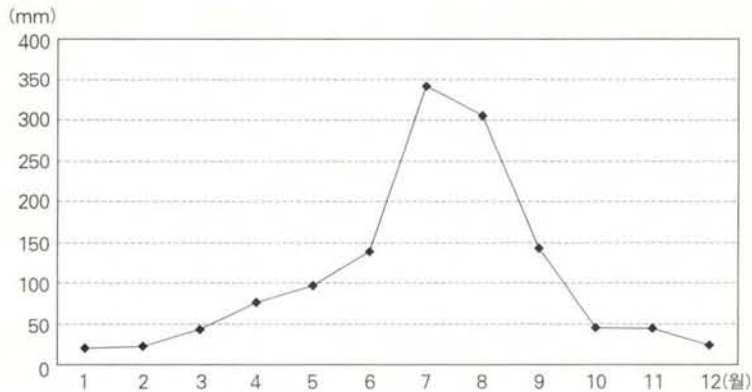


그림 8. 양평군의 월별 평균 강수량(1992~2001)

강수량의 계절적인 분포를 월별 강수량을 통해 살펴보면, 장마철을 포함한 6~8월 3개월 동안의 여름철 강수 집중도가 연간 강수량의 60.4%로서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하계강수 집중도 패턴을 그대로 나타낸다. 특히 7월의 강수량이 26.3%를 차지해 연간 강수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동계인 12~2월의 강수량은 6.6%에 불과하여 현저한 건계(乾季)를 형성한다. 월별로는 7월이 최다우, 1월이 최소우이고, 초여름에서 장마기로 접어드는 6~7월과 초가을에서 늦가을로 접어드는 9~10월 사이의 강수량 변화가 현저하다. 전체적으로 양평군의 강수량 패턴을 정리하면, 하계다우(夏季多雨) 및 동계소우(冬季少雨)라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의 패턴을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기온

기온은 강수량과 더불어 특정지역의 지형적 요인과 수리적(數理的) 위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후요소이다. 양평군의 최근 10년(1992~2001)간 연평균 기온은 10.8℃로서 전

표 5. 월별 평균 기온(1992~2001)

(단위 : °C)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양평	-4.9	-1.9	4.2	11.2	16.7	21.4	24.5	24.6	19.0	12.0	4.7	-1.9	10.8
인천	-2.4	-0.5	4.5	10.7	15.9	20.4	24.0	24.9	20.7	14.5	7.2	0.6	11.7
수원	-3.2	-1.0	4.5	11.2	16.7	21.4	24.8	25.2	20.2	13.4	6.1	-0.4	11.6
강화	-3.9	-1.4	4.2	11.2	16.7	21.4	24.5	24.6	19.0	12.0	4.7	-1.9	11.0
이천	-3.9	-1.2	4.6	11.6	16.9	21.5	24.5	24.8	19.4	12.6	5.2	-1.3	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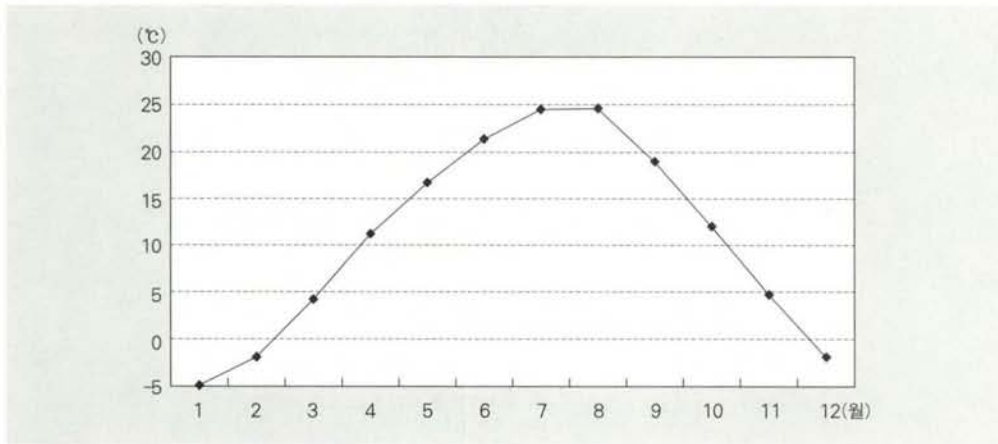


그림 9. 양평군의 월별 평균 기온(1992~2001)

국 평균 기온인 12.6°C, 경기지역 평균 기온 11.6°C에 비해서 낮은 값을 가져 전체적으로 평균기온이 낮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표 5, 그림 9). 기상 측후소가 있는 경기도의 기타 4개 지역의 데이터와 비교하였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수원시, 이천시, 강화군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 경기도 지역 가운데에서 가장 기온이 낮은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늦가을과 겨울철 기온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사실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해마다 겨울철 최저기온을 나타내는 양평군의 기온분포의 특성을 잘 나타내준다.

기온의 계절적인 변화는 겨울과 여름의 기온차가 심하며, 계절간의 기온변화는 초봄인 3월과 4월, 늦가을인 10월과 11월 사이에 가장 크다. 평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달은 12~2월로 연중 3개월이다. 양평군의 기온 분포를 다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겨울철 기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다. 이는 양평군이 전체적으로 강원도와 연결되는 폐쇄된 분지지형으로 산지지형이 중심이 된다는 지형적 특징, 한반도의 내륙 중앙부에 위치하여 바다와의 접근도가 가장 떨어진다는 지리적 위치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전국 1월 평균 기온 분포도를 살펴보면, 양평군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1월 기온을 나타내는 지역 중의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그림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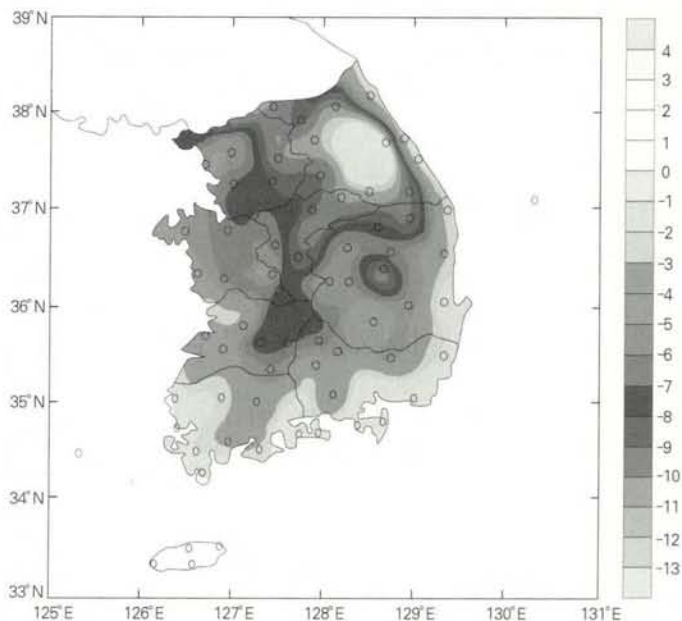


그림 10. 1월 최저기온의 전국 분포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양평군은 강원도 태백산맥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1월 최저기온을 나타내고 있다(출처 : 기상청 홈페이지 데이터를 Idrisi로 재구성)

3. 상대습도*

습도(濕度, humidity)는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절대습도(絶對濕度, absolute humidity)와 상대습도(相對濕度, relative humidity)로 구분된다. 습도는 강수량으로 대표되는 수분의 양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의 공급과 손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수분의 분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¹³⁾

따라서 습도는 특정지역의 강수량과 증발산량(蒸發散量, evapotranspiration)의 역동적인 상관관계 속에서 발현되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상대습도가 특정지역의 기후를 분석하는 데 많이 이용된다. 상대습도는 특정기온이 포화되는 데 필요한 수증기의 양과 현재 공

* 상대습도 : 상대습도의 의미는 사막과 한대지역을 비교함으로써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사막이 한대지역보다 건조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공기 중의 수증기의 양을 측정해보면 사막지역이 한대지역보다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사막은 기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상대습도는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느끼는 체감습도는 훨씬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13) 김연옥, 1988, 『기후학 개론』, 법문사.

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수증기의 양의 비율로, 수증기의 절대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기온이 높게 되면 상대적으로 습도는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대습도는 인간활동에 영향을 주는 불쾌지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¹⁴⁾

양평군의 최근 10년(1990~2001)간 상대습도는 71.9%로서 경기지역 평균 상대습도 71.2%에 비해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표 6, 그림 11). 특히 4개 지역의 기상 측후소가 있는 경기도 내에서는 수원시의 72.2%에 이어 두 번째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대습도가 단순히 강수량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강수량 및 기온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지시하는 것이다.

표 6. 월별 평균 상대습도(1992~2001)

(단위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양평	70.0	67.3	64.9	61.8	66.3	71.9	79.4	79.8	78.4	75.9	74.1	73.2	71.9
인천	63.8	63.6	65.7	66.7	70.6	76.6	82.4	80.1	74.2	68.7	66.0	64.8	70.3
수원	68.1	67.3	67.1	65.5	69.4	74.6	80.6	79.8	76.9	74.1	72.2	70.3	72.2
강화	67.2	64.0	64.2	64.3	69.5	76.7	83.5	81.8	76.5	71.9	69.9	69.8	71.6
이천	67.5	64.8	62.6	60.7	64.9	71.4	79.3	78.8	76.0	72.0	70.8	70.1	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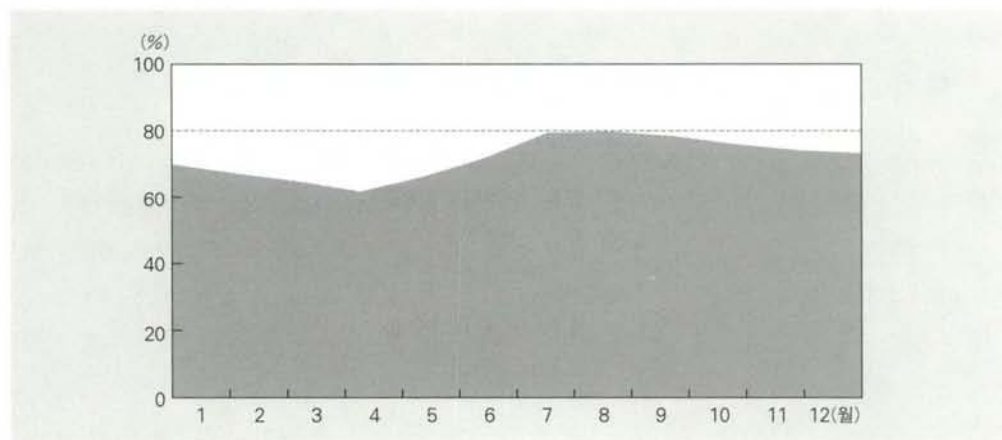


그림 11. 양평군의 월별 평균 상대습도(1992~2001)

월별 상대습도를 살펴보면, 강수량이 가장 많은 달인 7월과 8월이 79.4%와 7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봄철인 3, 4, 5월이 64.2, 64.3, 69.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양평군의 경우 상대습도의 최고값과 최저값은 강수량과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시

14) Lutgens, F.K. and Tarbuck, E.J., 1992(5th edition), *The Atmosphere*, Prentice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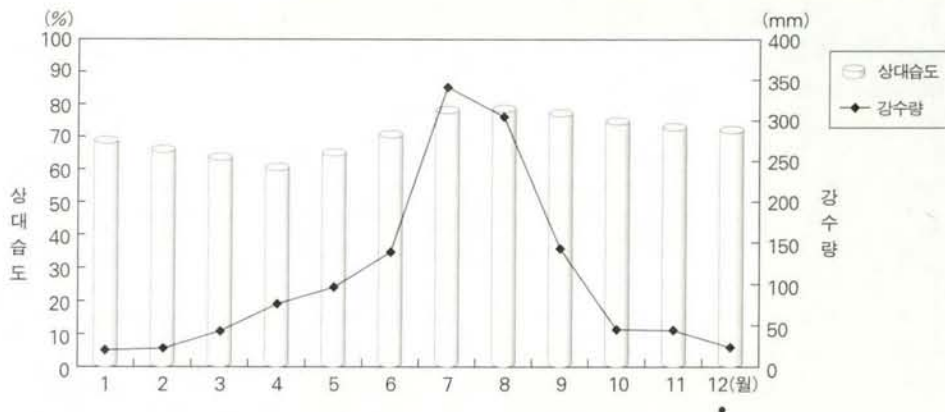


그림 12. 양평군의 월별 평균 강수량과 상대습도의 관계(1992~2001)

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수량이 가장 적은 11~1월의 상대습도가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3~5월보다 높은 것은 혹독한 겨울의 기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12는 양평군의 월별 평균 강수량과 상대습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4. 일조시간

일조시간은 특정지역에 태양광선이 직접적으로 내리쬘는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조시간의 장단(長短)은 천기일수 및 강수일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양평군의 경우 지난 10년간 연간 평균 일조시간은 2,368시간으로 연간 밤을 제외한 낮 시간의 55.6% 동안 태양광선의 영향을 직접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 그림 13).¹⁵⁾

월별 일조시간을 살펴보면, 3~5월의 봄철이 가장 많은 시간을 기록했고, 11~2월 사이가 가장 짧은 시간을 기록했다. 또한 7·8월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짧은 일조시간을 나타냈다. 이러한 월별 일조시간의 변이는 양평군의 강수량 및 천기일수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다. 즉, 양평군의 경우 겨울철에 흐린 날씨가 많았던 관계로 겨울철 일조시간이 짧게 나타났고,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고 맑은 날이 많은 봄철의 일조시간이 길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7·8월의 일조시간이 짧은 것은 많은 강수일자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경기도의 다른 지역과 평균 일조시간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강화군과 이천시 다음으로 많은 일조시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변이가 크지 않고 다

15) 하루의 평균 낮 시간을 12시간으로 보고 $2,368(\text{시간}) / [12(\text{시간}) \times 365(\text{일})] = 55.6(\%)$ 로 계산하였다.

표 7. 월별 평균 일조시간(1992~2001)

(단위 : hr)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양평	172.5	181.2	213.6	227.1	244.8	223.6	187.3	203.0	202.0	199.8	155.6	158.1	2,368
인천	175.6	179.5	208.3	219.2	240.0	206.2	166.1	195.0	206.0	209.8	166.3	165.6	2,237
수원	166.1	170.8	204.5	218.6	233.1	199.4	156.4	174.0	192.0	199.9	157.7	157.6	2,230
강화	179.2	190.2	226.4	237.9	256.7	231.2	190.7	212.0	225.0	220.6	170.6	162.6	2,504
이천	190.2	196.7	231.3	244.0	263.9	241.6	204.4	217.0	215.0	221.6	173.7	177.3	2,5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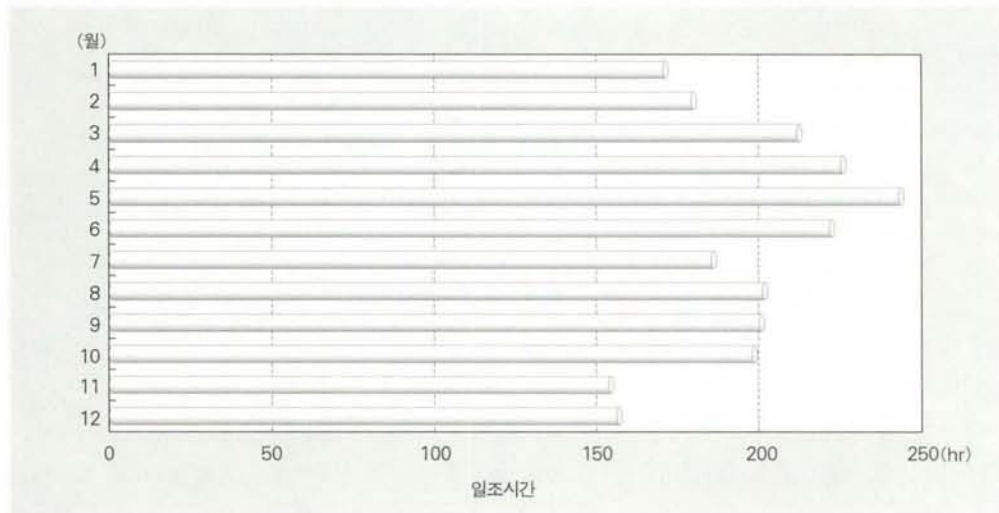


그림 13. 양평군의 월별 평균 일조시간(1992~2001)

른 기후인자와 상관관계 정립의 일반화가 어렵기 때문에 지역적인 차이에 대한 해석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수분수지*

우리는 해마다 기후현상과 관련한 문제에 직면하고 살고 있으며, 이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바로 물과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기후현상의 지역적 특성에 맞추어 특정지역에서 필요한 물을 제때에 공급하고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속에서 효과적으로 물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수자원 관리라는 차원을 넘어서, 한 지역의 생활 및 제반 경제·사회·문화를 좌우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다.¹⁶⁾

수문학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특정지역의 물 사정이라는 것은 물의 공급과 저장, 그리고 소

비의 관계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화·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인간에 의한 물 사용이 급증한다는 것은 인위적인 물 소비가 증가하고, 동시에 수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14).¹⁷⁾ 그러나 같은 정도의 물 사용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수문학적으로 물 사정이 양호한 지역은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자원 관리가 수월하게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강수량, 증발산, 저장 및 수분잉여의 관계로 표현되는 수분수지는 특정지역의 잠재적인 물 사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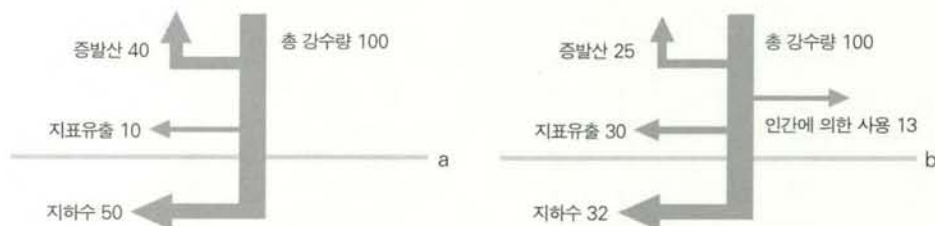


그림 14. 수문순환의 원리(a : 자연상태, b : 도시화에 따른 변형)

손스웨이트(Thornthwaite, C.W)에 의하여 창안된 수분수지 기후학(water budget climatology)은 특정지역의 위도·강수량·기온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해서 지역의 수문환경(水文環境, hydrologic environment)을 파악해내는 것인데, 각 지역환경의 특수성이나 입력자료의 한계 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¹⁹⁾ 이에 본 집필에서는 수분수지 분석을 통하여 양평군의 잠재적인 물 사정을 살펴보았다.

* 수분수지(water budget) : 수분수지는 말 그대로 물의 수입과 지출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0만 원의 수입을 얻고 80만 원의 지출을 한다면 20만 원의 금액이 남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지역에 200mm의 비가 오고 150mm의 증발이 일어난다면 그 지역에는 50mm의 잉여수분이 남게 되어 실질적인 수자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수량 중에 토양에 저장된 물은 잉여수분이 마이너스(돈으로 치면 적자)가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여유수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분수지에 대한 분석은 그 지역의 물 사정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다.

16) 유엔은 전 세계 각국의 물 사정을 크게 물 기근 국가군, 물 부족 국가군, 물 풍요 국가군으로 삼분하였다. 이에 의하면 물 기근 국가군에는 지부티·쿠웨이트·몰타·바레인·바베이도스·싱가포르·사우디 아라비아·요르단·에멘·이스라엘·튀니지·케냐·알제리·소말리아 등이 포함되며, 물 부족 국가군에는 리비아·모로코·이집트·오만·남아프리카·한국·폴란드·벨기에·하이티가 포함되고, 물 풍요 국가군에는 미국·영국·일본 등 119개국이 포함된다.

17) Atkins, P.C., 1998, *Hydrology and the Management of Watershed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8) Haughton, G. and Hunter, C., 1994, *Sustainable Cities*, Regional Studies Association.

19) Mather, J.R., 1997, "Water budget climatology", Hanson, S(eds), *Ten Geographic Ideas That Changed the World*, Rutgers University Press.

표 8. 양평군의 수분수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기온(℃)	-4.9	-1.9	4.2	11.2	16.7	21.4	24.5	24.6	19.0	12.0	4.7	-1.9	10.8
잠재증발산량(mm)	0	0	12	46	82	113	125	125	86	46	12	0	647
강수량(mm)	20.3	22.4	43.5	76.4	96.5	138.7	341.8	305.0	143.0	45.4	44.3	23.6	1,301
잠재적 수분손실량(mm)	0	0	0	0	0	0	0	0	0	-0.6	0	0	
저장량(m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저장량 변화(mm)	0	0	0	0	0	0	0	0	0	0	0	0	
실재증발산량(mm)	0	0	12	46	82	113	125	125	86	46	12	0	647
수분부족(mm)	0	0	0	0	0	0	0	0	0	0	0	0	0
수분잉여(mm)	20.3	22.4	31.5	30.4	14.5	27.7	216.8	180.0	57.0	0	32.3	23.6	6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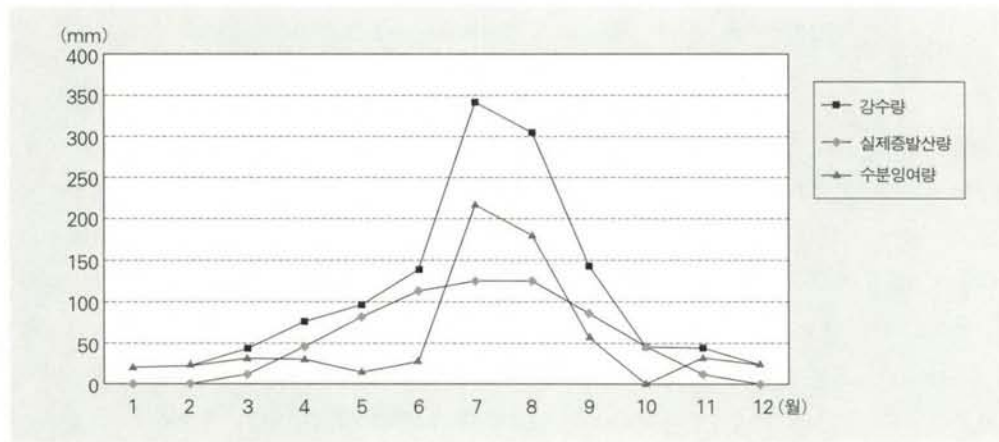


그림 15. 양평군의 수분수지

양평군의 경우 지난 10년간 연간 총 강수량은 1,301mm, 실제증발산량은 647mm로 연간 수분잉여량은 656.5mm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8, 그림 15). 그리고 강수량이 잠재증발산량보다 적은 달은 10월로 나타났지만, 그 양이 매우 미약하여 수분결핍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수분수지 분석을 통하여 도출한 양평군의 물 사정을 수분잉여량으로 판단할 경우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²⁰⁾

특히 위의 표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분수지 기후학에 의하면 평균기온이 -1℃ 이하

20) 수도권에서 물 사정이 좋은 곳으로 평가되는 서울시 양천구의 수분잉여량이 562.0mm, 경기도 구리시의 수분잉여량이 566.6mm, 양평군에 비해서 강수량이 많은 전라남도 8개 시·군 지역의 평균 수분잉여량이 597.6mm라는 점을 감안하면, 양평군의 물 사정은 매우 좋다고 할 수 있다.

구리시지 편찬위원회, 1997, 『구리시지(상) : 역사와 문화유산』, 구리시

양천구지 편찬위원회, 1998, 『양천구지 : 역사 속의 양천』, 양천구

박의준·이정록, 2001, 「수분수지 분석을 통한 호남지역의 잠재적 물 사정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3), 44~58쪽.

인 기간중의 강설은 지표에 결빙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를 토양내 저장량으로 고려한다.²¹⁾ 이에 따라 양평군의 수분잉여량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차후의 토양 및 녹지공간의 공간적 분포와 연계하여 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제4절 지형경관

한 지역을 이루고 있는 지형(地形, landform)은 단순한 땅의 형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인간의 실질적인 생활이 이루어지는 무대이자 장이다. 따라서 지리학에서는 단순한 지형의 분포 및 형성과정에 대한 분석 이외에 그 지형을 인간이 어떻게 이용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발현하는가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형은 하나의 경관이다. 지형경관은 인간을 둘러싼 물리적·문화적 삶의 조건들이 한곳에 모여 있는 하나의 생태계적 단위로서 특정 장소에서 작용하는 모든 요인들에 의해 형성되는 개방시스템이다. 따라서 상호 연관된 지표단위들의 수평적 패턴과 토지속성(land attribute)의 수직적 층위로 구성되는 3차원적 공간현상으로 정리할 수 있다.²²⁾ 이에 본 절에서는 양평군의 자연환경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지형단위를 분류하고 각각의 지형단위의 형성과정 및 분포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 산 지

우리 나라의 산은 형태상으로 볼 때, 토산(흙산), 석산(돌산), 야산(野山)으로 구분하여 부

* 도시화에 따른 물 사정의 변화 : 도시화가 진행된다는 의미를 토지피복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불투수성 토지피복이 증가한다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그림 14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화가 진행되면 지표유출은 증가하고 토양으로의 수분흡수는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양의 수분수지를 기록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자연적인 토지피복을 갖고 있는 지역에 비해서 실질적인 물 사정이 나빠지게 된다. 이에 특정지역의 물 사정에 대한 올바른 고찰을 위해서는 그 지역의 토지피복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양평군의 토지피복에 대해서는 제5절에서 다루었다.

21) Thornthwaite, C.W. and Mather, J.R., 1957, *Instruction and Tables for Computing Potential Evapotranspiration and Water Balance*, Centerton.

22) Forman, Richard.T.T. and Godron, M., 1990, *Landscape Ecology*, John Wiley & Sons.

23) 김상호, 1997, 『한국의 자연과 인간』, 우리교육.

르기도 한다.²³⁾ 이러한 구분은 산지지형(mountainous landform)의 침식과 삭박(削剝, denudation)이라는 측면을 주로 고려한 것으로서 풍화, 침식, 토양화 정도, 기반암의 잔류와 경연(硬軟)의 정도를 지칭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기반암의 종류, 습곡과 단층 등의 지각운동의 영향이 기초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²⁴⁾

양평군의 대부분을 이루는 산지는 태백산맥의 철령(鐵嶺) 부근에서 갈라져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뻗어 있는 광주산맥의 서남부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양평군의 산지지형은 지질적 특징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편마암류로 구성된 토산지형이 대지형을 이루면서 토산지형 곳곳에 편마암을 관입하여 노출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석산지형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여기서는 양평군의 산지지형을 이루고 있는 토산 및 석산지형의 형성과정 및 특징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아울러, 양평군에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산지지형에 대한 세부적인 기술을 하였다.

1) 토산지형

토산은 토양층이 잘 발달해 있는 산지이다. 따라서 기반암의 노출이 거의 없고 식생이 잘 발달해 있어 울창한 숲을 이룬다. 그리고 산의 기복은 완만하거나 부드러운 형태를 취해, 날카로운 산봉우리와 급경사 중심으로 능선이 이루어지고 표면이 거친 사면을 지닌 석산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우리 나라 토산의 대표적인 예로는 강원도의 오대산과 태백산, 전라북도의 덕유산과 지리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른바 고위평탄면이라고 지칭되는 지형들도 이러한 토산의 형태를 취한다.²⁵⁾

토산의 대부분은 편마암이 기반암을 이룰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편마암은 절리의 밀도가 높아 쉽게 풍화되는 경향이 있으나 광물입자의 배열이 편리(片理, schistosity)*를 따라 수평 방향성을 보이므로 수직방향으로 수분침투가 용이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편마암은 기반암 자체가 깊게 풍화되지 않고 기반암의 겉 표면이 얇게 풍화되어 깎여 나가는 표층풍화(表層風化)가 활발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편마암의 풍화 성향 때문에 편마암 산지는 산지 전사면에 일정한 두께의 토양층이 발달한다.²⁶⁾ 이와 같은 이유로 말미암아 토산의 지표면은 식생의 밀도와 영속성을 높여 피복물의 안정을 가져오기도 한다.

양평군의 대표적인 산지지형인 용문산은 편마암 복합체로 이루어진 고도 1,000m 내외의 높은 산지지형으로, 깊은 풍화토가 발달하여 토양층이 잘 발달되어 있다(그림 16). 이 지역

* 암석의 편리와 편마암의 관계 : 납작한 조각 모양의 암석이 가진 성질로서 박편(薄片) 또는 얇은 렌즈와 같이 부서지기 쉬운 구조를 말하며 이와 같이 부서진 면을 편리면이라고 한다. 이것은 운모와 같은 판상의 광물 벽개면(壁開面)이 평행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형성된다. 편리가 발달한 암석의 대표적인 것은 결정편마암이나 천매암이다. 그리고 변성암의 입자가 크면 그 암석의 평행구조를 편마구조라고 하며, 이런 변성암을 편마암(gnesiss)이라고 한다.

24) Tricart, F.C., 1978, *Structural Geomorphology*, George Allen & Unwin.

25) 강성열, 2000, 『지리로 보는 지리산』, 향지사.

26) 오경섭, 1989, 「화강암 풍화층의 점토조성과 풍화환경」, 『지리학』 40, 1~1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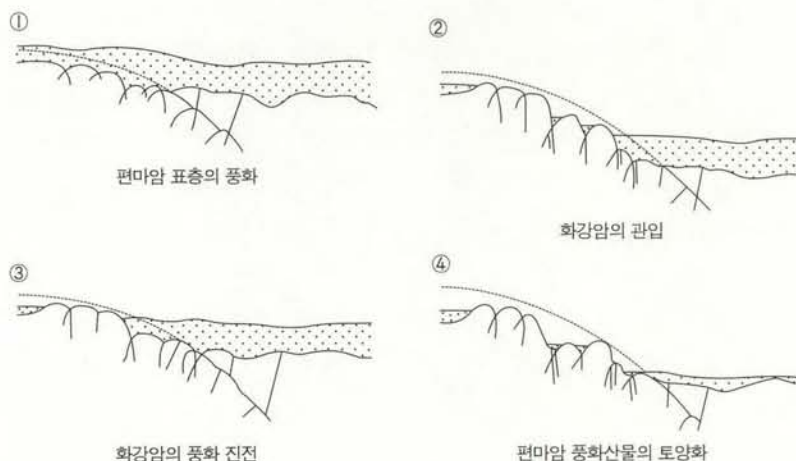


그림 16. 편마암·화강암 복합 지역의 지형 형성 모식도

은 중생대 쥐라기에 편마암 지역을 대보화강암이 관입한 이후, 중생대와 신생대 제3기의 온난습윤한 기후에서 오랜 기간 심층풍화작용을 받았다. 이때 형성된 풍화토는 편마암의 암석학적 특징상 잘 제거되지 않고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제자리에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용문산에는 폭신한 느낌의 토양층이 산지 전역에 걸쳐 잘 발달되어 있고, 이러한 토양층을 기반으로 서식하는 식생이 높은 밀도로 분포하여 수도권 일대 인구의 휴양지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용문산 이외에 양평군의 대표적인 토산지형으로는 청운면 성지봉(聖地峰)과 갈기산(葛基山), 옥천면 중원산(中元山) 등이 있다.²⁷⁾

2) 석산지형

석산은 산꼭대기가 거대한 암반으로 드러나 있거나, 기암괴석을 이룬 큰 바위가 있는 산을 말한다. 이러한 석산의 모양은 지각의 융기와 더불어 산의 표면을 덮고 있던 풍화산물이 빠르게 침식·제거되어 벗겨져 나가고, 기반암인 화강암이 노출되어 형성된 것이다. 화강암은 마그마가 지하 깊은 곳에서 굳어진 암석으로 땅 속에서 풍화를 받기 전이나 풍화작용을 덜 받은 신선한 면이 지표에 드러나면 비교적 강하게 존재하여 다양한 암석지형 경관을 나타낸다. 그리고 사면의 형태는 기반암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거칠고, 토양층의 발달이 미약하

27) 그러나 이와 같이 편마암류로 주로 구성된 지형이라고 하더라도, 중생대 쥐라기에 관입한 대보화강암 계열의 암석은 풍화에 강한 관계로 산지 정상부 및 산간계곡에 산재하여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용문산과 중원산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성인으로 잔류하고 있는 화강암 계열의 암석을 기반으로 하는 계곡 및 폭포 지형이 나타나, 양평군의 중요한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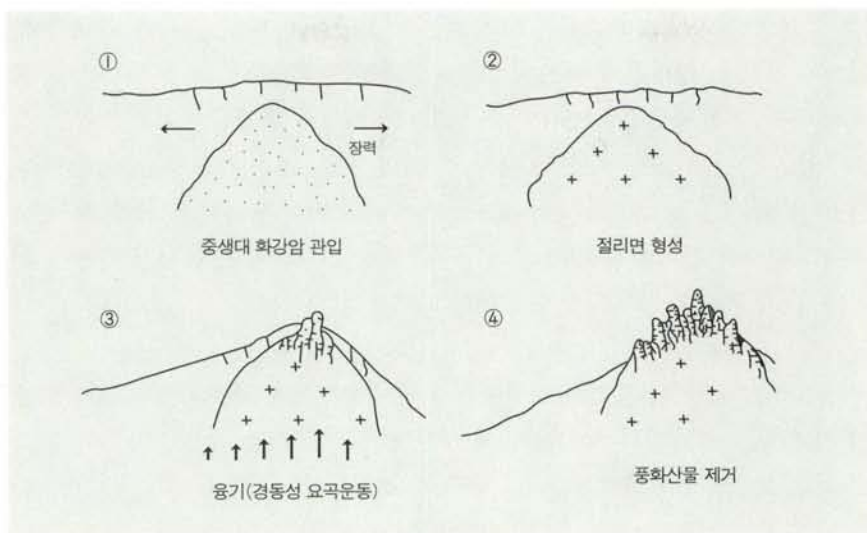


그림 17. 화강암 지형에서 나타나는 석산과 풍화지형의 발달 모식도

여 전반적으로 식생의 밀도가 낮게 나타난다.²⁸⁾

이와 같은 석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화강암 자체의 풍화양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화강암이 땅 속에 묻혀 있어 수분접촉이 계속되면 깊고 넓게 풍화가 되는 과정이다. 화강암은 물리·화학적으로 강한 암석이기 때문에 쉽게 풍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석영·운모·장석 등의 입자들이 불규칙하게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풍화가 시작되어 입자와 입자 사이의 공극이 늘어나면, 수분 침투가 용이해서 어느 암석보다도 깊이 풍화되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화강암이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풍화산물이나 흙으로 덮여 있게 되면 두꺼운 풍화층으로 발달하여 결국에는 넓은 침식분지로 발달한다.²⁹⁾

또 다른 하나는 화강암의 절리(節理, joint)*가 미약한 지역에서는 풍화속도가 매우 느려 커다란 바위로 된 산지를 이루게 되는 과정이다(그림 17). 화강암은 지표에 노출되면서 화강암을 덮고 있던 지각이 제거되어 하중이 없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암석표면이 팽창되고 절리가 발달한다. 이러한 절리가 수분을 쉽게 침투시키고, 기후변화에 의해 동결융해(凍結融解)가 반복되면서 암석의 틈새를 넓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생성된 암설(巖屑)이나 암괴(巖塊)는 매스무브먼트(mass movement)에 의해 사면을 따라 낮은 골짜기로 이동된다. 이 결

* 절리(joint) : 마그마나 용암이 고결할 때에는 수축이 일어나므로, 그 중에 틈이 생기게 된다. 신선암 암석에서는 이들 틈이 잘 보이지 않으나, 풍화를 받으면 틈에 따라 풍화가 먼저 진행되므로 오랜 시일이 지나면 굵은 틈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틈이나 균열(fracture)을 절리(joint)라고 한다. 이러한 절리는 암석의 기계적 풍화작용을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이 후의 화학적 풍화작용을 진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한다.

28) Ruxton, R.V., 1976, *Granite Landforms*, John Wiley & Sons.

29) Thomas, M.F., 1974, *Tropical Geomorphology*, John Wiley & Sons.

과 산 정상 부분은 계속해서 암설이 떨어져 나와 급사면을 이루고, 급사면 아래에서는 퇴적과 이동이 이루어지며, 골짜기 부분은 암설이나 암괴가 퇴적된다.³⁰⁾

편마암 산지가 주를 이루는 양평군 산지지형 가운데에서 화강암으로 대표되는 석산지형 및 풍화지형이 나타나는 곳은 용문산의 남사면 계곡 지형, 청운면 도원리(桃源里) 일대, 양동면의 석곡리(石谷里) 일대이다.³¹⁾ 이 지역에는 바위가 많이 드러나 있으며, 토양층이 얇아 식생의 발달이 미약한 편이다. 따라서 골짜기 부분에는 화강암이 깊고 넓게 침층풍화된 풍화층이 나타나고, 계곡과 봉우리 정상 부근에는 기암괴석(奇岩怪石)으로 대표되는 지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지역은 바로 양평군의 중심지역인 양평읍이다. 양평읍은 호상편마암을 관입한 시대 미상의 양평화서복합체가 침층풍화된 후 하천에 의하여 풍화산물이 제거되어 형성된 대표적인 화강암 침식분지이다. 이곳은 화강암의 풍화정도가 매우 심하여 암석지형은 거의 보이지 않고 구릉성 산지로 대표되는 풍화지형만이 나타난다.

3) 양평군의 주요 산지지형

양평군에는 크고 작은 규모의 산지지형이 군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다. 이는 앞서 살핀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편마암류를 기반으로 하는 지형인데, 편마암 산지 곳곳에 다양한 형태의 화강암 및 화성암복합체를 기반으로 하는 소지형들이 나타난다.

(1) 용문산 북사면

용문산 일대의 북사면은 약 22° 경사에 직선상의 사면형태를 띠면서 골짜기까지 이어진다. 산사면에는 일정 두께의 부엽물질과 함께 0.2~1m 두께의 토양층이 잘 발달되어 있어, 골짜기를 제외하고는 노출된 암괴를 거의 발견할 수 없는 토산을 이루고 있다(사진 5). 그리고 토양층은 미립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 함유율이 뛰어나 무성한 수목지대를 형성하고 있다(사진 6).³²⁾

30) Washburn, A.L., 1980, *Geocryology : A Survey of Periglacial Processes and Environments*, John Wiley and Sons.

31) 우리가 흔히 산지지형을 구분할 때, 토산과 석산을 명확한 이분법적 사고로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형을 이루고 있는 지질적 특성으로 볼 때에 편마암과 화강암이 혼재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한 지형이라도 토산과 석산지형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양평군도 예외가 아니어서, 용문산의 경우 전체적인 지세는 호상편마암을 중심으로 하는 토산지형이지만, 이러한 호상편마암을 관입한 화강암 지형이 곳곳에 산재하여 있는 바, 두 유형의 지형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32) 용문산의 풍화도는 화학적 풍화작용을 강하게 받은 결과, 토색이 마치 남부지방의 적색토를 연상시킨다. 이를 지형학에서는 현재의 기후가 아닌 과거 열대성 기후 환경에서 형성된 토양으로 간주하여 고토양(古土壤, paleosol)이라고 한다. 강영복, 1973, 「화강편마암에 발달한 적색토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1, 64~92쪽.



사진 5. 용문산 북사면의 편마암 풍화토, 토색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의 토양은 현재의 기후보다 온난습윤한 환경에서 화학적 풍화작용을 활발히 받은 결과 형성된 토양이다



사진 6. 용문산 토양층에 발달되어 있는 식생군락. 사진의 식생은 용문산 중턱에 서식하는 것으로 대부분 2차림으로 구성된 6등급 식생이다. 식생의 천이과정을 보여주는 초지와 수목이 동시에 나타난다

(2) 청운면 성지봉과 갈기산

청운면의 성지봉과 갈기산 일대는 산 정상에서 골짜기까지 비교적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산지 사면은 넓고 평탄하게 발달해 있으며, 암설(岩屑)의 크기가 작고 분포면적도 협소하다. 용문산 지형과 마찬가지로 풍화산물인 암설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토양층의 발달이 잘 나타난다(사진 7). 그러나 용문산 지역과는 달리 토색은 우리 나라 중부지방의 전형적인 토색인 갈색을 띠고 있어 국지적인 환경에서도 과거의 풍화환경이 달랐음을 보여주고 있다.³³⁾

33) 강영복, 1977, 「계양산 산록면에 발달한 토양단면 특성에 관한 연구」, 『지리학』 15, 17~26쪽.



사진 7. 성지봉 사면의 토양층 사이에 산재하고 있는 소규모 암설



사진 8. 중원산 지역 계곡에 발달한 포트홀 지형. 포트홀은 산간계곡에 나타나는 지형으로, 하천의 하상하중 가운데 크기가 크고 단단한 암석이 하상을 마식작용으로 침식해 나타나는 지형으로, 중원산과 같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거대한 폭포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3) 옥천면 중원산

중원산 일대의 사면과 능선에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이 썩어서 된 부엽토양층(腐葉土壤層)이 넓게 발달되어 있어 바위를 쉽게 관찰할 수 없지만, 정상부에는 구조 운동과 관련된 단애(斷崖)가 나타나기도 한다.³⁴⁾ 사면의 형태는 지극히 넓고 평평하며, 직선 형태로 곧게 뻗어 산 정상에서 골짜기까지 연결되어 있다. 사면 전체에 걸쳐 30cm 이상 토양층이 덮여 있어

34) 중원산의 단애지형은 하침에 의한 하상단애라기보다는 구조운동의 결과 나타난 구조단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사진 9. 용문산 남사면 계곡에 발달한 새프롤라이트 지형. 아직 풍화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아 겉으로는 암석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단면의 색을 보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소나무, 참나무 등의 식생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 지역도 용문산 지역과 마찬가지로 계곡 말단부에는 편마암을 관입한 화강암류로 이루어진 폭포지형이 나타나 중요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사진 8).

(4) 용문산 남사면 계곡

용문산의 남사면 계곡에는 화강암 풍화지형이 발달되어 있다. 이 일대는 화강암이 풍화되어 암석의 형태는 유지하지만 푸석푸석해서 손으로도 쉽게 부술 수 있는 이른바 '새프롤라이트(saprolite, 썩은돌)'가 잘 나타난다(사진 9). 이러한 화강암 풍화층은 흔히 마사토(磨砂土)라고 칭하는데, 이는 화강암에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약 60~70%) 장석이 먼저 풍화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³⁵⁾

(5) 청운면 도원리의 성재동 일대

청운면 도원리 성재동 일대에는 주변의 산지에 비해서 기암 절벽·토르(tor)·핵석·암괴원(block field) 등의 지형요소가 더 쉽게 관찰된다. 이 지역은 풍화 및 침식에 의해 산 정상 부위를 덮고 있던 토양층이 제거되어 기반암이 노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사진 10). 이 지역의 계곡 일대에는 암설 사면이 발달해 있다. 암설의 크기는 편마암 지역에 비해서 크고 식생의 밀도가 낮게 나타나며 암석의 강도는 매우 단단하다. 이 지역의 능선부에는 완전히 풍화된 새프롤라이트 내에 구상풍화의 결과 나타나는 핵석이 잘 발달해 있다(사진 11).

35) Thomas, M.F., 1974, *Tropical Geomorphology*, John Wiley & Sons.



사진 10. 청운면 도원리 일대의 암반 노출지형



사진 11. 청운면 도원리 화강암 지역의 해석

또한 화강암 풍화산물인 새프롤라이트에는 검붉은 색의 띠 모양이 보이는데, 이것은 화강암의 절리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화강암이 화학적 풍화를 받으면 암석을 구성하고 있던 이온들이 유리(遊離)되어 나온다. 이들 이온들의 일부는 공극 내에 남아 있기도 하지만, 일부는 토양수를 따라 용탈된다. 이때 토양수에 용해되어 운반되던 이온들과 점토들이 절리면에 쌓이고 이 속의 철분이 산화되어 검붉은 색을 띠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붉은 색의 집적대를 Bt 밴드(band)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지형은 주빙하 기후환경(periglacial environment)에서 잘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³⁶⁾



사진 12. 양동면 석곡리의 새프롤라이트에 나타나는 Bt 밴드. Bt 밴드는 토양단면 중 표층에서 용탈 및 세탈된 영양염류가 집적된 B층에 발달한 점토층을 가리키는 말이다

(6) 양동면 석곡리 일대

양동면 석곡리 일대 지형은 화학적 풍화작용으로 만들어진 지형들이 나타난다. 절리를 따라 쪼개진 모서리 부분은 특히 화학적 풍화작용을 많이 받아 옅은 적색을 띠는 새프롤라이트가 형성되어 있으며, 앞서 청운면 도원리와 마찬가지로 새프롤라이트 내에 얇은 Bt 밴드가 나타난다(사진 12). 이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풍화산물에는 절리면을 따라 염풍화(鹽風化, salt weathering) 작용과 입상붕괴(粒狀崩壞) 작용이 더해져 형성된 그루브(groove)와 나마(gnamma), 풍화혈(風化穴, weathering pit)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비가 오면 암반의 완만한 곳에 물이 고이고, 빗물 속에 녹아 있는 이온들이 암석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광물 속의 금속 이온들을 용해시킨다. 이러한 작용을 통하여 화학적 풍화에 약한 장석류가 먼저 풍화되어 2차 점토광물로 부서지고 풍화에 강한 석영은 입자상태로 떨어진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암반의 윗 부분에 가마솥과 같은 모양의 풍화혈이 만들어진다.³⁷⁾

2. 산간분지

산간분지는 산지와 산지 사이에 암석의 경연차, 풍화산물의 운반 및 퇴적, 구조적인 성인에 따라 형성된 지형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일찍이 산간분지는 산지지역 중 인간의 취락 및

36) 권순식, 1987, 『한반도 화강암 풍화층에 발달된 제4기 후반의 주빙하 결빙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경, 1987, 『천리포 사구내의 적황색 퇴적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경섭, 1989, 「화강암 풍화층의 점토조성과 풍화환경」, 『지리학』 40, 1~15쪽.

37) 장호, 1983, 「남서부 지방의 제 암석에 나타나는 풍화혈의 성인과 형성시기」, 『지리학논총』 10, 35~32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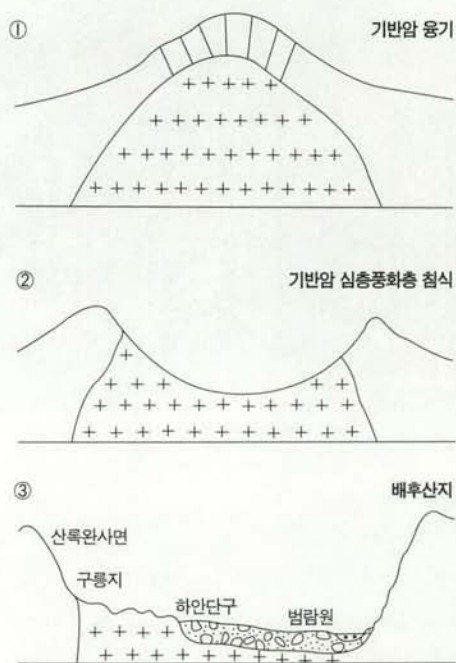


그림 18. 침식분지 지형의 발달과정 및 단면도

농업입지 지역으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지형으로, 전통 지형학에서만 아니라 취락지리학 및 농업지리학에서도 중요한 지형으로 간주되고 있다.³⁸⁾

일반적으로 산간분지는 침식분지와 퇴적분지로 이분되며, 우리 나라 중부지역의 안정지괴에 형성된 산간분지는 대부분 침식분지로 알려져 있다.³⁹⁾ 이러한 침식분지를 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주변이 거의 완전히 산지로 둘러싸이고 오직 좁은 골짜기를 통해서만 외부지역과 연결되는 폐쇄형 분지와 대체로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나 한두 방향 쪽으로는 기복이 완만한 침식평지나 충적평야에 연속되는 개방형 분지로 나눌 수 있다.⁴⁰⁾ 폐쇄형 분지는 대체로 하천의 상류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방형 분지는 비교적 규모가 큰 하천 연안에 발달되어 있는 것

38) 산간분지는 산지지형과 연속선상에 위치하는 지형이기 때문에, 산지지형을 다룰 때 동시에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집필에서 산지지형은 산지 자체의 지형을 의미하고, 산간분지는 산지와 산지의 상관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지형이라는 측면에서 산간분지를 독립된 절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는 1999년부터 환경부에서 시행하여 온 『전국자연환경조사 : 지형경관분야』의 분류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환경부, 2002, 『제2차 전국 자연환경조사 지침 : 지형·경관분야』.

39) 손명원, 2000, 『우리나라 침식분지의 경관 : 구릉지의 토지이용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리지리학회지』 6(2), 83~96쪽.

이 일반적이다.

침식분지의 종단면을 살펴보면, 대체로 2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지를 둘러싼 고산지의 산록에는 완사면(piedmont)이 발달되어 있고, 분지의 중앙부나 하천 연안에는 침식평지 또는 충적지가 분포한다. 즉, 분지를 둘러싼 산지 밑에는 완사면 형태의 계단상의 지형이 나타나고, 그보다 낮은 고도에는 평지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산록완사면에는 개석곡지가 많이 나타난다(그림 18). 폐쇄형 분지는 하천의 최상류부에 발달한 소규모의 분지이므로 분지 내를 흐르는 하천은 대부분이 저차수의 작은 하천이고 분지 내에는 충적지의 발달이 미약하다. 폐쇄형 분지는 유역면적이 협소하며, 기반암이 심층풍화되어 있는 형태를 많이 띤다.⁴¹⁾

양평군은 전체적으로 산지 지형이 주를 이루는 지세여서, 지역 곳곳에 크고 작은 침식분지가 널리 분포하고 있다. 특히 산간곡지를 따라 흘러내리는 저차수 하천의 발달이 매우 활발해서, 산간곡지에는 다양한 규모의 침식분지 및 이와 관련된 지형들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침식분지와 관련된 지형으로는 침식분지와 배후산지를 연결하는 구릉지와 산록완사면, 배후산지의 절리면을 따라 흘러내리는 소하천에 의해 형성된 개석곡지를 예로 들 수 있다. 양평군의 대표적인 산간분지로는 용문면 신점리(新店里), 청운면 가현리(可峴里)와 같은리(葛雲里), 양동면 쌍학리(雙鶴里), 양서면 목왕리(木旺里), 강하면 성덕리(聖德里), 지제면 수곡리(水谷里)와 옥현리(玉峴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 용문면 신점리 침식분지

용문면 신점리 남부에는 호상편마암의 풍화층으로 이루어진 침식분지가 발달하여 있다. 전체적인 고도는 150~200m이며, 주변의 산지로부터 저차수 하천이 흘러 들어온다. 신점리 침식분지는 주변의 450~500m 산지의 급경사지와 하천에 의해 발달한 개석곡지, 개석곡지와 분지를 연결하는 구릉지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19). 이 구릉지는 심층풍화를 받은 풍화층이 주변산지로부터 흘러내리는 저차수 하천에 의하여 제거되어 형성된 산간곡지의 산록완사면 지형으로 소규모 폐쇄형 분지에 속한다.⁴²⁾ 따라서 침식분지에 발달한 취락 주변에는 심층풍화된 노두(露頭, outcrop)가 곳곳에 나타난다(사진 13).

2) 청운면 가현리와 같은리 침식분지

청운면 가현리 북서부와 같은리 남부에는 양평군 중북부를 관통하는 흑천(黑川)의 양안에 발달한 침식분지가 나타난다. 전체적인 고도는 50~100m로서 중앙부의 흑천을 중심으로 주변

40) 김상호, 1966, 『한강하류의 저위침식면 지형연구』, 서울대학교 학술총서(2), 1~97쪽.

41) 장재훈, 1989, 「한국의 촌락입지에 관한 지형학적 연구」, 『용·용지리』 13, 141~157쪽.

42) 장재훈, 1966, 「산록완사면 지형에 대한 연구」, 『지리학』 2, 14~26쪽.

장재훈, 1976, 「산록완사면의 형상적 특징과 성인연구」, 『성신여사대논문집』 9, 296~29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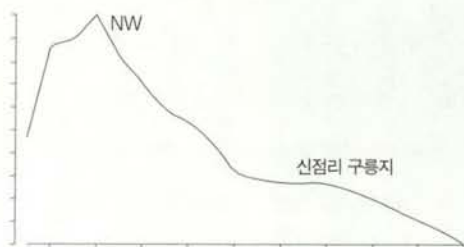


그림 19. 신점리 침식분지의 횡단면도



사진 13. 신점리 침식분지 주변에 나타나는 심층풍화층 노두. 이와 같은 기반암의 심층풍화층 노두는 침식분지의 사면에 나타나며, 노두의 정상부에는 대부분 토양층이 발달하여 농경지로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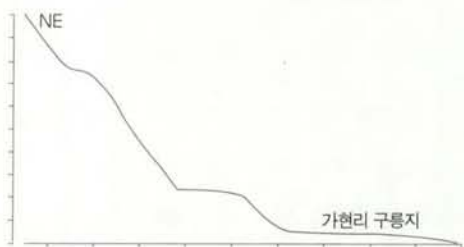


그림 20. 가현리 침식분지의 횡단면도



사진 14. 가현리 침식분지 저위에 발달한 충적지

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에서 발원한 저차수 하천들이 유입된다. 따라서 전체적인 지세는 동·남·북은 산지 및 하천에 의하여 형성된 개석곡지에 의하여 폐쇄되어 있고, 흑천이 흘러나가는 남쪽은 개방된 개방형 분지이다(그림 20). 주변 산지는 풍화층이 제거된 완사면의 구릉지로 연결되고 구릉지 아래에는 흑천에 의하여 형성된 소규모 충적지가 펼쳐져 있다(사진 14).

3) 양동면 쌍학리 침식분지

양동면 쌍학리 동부에는 호상편마암을 관입한 화강암 풍화층으로 둘러싸인 침식분지가 발달하여 있다. 전체적인 고도는 150~200m이며, 주변의 산지로부터 저차수 하천이 흘러 들어온다. 쌍학리 침식분지는 평탄지의 규모가 매우 협소하여 개석곡지의 성격이 강한 지형이다. 주변의 고도는 300m 정도로 다른 지역의 침식분지에 비해 주변 산지와 분지와의 고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그림 21).

따라서 이 지역의 주변 산지는 호상편마암을 관입한 화강암이 심층풍화작용을 받아서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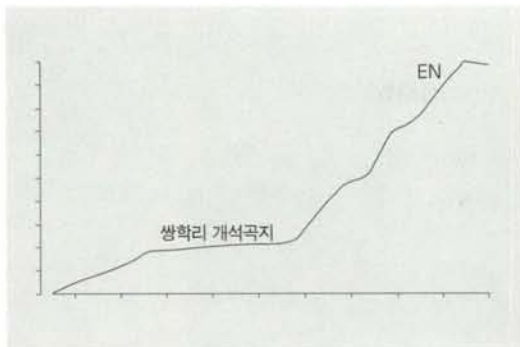


그림 21. 쌍학리 침식분지의 횡단면도



사진 15. 쌍학리 구릉지에 위치한 묘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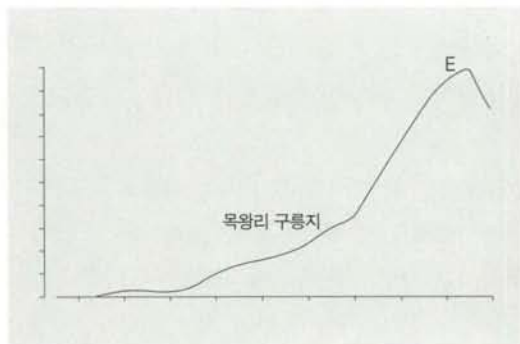


그림 22. 목왕리 침식분지의 횡단면도



사진 16. 목왕리 구릉지의 공원묘지 조성 현장

성된 구릉성 산지로 판단되어 그 성인은 풍화층이 오늘날보다 건조한 고환경(古環境, paleoenvironment)에서 평탄화된 에치플레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⁴³⁾ 특히 이곳은 조선시대 유학의 대가인 이식(李息)의 종가와 그 묘자리가 있는 곳으로 더 유명한데(사진 15), 일반적으로 화강암 풍화층으로 이루어진 구릉지는 배수가 양호하고 지하수위가 높지 않아 묘자리로 많이 이용되어 왔다.⁴⁴⁾

4) 양서면 목왕리 침식분지

양서면 목왕리 북동부에는 고도 100~150m의 구릉지가 발달하여 있다. 이 지역 역시 앞서의 쌍학리 지역과 마찬가지로 분지의 면적과 규모가 협소한 개석곡지의 성격이 강한 산간분지 지형이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천의 차수가 낮고 규모가 작아 하천의 영향이

43) 김상호, 1983, 『옥천지향사의 지형연구』, 교문사.

44) 장재훈, 1989, 「한국의 촌락입지에 관한 지형학적 연구」, 『용용지리』 13, 141~157쪽.



사진 17. 논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곡리의 개석평지 지형

상대적으로 적다. 이 지역 지형면의 기반암은 배후산지와 동일한 호상편마암으로 토양층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

특히 이 지역 동쪽에 분포하고 있는 구릉지는 풍화가 매우 진전된 편마암 풍화층으로 배수가 양호한 지역이다.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는 팔달공원묘지가 조성되고 있다(사진 16). 전체적인 지형의 단면은 경사가 비교적 급한 사면과 사면에 연속하여 나타나는 산지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22). 따라서 다른 지역의 침식분지와는 달리 취락의 발달이 미약하고, 공원묘지·식물원·위락시설과 같은 공공시설의 입지가 많이 나타난다.⁴⁵⁾

5) 지제면 수곡리와 옥현리 침식분지

지제면 수곡리 중앙부와 옥현리 남부에는 소규모 개석평지가 비교적 넓게 발달한 침식분지가 나타난다. 지제면은 양평군 가운데에서도 남부에 속하는 지역으로 여주지역과 연결되는 저위침식면 지형에 속하는 관계로 전체적인 고도는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한강 하류의 저위침식면은 한강의 지류와 한강 본류에 의해서 형성된 평지지형으로, 급격한 풍화를 받은 풍화층이 하천에 의해 대규모로 삭박되고 전체적인 고도가 해수면의 고도와 일치할 정도로 낮은 하천 배후평지가 나타나는 지형이다(사진 17). 이 지역의 배후를 이루는 산지는 비교적 풍화와 침식에 강한 화강암을 기반암으로 하고 있으며, 곡저평야를 이룬 곳은 풍화에 의해 쉽게 제거되고 침식에 의하여 삭박되는 호상편마암 계열의 기반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45) 이 지역에는 이와 같은 공공시설물의 설치 및 건설과 관련하여 도로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양평군 산지지역의 토양침식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3. 하천 및 하천지형

특정지역의 하천(stream)은 지역 주민에게 수자원을 공급하는 일차적인 원천일 뿐만 아니라, 각종 영양염류와 물질을 공급해주는 생태계의 젖줄이다. 일반적으로 하천은 산지에서 발원하여 육지로 이동하면서 그 차수가 늘어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토양 및 기반암의 침식·운반·퇴적작용을 통하여 각종 지형을 형성하는 역동적인 시스템이다.⁴⁶⁾

또한 하천은 다양한 차수의 지류 및 본류를 이루면서 하나의 유역분지(drainage basin)를 형성하고, 인간은 이 유역분지를 생활권으로 삼으면서 삶을 영위한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하천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하천 자체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하천의 차수, 하천이 이루어낸 각종 지형, 이러한 하천지형을 이용하는 인간의 행위에 따라 다양하게 공간으로 발현되는 경관에 대한 분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⁴⁷⁾ 특히 양평군과 같이 물이 풍부하고 물을 하나의 지역홍보의 테마로 활용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하천 및 하천지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1) 주요 하천

양평군 지역을 통과하는 대표적인 하천은 양평군의 서남부 경계를 이루는 한강과 양평군 중앙부를 관류하는 흑천이다. 그리고 다양한 규모의 43개 지류가 분포하고 있으며, 각각의 지류들은 산지지역에서 또다시 수많은 세류(細流)를 형성하고 있다(그림 23). 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양평군을 물과 직결시키는 사회적인 인식은 이러한 하천의 분포와도 관련이 있다(표 9). 본 집필에서는 양평군의 주요 하천에 대한 분석을 크게 한강과 양평군 중앙부를 관류하는 흑천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분석대상 설정은 기존의 『자연생태계 조사 보고서』, 『수자원 조사보고서』 등의 분류법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1) 한 강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에서 발원한 남한강과 단발령(斷髮嶺)에서 발원한 북한강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부근에서 합류한다. 남한강은 고산지대의 협곡과 내륙의 침식분지를 관류(貫流)하여 0.8~4.3m/km²의 구배를 보이는 데 비하여, 북한강은 산악지대로 이어져 0.44~1.33m/km² 하상경사를 나타낸다.⁴⁸⁾

46) 일반적으로 하천은 일정한 물길(channel)을 갖고 물의 흐름이 일어나는 지형으로 정의한다. 이는 다시 연속 지속적으로 물의 흐름이 일어나는 영구천과, 우기시에만 물의 흐름이 일어나는 간헐천(yazoo stream)으로 나누어진 다. 본 집필에서는 직할하천과 준용하천으로 지정된 영구하천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47) Leopold, A., 1964, *Fluvial Processes and Landforms*, Oxford Press.

48) 한국수자원공사, 1992, 『전국 하천조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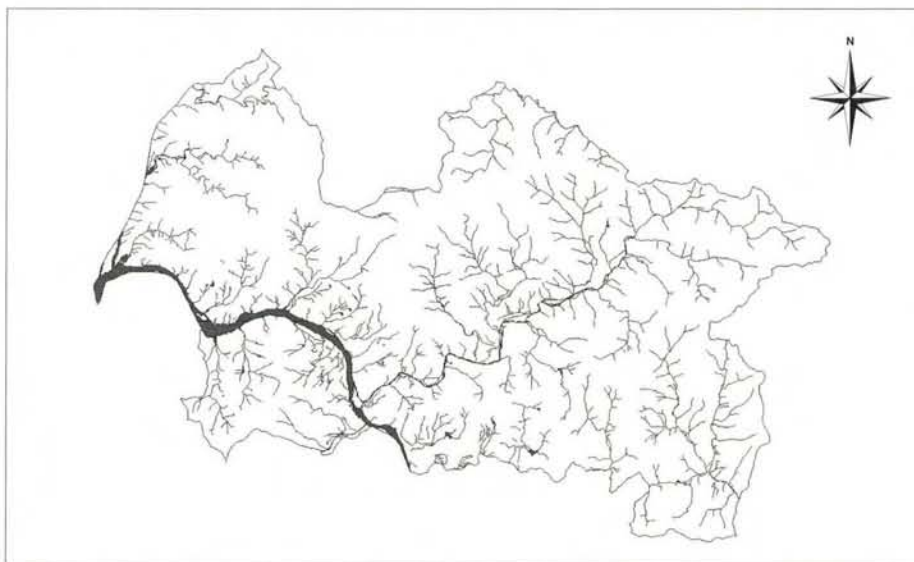


그림 23. 양평군의 하계망*도(출처 : 한국수자원공사, 1992, 『전국하천조사서』)

표 9. 양평군의 주요 하천

하천	길이(km)	하천	길이(km)	하천	길이(km)	하천	길이(km)
남한강	31.50	북포천	5.53	덕평천	4.80	서후천	7.78
북한강	14.07	신내천	4.55	신북천	4.25	벗고개천	3.11
곡수천	12.67	용담천	9.66	성덕천	3.36	월산천	1.40
산음천	8.05	향리천	5.90	향금천	6.55	삼성천	3.06
석산천	2.65	세월천	2.74	영동천	2.10	석곡천	12.80
명성천	8.25	도곡천	2.26	가정천	5.70	지평천	5.40
매월천	2.30	금당천	20.84	용두천	7.50	용문천	12.00
단석천	6.00	일신천	2.14	갈운천	4.75	중원천	4.50
계정천	7.80	양근천	3.70	덕수천	3.25	연수천	9.50
벽계천	27.00	사탄천	8.00	고송천	4.30	대왕천	1.20
중미천	3.50	흑천	37.00	부안천	9.50		
미세천	3.25	여물천	2.10	문호천	12.50		

* 하계망과 암석 : 하계망은 특정 유역분지를 이루고 있는 하천의 형태를 의미하는 말인데, 이는 그 지역의 암석을 중심으로 하는 지질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편마암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의 하계망은 계곡을 따라 분포하는 수지상의 형태를 띠는 반면 화강암 산지나 침식분지의 하계망은 방사형을 띤다. 양평군의 경우에도 산지지역에는 수지상의 하계망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양평읍을 중심으로 하는 침식분지에는 방사형의 하계망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한강의 유역범위는 북위 36° 30′~38° 55′, 동경 126° 24′~129° 02′로서 유역면적은 북한지역을 포함하여 총 34,473.2km²이다. 총 유로길이는 직할하천 285.4km와 지방하천 120.1km 등을 합하여 481.7km에 이른다. 한강유역은 고도별 누가면적 구성비로 볼 때 고도 200~600m 부분이 50% 정도를 차지하며, 경사별 누가면적 구성비를 보면 20°~80°의 급경사 지역이 대부분이다(표 10, 11). 하계망의 모양은 수지상(樹脂狀)과 선형(扇形)이 혼합된 형태를 보인다.

표 10. 주요 하천의 고도별 누가면적 구성비

(단위 : %)

하천유역	> 1,000m	> 800m	> 600m	> 400m	> 200m	> 100m	> 0m
한강	3.7	12.0	27.7	48.2	73.3	86.2	100
남한강	4.0	13.2	28.3	45.5	73.0	87.2	100
북한강	3.6	13.8	34.1	64.1	89.0	97.5	100
흑천			0.8	7.4	33.3	64.2	100

표 11. 주요 하천의 경사별 누가면적 구성비

(단위 : %)

하천유역	> 80°	> 40°	> 20°	> 10°	> 5°	> 0°
한강	13.7	50.5	75.3	86.3	92.1	100
남한강	14.4	54.7	79.4	90.2	94.9	100
북한강	21.1	63.5	84.6	92.7	96.6	100
흑천	0.4	19.0	45.5	67.2	85.1	100

(2) 흑 천

흑천은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신론리(新論里) 성지봉에서 발원하여 양평군 중앙부를 따라 남서부로 흐르다가 개군면 인덕리에서 남한강과 합류하는 하천이다.⁴⁹⁾ 흑천은 총 유로길이가 37.0km이며, 유역면적은 282.55km²이다. 흑천유역은 고도 400m 이하 부분이 90% 이상을 차지하며, 유로의 경사별로 보면 10° 이하의 완사면이 40%를 나타낸다(표 10, 11).

흑천은 12개의 지류를 갖고 있는데, 그 지류들은 흑천의 유로를 부분적으로 바꾸었으며, 산간분지 말단부 구릉지나 산록완사면 주변에 부분적으로 구(舊) 유로의 흔적이 나타난다. 또한 하천 직강화 공사 및 저수지 건설 등에 따른 하천수리의 변화로 기존의 유로에 과다한 퇴적물이 공급되고 이에 따라 하상이 높아지면서 식생이 정착한 구역이 나타나기도 한다(사진 18). 흑천의 차수를 보면 1차수 하천이 44%, 2차수 하천이 23%, 3차수 하천이 23%, 4차수 하천이 10%를 이루고 있어서 차수는 그다지 크지 않다. 이는 흑천의 하계망 발달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양평군의 지질분포 및 토양, 그리고 지형과 밀접한 관

49) 한국수자원공사, 앞의 책.



사진 18. 흑천의 유로에 새롭게 정착한 식생군락. 흑천 상류의 구조물 건설과 하천공사로 말미암아 퇴적물의 운반-퇴적 체계의 평형이 깨진 결과 하상의 고도가 높아진 곳에 식생이 정착하여 습지와 유사한 생태계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은 개군면 봉선리 지역이다

련을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우리 나라 산간지역의 평균적인 차수보다는 약간 높은 것이다.⁵⁰⁾

흑천으로 유입하는 주요 지류를 정리하면, 양평읍 창대리의 도곡천(道谷川), 개군면 삼성리의 삼성천(三星川), 용문면 연수리의 연수천(延壽川), 용문면 덕촌리의 문천(門川), 지제면 송현리의 지평천(砥平川), 지제면 월산리의 월산천(月山川), 용문면 망릉리의 중원천(中元川), 단월면 부안리의 덕수천(德水川), 단월면 여물리의 여물천(余勿川), 청운면 용두리의 용두천(龍頭川) 등이다.⁵¹⁾

2) 하천지형

양평군지역에 분포하는 주요 하천은 그 규모는 작지만 다양한 형태의 하천지형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형들은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양평군 주민들에게 크고 작은 삶의 터전이 되어 왔다. 양평군에 나타나는 하천지형은 크게 한강 하류부와 흑천 양안의 충적지, 한강으로 유입되는 저차수 하천이 산간지역에 발달시킨 곡저평야, 하안단구(river terrace), 하중도 등을 들 수 있다.

(1) 한강 하류부의 충적지

한강의 하폭이 갑자기 넓어지면서 유속이 감소하며 형성시킨 한강 하류부 연안 곳곳에는

50) 권혁재, 2000, 『한국지리 : 총람판』, 법문사.

51) 한국수자원공사,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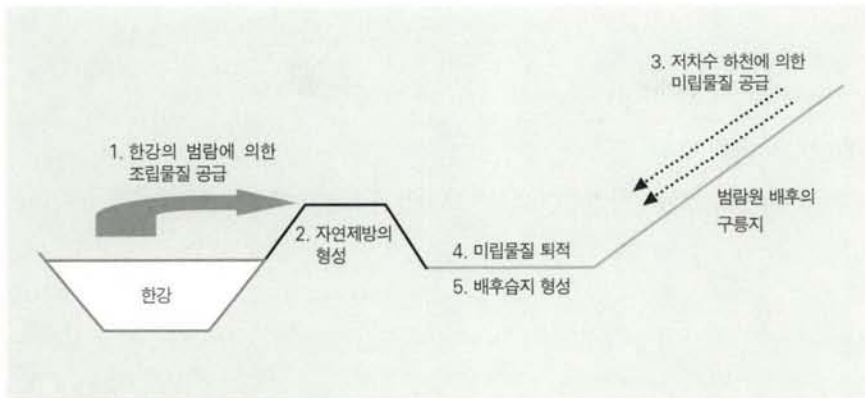


그림 24. 한강 하류부 충적지 부근의 지형체계



사진 19. 서종면 수입리에 발달한 자연제방과 구릉지

사질 퇴적지형이 나타난다. 이렇게 형성된 퇴적층은 범람원과 자연제방을 이루며 그 뒤편에는 배후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양평군의 서남부의 경계를 이루면서 흐르는 남한강과 북한강 하류에는 충적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충적지의 배후에는 거의 대부분 해발고도 100m 내외의 구릉지가 분포하여 취락으로 이용된다(그림 24).

한강 하류지역의 “자연제방-배후습지-구릉지”의 지형 체계는 홍수시 범람과 퇴적물의 공급, 연이어 일어나는 사질퇴적물의 퇴적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홍수때 한강의 수위가 상승하면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류들의 유속은 급격히 감소한다. 이때 한강이 운반해 온 토사는 유속이 감소한 지류와의 합류점에 퇴적되어 자연제방을 형성하고, 자연제방의 뒤편은 배후습지 역할을 한다. 자연제방은 한강이 내륙으로 유입되기 힘든 방향으로 발달하고, 지류들은 자연제방에 가로막혀 구릉지 주변에 자신들이 운반해온 토사들을 퇴적시킨다.⁵²⁾ 서종면

수입리의 수입나루 일대(사진 19), 양평군 강상면의 문평리 일대, 개군면 상자포리의 벌말 일대, 용문면 삼성리의 삼성교(三星橋) 일대는 이러한 지형이 발달한 대표적인 곳이다.

(2) 산간분지의 곡저평야

산간곡지를 감싸고 흐르는 저차수 하천의 말단부에는 곡저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산간분지의 곡저평야는 일반적으로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평야의 중앙부를 관류하는 하천이 흘러 나가는 방향만 개방되어 있는 이른바 반폐쇄형 지형을 이루고 있다.

곡저평야의 형성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집중호우시 또는 홍수시, 분지의 중앙부를 흐르는 고차수 하천의 수위가 상승하면서 산지에서 흘러 내려오는 저차수 하천의 흐름은 방해 받고 유속이 감소하게 된다. 이때 고차수 하천이 운반해온 토사는 하천 양안을 범람하면서 미립질 퇴적층을 형성하게 되고, 산지에서 운반되어온 조립물질은 미립질 퇴적층 상부에 퇴적된다. 이러한 과정이 장기간 반복되면서 미립질 퇴적층은 범람원의 배후습지, 조립질 퇴적층은 범람원의 자연제방과 유사한 형태의 지형체계를 이루게 된다(그림 25). 따라서 미립질 퇴적층은 논으로, 조립질 퇴적층은 밭이나 과수원, 취락입지 지역으로 활용하게 된다.⁵³⁾

이러한 지형 체계 속에서 발달한 자연제방은 배후습지에 비해 비교적 홍수피해를 적게 입기 때문에 취락이나 교통로가 입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연제방에 입지하는 취락의 형태는 대체로 대상(帶狀)을 이루면서 2~3호씩 흩어진 소촌(疏村), 귀촌(塊村), 제방 내의 근교 농업화 과정에서 형성되는 산촌(散村) 등이 있다. 평촌(벌말)·석도(石島, 돌섬)·토막에서는 자연제방이 주변 저습지에 비해 크게 높지 않고 방수림(防水林)이 부설하므로 취락의 규모는 작지만 가옥의 밀집도는 크다.⁵⁴⁾ 범람원에서는 홍수 때 침수를 막기 위하여 터돋음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곳에서는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둔대(墩臺)를 만들어 홍수 때 피난지로 이용하였다. 배후습지와 구하도는 매립 이후 배수로를 뚫어 새로운 주택용지와 비닐하우스 영농방식을 채택한 원예농업용지로 이용하고 있다(사진 20).

양평군 지제면 곡수리(曲水里)의 산간곡지에는 이와 같은 곡저평야가 잘 발달해 있다. 이 지역은 곡저평야를 관류하는 곡수천의 양안에 범람원 미립질 퇴적층이 발달되어 있어 현재도 논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주변의 구릉지 말단부에는 조립질 퇴적층이 발달해 현재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 곡수천은 곡저평야를 관류하면서 계속적으로 남진(南進)하여 여주군 당산리(堂山里)에서 남한강과 합류한다.

한편 이 지역 주민의 말에 의하면,⁵⁵⁾ 곡저평야를 관류하는 곡수천의 유로는 지난 30년간

52) 손명원, 1995, 「구리시의 자연환경」, 『구리의 역사와 문화』, 구리시, 17~46쪽.

53) 강대현, 1968, 「한강 하류 범람원 취락의 특질」, 『지리학』 2, 20~24쪽.

54) 강대현, 위의 논문, 20~24쪽.

55) 양평군 지제면 곡수리 거주민, 65세, 농업 및 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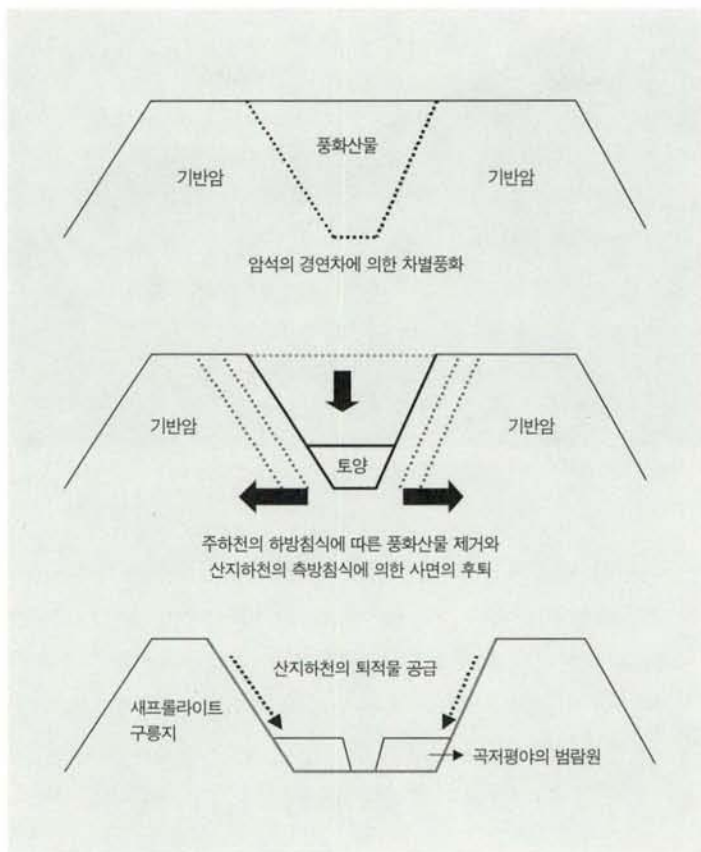


그림 25. 산간분지 곡저평야의 지형 체계



사진 20. 용문면 삼성리 배후습지에 발달한 원예농업용지



사진 21. 범람원 배후습지 형태의 곡수천 구하도

두 차례 정도 변경되면서 하천의 규모가 상당히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는 우리 나라 곡저평야 지역에서 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홍수시 산지에서 흘러 내리는 저차수 하천에 의해 운반되고 퇴적되는 조립물질의 양이 매우 많아서 곡저평야를 관류하는 고차수 하천의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되면 유로가 변경되면서 하폭(河幅)이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이 지역의 경우 과거 하천의 유로였던 곳이 현재는 조립질 퇴적층으로 변화되면서 구하도 범람원의 저습지 형태로 변하여 남아 있는 지형이 나타난다(사진 21).

(3) 기타 하천지형

양평군에는 앞에서 언급한 하천 하류부의 충적지와 곡저평야 이외에도 몇 가지 하천지형들이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하안단구(river terrace)*와 하중도를 예로 들 수 있다. 하안단구는 대표적인 하천지형으로 우리 나라의 대규모 하천 상류부에는 크고 작은 시공간적 규모의 하안단구가 도처에 발달하여 있다.

우리 나라의 하안단구는 그 성인상 동해안 태백산맥 지역의 구조단구와 한반도 중서부 한강 중상류 지역의 퇴적단구로 구분될 수 있다.⁵⁶⁾ 양평군의 경우에는 하천의 대부분이 산간곡지를 따라 흘러 내리는 저차수 하천인 관계로 하안단구의 발달은 미약하며, 흑천과 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소규모의 하안단구가 발달하여 있다.

양평군의 서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개군면 석장리(石槿里)에는 퇴적단구로 생각되는 하안단구 지형면이 나타난다(사진 22). 이 지역은 흑천과 남한강의 합류지점으로서, 하안단구 지

56) 권혁재, 2000, 『한국지리 : 총람판』, 범문사

손명원, 2001, 「우리나라 저위 하안단구의 형성요인」,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2), 71~81쪽.



사진 22. 개군면 석장리 하안단구의 저위면과 중위면. 하안단구의 저위면은 논으로 중위면은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형이 분포하는 지역의 행정구역은 개군면 석장리와 회현리(會賢里)에 걸쳐 있다. 이 지역은 과거 흑천의 유로가 퇴적물의 공급과 해수면 상승운동 등의 구조적인 변형에 따라 유로가 변경되면서 형성된 하안단구의 저위면과 중위면이 나타나는데, 이 지역 하안단구의 형성 및 발달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흑천이 발원하여 한강과 합류하는 지점인 석장리와 회현리 지역의 구(舊)유로의 고도는 이 지역에 잔류해 있는 고립 구릉지의 고도와 같아서, 하상비고(河床比高)는 현재보다 약 40m 정도 높았다. 이후 최후빙기(last glacial age) 동안에 해수면이 하강하고 하천의 하방 침식이 강화되면서 하상비고는 급격히 낮아졌으며, 최후빙기가 끝나면서 해수면이 다시 상승하고 한강의 본류를 통하여 다량의 퇴적물이 공급되면서, 현재의 유로와 범람원을 형성하

* 우리나라의 하안단구 : 하천의 회춘으로 하상이 깊게 파이면 과거의 범람원 또는 하곡평야는 홍수시에도 범람하지 않는 계단모양의 지형으로 변한다. 하안단구는 현재의 하천보다 높은 구하상의 잔유물이며, 국지적인 침식 기준면과 하천 에너지의 변화를 반영한다. 그러므로 하안단구는 풍성 퇴적물, 주빙하 퇴적물과 함께 제4기 연구의 중요한 주제이다. 하안단구의 종류로는 충적단구(沖積段丘, alluvial terrace), 기후단구(氣候段丘, climate terrace), 암석단구(岩石段丘, strath terrace 또는 rock terrace), 구조단구(構造段丘, tectonic terrace)가 있다. 우리 나라의 하안단구는 대체로 용기량이 큰 태백산맥의 분수계에 가까울수록 하상과 단구간의 비고(比高)가 증가한다. 동해사면을 흐르는 여러 하천의 양안에도 여러 단의 단구들이 나타나며, 특히 중·상류부의 갑입곡류상에 많이 나타난다. 최근에는 강원도뿐 아니라 경북과 전북지역에서도 새로운 하안단구들이 발견되었으나, 대부분 심하게 개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형성 시기가 신생대 제4기 홀로세가 아닌 그 이전의 제4기 플라이스토세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단구면은 현재 대부분 경지나 주택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지하수가 풍부하며 지하수위가 극히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 나라의 하안단구는 일반적으로 하곡의 침식을 받아 넓어진 다음 소규모로 지반이 용기함으로써 형성된 지형이라고 여겨지며, 대하천의 중상류와 동해사면을 흘러내리는 하천 연안 곳곳에 나타난다. 하천연안의 평평한 지대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안단구는 대부분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한강, 금강 등 서해로 유입하는 대하천의 하류에도 빙하성 해면운동과 관련하여 형성되어 땅 속 깊이까지 하천의 토사가 퇴적되어 있는 충적단구가 나타난다. 이러한 충적단구는 고도가 낮은데다가 그 규모도 넓고 커서 식별하기가 쉽지 않다. 한강 하류의 미사리 맞은편 하남시 신장동과 금강 하류의 부여읍 군수리에서 그와 같은 예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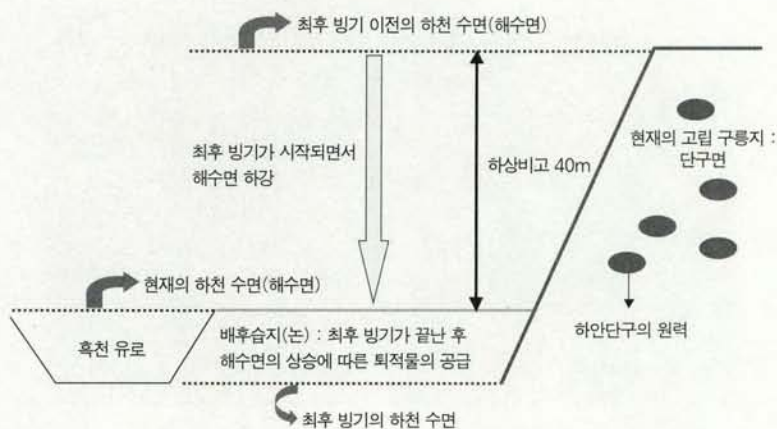


그림 26. 석장리 하안단구의 형성과정 모식도

게 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26).⁵⁷⁾ 석장리 흑천 주변의 미립질 퇴적층은 한강 본류에 의하여 운반된 미립물질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현재는 논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상부의 고립 구릉지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고립 구릉지의 노두를 관찰해보면 둥근 자갈[圓礫]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이는 구하도의 잔류 퇴적물로서 이 지형이 하안단구임을 지시하는 것이다(사진 23).⁵⁸⁾

이 외에 양평군에 나타나는 하천지형 가운데에서 주목할 만한 지형은 한강 하류부에 형성되어 있는 하중도(河中島)이다. 일반적으로 하중도는 삼각주와 같은 망류하도(網流河道, braided stream)에서 퇴적물의 공급량과 하천의 퇴적물 운반 능력의 상관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퇴적지형이다. 그러나 하중도는 삼각주뿐만 아니라 대하천의 하류에서 많이 볼 수 있다. 한강의 경우 팔당의 협곡을 벗어나면서부터 당정리(堂亭里), 미사리(美沙里), 잠실리(蠶室里), 여의도(汝矣島), 난지도(蘭芝島) 등 비교적 규모가 큰 하중도와 그밖에 소규모의 것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⁵⁹⁾

57) 한강에 관한 제4기 연구에 의하면, 한강의 해수면은 B.P. 7,000년에 일시적으로 정체하였다가 이후 다소 빠르게 상승하여 해진(海進)의 극상기인 B.P. 5,000년에는 해발 5.5m까지 도달하였다. 해발 5.5m까지 상승한 해수면은 이후 거의 정체하였으며, B.P. 3,200년에 해면은 해발 5.4m에 머문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해면이 하강하여 B.P. 2,300년 이후에는 해발 5.8m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해수면은 현재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하강하였으며, 이 시기 동안 이 지역에서 해수면 미변동에 대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한강 하류지역의 대부분을 이루는 충적층은 이러한 해수면 변동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황상일, 1995, 「GIS 기법으로 복원한 일산지역의 Holocene 고지리」, 『지리교육』 8, 113~130쪽.

58) 한편, 이 지역의 지명을 보면 '돌데미', '돌뚝부리'와 같이 돌과 관련된 것이 눈에 많이 띄는데 이 역시 이 지역의 지형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하나의 자료로 판단할 수 있다.

59) 권혁재, 1999(제2판), 『지형학』, 법문사.



사진 23. 석장리 하안단구의 자갈 퇴적물



그림 27-1. 덕평리 하중도의 지형(1958)



그림 27-2. 덕평리 하중도의 지형(1998)

양평군에는 남한강 하류인 강하면 운심리(雲沁里)와 양평읍 덕평리(德坪里)에 소규모 하중도가 나타난다. 이 중 운심리의 하중도는 '섬말' 또는 '대하섬'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하중도이고, 덕평리의 하중도는 소규모 하중도이다. 덕평리의 하중도 지형이 규모가 축소되면서 변화되었다는 사실은 1958년 지형도와 1998년 지형도를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그림 27-1, 그림 27-2).⁶⁰⁾

지금까지 제4절에서는 양평군의 지형경관을 크게 산지지형과 산간분지, 그리고 하천지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본절에서 살펴본 양평군의 주요 지형경관의 위치와 분포를 도식화하면 다음의 그림 28과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양평군의 경우, 산지지형과 산간분지는

60) 마을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한강 상류부에 홍수 조절용 댐이 건설된 이후 지속적인 한강의 유입이 유지되는 등의 수문·수리학적 변화로 말미암아 기존의 큰 규모의 하중도는 규모가 축소되고, 오히려 이곳 저곳에 산발적으로 소규모 하중도가 새롭게 형성된다고 한다.



그림 28. 양평군의 주요 지형경관

군 전체에 걸쳐서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하천지형은 한강 본류(남한강과 북한강)와 흑천 주변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다.

제5절 토양환경 및 식생

토양은 “기반암이 부서진 바위부스러기(岩屑)나 다른 지역에서 운반되어 온 퇴적물이 오랜 시간 동안 물리·화학·생물학적 작용을 받아 형성된 풍화의 최종 산물”로 정의된다.⁶¹⁾ 특정지역의 토양은 그 지역의 지질분포, 지형, 기후적 특성을 반영하는 지시자이다. 또한 토양은 인간의 토지이용의 직접적인 대상이자 각종 동식물의 삶의 터전이 되는 생태계의 기반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토양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는 토양의 물리·화학·생물학적 특징에 대한 연구 이외에 인간의 토양 이용에 따라 나타나는 토지피복과 식생의 분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61) Donahue, P.K., 1990, *Soils*, Blackwell Unwin.

1. 토양

양평군의 토양 분포는 지질 분포와 지세 및 지형경관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크게 산지토양, 산간분지의 구릉지 및 완사면 토양, 충적지 토양(사질 충적지, 배후습지, 하중도 토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토양 분포는 제4절에서 분석한 지형경관 단위와 일치하는 것이다.

1) 산지토양

산지 토양은 양평군의 지형 가운데에서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지형에 분포하고 있는 토양으로, 높은 산지를 이루고 있는 용문산과 성지봉, 갈기산, 중원산에 잘 발달해 있다. 산지토양은 다시 호상편마암 풍화토와 화강암 풍화토로 나눌 수 있다.

호상편마암 풍화토는 비교적 토양 표층이 두껍게 발달하여 있으며, 많은 부식질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유기물의 함량도 매우 높다. 호상편마암 풍화토를 이루고 있는 주된 토양통은 편마암류의 풍화 잔적토인 도산통(陶山統)으로, 이 토양통은 표층이 두껍고 유기물의 함량이 높으며 배수가 양호해서 식생의 발달에 매우 유리하다.

화강암 풍화토는 토양 표층이 얇게 발달하여 있고 유기물의 함량이 낮다. 화강암 풍화토는 화강암의 풍화 잔적층을 모재로 하여 발달하였는데, 이를 이루고 있는 주된 토양통은 삼각통(三角統)과 사촌통(沙村統)이다.⁶²⁾ 삼각통은 배수가 양호하고 표층이 비교적 잘 발달하여 있지만, 유기물 함량이 낮아 척박하고 약산성 내지 강산성을 띤다. 사촌통은 배수가 불량하며 유기물의 함량이 많고 비교적 강산성을 띠며, 단면의 깊은 곳에는 진한 갈색의 반점무늬가 나타난다. 이들 토양은 대부분 식생이 자라는데 불리하여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아까시나무가 주종을 이룬다.

산지토양은 일반적으로 배수가 양호한 토양으로 Maa, Mab, Mac 토양으로 특징지워지는데, 주로 식양실 및 사질로 구성되어 있다.

2) 산간분지의 구릉지 및 완사면 토양

산간분지의 구릉지 및 완사면 토양은 양평군의 산간분지를 이루고 있는 침식분지에 널리 분포하는 토양으로, 용문면 신점리, 청운면 가현리와 갈우리, 양동면 쌍학리, 양서면 목왕리, 지제면 수곡리와 옥현리에 잘 발달하여 있다.

구릉지 및 완사면 토양을 이루고 있는 토양통은 대구통(大邱統)과 상주통(尙州統)이다.⁶³⁾ 화강변성암의 풍화층을 모재로 발달한 대구통은 배수가 양호하고 강산성을 띠며, 토양 내에

62) 농촌진흥청, 1977, 『정밀토양도 : 양평군』.

63) 농촌진흥청, 위의 책.

는 자갈이 많고 암반이 노출된 경우도 있다. 상주통은 충적물을 모재로 하여 발달한 토양으로서 유기물 함량이 적고 비옥도는 보통이다.

이들 토양은 다시 회색 충적토인 Rxa 토양, 적황색 암쇄토인 Rab 토양, 적황색 퇴적토인 Rad 토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토양은 식질, 식양질 및 사양질로 구성되어 있다.

3) 충적지 토양

양평군의 충적지 토양은 크게 곡저평야의 조립질 충적지 토양, 범람원의 배후습지 토양, 하중도의 사질토양으로 구분된다. 이들 토양들은 주로 하천의 연변에 분포하는데, 이는 다시 배수가 매우 양호한 Afa 토양, 배수가 양호한 Afb 토양, 그리고 배수가 불량한 Afc 토양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양평군의 충적지 토양 가운데에서 가장 널리 분포하는 토양은 Afa 충적지 토양이다.⁶⁴⁾ 이들 충적지 토양은 주로 서종면 수입리의 자연제방, 용문면 삼성리의 배후습지, 곡수리 곡수천 주변의 곡저평야, 강하면 운심리의 하중도에 분포한다. 수입리의 자연제방 토양은 Afa 토양, 삼성리의 배후습지 토양은 Afc 토양, 곡수천 곡저평야 토양은 Afb 토양, 하중도의 토양은 Afb 토양에 속한다. 충적지 토양은 주로 사양질 및 사질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 양평군의 주요 토양의 특성

토양유형	기호	배수	특성	분류
산지토양	Maa	배수 양호	암쇄토, 적황색토	식양질, 사질
	Mab	배수 양호	암쇄토, 적황색토	식양질, 사질
	Mac	배수 양호	암쇄토, 적황색토	식양질, 사질
구릉지 및 완사면	Rxa	배수 양호	회색토, 충적토	식양질, 식질
	Rab	배수 양호	적황색토, 암쇄토	식양질, 사질
	Rad	배수 양호	적황색토, 퇴적토	식양질, 사양질
충적지 및 곡저평야	Afa	배수 매우 양호	충적토	사양질, 사질
	Afb	배수 양호	충적토	사양질, 사질
	Afc	배수 불량	범람원토	사양질, 사질

출처 : 농촌진흥청, 1977, 「정밀토양도 : 양평군」

4) 토양의 물리적 특성

이와 같은 양평군의 토양 분포 및 특성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주요 지점에서 토양을 직접 채취하여 입도분포를 중심으로 물리적 특성을 직접 분석하였다.⁶⁵⁾ 토양샘플의 채취는 모두 7

64) 농촌진흥청, 앞의 책.

65) 토양의 물리적 특성 분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다. 우선 양평군의 지형경관에 따른 토양유형을 잘 대표한다고 판단된 7지점을 선정 후, 현장에서 표층의 부식질을 걷어내고 캔-코어를 이용하여 10cm 단면의 토양샘플을 채취하였다. 이후 현장에서 채취한 토양샘플을 실험실에서 음건시킨 후 과산화수소수(H₂O₂) 법을 이용하여 유기물을 제거하고, 피펫법(pipette analysis)을 이용하여 입도 분포를 분석하였다.



그림 29. 양평군의 주요 토양 분포와 샘플링 위치(1:편마암 산지, 2:화강암 산지, 3:구릉지, 4:완사면, 5:자연제방, 6:배후습지 토양, 7:하중도 토양)

곳에서 이루어졌으며, 7곳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그림 29).

산지토양 가운데에서 토산을 대표하는 토양은 용문산에서 채취하였고, 석산을 대표하는 토양은 도원리 성재동에서 채취하였다. 구릉지 및 완사면 지형을 대표하는 토양은 양동면 쌍학리와 지제면 수곡리에 채취하였다. 마지막으로 충적지 및 곡저평야를 대표하는 토양은 서종면 수입리의 자연제방, 용문면 삼성리의 배후습지, 강하면 운심리의 하중도에서 채취하였다.

토양의 물리적 특성을 7지점의 샘플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용문산 동사면 토산지형의 편마암 풍화토는 모래가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점토의 함량은 9%에 불과해, 아직까지 풍화가 최종단계까지 진전되지는 않았음을 나타낸다. 이는 제2절에서 설명하였듯이 편마암류의 암석학·지질학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도원리 성재동 계곡의 석산지형의 화강암 풍화토는 실트(silt)와 점토의 비율이 62%에 달해 앞서의 편마암 토산지형 토양보다는 미립질의 분포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후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편마암류의 암석보다는 화강암류의 암석이 풍화를 더 활발하게 경험한다는 사실을 지지하는 것이다.

양동면 쌍학리의 구릉지 토양은 실트와 점토의 비율이 65%로 나타나 앞서의 석산지형 토양과 유사한 입도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는 지형의 기복(relief)은 다름지언정 석산지형과 구릉지를 이루는 기반암이 동일한 화강암 계열이라는 사실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향성은 지제면 수곡리의 완사면 지형에서도 마찬가지로여서, 실트와 점토의 비율이 67%로 나타나 구릉지 및 석산지형 토양의 입도분포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서종면 수입리 자연제방 토양은 모래가 전체의 53%를 차지하고 있어서 매우 조립질인 토양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연제방 토양의 모래 함량은 앞서의 토산지형의 모래

함량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 즉, 하천이 범람할 경우, 유속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유속의 흐름에 의해 운반된 모래질 퇴적물이 제방효과(levée effect)에 의해서 유속이 급격히 감소할 때 퇴적된 조립질 퇴적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제방효과에 의해서 고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조립질 퇴적물을 쌓아 놓은 하천은 제방을 넘어서면서 그 유속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고 자연제방의 뒤편에는 미립물질을 퇴적시키게 된다.⁶⁶⁾ 이러한 미립질로 이루어진 범람원 지형을 배후습지라고 하는데, 용문면 삼성리의 배후습지도 예외는 아니어서, 실트와 점토의 비율이 79%에 이르고 특히 점토의 비율이 무려 30%에 이르고 있다. 한편 강하면 운심리의 하중도는 모래의 비율이 55%를 차지해 역시 하천의 운반과 퇴적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퇴적물 체계임을 알 수 있다(표 13, 그림 30).

표 13. 양평군 주요 지점 토양의 물리적 특성

(단위 : %)

토양유형	샘플지점	모래	실트	점토
토산지형	용문산 동사면	57	34	9
석산지형	청운면 도원리 성재동 계곡	35	47	15
구릉지	양동면 쌍학리	35	50	15
완사면	지제면 수곡리	32	49	18
자연제방	서종면 수입리	53	29	18
배후습지	용문면 삼성리	21	49	30
하중도	강하면 운심리	55	3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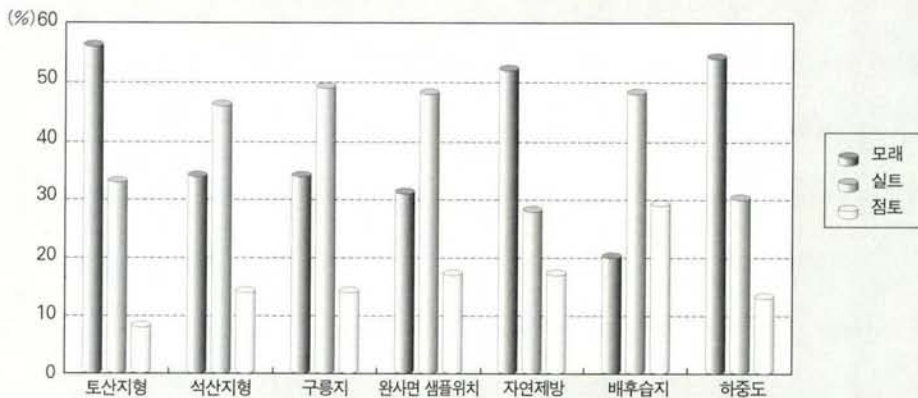


그림 30. 양평군 주요 지점 토양의 물리적 특성

66) 오경섭·오선희, 1994, 「금강과 만경강 역과 모래의 풍화환경」, 『한국지형학회지』 2, 23~36쪽.

2. 토지피복 및 식생

1) 토지피복*

양평군은 서울의 북동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수도 서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리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수도 서울의 외연적 확대에 따른 토지이용의 변화, 이에 따른 녹지공간의 파괴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양평군의 토지피복(land cover) 패턴을 살펴 보면, 중심부의 양평읍 및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녹지공간이 풍부한 토지피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양평군이 한강의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점과, 군(郡)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노력, 양평군 주민들의 청정지역으로서의 높은 자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토지피복을 면적상으로 나누어 보면(표 14), 녹지공간(초지와 산림지역)은 전체 면적의 75.1%인 659.5km²로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농경지로 대표되는 준(準)녹지공간의 면적은 139.1km²로서 전체 면적의 15.8%이고, 도시역(urban area)의 면적은 9.1%인 79.5km²이다(그림 31).⁶⁷⁾ 따라서 준녹지공간을 포함하는 녹지공간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90.9%를 차지해 우리 나라 다른 지역에 비해서 녹지공간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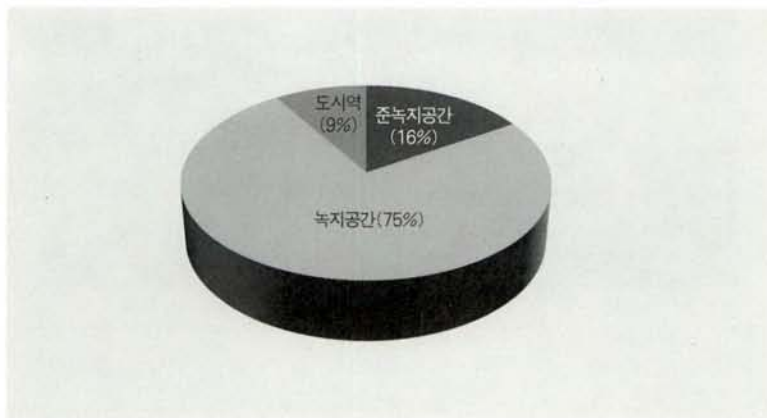


그림 31. 양평군의 토지피복 현황

* 토지피복(land cover)과 토지이용(land use) : 일반적으로 토지피복은 토지의 경관적인 측면, 즉 현재 토지가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녹지공간, 준(準)녹지공간, 도시화 공간으로 구분하며, 토지이용(land use)은 이와 같은 토지피복을 좀더 세분하여 어떠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같은 준녹지공간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이용에 있어서는 논농사 지역, 밭농사 지역 등으로 세분될 수 있다.

67) 이러한 토지피복 유형별 면적비율은 위성영상을 토지피복도로 변환시킨 그림 32~37을 대상으로 NDVI 지수 방법을 이용하여 구한 것이다.

표 14. 양평군의 행정구역별 토지피복 현황

(단위 : km²)

	총면적	준녹지공간	녹지공간	도시역
합계	878.21	139.13	659.55	79.53
양평읍	42.29	14.36	20.00	7.93
강상면	37.92	8.62	24.17	5.13
강하면	41.49	6.99	29.70	4.80
양서면	59.58	8.76	40.42	10.40
옥천면	66.68	7.65	54.63	4.40
서종면	92.85	9.10	77.44	6.31
단월면	107.94	10.68	91.50	5.76
청운면	96.54	11.57	78.97	6.00
양동면	120.42	16.48	95.45	8.48
지재면	77.79	18.15	52.11	7.53
용문면	102.25	16.00	78.71	7.54
개군면	32.46	10.76	16.45	5.25



사진 24. 하천 및 구릉지의 지형체계. 위에서부터 “구릉지-자연제방-포인트바”가 발달하여 있다. 구릉지 위에 양평 대명콘도가 있다

다음의 그림 32~37은 양평군의 토지피복을 인공위성영상을 이용하여 구성한 것이다. 그림 32~37의 토지피복도를 살펴보면 양평군의 토지이용이 대부분 산림지역과 농경지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양평군은 군의 중심지인 양평읍과 양평읍 주변의 강상면, 강하면, 양서면만 도시역 면적이 10%를 초과할 뿐, 다른 지역은 도시역 면적이 10%를 초과하는 지역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표 14). 따라서 양평군의 경우 전체 면적의 91%에 달하는 녹지공간의 보전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지역이다.

양평군의 토지피복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항은 녹지공간의 분포 패턴이다. 경관생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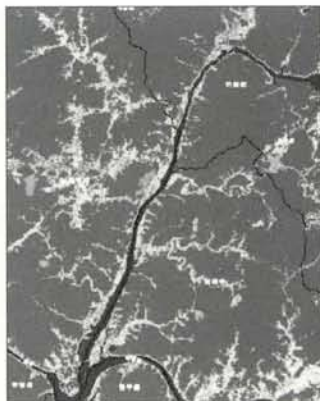


그림 32. 양평군의 토지 피복도
(1:50,000 양수 도엽 위성영상)



그림 33. 양평군의 토지 피복도
(1:50,000 용두 도엽 위성영상)



그림 34. 양평군의 토지 피복도
(1:50,000 홍천 도엽 위성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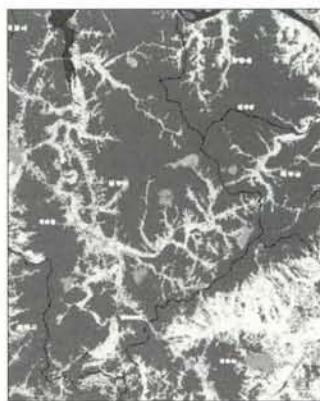


그림 35. 양평군의 토지 피복도
(1:50,000 이천 도엽 위성영상)



그림 36. 양평군의 토지 피복도
(1:50,000 여주 도엽 위성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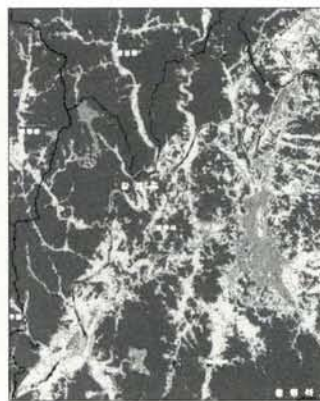


그림 37. 양평군의 토지 피복도
(1:50,000 원주 도엽 위성영상)

학적으로 보았을 때에, 특정지역의 경관은 토지피복 패턴의 분포 양상에 따라 분산형 경관, 네트워크형 경관, 중첩형 경관, 격자형 경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표 15). 이러한 분류에 의거한다면 양평군의 경관은 산림지역이 지배적인 유형을 차지하는 가운데, 산림지역 사이에 농경지와 같은 준녹지 경관, 시가지, 수역 등이 패치(patch) 형식으로 배치되어 있는 분산형 경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의 팽창 및 질적인 생활공간의 요구 증대로 이러한 토지피복 패턴이 앞으로는 위협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행정당국은 양평군 전체의 생태계 상황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다른 지역, 특히 서울 주변부의 수도권 지역에서와 같이 녹지를 개발유보지로 여겨 무분별하게 개발하여 생태적으로 회생 불가능하게 만드는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양평군의 토지피복 유형과 공간적 분포를 살펴보면, 현재의 녹지, 한강, 흑천

표 15. 경관의 형태 및 지속성과 관련된 속성

경관의 유형	경관의 속성
분산형 경관	하나의 생태계 또는 경관요소가 지배적인 가운데 그 안에 소수의 다른 요소가 섞여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지배요소의 상대적인 점유면적, 각각의 패치의 크기, 패치간의 거리, 패치의 분산도 등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관 유형에서 나타나는 공간적 통합도는 친환경적 개발을 결정하는 각 기본 변수에 대해 통제를 한다
네트워크형 경관	경관 전체에 걸쳐 서로 교차하는 코리도(corridor)가 현저히 나타나는 유형으로, 여기서의 핵심요소는 코리도의 폭, 연결성(connectivity), 네트워크의 완곡도, 결절점(node)의 크기와 분포 양상이다
중첩형 경관	둘 이상의 경관요소가 경계를 따라 서로 만입 또는 돌출되어 있는 유형으로, 여기서의 지배적인 특성은 각 경관요소의 점유면적이다
격자형 경관	둘 이상의 경관요소가 격자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대표적인 예는 계획적으로 벌채된 산림지대이다. 여기서는 경관의 크기, 격자상의 규칙성, 경계선의 총 길이 등이 핵심적 요소이다

출처 : Forman, 1990

및 각종 하천의 상태로 보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행정가 및 연구진이 현재의 생태계를 유지한다는 기본 바탕 위에 지역계획을 세운다면 수도권 제일의 생태도시(eco-polis)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 녹지자연도

녹지자연도(綠地自然度)는 개발에 의해 자연상태가 훼손된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우리 나라 환경부에서는 그 등급을 표 16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⁶⁸⁾ 이 분류표에 의하면 1등급으로 접근할수록 개발에 의해 녹지의 질이 떨어지는 상태이고, 10등급으로 접근할수록 자연상태가 잘 보전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리하여 8등급 이상은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할 때에 보전하도록 하며, 7등급 이하 지역만을 개발하도록 협의해주고 있다.

우리 나라는 국토 면적 중 65%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표적인 산악국가이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금수강산이라 불릴 만큼 산림이 울창하였으나, 한국전쟁 당시 산림이 거의 초토화되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들어와 무연탄을 연료로 쓰기 시작하면서 자연생태계가 다시 복원되기 시작하였고, 3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오늘날 이차림과 인공림이 생겨나면서 다시 산림생태계의 풍요도가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존식생을 중심으로 특정지역의 녹지자연도를 평가하는 작업은 그 지역의 생태적 특징 및 보존상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작업이다.

양평군의 녹지자연도를 살펴보기에 앞서, 양평군에 분포하고 있는 식생의 개괄적인 생태적

68) 환경부, 2000, 『자연생태계 전국조사 : 제10차년도(서울·경기의 녹지자연도)』.

표 16. 녹지자연도 등급 사정 기준

등급	명칭	등급별 내용
1	시가지 및 조성지	녹지가 거의 없는 지역, 녹지 면적이 전체의 30% 이하인 지역 (시가지, 암석 노출지, 해안 모래사장, 공단 등)
2	농경지	논 또는 밭 등의 경작지
3	과수원	과수원, 묘포장 등
4	이차초원 ①	잔디밭 또는 목장 등과 같이 인공적으로 조성된 초지
5	이차초원 ②	갈대, 조릿대 군락 등과 같이 키가 큰 이차초원 지구
6	조림지	각종 침엽수 또는 활엽수 인공 식재지
7	이차림 ①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2차적으로 형성된 다층의 식생으로 천이과정 초기에 해당되는 이차림
8	이차림 ②	대상림으로 천이과정 중반에 이른 상태로 자연림에 가까운 수령 20년~50년생의 이차림
9	자연림	다층의 식생구조를 형성하는 극상림
10	자연초원	자연식생으로 고산 지역에 분포하는 초원지역
0	수역	저수지, 하천유역지구

출처 : 환경부, 2000, 「자연생태계 전국조사」

표 17. 양평군에 서식하는 식생의 생태적 현황

행정구역	현존량 (t)	단위 현존량 (t/km ²)	생산량 (t)	단위 생산량 (t/km ² /yr)	산소 생산량 (t/yr)
양평군	4,559,390	5,228	675,830	775	716,379
남양주시	2,205,890	4,302	288,110	692	305,396
여주군	2,466,250	4,054	495,170	715	524,880
광주군	2,202,910	5,183	351,950	728	373,067
가평군	4,058,540	5,072	613,620	736	650,437

출처 : 환경부, 2000, 「자연생태계 전국조사」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특정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식생군락의 개괄적 생태적 현황은 일반적으로 녹지자연도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선행 지표가 되는데, 크게 식생의 현존량(現存量, biomass), 단위 현존량, 생산량(일차생산량)*, 단위 생산량, 산소 생산량 등으로 구분된다.⁶⁹⁾

식생의 생태적 현황을 양평군에 적용하여 살펴보면, 현존량은 455만 9,490톤, 단위 현존량은 5,228톤/km², 생산량은 67만 5,830톤, 단위 생산량은 775톤/km²/yr, 산소 생산량은 716만

* 식생의 생산량 : 식생의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녹색식물인 자연식생이 일정 기간 일정한 면적에서 태양광선을 받아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생산해내는 탄수화물의 양을 의미한다. 이러한 식물의 생산량은 다시 식생이 광합성 작용을 통하여 생산한 총량을 의미하는 총일차생산량(gross primary product)과 총일차생산량에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비하고 남은 순일차생산량(net primary product)으로 구분된다.

69) Odum, E.P., 1987, *Basic Ecology*, Sanders Publishing.

379톤/yr로 나타났다(표 17). 이는 양평군이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의 남양주시·여주군·광주시·가평군에 비해서 모든 지표가 다 높은 것으로, 양평군의 식생분포 및 밀도가 매우 건강하고 생태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시하는 것이다.⁷⁰⁾

이와 같은 생태적 현황을 보유하고 있는 양평군 식생의 녹지자연도를 양평군 전체 면적과의 비율로 정리하면, 0등급(수역)이 1.5%, 1등급(시가지)이 2.9%, 2등급(농경지)이 24.8%, 6등급(인공림)이 23.5%, 7등급(이차림)이 8.9%, 8등급(준자연림 또는 자연림)이 38.4%로 나타났다.⁷¹⁾ 따라서 수역과 시가지 및 농경지를 제외한 녹지공간의 면적이 70.8%로 나타나 군 전체에 걸쳐서 매우 넓은 면적이 녹지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8). 그리고 이 수치는 앞서 토지피복도의 NDVI 지수 분석을 통해 산출한 값(75%)과도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표 18. 양평군의 녹지자연도

(단위 : 개, %)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0등급
격자수	25	216	0	0	0	205	78	335	0	0	13
비율	2.9	24.8	0	0	0	23.5	8.9	38.4	0	0	1.5

양평군의 녹지자연도를 토대로 양평군 산림지역의 식생등급을 정리하면, 양평군 산림지역의 식생은 모두 6~8등급 사이에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는 6등급 식생 33%, 7등급 식생이 13%, 8등급 식생이 54%로 나타나서 8등급 식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양평군 지역의 대표적인 산지지형인 용문산의 경우에는 6등급 식생 20%, 7등급 식생 0.5%, 8등급 이상 식생 79.5%로 양평군 전체 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은 녹지자연도를 나타내고 있었다(표 19).

표 19. 양평군 산림지역의 녹지자연도

(단위 : %)

지역	6등급	7등급	8등급
양평군 전체	33	13	54
용문산 지역	20	0.5	79.5

이러한 양평군 산림지역 식생의 등급별 분포는 우리 나라 산림지역의 8등급 식생 면적 비율 13.3%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치이다. 이는 양평군 산림지역의 식생 보전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생태적인 층위구조(層位構造)가 다양해지는 등 점차 안정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 장소의 생태계 면적이 넓을수록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

70) 환경부, 앞의 책.

71) 이와 같은 녹지자연도 분포는 일반적으로 조사지역을 100m×100m의 격자로 나누어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방법을 메쉬(mesh)법이라고 한다.

물종이 다양하다는 도서생물지리학(島嶼生物地理學, bio-island geography)에 따른다면 6등급이 패치 상태로 분리한 8등급 지역은 서로 합쳐서 연결성을 높여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재도 매우 양호한 녹지자연도 등급을 보이고는 있지만, 좀 더 나은 녹지공간의 생태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8등급 인근지역의 6등급 식생을 8등급 지역으로 높이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산림지역의 현존식생

위에서 살펴본 양평군의 녹지공간을 이루고 있는 식생, 그 중에서 특히 산림지역을 이루고 있는 식생군락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 집필에서는 양평군 산림지역에 서식하는 현존식생에 대한 조사를 크게 신갈나무 군락(*Quercus mongolica* community), 굴참나무 군락(*Quercus variabilis* community), 떡갈나무 군락(*Quercus dentata* community), 소나무 군락(*Pinus densiflora* community), 잣나무 식재림(*Pinus koraiensis* plantation)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⁷²⁾

용문산을 중심으로 하는 양평군의 현존식생 현황을 살펴보면, 산지지역의 남사면에는 오래된 소나무들이 패치로 군락을 형성하고 있고, 계곡 쪽으로 좀더 들어가면 은행나무와 신갈나무 군락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산지지역의 정상부로 올라가는 가파른 능선부와 군사보호지역, 해발고도가 높은 고지대에는 신갈나무가 자연식생을 이루고 있으며, 계곡부에서는 으름과 다래 등의 만경식물이 덮고 있다. 또한 사면 곳곳에는 층층나무와 고로쇠나무 등이 소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정상 부근의 신갈나무 군락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교목층에는 신갈나무가 우점하고, 아(亞)교목층에는 당단풍(唐丹楓)이, 관목층에는 노린재 나무와 철쭉꽃·산앵도 나무 등이 우점한다. 인위적 영향을 많이 받은 저지대와 주거지역 근처에는 잣나무와 일본잎 갈나무 등이 식재되어 산림식생이 다른 구역에 비해서 교란된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대규모 위락단지가 건설된 주변 도로에는 도로건설과 건물의 입지 및 여행객의 이용에 따라 산림식생이 교란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해발 300m 이하에서는 입지환경에 따라 소나무 군락·굴참나무 군락·상수리나무 군락 등이 우점하고 있으며, 소나무 군락은 참나무류로의 식생천이(plant succession)가 진행중에 있다.

산림식생의 분포 면적을 군락별로 살펴보면(표 20), 산지지역 사이를 연결하는 능선부를 따라 산림식생이 양호한 신갈나무림이 전체 산림면적의 66.6%를 점유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굴참나무가 많은 분포지역을 보이고 있다. 3령(齡)급 이상의 산림분포 면적을 양평군 주변 4개 군 지역과 비교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양평군의 식생등급은 4등급으로 평가되어 5개

72) 환경부, 앞의 책.

표 20. 양평군 산림지역의 식생군집별 면적

(단위 : %)

산림군락명	평가단위의 면적 비율	식생보전 대상지역의 산림면적 비율
신갈나무림	24.46	66.58
굴참나무림	6.36	17.32
상수리나무림	1.13	3.08
신갈나무 - 굴참나무림	0.44	1.19
신갈나무 - 소나무림	0.96	2.62
굴참나무 - 소나무림	0.75	2.05
상수리나무 - 소나무림	0.94	2.56
소나무림	0.97	2.64
소나무 - 신갈나무림	0.32	0.87
소나무 - 굴참나무림	0.41	1.10
3등급 산림 식생외 지역	63.26	-
합계	100.00	100.00



사진 25. 용문산 남사면의 8등급 식생(해발 450m)

지역 가운데에서 가장 양호한 식생면적 및 분포 현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⁷³⁾

요약하면, 용문산을 중심으로 하는 산림은 전체적으로 냉온대 중부의 대표종인 신갈나무가 우점하는 안정된 식생생태계를 유지하고 있고, 인접한 경기도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산림신생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용문산 남쪽의 용문사 지역을 포함하는 일대와 한화리조트, 대명콘도 등이 입지한 지역은 야영장·취사장·민박촌·여관 등의 대단위 시설로 말미암아 하천의 하천 주변식생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생활하수를 잘 관리해야 하고,

73) 환경부, 1998, 『제2차 전국 자연환경조사 : 양평·홍천의 자연환경』.

등산로 주변의 노송(老松)과 계곡의 경관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상부의 군부대는 군수물자 수송을 위해 서사면에 군사용 도로를 개설하여 산림을 훼손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우기와 집중호우시 토양유실로 인한 산사태의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6절 동물상

양평군은 청정한 수역과 식생의 건강도가 높은 산림지역, 그리고 친환경적인 농업을 통한 토양환경의 안정도 등 생태적인 가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분포 및 서식하고 있는 동물상은 종(種) 및 개체수가 매우 다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⁷⁴⁾. 이에 본 절에서는 양평군에 서식하고 있는 동물상을 크게 육상곤충,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담수어류,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로 나누어 그 분포 및 종과 개체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육상곤충

양평군의 곤충상은 주로 산림지역에 밀집하여 나타난다. 양평군에서 육상곤충이 서식하는 지역은 크게 6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6개 권역은 ① 용문면 용문산 남사면 일대, ② 설악면 용문산 남서사면 일대, ③ 용문면 신점리 일대, ④ 옥천면 용천리 두명안, ⑤ 용문면 신점리 동피골 용문산 동사면 일대, ⑥ 용문면 용문산 남동사면 일대이고, 주요 서식종은 반날개상과, 풍뎡이상과, 잎벌상과, 말벌상과, 꿀벌상과, 미소나방류, 꽃등예과, 나비류이다(표 21).

이 지역에서 현재까지 조사·보고된 육상곤충은 모두 4목 34과 374종인데,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2). 참고로 표 22에서 정리한 육상곤충 목록은 생물분류법 계급 중 과(family)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현시기 가운데 춘계는 4~5월, 하계는 6~8월, 추계는 9~10월이다.

74) 환경부, 앞의 책.

표 21. 양평군 육상곤충의 주요 서식지와 대표 서식종

주요권역	주요곤충
용문면 용문산 남사면 일대	반날개상과
가평군 설악면 용문산 남서사면 일대	풍뎅이상과
용문면 신점리 일대	잎벌상과, 말벌상과, 꿀벌상과
옥천면 옥천리 두명안	잎벌상과, 말벌상과, 꿀벌상과
용문면 신점리 동피골 용문산 동사면 일대	미소나방류
용문면 용문산 남동사면 일대	꽃등애과, 나비류

표 22. 양평군 지역의 주요 곤충상 및 개체수

과(family) 명칭		종(species)의 수	출현시기
국문 명칭	학명		
송장벌레과	Family Silphidae	5	하계
반날개과	Family Staphylinidae	12	하계
사슴벌레과	Family Lucanidae	5	하계
쇠뚝구리과	Family Scarabaeidae	11	하계
똥풍뎅이과	Family Aphodidae	4	연중
검정똥풍뎅이과	Family Melolonthidae	15	춘계 · 하계
풍뎅이과	Family Rutelidae	15	연중
꽃무지과	Family Cetonidae	5	춘계 · 하계
등에잎벌과	Family Argidae	2	연중
수중다리잎벌과	Family Cimbicidae	1	연중
잎벌과	Family Tenthredinidae	23	연중
말벌과	Family Vespidae	24	연중
꼬마꽃벌과	Family Halictidae	4	춘계 · 하계
가위벌과	Family Megachilidae	6	연중
청줄벌과	Family Anthoporidae	4	하계 · 추계
꿀벌과	Family Apidae	7	연중
꽃등애과	Family Syrphidae	10	하계
잎말이나방과	Family Tortricidae	48	춘계 · 하계
가는잎말이나방과	Family Cochylidae	1	하계
곡식좀나방과	Family Tineidae	1	춘계 · 하계
원뿔나방과	Family Stathmopodidae	1	하계
감꼭지나방과	Family Oecophoridae	2	하계
뿔나방붙이과	Family Leithoceridae	1	하계
뿔나방과	Family Gelechiidae	3	하계
밑두리뿔나방과	Family Blastobasidae	1	하계
명나방과	Family Pyralidae	58	춘계 · 하계
알락나방과	Family Zygaenidae	1	연중
췌기나방과	Family Limacodidae	3	연중

과(family) 명칭		종(species)의 수	출현시기
국문 명칭	학명		
호랑나비과	Family <i>Papilionidae</i>	10	하계
흰나비과	Family <i>Pieridae</i>	9	춘계 · 하계
부전나비과	Family <i>Lycaenidae</i>	10	춘계 · 하계
네발나비과	Family <i>Nymphalidae</i>	50	춘계 · 하계
팔랑나비과	Family <i>Hesperiidae</i>	13	춘계 · 하계

2. 대형무척추동물

양평군 및 그 주변지역에서 출현하고 있는 대형무척추동물은 4문 6강 12목 32과 97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를 분류군별로 정리하면, 플라나리아류 1종, 빈모류 1종, 거머리류 1종, 복족류 2종, 곤충류 91종이다. 곤충류 중에는 하루살이류(27종), 날도래류(25종), 강도래류(11종)의 종출현도가 높아 환경상태가 양호한 수역임을 대변하고 있다.⁷⁵⁾ 하천별 종출현종수는 흑천 71종(10개 지점), 묵안천 43종(5개 지점), 사탄천 42종(3개 지점), 중방대천 41종(5개 지점), 수입천 37종(2개 지점), 양덕원천 27종(4개 지점), 홍천강 본류 23종(4개 지점)의 순으로 나타난다.

대체로 일반적인 하천에서 주로 출현하는 등줄하루살이(*Uracanthela rufa*) · 줄날도래 KUa(*Hydropsyche* KUa) · 애호랑하루살이(*Baetis fuscatus*) · 줄날도래 KUe(*Hydropsyche* KUe) · 꼬마하루살이(*Baetis thermocus*) · 꼬마줄날도래(*Chematopsyche brevilineata*) 이외에도, 옆새우류(*Gammarus* sp.) · 흰부채하루살이(*Epeorus curvatulus*) · 민하루살이(*Cincticostella castanea*) · 물날도래 KUa(*Rhyacophila* KUa)와 같은 청정수역의 지표종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표 23).

이 중 양평군에 직접적으로 서식하는 대형무척추동물은 대부분 양평군을 관류하는 흑천에 분포하고 있다. 흑천 수계의 지점별 종출현종수는 12~40종으로 지점별 변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본류 지점 내에서도 서식종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점별 종출현개체수는 46~919개체/0.5m²로 공간적 분포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개체수는 본류의 중하류에서 특히 높게 나타난다.

75) 여기서 정리하는 대형무척추동물은 주로 하천 및 수역에 서식하는 동물들이다. 따라서 대상지역은 대부분 양평군과 인접한 홍천군을 연속하여 흐르는 하천이 되기 때문에, 양평군 한 지역에 국한해서 동물상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며, 생태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대형무척추동물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양평군과 그 주변지역의 수역에 분포하는 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다음으로 이러한 수역 가운데 양평군을 관통하는 특정 지점의 종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한다.

표 23. 흑천의 저서성 무척추대형동물 개체수 출현도

(단위 : 개/0.5m²)

종명	수	종명	수	종명	수	종명	수
곳채다슬기	2	무늬하루살이	3	여울벌레류	1	각다귀 KU _b	14
주름다슬기	7	알통하루살이	42	수염치레각날도래	5	각다귀 KU _d	2
옆새우류	1	뿔하루살이	6	연날개수염치레각날도래	1	명주각다귀 KU _a	277
애호랑하루살이	1	민하루살이	177	줄날도래 KU _a	317	무늬애기각다귀 KU _a	15
애하루살이	5	먹하루살이	15	줄날도래 KU _b	5	먹파리류	30
꼬마하루살이 KU _a	8	등줄하루살이	894	줄날도래 KU _e	154	대도등에불이	2
꼬마하루살이	8	범꼬리하루살이	31	줄날도래 KD	1	등에류	1
부채하루살이	82	어리장수잠자리	2	꼬마줄날도래	31	칼다구류	88
흰부채하루살이	98	쇠측범잠자리	5	꼬마줄날도래 KU _b	185	꼬마하루살이 nla	8
봄처녀하루살이	1	민강도래 KU _a	3	물날도래 KU _a	49	동양하루살이	13
처녀하루살이 KU _a	10	민강도래 KU _b	19	민무늬물날도래	1	검정날개각다귀 KU _a	18
몽뚝하루살이	61	줄강도래 KU _a	19	넓은머리물날도래	10	검정날개각다귀 KU _b	1
참납작하루살이	1	강도래불이	6	계곡물날도래	1	검정날개각다귀 KU _c	2
두점하루살이	1	강도래 KU _a	4	두잎물날도래	1	가람하루살이	1
네점하루살이	55	녹색강도래	1	무늬물날도래	3	물방개류	8
두갈래하루살이	17	뱀잠자리	7	광택물날도래 KU _a	59	각다귀 KU _a	1
장수하루살이	38	대륙뱀잠자리	3	애우물날도래 KU _a	2		

주요 분류군별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하루살이류의 개체수 출현도가 높았으며 본류의 중류 지점과 덕수천의 하류 지점은 날도래류의 출현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본류의 중하류 지점과 용문천의 하류 지점은 파리류의 출현도가 높게 나타난다.

흑천의 주요 출현종 중 부채하루살이, 흰부채 하루살이, 몽뚝하루살이, 물날도래 KU_a, 광택물날도래 KU_a, 명주각다귀 KU_a는 전 지점을 걸쳐 고른 출현도를 보인다. 그 외 민하루살이와 줄날도래 KU_e는 주로 상류에 나타난 반면, 중류성 종류인 네점하루살이와 장수하루살이는 본류의 중하류 지점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등줄하루살이와 줄날도래 KU_a, 꼬마줄날도래 KU_b는 특히 중하류에서 높은 출현도를 나타낸다. 강도래류는 주로 상류 하천에 국한하여 나타나지만, 민강도래류와 줄강도래는 하류까지 넓게 나타난다.

3. 담수어류

양평군과 그 주변지역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담수어류는 북한강 수계인 홍천강에서 8과 24속 33종, 북한강 수계인 소하천들에서 8과 19속 25종, 남한강 수계인 소하천들에서 8과 20속 27종이 발견·보고되고 있다. 이 중에 우리 나라의 고유종은 20종(54%)으로 이는 우리

나라 정체 고유종 50여종의 40%나 출현하는 높은 고유종의 분포 비율이다. 출현종 중에 잉어과 어류는 23종(62%)으로 가장 우세하였고, 미꾸리과가 4종(11%)으로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의 과(科) 어류가 각각 1~2종씩 출현하였다. 1차 담수어는 37종 중에 34종(92%)으로 대부분이고, 육붕어는 독중개와 밀어의 2종(5%), 주연성 어류는 갈문망둑 1종(3%)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나 위해(危害)동식물에 속하는 종은 한 종도 분포하지 않는데, 보호야생동식물에 포함되는 묵납자루(*Acheilognathus signifer*)는 3개 소하천에 4개 지점에서 서식하고 있다. 한편 11개 소하천의 우점종은 하천의 특징에 따라 피라미(*Zacco platypus*)가 우점종인 소하천이 7개, 갈겨니(*Zacco temminici*)가 우점종인 소하천이 4개로 나타나 하천의 상류나 상태가 양호한 수역은 갈겨니, 하천의 중류나 하천이 개수된 수역에서는 피라미가 우점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피라미와 갈겨니 이외에도 7개 이상 소하천에서 잡히는 비교적 흔한 어류로는 버들치(*Moroco oxycephalus*), 돌고기(*Pungtungia herzi*), 쉼리(*Coreoleuciscus splendidus*), 참마자(*Hemibabus longirostris*), 모래무지(*Psedogobio esocinus*), 미꾸리(*Misgrunus anguillicaudatus*), 참중개(*Ikksokimia koreensis*), 동사리(*Odontobutis platycephala*), 얼룩동사리(*Odontobutis o. interrupta*) 등이었다.

이 지역에 서식하는 어류 중에 금강모치, 납줄개, 가는돌고기, 꾸구리, 돌상어, 독중개 등은 조사수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매우 희귀한 종으로 보호가 요구되는 것으로서, 이는 양평군의 하천환경이 생태적으로 아직까지는 매우 양호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이를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1) 남한강 수계의 담수어류

양평군을 관통하여 흐르는 대표적인 하천인 흑천은 남한강 수계로서 수많은 지류와 세류들이 결합하여 흐르는 하천이다. 양평군 지역내 남한강 수계의 담수어류는 흑천 본류와 지류인 신복천·연수천·덕수천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양평군의 남한강 수계에 서식하는 담수어류는 총 8과 20속 27종 2,171개체로 나타나고 있다(표 24).

이 중 신복천과 흑천의 하류는 피라미가 우점종이고, 흑천의 소하천인 연수천의 하류는 갈겨니가 우점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류인 덕수천의 하류는 버들치가 우점종이면서 동시에 희귀종인 독중개가 11마리나 발견되어 서식처의 보호가 요구된다. 전체적으로 피라미와 갈겨니 이외에도 돌고기가 대부분의 구역에서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최근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납줄개가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다.⁷⁶⁾

76) 환경부, 앞의 책.

표 24. 양평군 남한강 수계에 서식하는 담수어류

담수어류	신복천	흑천				
		본류	덕수천	조현천	연수천	신내천
피라미	130	92	52	81	17	158
갈겨니	-	42	43	16	134	5
버들치	29	-	62	3	13	-
납줄개	-	-	-	-	-	1
각시붕어	-	-	-	-	-	40
납자루	-	-	-	-	-	5
묵납자루	-	-	-	7	-	-
줄납자루	-	-	-	-	-	3
붕어	-	-	-	-	-	3
돌고기	25	72	24	72	36	44
쉬리	-	9	27	1	15	14
물개	-	-	3	-	-	-
긴물개	-	-	16	-	-	25
참마자	-	5	5	-	3	9
모래무지	-	1	1	-	3	12
돌마자	-	-	-	-	-	3
배가사리	-	-	-	-	-	6
미꾸리	3	1	11	-	1	-
새코미꾸리	-	-	-	1	2	17
참중개	-	2	1	-	11	7
눈동자개	-	-	-	-	-	17
미유키	-	-	-	-	1	-
통가리	-	1	-	2	-	10
독중개	-	-	11	-	-	-
꺼지	-	3	-	4	5	10
동사리	-	11	2	3	-	-
얼룩동사리	7	7	4	-	-	-
합계	194	243	262	183	243	1,046

2) 양평군 지역에서 특별한 보호대책이 필요한 중

(1) 묵납자루(*Acheilognathus signifer* Berg)

한강 이북의 큰 하천의 중상류에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이 종은 한국 특산종으로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동식물에 포함되어 있다. 북한에도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종은 우리나라에서는 희소하지만 분포하는 지역에 따라 많은 양이 서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서식환경이 중상류이면서 조개가 살 수 있는 뿔이 있어야 하므로 서식에 제한을 받기도 한다.⁷⁷⁾ 양평군에서



사진 26. 목납자루



사진 27. 독중개

도 흑천의 중하류에서 7개체가 발견되어 비교적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서식지의 영역은 협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독중개(*Cottus poecilopus* Heckel)

우리 나라 특산종은 아니지만 이 종은 북방계 육봉형 담수어류로 서식처는 용존산소량이 많고 수온이 낮으며, 하상에 숨어지낼 바위와 큰 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하상이 개수되어 하상구조가 크게 변하였고, 하천주변에 많은 유원지가 생겨 서식처가 급격히 파괴되고 있다. 지금은 한강과 임진강의 최상류에만 일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남한강 수계의 소하천인 흑천으로 흐르는 덕수천의 하류부분에서 11개체가 발견되고 있다.

4. 양서·파충류

양평군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양서·파충류의 경우, 양서류는 7속 10종(도롱뇽·꼬리치레·도롱뇽·무당개구리·두꺼비·청개구리·맹꽁이·참개구리·산개구리·옴개구리·아무르산개구리), 파충류는 5속 7종(표범장지뱀·유혈목이·능구렁이·무자치·까치살모사·살모사·쇠살모사)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중 양평군의 경우에는 도롱뇽, 무당개구리, 두꺼비, 청개구리, 맹꽁이, 참개구리, 산개구리, 옴개구리, 도마뱀, 표범장지뱀, 유혈목이, 능구렁이, 살뱀, 무자치, 구렁이, 살모사, 까치살모사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25).

용문산을 중심으로 하는 양평군의 양서·파충류의 서식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용

표 25. 양평군 주변 지역에 서식하는 양서·파충류

양서류(Class Amphibians)		파충류(Class Reptilia)	
유미목(Order Caudata)	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	유인목(Order Squamata) 도마뱀아목(Suborder Lacertlia)	도마뱀 장지뱀 줄장지뱀 표범장지뱀
무미목(Order Salientia)	무당개구리 두꺼비 물두꺼비 청개구리 맹꽁이 참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옴개구리	유인목(Order Squamata) 뱀아목(Suborder Serpentes)	누룩뱀 무자치 유혈목이 실뱀 능구렁이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표 26. 용문산에서 서식이 확인된 양서·파충류

일반명	학명	등급*	비고
도롱뇽	<i>Hynobius leechi</i>	2	
꼬리치레도롱뇽	<i>Onychodactylus fischeri</i>	2	
무당개구리	<i>Bombina orientalis</i>	2	
두꺼비	<i>Bufo bufo gargarizans</i>	3	
청개구리	<i>Hyla japonica</i>	1	
참개구리	<i>Rana nigromaculata</i>	1	
아무르산개구리	<i>Rana amurensis</i>	1	
옴개구리	<i>Rana rugosa</i>	2	
북방산개구리	<i>Rana dybowskii</i>	2	
도마뱀	<i>Scinella laterale laterale</i>	1	한국 자연보존협회 희귀 및 위기동물
누룩뱀	<i>Elephe dione</i>	1	
무자치	<i>Elephe rufodorsata</i>	2	
유혈목이	<i>Rhabdophis tigrinus tigrinus</i>	1	
능구렁이	<i>Dinodon rufozonatus</i>	1	한국 자연보존협회 희귀 및 위기동물
쇠살모사	<i>Agkistroden ussuriensis</i>	3	
살모사	<i>Agkistroden brevicaudus</i>	1	
까치살모사	<i>Agkistroden saxatilis</i>	3	환경부 멸종위기종 및 보호야생동물 한국 자연보존협회 희귀 및 위기동물

* 환경부 전국자연생태조사(1996~2002)의 등급

문산 중턱 계곡에서 확인된 종은 꼬리치레도롱뇽, 북방산개구리 등이 4~5월에 알과 유생으로 관찰되었으며, 파충류는 6월에 무자치 성체가 관찰되었다. 또한 옥천면 용천리의 경우 참개구리, 청개구리, 산개구리, 도롱뇽과 같은 양서류가 발견된다.

옥천면과는 반대쪽의 용문면 오촌리에서는 청개구리·산개구리·아무르산개구리·무당개구리·옴개구리·도롱뇽 등의 알과 성체들이 농경지와 수로 및 계곡 등에서 관찰되며 무자치도 자주 눈에 띄는 종이다. 또한 현재까지 확인된 양서류는 참개구리·청개구리·북방산개구리·옴개구리·아무르산개구리·무당개구리·두꺼비·도롱뇽 등이고, 파충류는 살모사·쇠살모사·까치살모사·누룩뱀·유혈목이·무자치·능구렁이·도마뱀이 확인되었다(표 26).

5. 조류 및 포유류

1) 조 류

용문산을 중심으로 하는 양평군에서 확인된 조류는 모두 37종 266개체이다(표 27). 이 가운데 최우점종은 박새(Parus major, 29개체)였고, 우점종은 쇠박새(Parus palustris, 27개

표 27. 용문산에서 서식이 확인된 조류

조류명	번식 가능성	조류명	번식 가능성
중대백로	C	휘파람새	C
왜가리	C	흰눈썹황금새	C
흰뺨검둥오리	C	오목눈이	A
새매	C	쇠박새	A
검은등뺨꾸기	C	진박새	A
뺨꾸기	C	곤줄박이	A
후투티	C	박새	A
청딱다구리	C	둥고비	A
쇠딱다구리	C	멧새	A
제비	C	노랑턱멧새	A
노랑할미새	C	참새	A
알락할미새	C	피꼬리	C
할미새사촌	C	어치	A
직박구리	A	물까치	C
물까마귀	C	까치	A
쇠유리새	C	까마귀	C
딱새	A	멧비둘기	A
흰배지빠귀	C	병어리뺨꾸기	C
붉은머리오목눈이	A		



사진 28. 검은등뺨꾸기



사진 29. 청딱다구리

체) · 노랑턱멧새(*Emberiza elegans*, 27개체) · 곤줄박이(*Parus varius*, 21개체)였다. 이 중 번식가능성에 대한 평가 등급 결과 가장 높은 A등급으로 평가된 종은 15종, C등급으로 평가된 종은 22종으로 확인되었다.

용문산에서 확인된 37종 중 특정종은 환경부 전국자연생태조사 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새매(*Accipiter nisus*), 2등급에 해당되는 중대백로(*Egretta alba modesta*), 왜가리(*Ardea cineria*), 그리고 1등급에 해당되는 검은등뺨꾸기(*Cuculus micropterus*), 청딱다구리(*Picus canus*), 할미새사촌(*Pericrocotus divaicus*), 물까마귀(*Cinclus pallasii*), 물까치(*Cyanopica cyana*)의 모두 8종이다.⁷⁸⁾

2) 포유류

양평군 주변지역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모두 5목 12과 20종이다(표 28). 이 중 용문산에서는 5목 9과 13종이 확인되었는데, 이 중 회귀 및 위기동물은 고슴도치와 산으로 평가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하늘다람쥐 외 6종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관광지 개발 등으로 인한 서식환경 악화와 주민들의 불법남획이 주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양이 외 6종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먹이가 풍부하여 번식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용문산의 경우에는 총 5목 9과 13종 69개체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 고양이와 다람쥐가 가장 많이 발견된다. 고양이 14개체, 다람쥐 12개체는 용문산 주변과 등산로를 따라 주로 관찰되는데 이는 등산객이 먹다 버린 음식물을 먹으려 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역에 나타나는 포유류 전체 20종 가운데 우점종은 두더지로서 우점도는 13.6%이고, 그

78) 김창희, 1997, 『조류조사지침 : 제2차 자연환경 전국 기초 조사』, 환경부, 115~138쪽.
원병오, 1993, 『한국의 조류』, 교학사.

표 28. 용문산에 서식하는 포유류

종명	학명	개체수	종명	학명	개체수
두더지	<i>Mogera wogura</i>	8	너구리	<i>Nyctereutes procyonoides</i>	4
족제비	<i>Mustela sibirica</i>	3	오소리	<i>Meles meles</i>	1
삿	<i>Prionailurus bengalensis</i>	1	고양이	<i>Felis catus</i>	14
멧돼지	<i>Sus scrofa</i>	3	노루	<i>Capreolus pygargus</i>	1
고라니	<i>Hydropotes inermis</i>	4	멧토끼	<i>Lepus coreanus</i>	4
청설모	<i>Sciurus vulgaris</i>	8	다람쥐	<i>Tamias sibiricus</i>	12
등줄쥐	<i>Apoemus agrarius</i>	6			

다음이 다람쥐로 11.1%의 우점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양평군 일대 포유류의 종다양도*(bio-diversity index : H)는 홍천의 각근봉이 3.784%로 가장 높았으며, 종균등도*(even-ness index : E)는 매봉산이 0.978%로 매우 높았다. 반면에 용문산의 다양도와 종균등도는 다른 동물상과는 달리 이 지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 종다양도 : Magalef(1968)의 정보이론에 의하여 유도된 Shannon-Weaver-function을 사용하여 산출하는 지표이다. 이는 동물군집의 종 풍부도와 개체수의 상대적 균형성을 뜻하는 것으로 군집의 복잡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종 다양도가 풍부하다고 하더라도 개체수가 특정 종에 심하게 치중되면 그 의미는 상당 부분 감소한다.

* 종균등도 : 각 지수의 최대값에 대한 실제값의 비율로서 표현된다. 각 다양도 지수는 모든 종의 개체수가 동일할 때 최대가 되기 때문에 결국 균등도 지수는 군집내 종 구성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강대현, 1968, 「한강 하류 범람원 취락의 특질」, 『지리학』 2.
- 강성열, 2000, 『지리로 보는 지리산』, 향지사.
- 강영복, 1973, 「화강편마암에 발달한 적색토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1.
- 강영복, 1977, 「계양산 산록면에 발달한 토양단면 특성에 관한 연구」, 『지리학』 15.
- 건설부 국립지리원, 1987, 『한국지리 : 지방편 III』.
- 건설부 국립지리원, 2000, 『1:50,000 지형도 : 양수·여주·이천·원주·홍천·용두 도엽』.
- 건설부, 1958, 『1:50,000 지형도 : 양수 도엽』.
- 구리시, 1997, 『구리시지 (상) : 역사와 문화유산』.
- 권순식, 1987, 『한반도 화강암 풍화층에 발달된 제4기 후반의 주빙하 결빙구조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혁재, 1999(제2판), 『지형학』, 법문사.
- 권혁재, 2000, 『한국지리 : 총람편』, 법문사.
- 김상호, 1966, 『한강하류의 저위침식면 지형연구』, 서울대학교 학술총서(2).
- 김상호, 1983, 『옥천지향사의 지형연구』, 교문사.
- 김상호, 1997, 『한국의 자연과 인간』, 우리교육.
- 김연옥, 1988, 『기후학 개론』, 법문사.
- 김익수, 1997, 『한국 동식물 도감 : 제37권 동물편(담수어류)』, 교육부.
- 김창희, 1997, 『조류조사지침 : 제2차 자연환경 전국 기초 조사』, 환경부.
- 농촌진흥청, 1977, 『정밀토양도 : 양평군』.
- 대한지질학회, 2001, 『한국의 지질』, 시그마 프레스.
- 류순호, 2002, 『토양사전』, 서울대학교 출판부.
- 박 경, 1987, 「천리포 사구내의 적황색 퇴적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의준·이정록, 2001, 「수분수지 분석을 통한 호남지역의 잠재적 물 사정 고찰」,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3).
- 서울특별시 양천구, 1997, 『양천구지 : 역사속의 양천』.
- 손명원, 「구리시의 자연환경」, 구리시, 『구리의 역사와 문화』.
- 손명원, 2000, 「우리나라 침식분지의 경관 : 구릉지의 토지이용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6(2).
- 손명원, 2001, 「우리나라 저위 하안단구의 형성요인」,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2).
- 양평군지편찬위원회, 1991, 『양평군지』, 양평군.
- 양평군, 2000, 『양평군 통계연보』, 통계청.
- 오경섭, 1989, 「화강암 풍화층의 점토조성과 풍화환경」, 『지리학』 40.
- 오경섭·오선희, 1994, 「금강과 만경강 역과 모래의 풍화환경」, 『한국지형학회지』 2.

- 원병오, 1993, 『한국의 조류』, 교학사.
- 이용일, 1997, 『퇴적암석학』, 도서출판 우성.
- 이종문 · 이민부, 1997, 『환경교육』,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 장 호, 1983, 「남서부 지방의 제암석에 나타나는 풍화현의 성인과 형성시기」, 『지리학논총』 10.
- 장재훈, 1966, 「산록완사면 지형에 대한 연구」, 『지리학』 2.
- 장재훈, 1976, 「산록완사면의 형상적 특징과 성인연구」, 『성신여사대논문집』 9.
- 장재훈, 1989, 「한국의 촌락입지에 관한 지형학적 연구」, 『웅용지리』 13.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1, 『1:250,000 지질도 : 서울 도엽』.
- 한국수자원공사, 1992, 『전국 하천조사서』.
- 환경부, 2002, 『제2차 전국 자연환경조사 지침 : 지형 · 경관분야』.
- 환경부, 2000, 『자연생태계 전국조사 : 제10차년도(서울 · 경기의 녹지자연도)』.
- 환경부, 1998, 『제2차 전국 자연환경조사 : 양평 · 홍천의 자연환경』.
- 환경처, 1992, 『현존식생도 1 : 서울 · 경기도 도엽』.
- 황상일, 1995, 「GIS 기법으로 복원한 일산지역의 Holocene 고지리」, 『지리교육』 8.
- 기상청 홈페이지, 2002, [www://www.kma.go.kr](http://www.kma.go.kr)
- Atkins, P.C., 1998, *Hydrology and the Management of Watershed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 Donahue, P.K., 1990, *Soils*, Blackwell Unwin.
- Forman, Richard.T.T. and Godron, M., 1990, *Landscape Ecology*, John Wiley & Sons.
- Forman, I., 1992, *Landscape Ecology*, John Wiley & Sons.
- Houghton, G. and Hunter, C., 1994, *Sustainable Cities*, Regional Studies Association.
- Jennings, M., 1967, *Karst Geomorph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 Leopold, A., 1964, *Fluvial Processes and Landforms*, Oxford Press.
- Lutgens, F.K. and Tarbuck, E.J., 1992(5th edition), *The Atmosphere*, Prentice Hall.
- Mather, J.R., 1997, "Water budget climatology", Hanson, S(eds), *Ten Geographic Ideas That Changed the World*, Rutgers University Press.
- Odum, E.P., 1987, *Basic Ecology*, Sanders Publishing.
- Ruxton, R.V., 1976, *Granite Landforms*, John Wiley & Sons.
- Thomas, M.F., 1974, *Tropical Geomorphology*, John Wiley & Sons.
- Thorntwaite, C.W. and Mather, J.R., 1957, *Instruction and Tables for Computing Potential Evapotranspiration and Water Balance*, Centerton.
- Tricart, F.C., 1978, *Structural Geomorphology*, George Allen Unwin.
- Washburn, A.L., 1980, *Geocryology : A survey of periglacial processes and environments*, John Wiley and Sons.

여 백

제2장 인문환경

제1절 양평의 역사지리

1. 양평의 풍수*

1) 머리말

풍수는 자연환경의 질서와 이치를 생명의 원리로 사유하고 이해하는 전통적 지혜로서, 오랫동안 한국의 취락입지 및 조경, 공간배치와 구성, 건축 등에 널리 활용되었다. 양평은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한 고장으로 향촌민들은 천혜의 풍수적 환경을 바탕으로 오랫동안 복된 삶을 일구어 왔다.

이 글은 양평의 풍수생활사를 탐구하기 위하여 주로 다음의 세 가지 대상과 방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양평지역 풍수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자연적·역사적인 조건을 살펴볼 것이고, 이어서 양평의 취락풍수를 특히 풍수적 입지론과 비보론(裨補論)의 측면에서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향촌민의 풍수지명과 설화를 지역주민의 풍수적 환경인식 및 태도라는 측면에서 조명할 것이다. 위의 세 가지 내용구성을 본문의 전개에 맞추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평풍수의 자연적·역사적 배경은 양평의 풍수를 연구하는 지리적 바탕이 된다. 양평지역 풍수의 특징은 수(水)의 조건을 대표로 하여 지형·지세를 검토할 수 있는데 특히 양평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수(合水)할 뿐만 아니라 각 소규모 단위 지형에서 명당수가 만남으로써 성국(成局)되는 탁월한 수구(水口) 조건을 이룬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역

* 1. 양평의 풍수는 최원석 집필임.

사적 배경으로는 양평의 행정구역에 관한 내용과 조선조 동족촌의 입지 및 형성과 관련된 사항을 고찰하였다.

둘째, 양평지역의 취락에 대한 풍수적 고찰은 매우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특히 이 글에서는 풍수적 입지론 및 비보론에 초점을 맞추어서 양평의 고을(양근·지평)풍수와 마을풍수를 서술하였다. 그 중에서도 비보에 관해서는 양평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주거지를 어떻게 풍수적 이상형으로 가꾸고자 하였는가 하는 점이 주목되었다. 한편 『정감록』에 소개된, 옛 양근군의 피장처(避藏處)로 꼽혔던 미원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입지배경도 검토했다.

셋째, 양평지역의 향촌민들이 남긴 풍수생활사적인 유산으로서 지명과 설화를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자연환경을 어떻게 풍수적인 태도로 인식하고 대하였는지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서 문헌조사와 현지답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은 읍지 및 고지도뿐만 아니라 현대지형도를 참고하였으며, 근래에 출간된 향토사 관련 문헌들도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다. 풍수적 지명과 설화 등에 대해서는 『한국지명총람』 등과 『한국구비문학대계』 등을 참고하여 정리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현 양평군 행정구역으로 한정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현 행정구역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옛 양평의 권역인 양근군과 지평현에 포함되는 지역도 포함되었다.

2) 양평의 풍수적 배경

(1) 자연적 배경

양평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유역에 자리잡아 경기도에서 수(水) 경관이 탁월한 지역으로 손꼽는 곳이다. 따라서 물의 조건은 양평의 풍수적 논의에서 중요한 배경이 된다. 양평에서 물의 중요성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양평군은 2002년 현재 총 예산의 35.2%를 “맑은 물 사랑”의 실천을 위한 예산으로 쓰고 있으며, 물의 보전 및 관리는 양평군의 최우선 시책이기도 하다. 그러면 풍수에서는 수(水)를 어떤 관점으로 보며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까?

양평은 풍수적인 수(水) 경관조건이 탁월한 곳이다. 『인자수지(人子須知)』에 의하면, “수의 발원(發源水)¹⁾은 깊고 길어야(深長) 용기(龍氣)가 왕성하여 발복이 오랴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양평은 유장하게 흐르는 남한강과 북한강의 물자락이 합수되는 곳으로 좋은 풍수적 여건을 구비하였다. 그리고 양평에는 한강 및 흑천 등 기타 지류들이 나타내는 수의 유로(流路)도 풍수의 수론(水論)에서 강조하는 “교(交)하고, 쇠(鎖)하고, 직(織)하고, 결(結)한 곳은 마땅히 (땅을) 구해야 한다”²⁾는 원칙에 부합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풍수에서 수는 산, 방위와 함께 세 구성요소의 하나에 해당한다. 사실 풍수(風水)라는 용

1) 명당에서 볼 때 내원(來源)하는 수(水)를 말한다(『人子須知』).



굴곡하는 하천을 끼고 자리잡은 옛 마을(서종면 수입리·노문리 : 1/2,5000 지형도를 65%로 축소)

어의 유래도 “바람을 갈무리하고[藏風] 물을 얻는다[得水]”는 데에서 비롯되었을 만큼 물은 풍수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또한 풍수이론 중에 득수법(得水法)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물(지표수)에 대한 일종의 전통적 환경평가이론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풍수에서는 물을 왜 중요하다고 할까? 물은 생명력의 징표로서 땅이 건강한지 아니면 병들었는지를 말해주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곧 풍수에서는 땅에 흐르는 생명의 기운(生氣)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생명의 기운은 물을 얻는 곳에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풍수에서 생명의 조건은 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풍수에서 어떻게 물을 보고 땅의 건강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또 그 근거는 무엇일까? 만약 삶터 부근에 물이 샘솟거나 졸졸졸 시냇물이 흐를 때 그 물의 빛깔이 맑으면 그 땅은 건강한 땅이다. 왜냐하면 땅에 흐르는 개울물은 마치 사람 몸의 피와 같은데, 사람도 피가 맑아야 몸이 건강한 것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이다. 피가 흐르면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면역기능이 약해져서 몸이 병든다. 땅도 마찬가지다. 흐리고 고여 썩은 물은 땅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이며, 생태적인 순환이 잘 안되고 있다는 증거다. 따라서 옥같이 맑은 물이 쉽없이 흐르는 땅이 건강한 땅이다.

풍수에서는 물소리를 듣고서도 땅의 건강성을 평가한다. 왜냐하면 물소리는 땅이 내는 살아 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소리가 명랑하면 그 땅은 건강한 땅이고 반대로 물소리가 슬피 우는 소리가 나면 병든 땅이라는 식이다. 『설심부』라는 풍수 경전에서는 “동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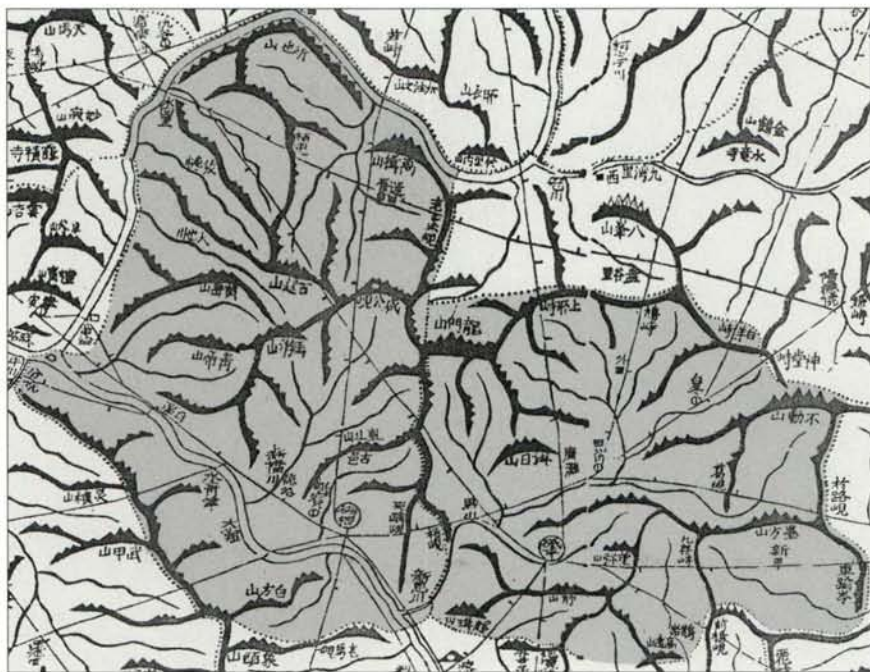
2) 『설심부』역주 : “‘교(交)’란 물이 양쪽에서 와서 서로 만나 함께 흐르는 것이며, ‘쇄(鎖)’란 물이 이미 빙 둘러 에워싸면서 사문(砂文)이 아무지게 단혀져 자물쇠와 같은 것이고, ‘직(織)’이란 물의 흐름이 구불구불하게 굴곡한 것이며, ‘결(結)’이란 모든 흐름이 모인 것이다. 이 네 가지 것이 물의 길잡이다.”

둥둥 울려 밝은 것은 귀하고”, “물이 우는 소리가 항상 들리면 상화(喪禍)가 자주 일어나네”라거나 “처처절절 슬피 우는 것은 재앙되네”라고 말했다. 후술하겠지만 조선 후기의 지리학자 이중환이 양평의 피장처인 미원장을 답사한 후 물소리를 듣고 “시냇물이 너무 목메인 소리를 내니 낙토(樂土)가 아니다”라고 한 것도 물소리의 풍수적 판단기준에 근거한 것이다.

또 물줄기의 형태로 풍수적 입지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도 하는데 물줄기가 터를 둥글게 에워싸면서 모이는 형태가 좋고, 반대로 물줄기가 터를 가르거나 뚫거나 쏘거나 하면 좋지 않다고 한다. 풍수서에서 말하기를, “물이 터를 뚫거나 혹은 명당을 파내거나, 물이 급하게 곧바로 지나가거나, 물이 혈의 중심부를 곧바로 치고 들어오는 경우는 흉한 것이니 마땅히 피해야 한다”고 하였다. 양평지역에서도 산간 골짜기에 자리잡은 여러 마을들은 이처럼 산골 물이 마을터를 둘러 에워싸는 곳에 입지하고 있다.

우리가 오늘날 풍수사상에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은 자연에 대한 가치의 발견과 아울러 자연보완사상이다. 이것을 풍수에서는 비보법(裨補法)이라고 한다. 물에 한정하여 말한다면, 만약 자연환경에서 물의 풍수적 조건에 부족함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사람의 노력을 자연에 보태어 좋은 물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다. 선조들은 물이 부족하면 못을 만들거나, 좋은 형태의 물줄기를 조성하는 등의 수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다. 이렇듯 비보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고자 한, 더 나은 자연적 조건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물의 경관환경을 잘 보전하는 일이 향후 21세기 양평의 발전에 관건이 됨은 물론이다.

양평풍수의 자연적 배경으로 두 번째는 지형·지세적 조건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양평의 지세를 구성하고 있는 산천의 형세가 매우 생기가 충만한 형국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풍수에서 산세는 용이라는 표현을 쓰며, 용은 일으키고 뻗고 휘돌고 뿔으며 주위와 상응하는 모양새가 생기발랄하여야 하는데, 양평의 지세는 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정중동(靜中動)의 역동적인 형세를 짓고 있으니 위와 같은 생기충만한 용의 조건을 충족하는 데 꼭 알맞기 때문이다. 풍수서에서 이르기를, “기가 있는 것을 살아 있다고 하며, 기가 없는 것은 죽었다고 하고, 맥이 활동하는 것을 살아있다고 하며, 거칠고 굳어 있는 것은 죽었다”고 하는데 양평의 산세와 수세(水勢)가 빚어내는 형국은 ‘살아 있는 용(生龍)’의 조건에 부합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이 양평에는 진산(鎭山)에 해당하는 용문산을 대표격으로 하여 비룡산(飛龍山 : 양동면 고송리와 청운면 비룡리, 가현리 경계에 있는 산. 용이 나는 모양이라 함), 용의 머리(양평읍 오빈리 덕구실나루터 동남쪽에 있는 산자락), 용마봉(양동면 계정 3리에 있으며 산지형이 용마형이라 하여 붙은 이름), 용두리 혹은 용머리(개군면 내동 남쪽의 마을로 뒷산이 용의 머리같이 생겼다는 지형에서 연유한 지명), 용요부리(양평읍 원덕리 덩바우 서쪽에 있는 산부리. 용처럼 생겼다 함) 등 용과 관련된 여러 지명들이 등장한다. 또한 양평은 복잡한 지질구조와 지형으로 인해 산계가 중첩하여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은 풍수에서 중요시하는 장풍적(藏風的)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연적 배경을 이룬다. 풍수서에서 말하는



『대동여지도』에 표현된 양평(양근·지평)의 산수체계

이상적 지형은 “사방이 두루 돌아보는 듯하다[四合周顧]”하여 주위 사방의 산수가 두루 감싸여 좌우전후에 비거나 빠진 것이 없어야 하는데,³⁾ 만약에 “좌우가 비거나 앞이 행하고 뒤가 끊어지면 생기가 바람에 흩어진다[左空右缺 前曠後折 生氣散於飄風]”고 한다.

양평풍수의 자연적 배경이 되는 세 번째 특성으로, 양평의 산세와 수세가 매우 짜임새 있게 어우러져 모이는[合聚] 형국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풍수의 명당 택지에서는 산수의 ‘모이고 흩어짐[聚散]’을 가려야 하는데, 산수가 모인[聚] 곳을 구하고 흩어진[散] 곳은 피한다. 산세와 수세는 서로 교차되고 모여야 그 가운데에 풍기(風氣)가 갈무리되기 때문이다. 송대의 풍수서인 『발미론(發微論)』에 이르기를, “취(聚)란 산이 교차하고 물이 모이며 풍기가 갈무리된 곳이나, 산(散)이란 산이 가고 물이 떠나 풍기가 흩어진 곳”이라고 하였다.⁴⁾ 또한 명당지를 이름에 있어 “산이 맺으려면 반드시 물이 둥글게 둘러싸야 한다[山之融結 必遇水之灣環]”⁵⁾고 한바 양평의 수세(水勢) 조건을 보면, 그것은 산세를 따라서 골짜기마다 지류들이 발달되어 합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물길은 산세를 감싸돌아서 혈을 맺을 수 있

3) “四合周顧 言左右前後無空缺”

4) 蔡牧堂, 『發微論』, 『地理天機會元』(1982, 보림각 영인본), 61쪽: “夫山川融結 自有天造地設 障空補缺 不陷不跌”, “何謂聚 山之所交 水之所會 風氣之畏藏也 何謂散 山之所去 水之所離 風氣之逸瀉也”

5) 蔡牧堂, 위의 책, 62쪽.

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자면 양평의 지세는 지질 및 지형적으로 풍수적 명당을 이루는 첫째 조건이 되는 수구(水口)를 맺을 수 있는[關鎖] 조건을 형성하였다. 더구나 소규모의 단위 지형에서 성국(成局)되는 수구뿐만 아니라 남한강과 북한강이 두물머리에서 크게 합수되는 접수구의 천혜적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매우 탁월한 수구조건을 갖춘 셈이 된다. 당대의 풍수서로 알려진 『설심부』에서 지적하기를, “터를 고를 때는 수구를 살펴라”⁶⁾고 하면서 “수구는 그 긴밀함이 호리병의 목과 같은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⁷⁾ 명대의 풍수서 『인자수지』에도 “산을 보고 땅을 찾는 법의 첫째는 수구골짜기[水口狹]를 먼저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듯이⁸⁾ 수구조건은 명당지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을 이루는 것이다. 수구란 국내의 명당수가 합쳐 밖으로 흘러나가는 곳을 말하는데,⁹⁾ 지형적으로 양평의 주요하천인 흑천은 동북-서남방향의 유로를 나타내나 산각(山脚) 사이의 골짜기에서 발원하는 대왕천, 덕수천 등의 수많은 지류들은 거의 직각으로 본류와 합류하고 그 지류들은 격자상(格子狀) 하계망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은 국내(局內)에 수구가 잠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다. 흑천뿐만 아니라 그밖의 주요 지류들인 서종면의 벽계천과 양서면의 문호천, 서호천, 북포천 등의 여러 지류들도 한강을 만나면서 지세를 빗장지르는 조건을 이룬다.

양평의 풍수를 논할 때 더욱 중요한 점은 양평지역 천혜의 자연환경이 좋다는 데 그치지 않고 양평을 명당지로 가꾸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다. 다시 말해 풍수적 환경의 결점을 보완하여 명당지로 조성하기 위한 풍수비보가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풍수론에서 비보는 매우 중요한 위상과 의의를 갖는데¹⁰⁾ 『발미론』에서 지적한 바, “산천의 응결은 하늘에 있지만 산천을 마름질하여 이루는 것은 사람에게 있다”¹¹⁾는 말로 그 사상이 요약된다. 『청오경(淸鳥經)』에 의하면, “조목이 울창하고 무성하면 길한 기운이 서로 따르니 내외의 표리는 자연적일 수도 있고 (인력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하였으며, 동진의 곽박(276~324)이 저술한 『금낭경(錦囊經)』에도, “기는 바람을 타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머물기 때문에 기를 모아 흩어지지 않게 하고 머물게 해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 양평지역의 비보적 사례를 보자면, 본문에서 후술하듯이 양근고읍 내의 비보못을 비롯하여 개군면 내리의 조산마을의 조산, 그리고 비보조형물로서 돌담(강상면 대석리), 장승(지제면 일신3리), 솟대(서종면 노문리) 등이 있는데 주민들은 이렇게 자연 경관을 보완함으로써 마을을 이상적인 풍수공간으로 꾸미고자 하였던 것이다.

6) 『第二章 論山水本源』, “入山尋水口”

7) 『論水法』: “交鎖織結之宜求 穿割箭射之合避”, “水口則愛其緊如葫蘆喉”

8) 『朝案篇』 水口砂

9) 최창조, 1984, 『한국의 풍수사상』, 118쪽: “풍수 용어로는 파(破)라고도 한다. 수구의 명칭에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예컨대 청룡(靑龍)과 백호(白虎)가 서로 입을 맞추고 있다 하여 수구(水口)라는 설과 내룡(來龍)의 입수(入首)가 용호간(龍虎間)에 입을 내밀고 있어 수구라 한다는 설이 그것이다.”

10) 비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필자의 『영남지방의 비보』, 2000,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참조.

11) 『地理天機會元』(1982, 보림각 영인본), 69쪽: “山川之融結在天 山川之裁成在人”

(2) 인문적 배경

양평군은 원래 양근과 지평이 1908년 통합된 곳으로서 현재의 행정구역상 양평읍·양서면·서종면·옥천면·강하면·강상면은 양근에 속하고, 용문면·지제면·단월면·청운면·양동면은 지평에 해당한다. 먼저 양평 읍치의 역사적 과정을 고찰하여 보자.

양근은 고구려의 양근군이었으며, 신라 경덕왕 때 빈양(濱陽)으로 개칭하였고, 고려 초에 옛 명칭인 양근으로 회복하였다. 고려시대의 대대적인 지방제도의 정비는 1018년(현종 9)에 단행되는데, 5도 양계제를 중심으로 중앙집권적인 통치체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 지방제도의 골격이 완성되는 것이다. 양평지역은 중앙정부의 관리가 파견되지 않은 작은 고을로 존재하다가 고려 중엽인 1175년(명종 5)에 이르러서야 감무(監務)를 두게 되며, 1255년(고종 42)에야 비로소 관리를 파견하였다. 따라서 읍치(邑治) 공간의 성립은 13세기 중엽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었다. 이후 양근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여러 차례 읍호(邑號) 승강(昇降)을 겪게 되며, 1728년(영조 4)에는 건지산의 치소(治所)를 갈산 강변으로 옮기는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지평은 고구려의 지현현(砥峴縣)이었다가 신라 경덕왕 때 지평(砥平)으로 개칭되었다. 한동안 광주의 속현으로 있다가 고려 말기인 1378년(우왕 4)에 감무를 두었고 이듬해에 혁파되며, 이후 1391년(공양왕 3)에 양근 경역 내에 철장(鐵場)이 설치된 것을 계기로 감무가 설치되었다.

양평 소재의 동족촌 입지시기에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일도 양평지역 촌락의 풍수적 입지와 관련한 역사적 배경을 이룬다. 다음의 표에 의거하여 볼 때, 양평군 소재 주요 동족촌의 입지는 시기적으로 보아 14세기부터 시작되어 15세기에 본격화되었으며, 특히 17세기에는 가장 많은 분포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17세기를 정점으로 18세기부터는 동족촌 입지 분포율이 뚜렷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동족촌 입지의 지역적 특징을 살펴보자면 양평군으로 전입하기 직전의 전출지는 인근의 경기지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수도인 개성과 한양에서의 전입도 다수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양평이 위치적으로 수도에 인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강의 수운을 통한 교통의 이점과 그에 따른 접근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개성으로부터 양평으로의 전입은 여말선초에 무안 박씨, 경주 최씨, 양성 이씨 등에서 나타났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한양에서의 양평지역내 전입은 16세기와 17세기 초반에 걸쳐 두드러지는데 평양 조씨, 전의 이씨, 광산 김씨, 전주 이씨(이상 16세기), 여흥 민씨, 덕수 이씨 등의 사례가 있었다.

양평군 주요 동족촌의 형성

	전입시기	입향조	전입지	전출지
14세기	1375년	무안 박씨 정	단월면 보룡리 대대	개성
	1380년	연안 이씨	옥천면 신북리	연안
15세기	1400년경	교하 노씨 경	개군면 향리	여주 대신면
	1410년경	밀양 박씨 갱	지제면 옥현리 삼상포	여주 금사면 소유리
	1410년경	경주 최씨 유강	지제면 곡수리 오포	개성 두문동
	1414년	전주 이씨 양우	양서면 대심리	함경도 영흥
	1420년경	안동 권씨 영화	지제면 월산리	
	1456년	한산 이씨 개	용문면 광탄리 대란곡	양주 진건
	1456년	영산 신씨 신	강상면 화양리	죽산
	1460년경	양성 이씨 웅	개군면 주읍리	개성
	1470년	문화 유씨 세번	개군면 계전리	고양
	1480년경	영해 박씨 사문	양동면 석곡리 석실	
16세기	1520년경	구 원주 이씨 홍	양평읍 봉성리	원주
	1520년경	동래 정씨 노겸	옥천면 아신리 하곡	
	1540년경	원주 변씨 수	양평읍 양근리	양주 별내면
	1540년경	전의 이씨 문성	서종면 수입리	한양
	1557년	평양 조씨 옥	용문면 덕촌리 토최미	한양
	1560년경	청풍 김씨 중영	옥천면 용천리	이천
	1580년경	제주 양씨 섬	용문면 광탄리	충남 부여
	1580년경	안동 권씨 덕여	서종면 문호리 수대울	양주 회천면 덕계
	1580년경	함평 이씨 진형	단월면 부안리 백목동	荑城
	1590년경	청송 심씨 충겸	옥천면 아신리 아오곡	파주
	1590년경	광산 김씨 극개	옥천면 신북리	한양
	1590년경	전주 이씨 경금	지제면 옥현리 광양	한양
	1590년경	남평 문씨 응태	옥천면 용천리	충남 예천
	1600년경	여흥 민씨 치중	양서면 부용리	한성
17세기	1600년경	순흥 안씨 광옥	양동면 석곡리	황해도 배천
	1600년경	청해 이씨 심	양평읍 창대리	북청
	1610년경	선산 김씨 이원	강상면 병산리	고양
	1610년경	경주 정씨 진원	지제면 송현리 박의암	
	1619년	덕수 이씨 식	양동면 쌍학리	한성
	1620년경	광주 이씨 효성	지제면 송현리	광주 세촌
	1630년경	진주 강씨 시보	양서면 대아동	여주 능서면
	1640년경	파평 윤씨 성득	강상면 화양리 땡(양)곡	파주
	1640년경	여양 진씨	서종면 노문리	
	1650년경	평산 신씨 성미	개군면 추읍	연천 북면
	1660년경	남양 홍씨 중진	용문면 화전리	여주
	1668년경	거창 신씨 영건	서종면 서후리 섬곡	개경
	1670년경	덕수 장씨 한	양서면 북포리	

	전입시기	입향조	전입지	전출지
17세기	1680년경	청주 박씨 대징	개군면 주읍리	충남 연기
	1680년경	고령 박씨 재승	서종면 정배리	고양
	1680년경	이천 서씨 상일		경북 군위
	1680년경	인동 장씨 덕량	양평읍 덕평리	광주 동부면
	1690년경	진주 유씨 건기	서종면 정배리	한양 길동
	1690년경	수원 백씨 사검	서종면 수릉리	수원
	1690년경	해주 정씨 유경	강상면 화양리	양주, 의정부
	1690년경	강릉 최씨 상은	지제면 송현리	양양 북위산
18세기	1700년경	신창 맹씨 면원	양동면 고송리	온양
	1720년경	청주 정씨 창노	양서면 대야동	
	1760년경	연일 정씨 테영	용문면 다문리	강원도 횡성
	1770년경	경주 김씨 낙실	강상면 지탄	전북 순창 하계면 이동
	1770년경	밀양 손씨 득심		가평군 설악면 소설동
	1780년경	연안 김씨 재춘	강상면 송학리	고양
	1780년경	경주 이씨 동화	서종면 수릉리 장현	
19세기	1800년	강릉 김씨 계하	단월면 상리	교하 두문리
	1803년	안동 김씨 용순	개군면 향리	여주 대신면 초현
	1830년	경주 김씨 성승	양평읍 회현리 가소	
	1854년	초계 정씨 홍준	강상면 대석리	강원도 횡성 삼배리
	1860년	제주 고씨 일성	양평읍 도곡리	
	1880년	경주 김씨 성희	개군면 부리	

출처 : 『양평군지』, 1991, 25~87쪽, 제1절 씨족분포현황을 근거로 작성함

3) 양평의 고을풍수

취락에 대한 풍수적 고찰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며, 양평지역 취락의 중심지는 양근군과 지평현의 읍치가 될 것이다. 고을풍수는 현 양평군 권역에 있었던 두 고을인 양근군과 지평현 읍치의 풍수적 입지 및 공간적 배치를 살펴보는 일이 된다.

읍기(邑基)는 풍수 국세의 규모상 서울터보다는 작고 마을터보다는 크다. 이에 관하여 『인자수지』라는 명대의 풍수서에서 말하기를, “양기(陽基)와 음지(陰地)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양기의 용(龍)은 길고 혈(穴)은 넓으며, 물은 크게 모이거나 굽어돌고 산은 크게 뻗어 멀리 조읍(朝揖)하는 것뿐이다. 대개 택지는 역량이 음지보다 큰 것이므로 반드시 크게 모인 연후에 뻗히는 것이니 모임이 많을수록 국세(局勢)가 넓고, 국세가 넓을수록 결작이 큰 것이니 상격(上格)은 수도나 대도시가 되고, 다음은 군·읍 정도가 되고 작은 것은 향촌이나 기지(基址)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기 대소와 우열의 차이로써 분별되는 것이다”라고 하여 국을 이룬 크기에 따라 도읍과 마을, 그리고 주택과 묘터로 쓰임을 말하고 있다.

조선시대 읍기의 입지 선정에는 풍수가 제일의 요건이 되었고, 그밖에 교통지리적인 조

건, 방어적 여건 등이 중시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도를 정하는 데 네 가지 전제조건을 지적하고 있으니 그 첫째가 산천형세의 풍수였으며, 둘째는 조운이 편리한지의 여부, 셋째는 사방으로 도로가 고르게 나 있는지의 문제, 넷째는 성곽을 축조할 수 있는 여건이었던 것이다.¹²⁾ 이러한 국도 입지의 풍수지리적 조건, 교통지리적 조건, 국방지리적 조건은 읍기에도 같이 적용될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읍기의 공간 계획과 조정, 배치원리에 풍수가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임은 조선 개국 후 한양의 공간계획 및 구성에 풍수와 비보가 적용되었다는 사실 확인으로도 추정이 가능하다. 국도의 공간계획은 그 하부 행정체계인 고을의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준거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읍기를 구성하는 주요 건축요소인 관아·객사와 문묘(향교 소재)·사직단의 공간배치는 일정한 원리를 따르고 있으며 여기에는 풍수적 요소도 포함되고 있다. 읍기의 공간적 배치는 중심부에 왕권을 상징하는 객사(객관)와 읍의 수령이 거주하는 아사(衙舍), 공사를 처리하는 동헌이 자리잡고 있다. 객사를 중심으로 「주례고공기(周禮考工記)」에 따른 좌묘우사(左廟右社)의 배치를 이루어 문묘·사직단·성황사·여단 등 1묘·1사·2단을 설립하였다. 좌향은 객사의 경우 대체로 절대향을 써서 남향하고 있으나 아사의 경우는 풍수적 지세에 따라 상대향으로 배치되기도 하였다.

이상의 고을풍수론을 기초로 양근군과 지평현의 읍기 풍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산경표(山經表)』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서 양평의 두 읍치를 이루는 산계(山系)를 살펴보면, 모두 백두대간의 오대산에서 분기하는 지맥임을 알 수 있다. 곧 오대산에서 두 가지가 벌어지는데 그 중 하나인 정맥은 대관령에서 태백산으로 이어지는 정맥의 큰 줄기이고, 나머지 하나의 지맥이 갈라져서 힘차게 서진하여 양평까지 다달아 용문산을 크게 이룬 뒤에 그 여맥이 양수리에서 이르러 그치는 것이다. 오대산에서 용문산에 이르는 산경(山經)을 상세히 살펴보면, 오대산 - 은두산(銀頭山) - 연방산(燕方山) - 청량산(淸涼山) - 태치산(泰峙山) - 공작산(孔雀山) - 오음산(五音山) - 삼마산(三馬山) - 부동산(不動山) - 상원산(上元山) - 용문산(龍門山)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편 용문산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동쪽으로 양근의 북쪽 20리에 있는 마유산(馬遊山)으로, 다른 하나는 남쪽으로 뻗어 내려와 양근 치소의 서쪽 10리에 있는 비유산(飛遊山)으로 갈라진다.

(1) 양근군의 풍수

양근고읍은 현 옥천면 고읍리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풍수적으로 보아 건지산을 주산으로 남산을 안산으로 남향하여 입지하였다. 1/25,000 지형도의 지명으로 산세의 흐름을 고찰하면, 양근 주산(主山)의 내맥(來脈)은 양평의 진산이 되는 용문산에서 유명산으로 이어지고

12) 『태조실록』 2년 2월 9일, 3년 8월 12일.



용문산의 위용

다시 대부산과 편전산을 거쳐서 읍치의 주산인 건지산으로 역동적인 산세의 양상을 띠면서 이어지고 있다. 수세적(水勢的) 측면에서 보면, 신복천과 사탄천이 건지산을 앞에서 합수하여 읍치의 북서쪽을 둘러 서남진하여 남한강으로 합류하는 형세를 띠고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양근군 형승조에는 이적(李迹)의 시를 인용하여 “원편으로 용문산에 의지하였고 오른편으로는 호수를 베개 베었다”고 하였으니, 용문산이 탁월한 경관으로 솟아 있고, 넉넉한 물 흐름인 한강을 끼고 있는 양근의 장소성을 매우 뚜렷하게 드러낸 표현이다. 실제 양근의 읍치에서 동북쪽으로 높이 솟아 있는 용문산의 모습은 양근의 특징적인 랜드마크(landmark)가 될 만큼 매우 두드러진다. 한편, 양근의 선생안(先生案)에 소개된 기사에 의하면, “대개 읍이 용문산을 진(鎭)으로 하여 산은 놀랄 만큼 각각 천리로 둘러 호위하듯 싸여져 미연고개를 넘으면 땅이 높고 풍수가 쌓이며 쾌활하나 백성들은 막혀 겨우 농사하며 더욱이 순박하고 노둔했다”¹³⁾고 하였으니 양근의 풍토적 특성과 그에 기인된 사회경제적 생활상과 인성(人性)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읍치의 풍수를 『해동지도(海東地圖)』에서 살펴보면, 「양근군」 도엽(圖葉)에는 용문산의 지맥에서 양근의 주산인 건지산으로 이어지는 맥세를 실하게 그렸으며, 조안산(朝案山)격이 되는 남산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읍의 중심에는 동편에 관사와 서편의 객사가 있고, 건지산의 서북쪽에는 여단이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교촌에는 향교가 그려져 있으며 서편 겉에는 사단이 표기되어 있다. 향교가 입지한 주위의 산세 역시 풍수로 둘러싸는 모양을 의도적으로 강조하여 그리고 있다. 한편 읍치 동쪽으로는 대원사의 옛 절터와 탑이 그려져 있는데, 이 절과 탑은 양근의 읍 동쪽을 보호하는 비보사찰의 기능을 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3) 선생안(양평문화원, 1993, 『향백』 제3집, 115~116쪽에서 재인용).



양근군 고지도 (『해동지도』 중의 읍치 부분)

그리고 주목되는 사실로, 양근에는 용문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 조성된 비보못이 존재하였다는 사실도 추정할 수 있는데, 고읍 내에 있었다는 영화담(映火潭)이라는 못이 그것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이 지역에 전해지는 두 가지 설화가 있다. 그 하나는, “여기가 무슨 그 화산의 영향을 받아서 이 고읍내 소재지가 그 연못이 아니면 불로 화한다고 해서 그게 옛날버텀 연못을 유지했었구”¹⁴⁾라는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영화담이 옥천면의 이참판이 조성한 사옥 차원의 비보라는 설화인데, “그게 옥천면에서 이참판네 덕일 거예요. 거기서 일부러 만든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옥천의 상이 이렇게 불이 나는 상이랍니다. 그래서 불을 막기 위해서 그 연못을 뚫고, 용문산의 제일 큰불을 위시해서 이렇게 해서 조그만 머리들이 불 같으니까 불이 난다는 거예요”¹⁵⁾라는 이야기이다. 위의 두 설화 내용과 현지 주민의 제보 및 답사를 종합하여 보면 영화담은 읍치에 조성한 비보못으로서, 용문산을 비롯한 주위 산세에서 발생하는 화기(火氣)를 중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주민의 제보에 의하면 비보못은 약 20~30여 년 전에 옥천중앙교회가 생기면서 매립되었다고 한다.¹⁶⁾

비보못의 일반적 기능은 지기(地氣)를 머물게 하며, 취락이 경사진 곳에 입지하여 지기가

1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1~3, 경기도 양평군 편, 551쪽.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1~3, 경기도 양평군 편, 550쪽.

16) 이형복(70세, 옥천리 360-1번지), 교석회(73세, 아신리 600번지) 제보(2002. 8. 24).



양주의 건지산과 구읍

빠져나가는 형국일 때 못을 조성하여 막는다. 그리고 못으로 하여금 장풍적(藏風的) 조건을 보완하기도 하는데 조선초 승례문 밖에 못을 판 것은 경복궁의 오른팔에 해당하는 산세가 낮고 미약하여 품에 안는 판국이 없기 때문이었다.¹⁷⁾ 그리고 득수(得水) 비보의 기능으로 못을 조성함으로써 기지(基地)에서 곧장 빠져나가는 물의 유속을 누그러뜨리기도 한다. 또한 많은 경우에 양근의 구읍과 같이 비보못은 흔히 화기(火氣)를 방어하는 기능을 갖는데 이는 오행론으로 수는 화를 극하기에[水克火] 화기가 성한 지세에 못을 파서 비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을에서는 못에 흉상(凶相)을 비치게 하여 그 기운을 사라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밖에 형국을 보완하는 못도 있으며, 기의 상충(相沖)을 격절(隔絶)시켜 막기도 한다.

(2) 지평현의 풍수

지평읍 치소는 현 지제면 지평4리의 관교마을에 있었으며, 현재의 지명에도 관아와 향교가 있었다고 하여 관교라고 하였던 것이다. 현 지평리에는 향교말이라는 지명도 있는데 이 역시 향교가 있었음을 방증하여 주는 지명이다. 지평의 주산은 봉미산(鳳尾山)으로 산의 형상이 봉황의 꼬리와 같아서 이런 호칭이 붙었다고 한다.¹⁸⁾ 봉미산의 맥은 묵방산에서 유래하며 묵방산은 부동산(不動山)이 남쪽으로 뻗은 지맥(支脈)이다. 부동산은 지평의 산세를 이루는 시발점이기도 한데, 양평의 큰 줄기를 이루는 산세인 부동산에서 갈라지는 지맥이 지평의 주위 산세를 구성하는 것이다. 지평 읍치의 풍수적 안대(案對)는 망현산이다.

『해동지도(海東地圖)』의 「지평현」 도엽에는 지평 읍치를 중심으로 한 지평현 경역의 전체

17) 『세종실록』 15년 7월 21일.

18) 양평문화원, 1988, 『향맥』 제1집, 433쪽.



지평현 고지도(『해동지도』 중의 읍치 부분)

적 형국이 풍수적인 표현기법으로 잘 그려져 있다. 전체적 산세는 읍치를 중심으로 겹겹이 둘러싸고 있으며, 특히 주산인 봉미산(성황산)의 맥이 비롯하는 산에는 종산(宗山)이라고 뚜렷한 글자로 표기함으로써 종산에서 주산으로 이어지는 맥세를 강조하였다. 지평읍치의 수세(水勢) 역시 치소 앞을 감돌고 흘러나가면서 합수하여 득수(得水) 조건을 잘 표현하였다. 지도상으로 보아, 봉미산의 품속에는 중앙에 관사와 객사를 표시하고 좌측인 동쪽에는 사직단을, 그리고 우측에는 향교를 그렸는데 주위 산세의 모습이 마치 좌우의 팔이 이들 읍치의 주요 경관요소를 감싸안고 있는 듯하다. 읍치의 조안(朝案)으로는 망현산과 그 지맥의 산을 그려 주산과 조산의 전후가 균형 있게 대응한 형세로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지평현 도면은 읍치의 풍수적인 형국을 매우 의도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4) 양평의 마을풍수와 비보

풍수설의 원리는 사람이 자연환경 중에서 좀더 살기 좋은 곳을 고르겠다는 긍정적이고 적극

적인 면이 있다. 이러한 복거적(卜居的)인 입지선정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에 있어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경향이였다. 양평지역의 마을 풍수를 살펴보기 전에 조선시대 실학자들의 마을풍수관을 살펴보기로 하자. 홍만선(1643~1715)의 『산림경제(山林經濟)』와 이증환(1690~1762)의 『택리지(擇里誌)』에는 17~18세기 사대부들의 택리관(擇里觀)이 잘 요약되어 있다.

홍만선은 『산림경제』에서, “선비가 복거할 때는 반드시 풍기가 모이고 앞과 뒤가 안온한 터를 가려서 오래 도모할 곳을 구해야 할 것”¹⁹⁾이라고 말했다. 즉 천기(天氣)와 산천지기가 융화되어 생성하는 기운(風氣)이 흩어지지 않고 갈무리되며, 마을 주위가 산으로 감싸여 아늑한 느낌을 주는 곳을 권하고 있으니, 이는 풍수의 핵심적 명당요건 중의 하나인 ‘장풍(藏風)’의 조건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면 실학자들은 좋은 터(勝地)의 풍수적 조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산림경제』의 위 인용문에서는 “산을 등지고 호수를 앞에 두고 있는[背山面湖·寬大緊束]” 지형지세를 가거지(可居地)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택리지』를 참조하여 다시금 요약한다면, 뒤로는 산에 기대고[背山] 앞으로는 물에 임하였으되[面湖], 동구는 닫힌 듯 좁고[緊束] 안으로 들어 넓게 펼쳐진[寬大] 목 좁은 향아리 같은 분지형 지세로 정리할 수 있다.

풍수이론 중에서도 특히 땅의 생김새에 빗대어 풍수를 설명하는 형국론은 마을 입지의 해석에 널리 적용되었다. 청운면 도원리 주민의 마을 지세 해석을 사례로 살펴보자면, 마을 건너편 산세를 갈마음수형(渴馬飲水形) 산세로 보며, 그 갈마음수형의 말머리쯤에 내로 흐르는 물이 낭떠러지에 쏟아져 소규모의 폭포를 이루고 있고, 그 자리는 흡사 말구유와 같은 바위의 형상이고, 그 조금 하류에는 가마소라고 하여 말먹이를 준비함직한 바위의 술이 있다 하여 마을 사람들이 이 갈마음수형 산세를 설명하고 있다.²⁰⁾

그러면 개군면 내리의 조산마을이라는 자연마을을 사례로 하여 풍수적 입지와 비보를 고찰하여 보기로 하자. 이 마을은 조산이라는 풍수비보형태를 지명으로 삼고 있는 특이한 곳이 있어 주목된다. 조산마을이라는 명칭은 지맥 비보를 위해 조산을 한 곳에 자리잡은 마을이기에 붙은 이름으로 추정된다. 향토지의 지명 해설에도, “내동 동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뒤에 뻗은 산의 맥이 끊겨 사람이 인공적으로 쌓아 맥을 이어주었다 하여 조산이라 유래한다”²¹⁾고 적고 있다.

조산마을이 속해 있는 내리는 조산을 포함하여 용머리, 절골, 서상골 등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초 양성 이씨가 약 500여 년 전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그 이후로 전주 이씨, 밀양 박씨, 교하 노씨 등이 세거하였으며 현재 총 85호 중에 양성 이씨는 5가구에 불과하다. 내리의 가장 큰 마을은 내동으로 60여 호가 살고 있다. 조산마을은 전근대 시기에 10여 호가

19) 『산림경제』 권1, 복거조: “必先審擇其風氣之藏聚, 面背之安穩, 以爲求久之圖”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한국구비문학대계』 1~3, 경기도 양평군 편, 109쪽.

21) 양평문화원, 1988, 『향맥』 제1집, 223쪽.



개군면 내리 조산마을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두 가구만 존재한다.²²⁾

조산마을은 주읍산 남서사면 자락의 품에 안겨 있다. 주읍산은 개군면 내리, 주읍리와 용문면 삼성리에 위치한 해발 583미터의 산으로 옛날 유명한 지관이 명당자리를 찾아다니다가 산 정상에 올라보니 용문산에 읊(揖)하고 있는 형상이라 추읍산(趨揖山)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 때 주읍산으로 고쳐졌다. 산 정상에 올라보면 양근, 지평, 여주, 이천, 양주, 광주, 장호원의 칠읍이 보인다고 하여 칠읍산이라고도 한다.²³⁾ 조산마을의 주산을 형성하고 있는 주읍산의 산 형세는 돌출하여 둥근 일월 모양으로 매우 특징적이며, 내동마을에서는 예부터 이 산을 위했는데, 마을에서는 10월 초순에 소를 잡아서 주읍산 중턱의 사당에서 산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한편 조산마을 아래에는 용머리라는 지명이 있는데 그 형세는 구렁이 길게 남쪽으로 돌출하여 있는 지형으로서 흡사 용의 머리를 연상시키며 용이 웅크리고 있는 형상이라고 한다. 주읍산과 관련하여 볼 때 용머리는 주읍산의 지맥이 뻗어 내려오다가 조산마을을 지나 용머리를 일으키는 형세로 이해된다. 그런데 주읍산에서 용머리를 일으키는 부분의 지세가 낮아 데다가 개울물이 지맥을 가르는 데서 생기는 지맥의 단절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그 부위를 흙으로 보토(補土)하였다고 마을 사람은 제보하는데,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즉 주읍산에서 용머리로 이어지는 지맥이 끊어질 위험이 있어서 그 산등성이를 이어주려고 조산하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맥비보 혹은 용맥비보란 명당을 이루는 용맥(主脈)의 형세와 기운을 조정하

22) 신세철(65세, 내리 262번지), 이장훈(79세, 내리 247번지) 제보(2002. 8. 2).

23) 양평문화원, 앞의 책, 224쪽.



강상면 대석리의 돌탑

여 적정 상태로 맞추는 것으로서, “산의 맥이 오지 않고[山來] 간혀 버리거나[山囚], 산이 명당에 이르러 머리를 조아리지[山頓] 않고 달아나는[山走] 경우”,²⁴⁾ ‘황무지산[童山], 맥이 끊어진 산[斷山], 돌투성이산[石山], 맥이 머물지 않고 지나치는 산[過山], 홀로 우뚝한 산[獨山], 명당의 국이 꺾박한 산[逼山], 무너질 듯이 기우뚱한 산[側山]일 경우’²⁵⁾ 등이 비보의 대상이 되는데, 이럴 때 보토(補土)·조산하거나 숲을 조성하여 생기를 북돋고 이상적인 상태로 맞춘다. 위 조산마을의 경우는 주산의 내맥이 끊길 우려가 있어서 비보한 사례가 된다.

그밖에도 양평의 마을에서 나타나는 풍수비보의 조형물 유적으로서 돌탑(강상면 대석리), 장승(지제면 일신3리),²⁶⁾ 솟대(서종면 노문리) 등이 있었다. 강상면 대석리에는 돌탑을 세워 마을의 지킴이 기능을 부여하였는데, 그 조성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돌탑은 마을 입구에 개울을 끼고 좌우로 마주 배치되어 있다.

한편, 지제면 일신3리(지산리 노일)에서도 마을입구의 산기슭에 마주 장승을 세워 마을지킴이 기능을 담당하게 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2년마다 여기에 마을제사를 지내는데 그것을 ‘장승제’ 또는 ‘막살(수살)제’라고 하였다. 양평군의 장승은 여기 말고도 청운면 여물리, 용문면 덕촌1리, 강하면 성덕2리 등에 있었다고 조사된 바 있다.²⁷⁾ 또한 비보적 성격을 띠고 있는 건축물로는 용문면 광탄리 동쪽에 있는 봉황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이 정자의 유래를 보면, 1460년(세조 6)에 놀재 양성지가 단월면 보룡리 보산정 밑에 있는 황룡이 봉황대 밑으

24) 『청오경』, 규장각 소장본(도서번호 2329): “山來水回 通貴豐財 山囚水流 虜王滅侯 山頓水曲 子孫千億 山走水直 從人寄食”

25) 『청오경』: “童斯與石過獨逼側 能生新囚 能消已福”

26) 양평문화원, 앞의 책, 263쪽: “서종면 노문리에는 솟대백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마을 앞에 솟대를 세워 마을을 편안하게 하였다.”

27) 국립민속박물관, 1988, 『경기지방 장승·솟대신앙』, 170~181쪽.

로 돌아온 것을 위로하고 오래 머무르도록 하기 위하여 이 정자를 지었다고 한다.²⁸⁾

일반적으로 비보적 상징조형물에는 장생표, 선돌, 솟대[진대 혹은 짐대], 장승, 남근석, 돌 거북, 돌자라 등의 형태가 있으며 이것들은 주로 취락비보에 활용되었다.²⁹⁾ 장승류의 기능은 마을수호, 방위수호, 산천비보, 읍락비보, 불법(佛法)수호, 경계표, 노표(路標), 성문수호, 기자(祈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비보장승은 마을수호, 방위수호, 산천비보, 고을비보의 역할을 한다. 솟대는 그 기원이 고대적 신앙물이나 지역에 따라 풍수적 비보수단으로 전용되기도 하였는데, 행주형국의 지세에 뜻대로 활용된 경우가 많으며, 곳에 따라서는 솟대 위에 얹힌 오리가 화기를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5) 양평의 피장처(避藏處)

양근군에 있던 미원장(현 가평군 설악면)은 『정감록』의 비결에서 보신지지(保身之地) 혹은 피장처(避藏處)로 소개된 곳이다. 우선 관련 내용이 있는 『정감록』의 해당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두사총비결(杜師聽秘訣)」에 이르기를,

양근 용문산과 유양산 안에는 세 가지 안목의 교묘한 것이 없으면서도 오로지 깊고 궁벽한 것을 숭상하여 다투어 여기에 살고 있다. 용문산 기운은 삼각산에게 빼앗겼으니 아마도 가짜 꽃[虛花]이요, 죽은 혈[死穴]일 것이며, 산 안의 형세도 돌아서서 버리고 끌고 나갔으니 이것은 반드시 귀맥(鬼脈)이요, 겁기(劫氣)일 것이다. 지각 있는 군자라면 내 말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알 것이니 삼가라.³⁰⁾

고 하였는데, 「두사총비결」에서는 피장처로서 여기 외에도 태백산, 소백산, 화산, 가야산, 지리산, 두류산, 삼풍의 네 평야, 오서산, 성주산, 강화 마니산·약수산, 영가의 백운산·화악산·대야산·도성산, 영천의 백운산·동주·용해, 소양의 기린산, 낭읍의 대미산, 태령의 수양산과 곡산 등을 몸을 보전할 수 있는 땅[保身之地]으로 열거한 바 있다. 위 「두사총비결」의 내용에서는 양평의 용문산에 소재하는 피장처의 풍수도참적인 가치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책, 「피장처(避藏處)」에서는 미원장의 위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다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양근 소설 촌치(村治) 북쪽 40리 되는 곳에 미원으로부터 들어가 가장 깊고 깊은 곳.³¹⁾

28)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7 경기편 상, 544쪽.

29) 최원석, 2002, 「한국의 비보풍수론」, 『대한지리학회지』 제37권 제2호.

30) 『鄭鑑錄集成』, 1973,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432쪽 : “楊根龍門維楊之山內 無三眼之巧者 專尙深僻 以此爭居 龍門之氣奪於三角 恐是虛花死穴 山內之勢反而拋拽 必是鬼脈劫氣 有知君子不待吾言而知之慎哉”

31) 『정감록집성』, 1973,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436쪽 : “楊根小雪村治北四十里 入自迷源最爲深深處”

미원장에는 태고 보우의 소설암이 있었는데, 1356년(공민왕 5)에는 왕사 보우의 어머니의 고향이라는 이유로 미원장을 현으로까지 승격시켜 감무를 두었으나 땅이 비좁고 인가가 드물어 얼마 후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켰다³²⁾고 한다. 위 『정감록』의 「피장처」에서는 미원장 외에도 다수의 보신지지를 열거하였으니 양주, 인천, 가평, 여주, 광주, 이천 등 경기도 소재지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양주 산내촌 북쪽 80리, 인천 영종도, 춘천 기린곡, 남천읍 대미촌·소미촌, 정선, 가평의 대아·도성, 곡성의 명미촌, 충주 월악산, 경상도 내성 북면과 춘양면, 강원도 강릉·삼척·평해·울진과 충청도 비인·남포·담양의 추월산, 전라도 무주 덕유산 남쪽의 원학동, 풍기 차령의 금계촌, 안동 북면 소라 고기부 동쪽 태양서면, 단양 기차촌, 단성 북면과 동양면, 여주 사전촌, 광주 율평, 이천 북면 광복동.

이렇게 양근의 미원장이 피장처 혹은 보신지지로 지목된 것은 조선시대의 잦은 전란으로 인한 사회분위기의 피해와 이에 대응한 탈사회적인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지리적으로도 이 지역은 오지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높은 고개로 접근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위가 산으로 둘러막혀 전략적 요새이기도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비교적 넓은 분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식량자급을 위한 경지조건이 확보된 곳이다. 한편 이 지역에는 이와 관련하여 십승지(十勝地)의 의미를 부가하여 미원장의 지리적 위상을 격상시키고 있는 다음과 같은 설화도 전해지고 있다.

1392년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개성을 떠나 새로운 곳에 도읍지를 정하려 할 무렵에 태조의 명을 받은 무학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물색하다가 십승지의 한 곳인 양근의 북면에 당도하였는데 이 양근의 북면이 바로 지금의 가평군 설악면이고 미원장이라는 마을이었다. …(중략)… 지금도 설악면에는 한양부·장안과 같은 서울을 뜻하는 지명이 전해지고 있다.³³⁾

그러나 미원장에 관해서는 실학자 이증환의 평가도 좋지 못한 편이다. 그는 미원장을 찾은 후에 기술하기를, “양근의 용문산 서쪽에 있는 미원촌(迷源村)은 옛날 정암 조광조가 이곳 산수를 사랑하여서 터를 잡아 살고자 하던 곳이며, 나도 한번 가서 보았다. 산속이 비록 조금은 넓으나, 지대가 깊고 험준하며 기온도 또한 싸늘하고 사방의 산도 우아하지 못하며 앞 시냇물이 너무 목메인 소리를 내니 낙토(樂土)가 아니다”³⁴⁾라고 하였다. 그에 의하면 들판은

32) 『고려사절요』 권30, 우왕 4년 11일.

33) 양평문화원, 1998, 『한국사 속 양평사』, 77쪽.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기후가 한랭하고 주위 산천이 심미적으로 아름답지 못할 뿐만 아니라 풍수적으로도 시냇물이 우는 듯한 소리를 내어 낙토(樂土)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냇물 소리에 따른 풍수적 판단의 근거는 『설심부』(卜應天 著)라는 풍수서에 “물이 우는 소리가 항상 들리면 상화가 자주 일어나네〔常聞水泣者 喪禍頻見〕, 처처절절 슬피 우는 것은 재앙 되네〔淒淒切切悲而泣者爲災〕”라는 관련 구절이 있어 참고된다.

6) 양평의 풍수지명

양평의 지명에 관한 고찰은 양평주민들이 그들 삶의 터의 지리적 환경을 어떻게 풍수적으로 인식하였고, 자연환경에 대한 풍수적인 태도는 어떠하였는지를 문화지리적으로 살펴보는 중요한 소재가 된다.

땅이름에는 땅의 모양과 장소의 성격이 담겨 있고, 땅이름을 붙였던 당시 사람들의 지리적 인 사고가 투영되어 있다. 땅이름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 변천되지만 그 과정에 끼친 풍수사상의 영향 또한 매우 컸다. 풍수문화가 지역에 파급되면서 새로운 풍수지명이 지어지거나, 혹은 기존의 지명이 풍수적으로 풀이된다.

지명에 얹힌 풍수적 내용의 한 측면으로서, 풍수적인 지형물에는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있는데, 그것이 인사(人事)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예컨대, 양평 읍 원덕리에는 마을 뒷산에 덕암(德岩)이라는 큰 바위가 있는데 예부터 마을을 보호해준다고 믿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서 소원을 빌며 귀중히 여겼다고 한다.³⁵⁾ 또한 전수3리 수대의 마을 뒷산에는 삼형제바위라고 있는데 수대울마루에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이 바위 때문이라고 한다.³⁶⁾

양평의 지명에 투영된 환경인식을 살펴보자면, 후술하겠지만 용, 말, 호랑이 등에 빗댄 지명이 나타나는 것을 보아 산의 형세를 생명이 깃든 것으로 보는 유기체적인 환경인식을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오룡동, 무수동, 반월형 등의 풍수형국명으로 호칭하는 단계로 발전하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마을의 터전이 길상의 풍수형국명처럼 좋은 마을의 터전에서 보다 나은 삶을 누리려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한편 양평의 지명에서 드러나는 환경에 대한 풍수적인 태도는 비보지명에서 뚜렷이 알 수 있다. 비보는 환경의 풍수적 인식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이다. 양평의 대표적인 비보지명은 조산, 수살매기 등이 있다.

풍수론 중에서도 특히 땅의 생김새에 빗대어 풍수를 설명하는 형국론은 마을 입지의 해석에 널리 적용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좋은 형국의 마을 터에 거주하면 그 지덕을 입어 좋은 소

34) 『택리지』, 「팔도총론」, 경기 : “楊根龍門山北有迷源村 昔靜巖趙光祖愛山水欲卜居 余嘗見之矣 山中雖少恢拓 地既深阻 氣亦淒寒 四山不雅 前溪太咽 非樂土也”

35) 양평문화원, 1988, 『향맥』 제1집, 162쪽.

36) 양평문화원, 위의 책, 211쪽.

음이 있으리라는 풍수적 기대심리가 깔려 있다. 풍수서인 『청오경』에도 “큰 부자가 될 땅은 둥그스름한 봉우리가 금계처럼 생겼고, 빈천한 땅은 난잡함이 마치 개미떼가 흩어지는 것과 같다”³⁷⁾고 땅의 모양으로 길흉을 판단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좋은 형국명은 대체로 부귀와 풍요와 장수를 상징하는 것들이었으니, 예컨대 용·봉황·거북·학 형국은 존귀함을 상징하고, 소 형국은 풍요로움을, 매화 형국³⁸⁾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였다. 이처럼 ‘닭은 것은 닭은 것을 낳는다’는 주술적 원리를 프레이저는 ‘유사의 법칙’이라 명칭한 바 있는데³⁹⁾ 형국론은 유사법칙의 풍수적인 한 응용형태로 해석이 가능하다.

양평군의 마을지명에서 모양과 관련된 것으로는 용, 말, 소, 호랑이, 개, 봉황, 부용, 매화 등이 있다. 특히 용과 관련된 지명이 가장 많으며(비룡산, 용머리, 오룡동 등), 용 지명 중에서도 용두리(용머리)라는 자연마을의 이름이 세 곳(개군면 내동, 용문면 덕촌리, 청운면) 나타났다. 각 형국에 부여된 의미를 살펴보자면, 용 형국(개군면 내리 등), 봉황 형국(양동면 고송리) 등은 삶의 터전을 길지로서 존귀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소형국(단월면 봉상리, 옥천면 아신2리)과 매화형국(서종면 도장2리)에서는 풍요로움의 소망을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반달형국(양서면 청계리, 양동면 계정3리)에서 미래의 희망을 땅에 의탁하는 정서를 알 수 있다. 반월은 둥근달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에 풍수적인 길상(吉祥)의 상징이다. 이러한 인식의 대표적인 사례가 신라의 왕궁터인 반월성인데, 『삼국유사』 기이 1, 탈해왕조에 의하면, “초생달같이 둥근 언덕이 있어 지세가 오래 살 만한 곳”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말 형국(양평읍 대흥리, 강하면 성덕리 등)에서는 말의 왕성한 생명력을 산에 부여하여 상징화하였다.

그리고 생김새 지명에서 좀더 풍수이론적으로 발전된 형태의 인식양상이 드러나는 것으로서 풍수적인 형국과 관련된 지명이 나타나는데, 개군면 계전리의 오룡동(五龍爭珠形), 개군면 공세리의 무수동(仙人舞袖形), 서종면 도장2리의 매화낙지형(梅花落地形), 서종면 문호3리의 갈매(渴馬飲水形), 양서면 청계리의 반월형, 지제면 대평리의 배잔(玉女獻盃形), 양평읍 신애리 삼태골(삼태기형국), 옥천면 아신2리의 아우실(臥牛形) 등에서 보였다.

한편 풍수적인 비보가 지명화된 곳도 있었으니 지형지세의 보허(補虛) 목적으로 흔히 조성되는 비보양식으로서의 조산이 그것으로서, 조산(개군면 내동) 혹은 조산뜰(지제면 대평리)이라는 지명으로 남아 있었다. 또 강하면 병산리에는 수살매기라는 비보적 지명이 나타났는데, 살을 막기 위한 비보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살매기의 문화지리 및 풍수적 의미는 손진태의 연구가 참고된다. 그에 의하면, “장승·소도 등을 중부조선(中部朝鮮)에서는

37) “大富之地 圓峯金櫃 貧賤之地 亂如散蟻”

38) 매화는 많은 씨를 퍼뜨리므로 풍요의 상징이다.

39) Frazer, J.G., 1971, The Golden Bough-A Study in Magic and Religion, Macmillan.

수살목 또는 수사리라 병칭(並稱)하고, 또 평안·황해도의 곳곳에서는 일견 방풍림과 같이 촌락 앞(地民의 소위 허한 방위)에 열식(列植)하는 숲(林)도 수살목이라 일컫고, 또 촌락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이 들판(原野) 또는 바다로 된 경우에 허한 방위(三方)라 하고, 또 촌락 한쪽에 공포감을 주는 험하고 깊은(險深) 산곡(山谷)이 있으면 그쪽에 수살목을 열식하여 세우는 Y자 형의 입목(소도와 흡사하나 頂部가 Y형이고 頂上의 새도 없다)도 수살목이라 한다. 이 수살의 의미는 명백하지 못하나 수살(守煞)이 아닐까 한다. 사기(邪氣)를 방어한다는 의미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⁴⁰⁾ 양평의 경우는 위의 병산리 외에도 서종면 노문리에도 솟대백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마을 앞에 솟대를 세워 마을을 편안하게 하였다고 하며,⁴¹⁾ 지제면 일신3리(지산리 노일)에서도 마을입구의 산기슭에 장승을 마주 세워 마을지킴이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데 2년마다 여기에 마을제사를 지내고 그것을 ‘장승제’ 또는 ‘막살(수살)제’라고 하였다.⁴²⁾

그 밖에 풍수적 용어의 지명으로 마을 뒷산으로서 주된 산이라는 뜻의 주산(양평읍 대흥리)이라는 지명이 있었고, 주산 앞에 위치하는 안산(案山)이 지명으로 굳어져 호칭되는 곳도 있었다(용문면 용머리, 망능리 중말).

양평의 풍수지명과 유래

지명 분류	지명 및 유래
용	· 비룡산(飛龍山) : 양동면 고송리와 청운면 비룡리, 가현리 경계에 있는 산. 용이 나는 모양이라 함 · 용의 머리 : 양평읍 오빈리 덕구실나루터 동남쪽에 있는 산자락 · 용마봉 : 양동면 계정3리에 있으며 산지형이 용마형이라 하여 붙은 이름 · 용두리 : 청운면에 있으며, 원래 지평군 상북면 지역으로서 지형이 용의 머리처럼 생겨 일컫는 곳 · 용머리 : 개군면 내동 남쪽의 마을로 뒷산이 용의 머리같이 생겼다는 지형에서 연유한 지명 · 용머리 : 용문면 덕촌리 토척미 동남쪽에 있는 마을. 용의 머리처럼 생김 · 용요부리 : 양평읍 원덕리 텃바우 서쪽에 있는 산부리. 용처럼 생겼다 함
생김새	· 마산(馬山) : 양평읍 대흥리 소재의 산으로 말모양으로 보이는 데서 연유함 · 마명산(馬鳴山) : 강하면 성덕리, 왕창리, 전수리 경계에 있는 산 · 말미산 : 양동면 쌍학2리에 있으며 말처럼 생겼음
기타	· 봉미산(鳳尾山) : 지제면 월산리와 지평리에 걸쳐 있는 산. 모양이 봉의 꼬리처럼 생겼다 함 · 봉곡(鳳谷) : 양평읍 봉성1리에 있으며, 풍수지리상 명당자리가 있다고 하여 붙은 이름 · 부용산(芙蓉山) : 양서면 신원리, 부용리, 용담리, 목왕리에 걸쳐 있는 산 · 비호산(飛虎山) : 양평읍 백애리와 용문면 연수리 경계에 있는 산 · 매곡(梅谷) : 서종면 도장2리 국로소 동북쪽의 마을로 지형을 본뜬 지명

40) 손진태, 1948, 『소도고』, 『조선민족문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3~194쪽.

41) 양평문화원, 앞의 책, 263쪽.

42) 국립민속박물관, 앞의 책, 172쪽.

지명 분류		지명 및 유래
생김새	기타	· 소코뿌리 : 단월면 봉상1리 지역이 와우형(臥牛形)이라서 붙은 이름 · 학둔지(학촌) : 양동면 쌍학리에서 으뜸 되는 마을로 지형이 학처럼 생김 · 구례골(거산, 계산이) : 지제면 월산리 월파 서북쪽 마을로 앞산의 지형이 계와 같다고 해서 생긴 지명 · 부퇴골(佛退-) : 강상면 신화1리 영산 신씨 모공의 묘소를 잡을 때 땅을 파서 바위를 깨어내니 오리 한 쌍이 날아갔다 하여 붙은 이름 · 오리골 : 양평읍 동오1리 영암 송씨 선조 묘소가 오리형상이라서 붙은 이름 · 삼태골 : 양평읍 신애리 새만이 북동쪽에 있는 마을로 삼태기 안같이 생겼음 · 주읍산(趙揖山) : 개군면 내리에 위치한 산. 옛날 유명한 지관이 명당자리를 찾다 이곳 정상에 올라보니 용문산에 읊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한 데서 연유함
형국지명		· 오룡동(五龍洞, 오룡가리) : 개군면 계전리 계발 남쪽의 지명으로 다섯 용의 모습을 한 능선이 있어 연유한 지명. 다섯 용이 구슬을 다루는 형국이라 함 · 아우실 : 옥천면 아신2리 소재. 청송 심씨가 이곳에 자리 잡으며 지형이 와우형(臥牛形)이라고 하여 와우실이라 하였다 함 · 무수동(舞袖洞, 무시울) : 개군면 공세리 신내 남쪽의 마을로 지형이 춤추는 소매자락 같다고함. 신선이 춤추는 형국 · 매곡(梅谷) : 서종면 도장2리의 매화나지 형국을 본뜬 지명 · 갈맷[渴馬飲水形] : 서종면 문호3리 무너미 북쪽에 있는 마을로 앞산 지형이 말이 목말라하는 형상이라 하여 연유한 이름 · 대월 : 지형이 반월형으로 생겼다고 하여 붙은 이름. 양동면 계정3리 소재 · 반월 : 양서면 청계리에서 으뜸되는 마을로 마치 반달같은 지형에서 연유함 · 배잔(盃盞) : 지제면 대평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옥녀가 옥잔을 드리는 형국[玉女獻盃形]이라 함
비보 염승 지명		· 조산 : 개군면 내동 동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뒤로 뻗은 산의 맥이 끊겼다 하여 사람이 인공적으로 산에 흙을 쌓아 맥을 이어주었다는 데서 유래함 · 조산뜰 : 지제면 대평리 배잔 서남쪽 들. 조산이 있음 · 수살매기 : 강상면 병산리 느릅들 동북쪽의 들 · 무쇠말백이 : 개군면 내리 주읍산 중턱에 있으며 한일합방 이후 일본인들이 산의 혈을 끊고자 무쇠를 박았다고 유래함
기타 지명		· 대대(大垓) : 단월면 보룡1리 보산정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지형이 와우형(臥牛形)으로 큰 집터로 좋은 자리라 하여 붙은 이름 · 만석골 : 서종면 도장2리에 있으며 지관이 남양 홍씨가 묘자리를 잡다가 만석군이 날 자리라 해서 붙은 이름 · 난봉바위 : 단월면 도장2리 국소노 앞 산상봉 기슭의 조그만 바위로 이 바위를 건드리면 동네에 치정사건이 발생한다고 함 · 반곡(盤谷) : 서종면 정배2리에 용문산 낙맥이 줄기차게 뻗어 내려오다가 사리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 · 주산(主山) : 양평읍 대흥리의 뒷산을 일컬음 · 안산 : 용문면 용머리의 앞산 · 안산 : 용문면 망능리 중말 앞의 산

양평의 풍수 설화

설화 채록 마을		설화 내용(요약)
강상면	교평리	송장산에 묘를 쓰면 마을에 변상이 생긴
개군면	내리	주읍산 중턱에 무쇠말백이라는 곳이 있는데 한일합방 이후 일본인들이 산의 혈을 끊고자 무쇠를 박았다 함
양평읍	봉성리	아기장수 이야기
옥천면	옥천리	아기장수 이야기
		욕심 많은 부자가 묘소의 바위를 깨서 망했다는 이야기
		비보하기 위해 못(영화담)을 판 유래
서종면	서후리	아기장수 설화
	문호리	지관의 예언
		지관과 묘터의 발복 이야기
		묘를 잘 쓴 백정이 중국의 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단월면	산읍리 수청	욕심 많은 부자 맹씨가 이장한 후 망했다는 이야기
청운면	도원리	일본인들이 장수가 날까봐 풍류산의 혈을 끊음
		지관 이야기
		광산 김씨 묘터풍수 발복 이야기
		마을의 지형에 관한 전설
양동면	계정리	지리박사 도선이 어머니의 묘를 정하는 이야기
		북내면 원두표가 도선을 만나 통소혈 명당을 정해 발복하는 이야기
지제면	월산리	택당이 지술을 배운 이야기
용문면	삼성리	아기장수 이야기

출처 : 『한국구비문학대계』 ; 『양평군지』 ; 『향맥』 ; 『한글지명총람』

7) 양평의 풍수설화 및 전설

풍수지명이 주로 지리적 자연환경을 표징하고 있는 것이라면, 풍수설화는 사회적 성격과 윤리성이 담겨 있다. 양평지역에는 다수의 풍수설화가 전승되고 있으며 그것은 아기장수형, 단맥형, 금기형 등의 몇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밖에도 풍수의 시조로 알려진 도선을 회화화하여 등장시킨 설화도 몇 군데에서 채록되어 흥미를 끈다.

풍수설화는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좋은 지리적인 문서로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풍수설화를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 혹은 인간의 환경에 대한 인식 및 태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몇 가지 측면을 추출할 수 있는데, 환경은 사람에게 신비한 힘을 주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자연지형은 살아 있는 유기체 혹은 사물의 기능적인 시스템으로 다루어졌고, 환경은 쉽게 파괴될 수 있는 다치기 쉬운 것으로 이해했으며, 사람은 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때만이 자연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⁴³⁾

43) Yoon, Hong-Key, 1979, "The value of folklore in the study of Man's attitude towards environment", 10th NZ Geography Conference, 162쪽.

일반적으로 풍수설화는 내용별로 분류하여 아기장수형, 단맥형, 그리고 금기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유형의 설화는 전국 각지에 널리 퍼져 있다. 그 중 아기장수형 설화는 피지배자(서민 혹은 문중)와 지배자(왕조)간의 계급적 갈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용마바위 혹은 용마산의 기운을 타고 아기장수가 탄생한다는 풍수지리적인 계기를 구조로 지닌다. 양평의 서종면 서후리, 봉성리, 옥천리,⁴⁴⁾ 용문면 삼성리에도 신분적 계급갈등을 담고 있는 아기장수 설화가 채록된 바 있으니 그 내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서종면 서후리 : “서후리라고 말이요, 서후리에 밀양 박씨들이 살아요. 근데 묘를 썼는데 그 자손에서 이들을 낳았는데 뭐 3일인가 얼마가 됐는데 굴뚝에서 꾸벅꾸벅 졸드래요. 그래서 보니까는 뭐 저 거드랑이 밑에 날개가 나구 어찌구 그랬더구뇨. 그래서 그때 시절만 해도 저게 역적이 날까봐 겁이 나니까, 역적이 나면 아주 집안이 홀랑 망하니까 그냥 뒤선 안 되겠다고 그래서 그걸 죽였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죽이니까 죽은 다음에 거기 소(沼)가 있답니다. 개울에, 그 늪에서 네, 인제 용마가 나서 올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한국구비문학대계』 1~3, 42~43쪽)

봉성리에 있는 등성이 큰 무덤이 있는데 양평읍 원덕리 용요부리소에서 나온 용마가 주인을 찾다가 이곳에서 죽어 묻혔다 한다. (『한국지명총람』, 539~540쪽)

용문면 삼성2리에는 말무덤이라고 있는데 양지벼래 뒷산에 위치하였으며 원주 이씨 문중에 날개가 돌힌 장사 어린이가 태어났는데 후환이 두려워 3일 만에 맷돌로 눌러 죽였더니 용마가 난데없이 내려와 이곳에 쓰러져 죽어서 묻었는데 이후 이곳을 말무덤이라고 한다. (『향맥』, 377쪽)

단맥형 설화는 명당을 이루는 지맥을 끊거나 차단하는 풍수적 계기를 포함하는 구조로서 대외적 갈등과 신분계급간 혹은 빈부계층간의 갈등이 주종을 이루며, 시기적으로는 임란과 일제시기의 것이 많다. 일제에 의한 단맥형 설화의 경우,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의 수탈이 강한 적대감을 불러일으켰고 민족의 생존까지도 위협하는 존재로 잠재의식 속까지 깊이 새겨졌을 것이며, 그 결과로 철도나 도로의 건설에 따른 실제적 행위와 함께 단맥의 행위자로서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⁴⁵⁾ 양평에는 여러 편의 단맥형 설화가 채록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주로 대외적 갈등구조 설화로서, 일제에 의한 단맥(청운면 풍류산, 도원리 성재동) 사례가 있었고 중국인에 의한 단맥설화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빈부갈등의 단맥 사례도 채록되었다. 그리고 서종면 문호1리의 경우와 같이 경지개간 과정에서 용의 허리를 끊어서 생겨난 이야기도 있었다.

44) 양평군지편찬위원회, 1991, 『양평군지』, 양평군, 922쪽.

45) 강중탁, 1986, 「도선설화의 연구 - 풍수설화적 성격을 중심으로」, 『월산 임동권박사 송수기념논문집』, 국어국문학편, 85쪽.

풍류산은 일제 때 일본인들이 와서 장수가 태어날 것을 염려해서 쇳물을 끓여 혈을 끓었다는 곳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한다. (『한국구비문학대계』 1~3, 109쪽)

도원2리에 있는 성재동(聖在洞)은 성인들이 많아 붙여진 이름이라 하는데 임진왜란 때에는 일본이 이 산의 뿌리가 내려와 뛰어난 장수가 난다고 하여 산의 혈맥을 끊었다고 한다. (『양평군지』, 995쪽)

개군면 내리 주읍산 중턱에 무쇠말백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한일합방 이후 일본인들이 산의 혈을 끊고자 무쇠를 박았다고 유래함. (『향맥』, 221쪽)

단월면 산음리 수청 : 옛날 절터골 밑의 만수터에 부자 맹씨네가 있었는데 중들이 시주를 청하자 소똥을 주었다. 부자는 시주 받는 사람들을 끓는 방안을 물어보니 대사는 산소를 파서 천례를 권하였고, 그대로 실행한 후에 망하여 흉가가 되었다. (『양평군지』, 1014쪽)

서종면 문호1리 : 백년 전 외문호 일대에 논을 만들기 위해 고개를 끊었을 때 붉은 물이 흘러 사람들이 용의 허리를 끊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말을 했다고 하여 이후 주민의 살림이 줄고 부자가 떠나고 타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늘었다고 한다. (『향맥』, 271쪽)

옥천면 신복1리 : 중이 광산 김씨 문중에 시주를 갔다가 거부당하자 분심을 품고 이르기를 저 앞의 큰바위를 깨버리면 문중이 더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자 이를 끝이들은 문중에서 바위를 깼다. 그러자 그 바위에서 피가 솟아나왔다. (『향맥』, 340쪽)

옥천면 옥천2리 : 동남 온 중을 쫓아낸 후 중이 시키는 대로 돌 깨는 석수장이를 시켜서 바위를 깨버리는데 거기서 피가 솟아나오고 망했다. (『한국구비문학대계』 1~3, 566쪽)

그리고 풍수금기형 설화는 풍수적 환경 및 비보물의 안정적 보전을 유지하기 위한 심리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아래 각 마을들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마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산에는 묘를 쓰지 못하게 하는 금기가 있는데 이는 신성한 산에 부정함이 깃들지 못하도록 하는 심리적 경계임과 동시에 마을에서 중요지형의 공적인 보전을 위한 문화적 장치를 뜻한다. 그리고 배의 형국에 우물을 파는 것은 배에 구멍을 뚫는 행위와 같다고 보아 금하고 있으니 이 역시 마을의 형국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한 금기사례에 해당되며, 명당으로 이르는 지맥을 중시하여 안전을 피하는 것 역시 지맥보전을 위한 금기사례가 된다. 그리고 마을 비보물의 기능과 가치를 확보하기 위한 금기사례도 있다. 양평의 경우 강상면의 교평리와 화양리 경계에 송장산이라고 있는데 이 산에 묘를 쓰면 마을에 변상이 생긴다고 하는 사례가 있다.⁴⁶⁾

그밖에도 도선에 관한 설화가 있는데, 도선(827~898)은 한국풍수의 시조로 평가되는 신

라말의 선승으로, 민간설화에 풍수사의 대명사로 흔히 등장하곤 하는 인물이다. 양평의 경우에도 도선을 회화화하여 설화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양동면 계정리에서 채록된 설화에는 도선이 어머니의 묘를 정하는 과정이 소개되어 있으며, “원두표가 어머니 묘터를 정하려고 서울 가서 도선이를 만났다. 그런데 도선이가 맨날 대가집만 잘 잡아주지, 없는 사람은 잘 안 잡아줘서 망태에 짊어지고 와서 뒷산 나무에 매달아 놓았다”는 내용이 있다.⁴⁷⁾

8) 맺음말

이 글은 양평의 풍수에 관해 양평지역의 풍수적 배경, 취락 풍수, 향촌민의 풍수지명 및 설화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 양평 풍수의 자연·역사적 배경, 취락의 풍수적 입지론과 비보론, 향촌민의 풍수적 환경인식의 견지에서 조명되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양평 풍수의 배경에 관해서는 자연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의 배경을 검토할 수 있는데, 자연적으로는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수(合水)할 뿐만 아니라 각 소규모의 단위 지형에서 명당수가 만남으로써 성국(成局)되는 탁월한 수구(水口) 조건을 이룬다는 점이 특징으로 강조되었다. 그리고 역사적 배경으로는 양평의 행정구역 변동과 14세기부터 비롯하여 17세기에 본격화한 동족촌의 형성에 관련한 사항이 간략히 고찰되었다.

양평지역 고을과 마을의 취락풍수는 풍수적 입지론 및 비보론의 측면에서 주요하게 서술되었다. 한편 『정감록』에 소개된 양평의 피장처로 꼽혔던 미원장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고 그 입지배경도 검토하여 보았다.

양평의 중심취락이자 읍치로서 양근은 현 옥천면 고읍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건지산을 주산으로, 남산을 안산으로 남향하여 입지하였다. 양근에는 용문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 조성된 영화담이라는 비보물이 있었다는 사실도 현지답사에 기초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평읍 치소는 현 지제면 지평4리의 관교마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주산은 봉미산(鳳尾山)이고 안대(案對)는 망현산이다.

그리고 양평의 마을에는 여러 비보물이 있었는데 특히 개군면 내리의 조산마을은 용맥비보의 형태로서 주목되었다. 이들 비보는 양평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주거지를 풍수적 이상형으로 가꾸고자 한 점이 주목되었다. 그리고 양근군에 있었던 미원장은 『정감록』의 보신지지 혹은 피장처로 소개된 곳이며, 이렇게 양근의 미원장이 지목된 것은 잦은 전란으로 인한 사회분위기의 피해와 이에 대응한 탈사회적인 심리,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오지라는 주위가 산으로 둘러막혀 전략적 요새에 입지한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는 넓은 분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식량자급을 위한 경지적 조건이 확보된 곳이라는 조건이 바탕이 되었다.

46)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7, 518쪽.

4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앞의 책, 372~374쪽.

양평지역 향촌민들의 풍수적 환경인식 및 태도에 관해서는 양평에 전해지는 지명과 설화가 주요한 자료가 되었다. 양평의 지명에 투영된 환경 인식에는 산의 형세를 생명이 깃든 것으로 보는 유기체적인 사유가 반영되어 있었으며,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태도로서 조산, 수살매기 등의 비보지명도 있었다. 그리고 양평지역에 전승되는 풍수설화를 아기장수형, 단맥형, 금기형 등의 몇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신분적 계급갈등을 담고 있는 아기장수 설화가 있었고, 특히 일제에 의한 대외적 갈등구조를 담고 있는 단맥설화가 많았다. 또한 한국풍수의 시조인 도선을 회화적으로 등장시킨 설화 내용도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었다.

2. 마을의 형성과 변천*

1) 취락의 입지

취락(聚落)은 중소규모의 촌락(村落)과 다수의 인구가 밀집해 거주하는 도시(都市)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취락은 말단 동리에서 메갈로폴리스라고 불리는 초거대도시의 연속선상에서 성립되는데, 취락의 규모에 따라 거주공동체에 대한 접근방향과 설명방식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일반 촌락의 경우 특정 문화집단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생활양식을 규명하는 작업이 지역연구의 핵심을 이루며, 도시에 가까워질수록 특징적인 생활양식에 대한 설명과 소개보다는 기능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공간형성의 원리와 질서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다. 빠르게 진행되는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촌락과 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지역연구는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발견하고 과정을 추적하며 변화의 전후를 비교하는 데서 출발한다.

취락발달의 정점으로 비유되는 도시의 출현과 성장은 그 기반에 촌락을 두고 있다. 촌락은 밀집도와 형태를 기준으로 크게 집촌(集村)과 산촌(散村)으로 나뉜다. 일반 농촌에서 흔히 마주치게 되는 집촌은 개별 가옥이 불규칙하게 옹기종기 결합된 괴촌(塊村), 열을 지어 규칙적으로 배열된 열촌(列村), 넓은 공지를 둘러싸고 가락지 모양으로 발달한 환촌(環村) 등으로 세분된다.¹⁾ 반면 산촌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산되어 있는 형태의 촌락으로서 고립농가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가 있는가 하면 대개는 3~4채의 가옥으로 구성된 소촌(hamlets) 혹은 소촌의 집합체로 존재한다. 촌락은 기능상 행정촌, 방어촌, 교통촌, 상업촌, 농촌, 교촌, 사원촌, 광산촌, 수공업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입지를 고려하여 산촌(山村), 골짜기촌, 강촌, 야촌, 해촌 등의 유형으로 나뉘기도 한다.

취락의 입지는 지세·기후·하천·토양·식생과 같은 자연환경 요소, 주어진 자연환경에 대

* 2. 마을의 형성과 변천 및 3. 교통과 경제활동은 양보경·홍금수 집필임.

1) 矢嶋仁吉, 1957, 「集落研究史」, 木内信藏·藤岡謙二郎·矢嶋仁吉 編, 『集落地理講座(1)』總論, 조창서점, 3쪽.

한 인식과 지각, 역사,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특히 전산업시대 생업의 근간인 농업경제는 입지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²⁾ 식수와 관개용수를 얻기 쉽고 기후가 온난하며, 경작할 토지가 넓게 발달한 지역에 비교적 규모가 큰 촌락이 들어서는데, 바로 자연환경이 촌락의 입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 생산기술의 변화, 교통발달, 개간, 정부시책, 신종작물의 도입 등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에 의해 취락은 새롭게 형성되기도 하고 쇠퇴하거나 소멸한다. 그러나 일단 형성된 취락은 역사지리적 관성에 의해 정해진 입지를 오랫동안 고수하려는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취락입지의 일차적인 조건이라 할 수 있는 양평의 자연환경, 특히 지세를 살펴보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지형도상에서 살펴보면 양평은 우선 중앙에 해발고도 500m가 넘는 연속된 산줄기가 동서로 뻗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 정점에 1,157.2m의 용문산이 있다. 북동쪽에는 754.9m의 화야산을 최고봉으로 하는 산줄기가 북한강이 90도로 꺾여지는 지점을 마주보며 자리하고 있다. 남한강 건너 남쪽에는 709.5m의 양자산자락이 흘러내리며, 동부 및 동남부에는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는 300m 이상의 산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전체적으로 양평의 윤곽은 연속되거나 경우에 따라 고립단절된 이들 산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산줄기 사이를 크고 작은 하천이 흘러내리는데, 지역 동단과 북부의 하천은 북한강으로, 나머지 하천은 남한강으로 유입된다. 지역 북동부에서 서남쪽으로는 지류하천 가운데 유로가 가장 긴 흑천이 흐른다. 흑천계곡은 넓게 펼쳐진 해발고도 100~300m의 완경사지로 구성되어 있다. 하천과 하곡의 특성은 산지의 윤곽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되며, 양평의 취락은 주로 용문산에서 방사상으로 뻗어나온 산줄기 사이를 흐르는 소하천변에 형성되어 있다.

취락은 서구의 경험적·기학학적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동양적 세계관에 의해 입지가 결정되고 또한 계획된다. 상징으로 충만한 동양적 사고체계에서 공간구조는 영적인 경험에 근거하여 구성되며 이렇게 형성된 선형적인 공간만이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전통적인 상징의 일단은 기(氣)의 흐름을 살펴 취락의 입지를 선정할 때 구현되었다.³⁾ 풍수설은 바로 그러한 전통적 상징체계를 대표하는 동양적 자연관으로서 산, 물, 방위, 사람 등의 조합으로 성립되며, 구체적으로는 간룡·장풍·득수·정혈·좌향·형국·비보 등의 형식논리를 갖는다.⁴⁾ 전통적으로 우리 선조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취락입지는 산간계곡이었다. 들이 넓어 풍요 속의 여유를 찾을 수 있고 수운의 이점이 있는 강거(江居)나 어염의 이득이 많은 해거(海居)도 가거처로 손색은 없지만, 풍류와 멋을 중시한 사대부에게는 수해를 피하고 깨끗한 식수와 연중 마르지 않는 관개수를 쉽게 확보하며 산수의 경치를 음미할

2) Albert Demangeon, 1962, "The Origins and Causes of Settlement Types", in M. Mikesell and P. Wagner (eds.), *Readings in Cultural Geograph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506~516쪽.

3) Paul Wheatley, 1971, "The Ancient Chinese City as a Cosmo-magical Symbol," in *The Pivot of the Four Quarters*, Chicago: Aldine, 416~419쪽.

4) 최창조, 1984,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3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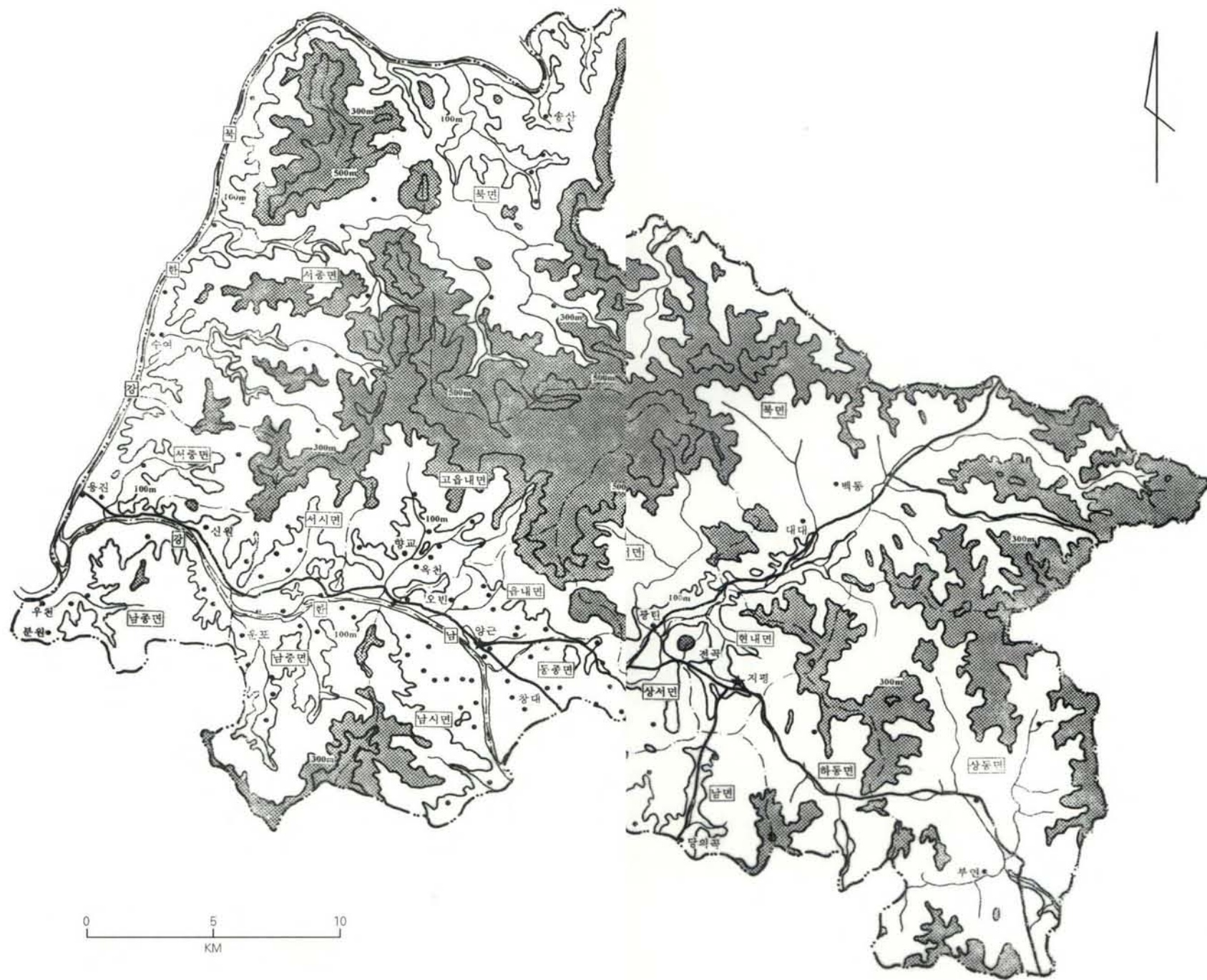


그림 1. 양근과 지평의 취락입지(18세기)

수 있는 유유자족한 계거(溪居)보다 나은 입지는 없었던 것이다.

계거 중심의 이상향에 관해서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한국적 인문지리서인 이중환의 『택리지(擇里志)』에 실제적인 예시와 함께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장소의 고유한 개성, 즉 정체성은 물질적 배경, 인간활동, 분위기(의미)로 구성되며 이들 요소간의 변증법적 연결에 따라 여러 수준의 경험과 의미의 실체로서 장소성이 형성된다고 하는데,⁵⁾ 복거(卜居)를 위해서는 수구·야세·산형·토색 외에도 생리, 인심, 산수와 같은 실용적·미학적·인본주의적·여가적 측면이 모두 고려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식 장소성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취락은 풍기가 깃들고 아늑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에 들어서는 것이 제일이었다. 산수가 함께 어우러진 입지가 선호된 반면, 사태의 우려가 있는 산악인접지, 대하천과 해안변의 상습적인 침수지역, 짐승과 도적이 창궐하는 후미진 곳, 장사치들이 몰려들어 미풍양속이 해이해지기 쉬운 지역은 가급적 피해야 할 곳으로 인식되었다. 개별 주택의 경우 좌측으로 개울이 흐르고 우측으로는 큰길이 나 있으며, 집 앞뒤로 연못과 나지막한 언덕이 자리하고 있는 곳을 최상의 입지로 보았다.⁶⁾

문헌에서 확인한 18세기 양근과 지평의 동리를 지형도상에서 확인한 결과 대체로 남한강변을 따라 입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북한강 유역의 지류하천과 흑천변에도 동리가 분포하지만 밀도가 그리 높지 못하다. 지역 북부의 취락은 계류를 따라 내륙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 기록에서 언급된 계거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그림 1). 남한강 양안에는 넓은 충적지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생산력, 나아가서 인구부양력이 높았던 것이 많은 취락을 유치할 수 있었던 주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남한강을 오고가는 범선을 상대로 한 영리활동에 유리하였던 것도 원인의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2) 취락의 형성과 발달

(1) 양평의 정착사

양평(楊平)은 1908년(순종 원년) 9월 14일에 반포된 칙령 제69호에 의거해 양근(楊根)과 지평(砥平)의 두 개 고을이 통합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행정구역으로서 명칭 자체와 관련된 역사는 그리 오래지 않다.⁷⁾ 그러나 이 지방은 남한강과 북한강 물가를 끼고 있어 선사시대 주민의 생활무대로서는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수로이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전략

5) 최기엽, 1983, 「장소의 이해와 상징적 공간의 해독」, 『지리학논총』 10, 157쪽.

6) “定居必先審擇其風氣之藏聚面背之安穩以爲永久之圖……(論地勢)治生必先須擇地勢以水陸並通處爲最故背山面湖乃爲勝也……凡家居緊靠大山則必被沙汰之患迫臨江海則恐有漲溢之慮且水惡瘴劇柴草不便則豺虎縱橫盜賊出沒之處皆不可居又當避舟車湊集井市爭利之所非但熱鬧可厭民俗亦必不美矣……(相址)凡住宅左有流水謂之青龍右有長途謂之白虎前有汚池謂之朱雀後有丘陵謂之玄武爲最貴也”(『증보산림경제』 권1, 복거조).

7) 『순종실록』 원년 9월 14일.

표 1. 양평의 유물과 유적

시기	유적·유물	분포지역
구석기	망치돌·자르개·찌르개·찍개	병산리, 전수리
청동기	방추차·그물추·날알	양근리
	토기	문호리, 양수리, 대심리, 양근리, 교평리
	석기(석검·석촉)	문호리, 대심리, 운심리, 용담리
	석기(자귀·어망추·숫돌)	문호리(자귀·어망추·숫돌), 덕촌리
	지석묘·석관묘	문호리, 양수리, 조현리, 회현리, 병산리, 대석리
초기철기	유적	금남리(산포지), 대심리(문화층)
	유물	금남리(산포지, 토기), 대심리(산포지, 토기)
삼국	백제고분	단석리
	신라사찰	용천리(사나사), 연수리(보리사), 신화리
	성지	신원리 부용성지, 용천리 함공성지
통일신라	당간지주·사찰	옥천리, 신점리(용문사)
고려	사지·석탑	대석리, 청계리, 용천리, 석곡리(용주사), 연수리(상원사), 옥천리, 지평리
조선	도요지	귀여리(15~16C 백자), 단석리, 삼산리, 부안리, 갈운리, 일신리, 신복리(17C 백자), 분원리(18~19C 백자·청화백자·진사백자), 금사리, 삼성리
	향교	옥천리, 지평리
	서원	수곡리(수곡서원), 덕촌리(운계서원)
	사지	옥천리(정법사), 향소리, 연수리

출처 : 한국고고학연구회, 1984, 『한국고고학지도』 ; 경기도박물관, 2000, 『경기도문화유적지도(III)』, 249~251쪽, 256~263쪽

적인 중요성 또한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역 곳곳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유물·유적은 양평의 정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측을 뒷받침해주는 가시적 증거이다. 석기시대의 경우 당시의 사회상을 밝혀줄 수 있는 단서가 나오지 않고 있으나, 청동기시대의 포함층·토기·석기·지석묘는 문호리, 양수리, 대심리, 양근리, 양덕리, 조현리 등지에서 다량으로 발굴되어 양평이 생활무대로서 중요하였던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표 1).

고대국가 단계에서 양근은 오랫동안 고구려의 양근군으로 존속하였다.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빈양(濱陽)으로 개칭하였고 고려왕조에 들어와 원래의 지명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양근은 감무(監務)가 설치된 고려 명종대까지 속현으로 남아 있었다. 불교가 국교였던 공민왕 당시에는 국사(國師) 보우(普愚)의 모친이 태어난 곳이라 하여 양근군으로 승격된 바 있다. 당시 보우는 미원장(迷元莊)의 소설암에 기거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미원현이 새로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곳은 땅이 척박하고 인구가 많지 않아 이내 양근군으로 편입되고 만다.⁸⁾

한편 지평은 고구려의 지현현으로 편성되었으며 신라에 의해 현재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



사진 1. 병산리 돌거북상. 태조 왕건이 삼한을 통합한 뒤 이 지역의 방어를 기원하기 위해 화강암에 조각한 석상으로 백병산 주봉인 연두봉의 암자에 있었는데, 현재는 강하면 간선도로변에 놓여 있다

지평은 한동안 광주의 속현으로 존재하였으나 공양왕대에 이르러 영내에 철장(鐵場)이 들어서면서 동시에 감무가 설치되었다.⁹⁾ 삼국에서 고려에 이르는 동안의 양평의 역사는 각종 유물과 유적에 반영되어 있다. 초기철기시대의 유적은 금남리와 대심리에서 출토된 많은 토기와 함께 남아 있으며, 이는 다시 단석리의 백제고분, 용천리·연수리·신화리의 신라사찰, 부용성과 함공성 등의 삼국시대 유적으로 이어진다. 통일신라와 고려의 역사는 용문사·용주사·상원사와 같은 사찰, 당간지주, 석탑, 석상에 일부가 각인되어 있다(사진 1).

조선시대 양근과 지평은 종4품의 군수와 종6품의 현감이 주재하는 지방행정구역으로 편성되었다. 군이 비교하자면 10개 면의 양근이 7개 면으로 구성된 지평보다 인구와 경제력에서 다소 앞섰다고 하겠다. 향촌은 중앙정부의 관치를 대리하는 수령과 지역자치의 대변자인 재지사족의 대립 및 협조를 통해 성리학적 질서가 구현되는 장소였다. 그러한 시대상은 향교, 서원, 사창, 신도비, 분묘, 사당, 정려비, 고가옥과 같은 다양한 경관에 투영되어 있다. 생산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분원 인근에 산재한 수많은 도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14년 전국적인 행정구역개편을 계기로 군간 통폐합을 거친 대다수 지방과 달리 양근과 지평은 이미 1908년에 양평으로 통합되었다. 새롭게 탄생한 군의 행정기능은 양근이 맡아보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지평읍치의 경우 전지역을 통할하기에는 너무 궁벽한 곳에 입지한 것이 사실이다. 양근은 교통과 경제에 중요한 한강수로를 전면에 두고 있어 서울과의 연결성

8) “迷源村在郡北六十里 四面重峰關鎖 北去五里許即北江平原十里 田畝不甚瘠薄 民皆力農且多火畝 迷源縣在郡北六十里 高麗恭愍王五年以國師普愚寓居郡之迷原庄小雪庵 陞主爲縣置監務尋以地窄人稀還屬于郡”(『楊根郡邑誌與地圖成冊』(奎 10728).

9)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이 뛰어나고 지역통합성이 크기 때문에 전지역을 대표할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14년에는 남종면이 인근의 광주로 이속되었으며, 1935년경에는 원래 양근 치소가 있었던 고읍면이 옥천면으로, 1937년에는 갈산면이 양평면으로 개칭되었다. 1942년 9월 30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242호에 의거해 설악면이 가평군으로 이속되었다.

(2) 취락의 성장

『호구총수』가 편찬된 1789년 당시 양근은 10면 99동리, 지평은 7면 19동리로 구성되었다. 양 군현을 합하면 모두 17면 118동리가 되는데, 1910년에 이르러 19면 357동리로 증가하였다.¹⁰⁾ 행정면보다는 자연촌의 성장이 괄목할 만하다. 자연촌은 규모에 따라 대·중·소촌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대촌은 소수의 사족과 양민호 및 다수의 노비호로 구성된 반촌(班村)을 중심으로 주변의 소규모 자연촌 혹은 민촌(民村)을 결합하여 동계의 단위인 동(洞)이라는 지역촌이 되거나 면리제의 말단 행정촌인 리(里)로 구체화된다. 동과 리는 동일선상에서 논의되기에는 하지만 서로 다른 점 또한 많아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일례로 동은 사족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로서 지연·혈연·토지소유 관계를 매개로 형성되는 생활공동체의 성격이 짙다. 그러나 양자 모두 내부에 일정 수의 자연촌을 포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¹¹⁾ 동 리는 양근 동종면 도곡리의 도곡, 축동리의 축동, 환곡리의 환곡의 예와 같이 중심이 되는 대촌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¹²⁾

10) 『호구총수』(1789) ; 『조선총독부통계연보』(1910),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1912), 19면 354동리. 근대적인 행정구역체제가 시작된 1914년 이후에는 동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숫자는 줄어들게 된다(『신구대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1914), 12면 112동리 ; 『최신조선도부군리정명칭』(1928), 12면 112리 ; 『조선부군도면정동리명칭일람』(1943), 11면 98리).

11) 정진영, 1998,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26~27, 208, 280, 284쪽.

12) 잔존하는 19세기 양근의 양안(量案)에서 다음과 같은 동리와 자연촌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농민이 거주하고 있던 촌락과 일정 거리를 두고 분포한 토지의 소재지에 불과하지만 대개는 중소규모의 촌락으로 볼 수 있다: 읍내면(吳嫌村, 石橋, 大坪, 上坪, 下坪, 道藏(壯)谷, 九沙里, 丹之項, 寶(甫?)農谷, 公山, 藍井, 三星堂, 屯田, 我也谷, 塔谷, 葛山, 佛堂谷, 亭子谷, 檜木, 才百伊, 熊德井, 烏宿谷, 飛遞峴, 馬背岩, 案山, 堂峴, 龍岩, 女茂峴, 城隍谷, 德谷, 內古乃, 加之隅, 眞久里, 石峴, 新晚里, 흥곡, 坪里, 金實, 道長洞, 興清洞, 玉燈山, 烏竹洞, 白洞, 熊德井, 望洞), 동종면(加之坪, 葛防築, 瓶幕谷, 佳(可)才井, 圓堂, 松谷, 楮山, 百峴, 大谷, 之晉宅, 酒峴, 休鳥峴, 竹寺村, 川邊里, 南間堡, 四之坪, 銅峴, 新堡里 防築, 良馬里 陵隅·下坪·中坪·釜洞, 道谷里 佳(可)才谷·道谷, 岐山里 狐谷·新陵·長甫·蓼井, 倉堡里 小葛谷·大葛谷·後川·案山·陽村·半興亭·松隅·世長而, 築垌里 松隅·龍門堡·築垌·石峴, 桓谷里 八井·桓谷·土井, 可巢, 會岩里 寒泉·石峴·中坪, 鳳谷, 溫水谷, 白楊浦 무듬이, 防築洞, 三巨里, 城山, 牟參隅, 葛山江邊, 長安洞, 院洞, 竹節洞, 春橋, 甘接井, 屯田, 沙安洞, 陶之鬱, 葛谷, 馬背岩, 栗木洞, 後川, 西山, 德岩村), 고읍면(古來洞, 上谷, 瓦釜坪, 永庫才, 成(我?)五谷, 大丁毛, 內松堡, 堂谷, 銀杏木, 池邊坪, 造山坪, 南山坪, 下南山坪, 墟門, 梧里泉, 竹院村, 山井坪, 免其山, 槐木, 介羅里, 上介羅里, 城隍堂, 浮石洞, 旧店堡, 上斜川, 中斜川, 下斜川, 九峰坪, 瓦也之堤, 新釜店, 梨木堤, 葛峴, 墨堡, 片前店村, 靜法(正法?), 栢峴, 枝村, 蔽外坪, 沙灘江邊, 西山, 案山堂, 夫興峴, 行者, 西村, 玉泉, 下古來, 大月里, 柳木堤, 片前梨木堤, 時位坪, 下馬碑, 上九峰, 下九峰, 德隅, 斗得坪, 水爲坪), 남시면(黃哥堡, 延陽綾羅洞, 瑞石洞, 密岩, 交岩, 永宗浦, 長灘, 葛山越坪, 水谷, 石田巷, 坪村, 案山, 道古涉, 石隅, 梧川, 道陽, 莫恩谷, 自他山, 土沃谷, 荒山, 簞谷), 서시면(鎭谷, 佛峴, 梅花坪, 陶谷, 成周洞, 古良木谷, 西片, 東片, 五里木亭, 半長, 童山坪, 東海店谷, 靑石橋) (『도광8년양근군전안』 ; 『도광9년양근군전안』 ; 『도광22년양근전답양안』 ; 『도광26년양근군전안』 ; 『도광28년양근전답양안』, 고려대학교도서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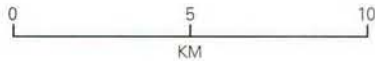


그림 2. 양평의 취락(1913)

전통사회에서 동리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취락의 성장을 의미한다. 취락의 성장은 농업 생산력과 농민의 성장 및 향촌의 분열을 배경으로 반촌과 반촌 혹은 반촌과 민촌의 분열에서 오는 분동(分洞)과 같은 내적 분화과정을 거쳐 초래되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는 인구의 증가가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18세기 이래 양평의 취락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표면적으로 보더라도 1913년의 취락밀도는 18세기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취락은 내륙은 물론 하천을 따라서도 확산되었는데, 특히 기존의 남한강 양안보다는 내륙의 흑천유역에서 성장이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취락은 시기에 따라 속도는 다르지만 대체로 하곡을 따라 성장하였다. 흑천 외에도 남동부 석곡천 및 지역 북쪽의 산간계곡을 따라서도 다수의 크고 작은 취락이 들어서기에 이르렀다(그림 2).

인구증가로 촉발된 거주영역의 확대는 거의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한 지역의 인구는 출생과 사망의 차이로 계산되는 자연증가와 지역간 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에 의해 결정된다. 근대적인 국세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주로 부세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호구조사가 실시되었다. 특히 각종 납세 및 부역의 대상인 16세 이상의 정남에 대해서는 조사가 비교적 철저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통시대의 호구조사는 신분과 지위에 따라 차등 있게 시행되었다. 조선시대 일반 양민의 호구는 지방관이 매년 조사하여 중앙관청인 호부에 보고하였고, 상류층은 3년을 주기로 호주가 직접 작성하여 보고하는 체제였다. 매 식년(자·묘·오·유년)마다 호주가 가족의 신상을 정리하여 호구단자를 작성해 관아에 제출하면 지방관청에서는 보고된 내용을 정리하여 면·리별 호적대장을 만들어 본읍에 보관할 원본을 만들고 추가적으로 경기감영, 한성부, 호조에 전송할 사본을 작성하였다.¹³⁾

전산업시대의 인구규모는 경제력과 군사력, 다시 말해 국력의 척도였다. 인구는 농업을 포함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였고, 동력원이었으며, 납세의 부과기준이었기 때문에 지역 및 국가경제의 대소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인구의 소재와 규모를 정확히 판단한다는 것은 행정상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정확도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더욱 떨어지기 마련이다. 양평의 경우도 인구추정을 위해 근거로 삼을 만한 자료가 많지 않을 뿐더러 남아 있는 통계의 신뢰도 역시 극히 의심스럽다. 조사된 자료가 출생과 사망의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누락되거나 실재하지 않는 인원이 추가되는 기록상의 오류도 비일비재하였다.¹⁴⁾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전국 각지를 대상으로 조사·수집한 호구기록 가운데 『세종실록』지리지의 시기상으로 가장 이른 16세기 당시의 인구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로서 양근에는 388호 1,686명, 지평에는 267호 515명의 호구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언급된 호수

13) 『경국대전』 호전 호구조.

14) 권태환·신용하, 1977, 「조선시대 인구추이에 관한 일서론」, 『동아문화』 14, 293쪽.

는 3명의 정남을 1호로 편성한 편호(編戶)로서 일반적인 의미의 가구와는 개념부터 다르다. 기록된 인구수는 여성, 노약자, 어린이를 배제시키고 정남만을 고려했던 것이다. 조선 초기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시기로서 향약구급방과 같은 의료 및 의학지식의 전국적 보급으로 인구변천이 전환점을 맞는 기간이기도 하였다. 농업생산력이 신장되면서 여전히 높은 사망률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전체적으로 성장곡선을 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뭄·홍수·병해충에 기인한 기근, 전염병, 정치외교의 위기상황에서 야기되는 전쟁은 인구 성장을 억제하고 감소시키는 중요한 원인이었다.

사실 임진왜란을 비롯한 크고 작은 병란을 거치면서 인구는 대폭 줄었다. 그러나 17·18세기 사회적인 안정이 회복되고 문화의 중흥기가 이어지면서 인구는 점차 상승곡선을 그리게 되었다. 이양법의 보급으로 농업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한편,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질병을 비롯한 각종 사망원인에 대한 적응력이 높아지면서 절대인구수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1789년(정조 13)에 편찬된 『호구총수』는 절대인구는 물론 면단위 인구를 기록하고 있어 인구의 지역별 분포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를 참조해 파악한 양평의 인구는 읍내면(1,762명), 동종면(1,142명), 고읍면(1,522명), 서시면(759명), 서중면(692명), 서종면(973명), 남시면(1,082명), 남중면(926명), 남종면(1,749명), 북면(1,610명)을 모두 합쳐 1만 2,217명으로 집계되었다(표 2). 지평의 인구는 양근에 비해 2,492명이 적은 9,725명으로 현내면에 2,205명, 남면 1,236명, 하동면 475명, 상서면 1,490명, 하서면 1,107명, 상동면 477명, 북면 2,735명의 규모로 분포하였다.

1905년(광무 8)의 인구통계를 보면 양근의 1만 6,295명과 지평의 1만 5,424명을 합해 모두 3만 1,719명이 양평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마 조사가 철저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류인 것 같다.¹⁵⁾ 그렇게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은 1907년(명치 40) 정부재정고문본부에서 펴낸 『한국호구표』의 통계와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본 기록에는 양근 2만 5,952명, 지평 1만 9,178명, 총 4만 5,130명의 인구가 파악되고 있는 것이다. 면별 최대인구는 양근 남종면의 3,710명이었으며 지평 하동면의 889명이 최소였다. 1908년에는 양근과 지평이 양평으로 통합되었으나 행정구역에는 변화가 없어 인구분포의 지역간 현황을 분석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일제강점기에 접어든 1910년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제4차 총독부통계연보』를 참조하였다. 민족별 인구구성을 보면 일본인 33명, 조선인 6만 2,549명, 외국인 4명으로 나타났다. 당시 양평의 총인구는 이들 모두를 합한 6만 2,585명이었으며, 남녀 각각 3만 3,692명과 2만 8,893명으로서 성비는 116.6으로 계산되었다. 당해 출생인구는 327명, 사망인구는 262명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를 기초로 조출생률을 계산하면 5.22명/1,000명, 조사망률은 4.19명/1,000명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¹⁶⁾

15) 농상공부, 1905,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경기·충청·강원)』, 249쪽.

16) 조선총독부, 1910, 『조선총독부통계연보』, 60쪽.

표 2. 양평의 인구변천(1789~1944)

(단위 : km, 명)

	1789		1907	1908	1910	1914	1920	1925	1930		1935	1940		1944
楊平	21,942	楊平	45,130	楊平郡	60,590	楊平郡	72,774	75,788	73,599	楊平郡	78,802	80,501	楊平郡	77,586
면적	1,045.6	면적	1,045.6	면적	1,045.6	면적	1,012.1	1,012.1	1,012.1	면적	1,012.1	1,012.1	면적	880
밀도	21.0	밀도	43.2	밀도	57.9	밀도	71.9	74.9	72.7	밀도	77.9	79.5	밀도	88.2
楊根郡	12,217	楊根郡	25,952											
읍내	1,762	읍내	2,994	읍내	3,235	갈산		8,847	8,803	갈산	9,608		양평	11,565
동중	1,142	동중	2,468	동중	2,524									
고읍	1,522	고읍	1,433	고읍	2,945	고읍		3,969	4,197	옥천	4,192		옥천	4,272
서시	759	서시	2,046	서시	2,517	양서		5,611	5,595	양서	6,398		양서	6,749
서중	692	서중	1,117	서중	2,046									
서중	973	서중	2,733	서중	4,725	서중		6,524	6,462	서중	6,571		서중	6,620
남시	1,082	남시	2,315	남시	2,745	강상		4,353	4,089	강상	4,394		강상	4,656
남중	926	남중	2,214	남중	2,475	강하		3,764	3,530	강하	3,765		강하	3,728
남중	1,749	남중	3,710	남중	3,985	(광주)								
북	1,610	북상도	1,620	북상도	2,713	설악		8,915	8,806	설악	8,907		(가평)	
		북하도	3,302	북하도	4,651									
砥平縣	9,725	砥平郡	19,178	(양평)										
현내	2,205	군내	2,033	군내	2,552	지제		8,340	8,000	지제	8,697		지제	9,878
남	1,236	남	2,080	남	2,624									
하동	475	하동	883	하동	1,189	용문		8,311	8,107	용문	8,554		용문	9,596
상서	1,490	상서	2,061	상서	2,622									
하서	1,107	하서	2,591	하서	3,582	양동		6,887	6,588	양동	7,283		양동	8,549
상동	477	상동	3,592	상동	4,631									
북	2,735	상북	2,653	상북	3,637	청운		5,227	4,729	청운	5,709		청운	6,365
		하북	3,285	하북	5,192	단월		5,040	4,693	단월	4,724		단월	5,608

출처 : 「호구총수」(1789) ; 「한국호구표」(1907) ; 「대정9년조선총독부통계연보」 ; 「대정14년간이국세조사결과표」 ; 「소화5년조선국세조사보고」 ; 「소화25년조선총독부통계연보」 ; 「인구조사간급보고」(1944)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을 계기로 남중면이 광주로 이속되었고, 읍내면과 동중면이 갈산면, 서시·서중면이 양서면, 남시면이 강상면, 남중면이 강하면, 북상도·북하도면이 설악면, 군내·남·하동면이 지제면, 상서·하서면이 용문면, 상동면이 양동면, 상북면이 청운면, 하북면이 단월면으로 각각 개칭 혹은 통합되었다. 1920년의 인구는 7만 2,774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광주로 넘어간 남중면의 인구를 제외한 수치이다. 그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1910년의 인구에 비해 20%가 증가한 셈이다. 1925년의 간이국세조사결과에 따르면 양평군에는 7만 5,788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체계적인 조사 결과로 제시된 통계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데, 5년 동안 3,014명의 인구증가가 있었다.

1930년의 인구는 7만 3,599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오히려 2,189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

다. 당시는 경제공황기에 해당하고 일제의 경우 만주사태에 대비하고 있던 터라 인구조사가 미비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가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다면 1925년에 집계된 통계와 성격이 다른 수치일 가능성도 있다. 거주인구가 3,969명에서 4,197명으로 불어난 고읍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면에서 인구가 일률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1930년의 『조선국세조사보고』 자료에는 출생지별 통계가 집계되어 있어 인구의 사회적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총 7만 3,599명의 인구 가운데 타도 출신은 5,933명으로 약 8.1%에 해당한다. 지역간 이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던 듯하다. 도별로 보면 지리적으로 인접한 강원도가 4,09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충북 683명, 충남 353명, 경북 286명, 경남 111명, 황해 84명, 평남 79명, 전남 71명, 전북 58명, 평북 57명, 함남 53명, 함북 4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도내 인구 6만 7,484명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지역내 이동에 관여한 인구는 1만 9,701명으로 전체의 29.2%를 차지하였다. 지역간 이동보다는 지역내 이동의 빈도가 3배 이상 높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해외이주민은 일본인 135명, 중국인 46명, 기타 1명 등 182명에 불과하였다.¹⁷⁾ 일본인은 강점기에 접어든 1910년 당시 14가구에 남녀 각각 17명과 15명이 거주하였다. 1911년에는 호구 각각 18호 5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근 20년이 지난 1930년에는 인구가 135명으로 늘어났던 것이다.¹⁸⁾ 이들은 대체로 지금의 경찰서에 해당하는 '주재소'와 일반 공공기관에 소속된 관리였을 것이다.

1935년에 조사된 인구는 총 7만 8,802명으로 밝혀졌다. 인구규모에서 갈산면의 9,608명이 최대, 한강 건너에 위치한 강하면의 3,765명이 최소로 나타났다. 면별 인구분포는 확인할 수 없지만 1940년의 인구는 8만 501명으로서 5년 전에 비해 2.5%의 미약한 증가치를 기록하였다. 연구기간의 하한인 1944년의 인구는 7만 7,586명으로 밝혀졌다. 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태평양전쟁을 전후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철저한 집계가 어려웠고 설악면이 가평으로 떨어져나가면서 초래된 결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서술한 인구성장과 취락 발달의 상황은 인구밀도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다시 말해 1789년 21명/km²에서 출발하여 1910년 57.9명/km², 1920년 71.9명/km², 1930년 72.7명/km², 1940년 79.5명/km², 1944년 88.2명/km²로 증대되었다.

(3) 가옥

촌락 내에는 생활공간, 의례공간, 작업공간, 사교공간 등이 공존한다. 거주공간은 택지에 들어선 가옥이 중심이 된다. 생산공간으로는 농경지·산림·해안이 축을 이루며, 교통공간에는 도로·하천·해양·다리, 통신공간에는 광장·회관, 종교시설에는 사원·분묘·석

17) 조선총독부, 1930, 『조선국세조사보고』, 48쪽.

18) 조선총독부, 1910·1911, 『조선총독부통계연보』, 2·60·130쪽.

탑·석불 등이 주요 경관구성요소에 포함된다. 경관은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는가 하면 때로는 소멸된다. 문화경관 가운데 하나인 민가는 특정 지역의 생활양식, 자연환경, 경제 등을 반영하며 사회발달과 함께 그 구조 및 형태를 변화시킨다.¹⁹⁾

가옥은 지역성을 투영해볼 수 있는 문화경관의 하나이다. 문화집단의 기원과 문화의 전파를 중시하는 전통문화지리학에서 가옥은 그 점을 규명하는 물리적 증거로 취급되고 있다. 단적으로 여러 지역의 가옥을 비교할 때 건축자재, 평면형태, 기능 등의 측면에서 유사점이 발견될 경우 문화적인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이 내려진다. 가옥은 문화전파의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²⁰⁾ 최근에 와서 가옥은 가정 내부의 성별, 연령별, 계층별 권력관계 및 그 안에 담겨진 이념과 가치를 해석하는 수단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경관 자체보다는 경관이 담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전형적인 서민층 가옥으로 초가삼간을 이야기한다. 초가는 벼농사지대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가옥유형이었다. 지역을 달리하면 산간오지에는 점판암집이나 너와집, 해안 근처에서는 갈대집으로 변형되는데, 자연환경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지붕을 통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이처럼 가옥은 자연·인문환경의 지역적 차이를 반영한다. 전통가옥의 외벽은 목재 기둥을 기본 뼈대로 하고 그 사이에 싸리나 옥수수대를 엮어 넣은 뒤 흙으로 마감한 것이 대부분이다. 상류층 가옥으로 갈수록 목재와 같은 고급 건축재의 활용 비율이 높아진다. 내벽의 경우 사회적 지위에 따라 회로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일반 서민은 흙벽에 벽지를 바르는 것이 전부였다. 가옥의 핵심은 온돌에 있었으며, 방바닥은 기름종이를 장판지 대용으로 사용하였다. 부뚜막에서 나오는 연기는 높고 낮은 굴뚝으로 바로 연결되어 빠져나간다.²¹⁾

양평이 속한 중부지방의 전통가옥은 북부와 남부의 중간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반도는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위도별 기온의 차이가 큰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기후특성이 가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데, 차가운 북서계절풍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북부지방은 열의 방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들보 아래에 방이 복열로 배치되는 폐쇄형 겹집의 형태를 취하며 별다른 칸막이 장치 없이 부엌과 바로 이어지는 정주간같은 공간이 마련되기도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온난한 남부지방의 가옥은 무더운 여름에 휴식을 취하거나 취침할 수 있는 공간인 대청의 발달이 탁월하다. 양평의 가옥은 겹집보다는 홑집이 우세한 편이다. 단열형 민가는 한반도 서부와 남부에 주로 분포하며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기 때문에 한서의 차가 큰 우리의 기후조건에 적당한 형태라고 한다. 단열형 가옥은 다시 직가형(直家型)과 곡가형(曲家

19) 高橋伸夫 외, 1995, 『문화지리학입문』, 동양서림, 143~144쪽.

20) Fred Kniffen, 1965, "Folk Housing : Key to diffusion",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55, 549~557쪽.

21) 『일본지리대계(조선편)』(개조사, 1930), 355~357쪽 ; 島之夫, 1937, "朝鮮の民屋", 『일본민속지리』, 고금서원, 91~107쪽.

型)으로 나뉘는데, 한반도 북서부와 남부는 ‘一’자형을 기본형으로 하는 직가형이, 그 중간 지대에는 ‘ㄱ’ 혹은 ‘ㄴ’자를 기본형으로 하는 곡가형이 우세하다.²²⁾ 양평에서는 주로 곡가형을 목격할 수 있다.

가옥은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형태와 규모가 달라진다. 일반 서민층 가옥의 경우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일가족이 방 한 칸에 밀집해 거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인층 가옥은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되어 남녀장유의 구별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지만 상류층 가옥에서처럼 행랑채 혹은 문간채가 하인들의 공간으로 특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채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였다. 유교윤리는 상류층 가옥에 질게 배어 있다. 안채, 사랑채, 행랑채 등 기본 건물의 구분이 확실하고, 사당, 측간, 곳간, 헛간, 방앗간 등 별채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마당도 안마당[內庭]과 바깥마당[外庭]의 구별이 확연하다. 하인을 포함해 가족 구성원의 수가 많기 때문에 장독대의 규모도 클 수밖에 없었다. 담장 또한 높고 견고하다. 부녀자를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만 부호의 재산을 노리고 밤에 침입해 들어오는 좀도둑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과거 빈한했던 당시에는 재산을 노린 절도행각이 빈번했던 것 같다. 한 예로 양근 동종면 성산에 거주하는 이항선 집에 도적이 들어 2,000냥이 넘는 돈을 탈취해갔으며, 읍내면 석교리의 이원달도 1,000여 냥의 금전을 빼앗긴 일이 있었다.²³⁾

가옥의 평면은 부엌, 방, 마루의 배치에 의해 기본적인 틀이 결정된다. 양평에서는 중부지방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ㄱ자가 기본형으로 나타난다. 부엌과 안방이 일체를 이루고 마루에서 꺾여 건넌방으로 이어지는 형태이다.²⁴⁾ 기본형에 부속건물이 추가되어 ㄷ자, ㄱ자와 ㄴ자가 결합된 맞고패형 등 변형된 다양한 평면을 확인할 수 있다. 중·상류층가옥은 드물게 남아 있지만 기본적으로 ㄱ자 혹은 트인 ㄱ자가 우세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안채와 사랑채가 안뜰을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으며 대체로 서민 가옥에 비해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양평 여러 지역을 답사하며 일제강점기를 하한으로 그간에 지어진 전통가옥을 조사한 결과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민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자 그대로 초가삼간이나 육간대청을 갖춘 고대광실이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형된 가운데 과거의 자취가 부분적으로 남아 있어 전통시대의 삶을 되새겨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먼저 과거 지평의 전곡역촌에 해당하는 지체면 송현1리에서는 전형적인 3칸집 서민가옥을 찾아볼 수 있었다(그림 3). 이 집의 경우 몸채에는 윗방, 아랫방, 부엌이 一자로 연속되어 있으며 큰방이자 아랫방 전면에는 툇마루가 달려 있다. 가옥은 남서쪽을 향해 있으며 처마선이 툇마루와 일치하게 본채 앞뒤로 연장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허물어져가는 벽 내부가 노출

22) 장보용, 1980, 『한국의 민가형 분류와 문화지역구분』, 『지리학』 22, 50~51쪽.

23) 『경기도각군보고』 11책, 광무 10년 3월 21일.

24) 주남철, 1980,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73~76·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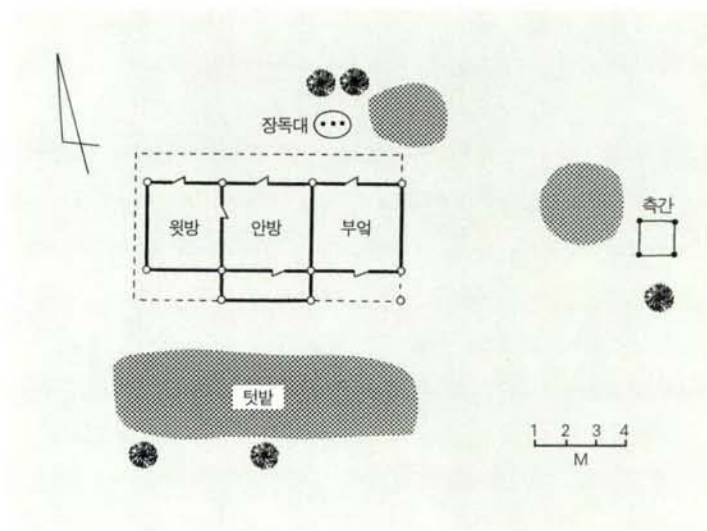


그림 3. 지제면 송현리 민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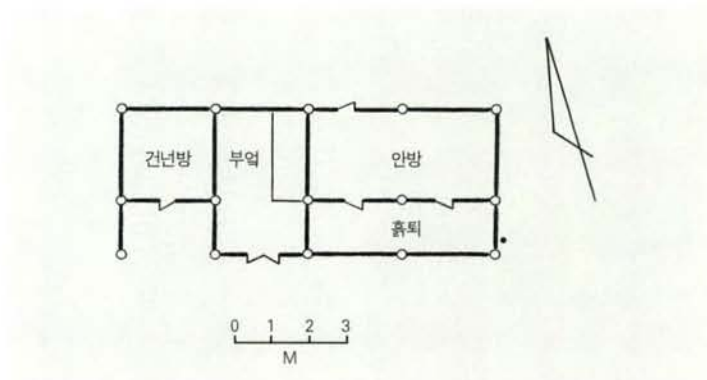


그림 4. 강상면 병산리 진흥회 건물 평면도

되어 있으며 개량되기 이전의 지붕은 초가였다고 한다. 주민들 사이에는 송현리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가옥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택지에는 외곽경계로 볼 수 있는 별다른 장치가 되어 있지 않으나 집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측간과 나무가 서 있고, 앞·뒤뜰 외곽에 오래 전에 심겨진 나무가 일부 남아 있으며 경사진 둔덕을 기준으로 바깥과 구별되는 점으로 미루어 과거에는 생울타리 형식의 담장이 있었던 듯하다. 툇밭에는 파를 심어놓았다.

곳에 따라서는 4칸 직가형 가옥도 발견된다. 일반 살림집은 아니지만 강상면 병산4리의 김효섭 집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일제시대 마을단위 농업단체인 진흥회(振興會) 건물로 지어졌다고 하는데, 중앙에 부엌이 있고 그 양쪽에 방이 배열되어 있다. 오른쪽에는 2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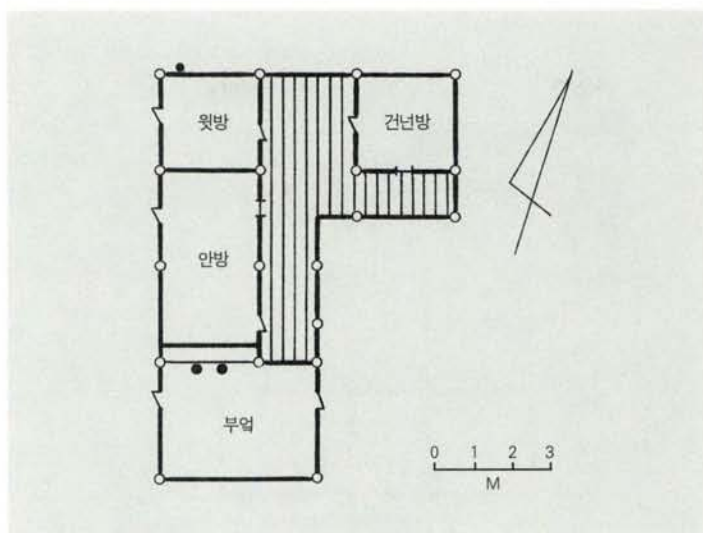


그림 5. 단월면 보룡리 민가 평면도

방이 병렬되어 있으며 그 전면에는 흙으로 다진 툇마루가 깔려 있다(그림 4). 단월면 보룡리 한터마을 361번지에 남아 있는 폐가는 양평지방 일반 농민의 전형적인 가옥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초가삼간에 기거한 빈한한 농민과 달리 안정적으로 영농에 임할 수 있는 농민의 가옥은 툇마루 대신 1칸 규모의 마루가 깔려 있으며 안방과 윗방 외에도 건넌방을 소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ㄱ자의 몸체는 동남쪽을 향해 있어 채광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그림 5).

지제면 지평3리 503번지에는 이 지방 가옥과는 다소 상이한 형태와 구조를 갖춘 민가가 남아 있다(그림 6, 사진 2). 축조연대는 일제시대 초기 혹은 그 이전까지 소급될 수 있는 오래된 가옥으로서 단열곡가형의 평면을 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마루가 없는 대신 흙을 다져 마루대용으로 쓰는 '봉당이[封堂]'를 마련해놓고 있다는 점이다. 목재를 사용해 마루를 설치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²⁵⁾ 흙마루를 사이에 두고 건넌방과 윗방이 마주하고 있으며, 윗방 아래에 안방과 부엌이 붙어 있다. 건물은 일반적인 유형과 달리 동쪽을 향해 있다. 부엌은 원래의 모습에서 개조된 상태로 남아 있는데, 나뭇간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부엌을 둘러싸고 텃밭이 있으며 안방 뒤편에 장독대가 자리한다. 건넌방 뒤편에도 텃밭이 조성되어 있다. 대문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대지 주변에는 생울타리로 둘러싸였다.

용문면 덕촌2리 평양 조씨 동족촌인 퇴촌에 폐기된 채로 남아 있는 한 가옥은 흙과 돌을

25) 김경주(81세, 지평3리 503번지) 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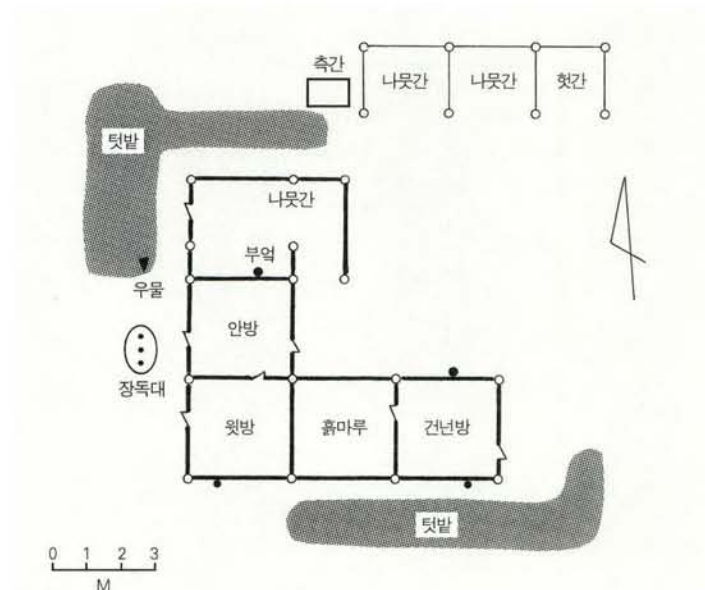


그림 6. 지제면 지평리 김경주 집 평면도



사진 2. 지제면 지평리 김경주 집 전경

혼합한 토석 벽면을 하고 있으며, ㄱ자의 본채 하나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7). 이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오는 누정인 세심정을 지나는 소하천변에 크고 작은 돌이 많은 점으로 보아가옥을 축조할 때 건축재로 자주 활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안방은 동남쪽을 향해 있으며 여닫이문을 통해 윗방과 연결된다. 널마루를 사이에 두고 건넌방과 쪽방이 자리하며 그 우측으로 아궁이가 설치되어 있다. 대청에는 감실과 제기를 모아놓은 벽장이 있으며 열면 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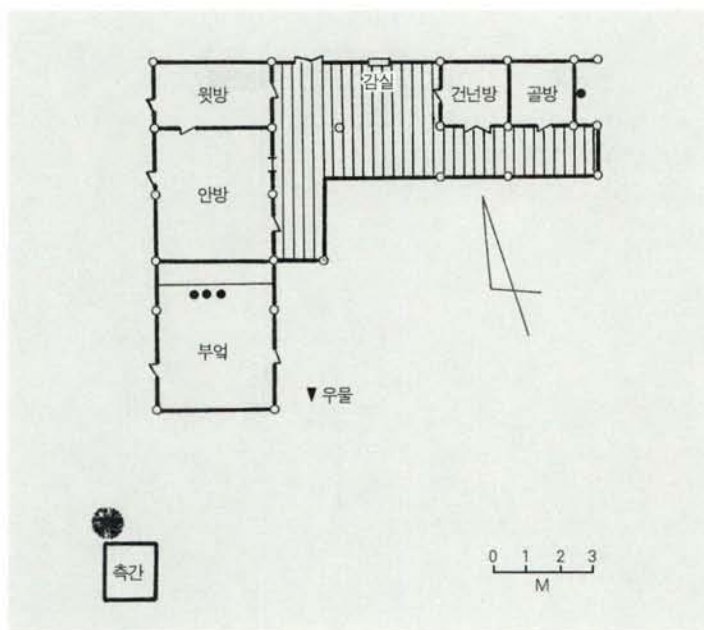


그림 7. 용문면 덕촌리 민가 평면도

뒤뜰을 바라볼 수 있는 바라지창이 달려 있다. 부엌은 술이 세 개나 걸릴 정도로 다소 크게 지어졌으며 부엌 바로 앞에는 우물이 있다. 지세면 송현1리 과거 역마일에 남아 있는 고가는 이보다 약간 더 분화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현재는 소유주가 타지로 이주하여 폐기된 채로 남아 있으며, 본채와 문간채로 구성되어 있다. 대문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문간방, 우측에는 외양간과 광이 자리한다. 본채에는 우물마루의 대청을 중심으로 방이 배열되어 있다. 마루 한쪽 끝에는 건넌방이 있으며 반대쪽에는 고방으로 쓰이는 윗방과 아랫방이 붙어 있다. 아마 아랫방이 안방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안방 앞에는 툇마루가 붙어 있다. 부엌에는 세 개의 아궁이가 구성되어 있으며 나뭇간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탄이 난방 및 취사연료로 사용되던 당시의 유산으로 볼 수 있다(그림 8, 사진 3).

그림 9는 양평읍 오빈리 소재의 고택으로 정확한 축조연대는 알 수 없지만 100년 이상은 족히 된다는 살림집이다.²⁶⁾ 과거 오빈역촌에 위치한 이 가옥의 경우 지붕은 개량되었지만 가옥의 평면과 기본 자재에는 변함이 없다. ㄱ자의 본채에는 부엌, 안방, 윗방, 마루, 건넌방이 붙어 있다. 2칸 규모의 안방 전면에는 툇마루가 달려 있다. 안채는 ㄴ자의 사랑 및 광채와 만나 전체적으로 맞고패형을 이룬다. 대문을 축으로 우측에는 툇마루가 딸린 사랑방과 부엌이, 좌측 날개부에는 문간방과 광이 나란히 놓여 있는데 광은 특별한 출입구가 없이 한쪽이 트여

26) 신장금복(90세, 양평읍 오빈1리 81번지) 제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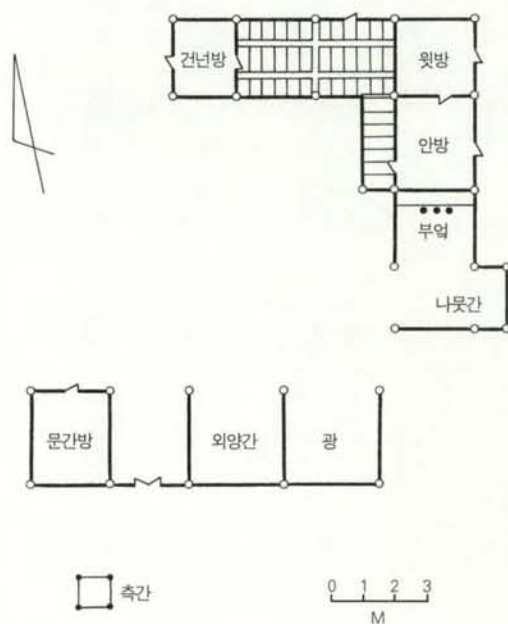


그림 8. 지제면 송현리 민가 평면도



사진 3. 지제면 송현리 민가 전경

있는 헛간에 불과하다. 광 옆의 모퉁이에는 측간이 자리하는데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안쪽에 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특이한 구조를 하고 있다. 측간에서 꺾여 나간 부분에는 외양간과 헛간이 차례로 자리한다. 형태와 규모로 미루어 마을 중류층의 가옥으로 추정된다.

옥천면 교촌의 향교부지에 들어선 가옥도 흥미롭다. 매달 벼 1말의 임대료를 향교에 납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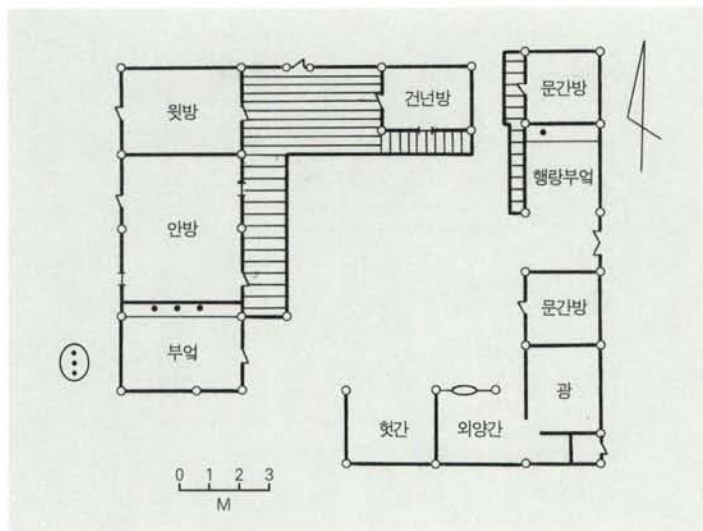


그림 9. 양평읍 오빈리 고택 평면도

했다는 집주인의 설명도 있었다.²⁷⁾ 다소 비탈진 곳에 견고한 돌로 다진 축대 위에 지어진 이 집의 본체는 남동쪽을 향해 있으며 부엌, 안방, 마루, 건넌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안방에서 건넌방까지는 뒤틀마루와 1칸 마루로 연결된다. 뜰아래채와 문간채는 ㄴ자형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뜰아래채의 두칸 방에는 앞퇴가 딸려 있으며 헛간을 사이에 두고 문간방으로 이어진다. 문간방 오른쪽에는 대문이, 그 건너에는 외양간과 광이 차례로 나타난다. 측간은 집 안팎에 두 곳이 있는데, 바깥에 있는 것은 헛간과 붙어 있어 분뇨가 유기비료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ㄴ자의 본채와 약간의 간격을 두고 사랑채와 문간채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외형은 ㄷ자에 가깝다(그림 10, 사진 4).

단월면 덕수1리 백동마을 언덕 아래에 고립된 가옥이 한 채 있는데, 일제시대 단월면장을 지낸 양승모의 고택이다(그림 11, 사진 5).²⁸⁾ 야산에 연해 있는 북사면을 제외하면 주변의 토지는 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문으로 이어지는 소로가 그 사이를 지나고 있다. 가옥은 안뜰을 중심으로 ㄱ자의 몸채와 ㄴ자의 문간채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맞고패의 평면을 하고 있다. 본채는 부엌, 안방, 윗방, 건넌방으로 구성되며 부엌을 제외한 모든 방은 마루와 뒤틀마루를 통해 서로 연결된다. 문간채에는 대문 왼쪽에 문간방, 오른쪽에 나뭇간·외양간·곳간이 부속되어 있다. 가옥의 규모와 평면형태로 미루어 중류층 가옥의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양평읍 창대는 과거 한양으로 향하는 세곡의 집결지로 전해지고 있으며 지명에 바로 그

27) 손세청(87세, 옥천면 교촌) 제보.

28) 현 소유자인 양승한은 타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가옥은 인근 주민이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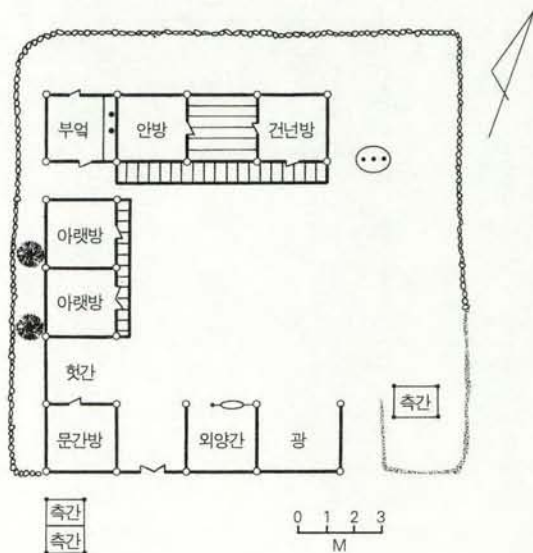


그림 10. 옥천면 향교마을 손세청 집 평면도



사진 4. 옥천면 향교마을 손세청 집 전경

러한 역사가 반영되어 있다. 창대리 340번지에는 일제시대 마름이었던 서모의 집이 남아 있다(그림 12, 사진 6). 직업의 특성 때문인지 일반 가옥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데, 주목되는 것은 폭에 비해 깊이 들어간 곳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거두어들인 소작미를 보관하던 곡식창고로 사용했을 것이다. 안채는 ㄱ자의 평면형태를 하고 있으며 안방, 윗방, 부엌, 대청으로 이루어져 있다. 안뜰에는 화원이 조성되어 있다. 곡가형 문간채에는 곳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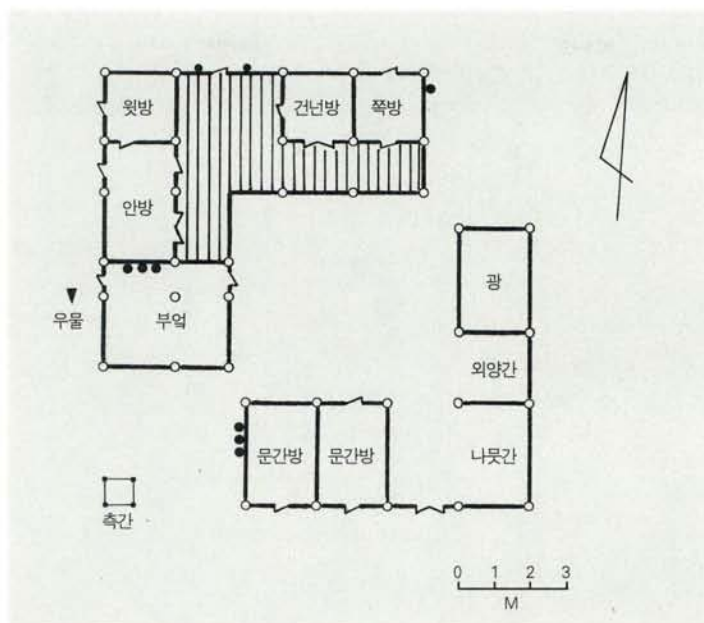


그림 11. 단월면 덕수1리 백동마을 양승모 집 평면도



사진 5. 단월면 덕수1리 백동마을 양승모 집 전경

외에 대문 좌우에 문간방이 있다. 오른쪽 문간방은 앞퇴가 달린 2칸방이다.

양평읍 창대리 203번지에는 경기도 중상류층의 가옥 한 채가 있다(그림 13, 사진 7). 조선 후기에 지어진 것으로 대략 2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건물인데, 현재는 살림집의 잔영은 없어지고 사찰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그러나 유적으로 지정되어 있어 무단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원래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다. 이 가옥 거주자의 이름을 따서 김정식 고가로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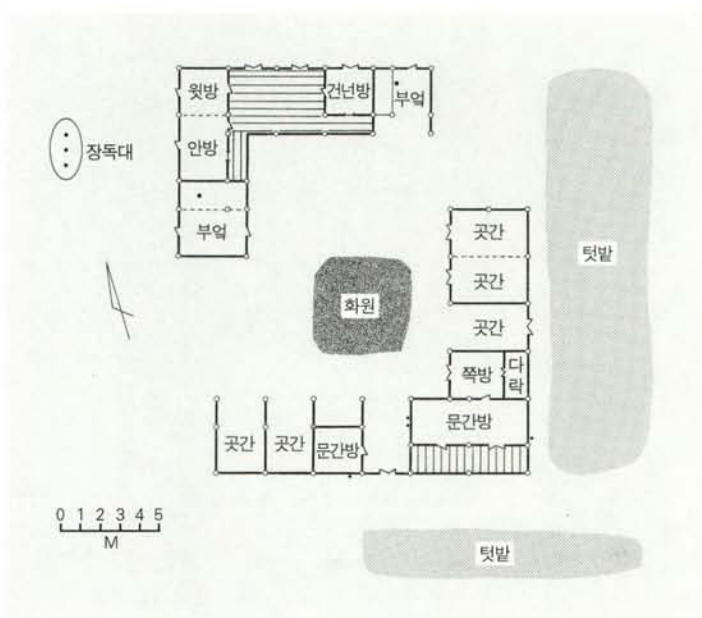


그림 12. 양평읍 창대리 유은성 집 평면도



사진 6. 양평읍 창대리 유은성 집 전경

잘 알려진 이 집의 뒤편에는 500년 된 은행나무가 서 있는데, 미루어 짐작하자면 취락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집은 목조의 와가로서 트인 ㅁ자의 폐쇄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정침(正寢)을 기준으로 동남쪽을 향해 있다. 폐쇄형가옥은 흔히 도회형 또는 경기형으로도 명명되며 보통 중류층 이상이 거주한다. 형태상으로 건물이 안뜰을 감싸고 있는 ㅁ자형을 비롯해, ㄷ자와 一자가 결합되거나 ㅁ자의 한변이 끊어진 트인 ㅁ자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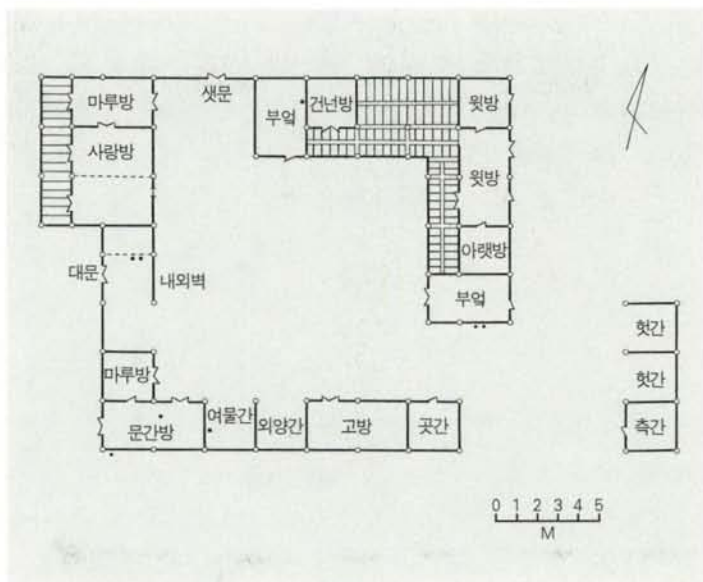


그림 13. 양평읍 창대리 김정식 고가 평면도



사진 7. 양평읍 창대리 김정식 고가 전경

여기에 포함된다.²⁹⁾ 김정식 고가는 후자에 속하며, 안채 13칸, 사랑채 6칸의 규모이다. 안채는 대청을 중심으로 우측에 윗방, 안방, 부엌이 자리하며 좌측에는 건넌방이 있다. 모든 방은 대청과 뒷마루로 연결되어 있다. 사랑채는 다른 지역의 것과 다소 차이가 있는데, 1칸 마루방과 2칸의 사랑방이 결합된 형태로서 바깥으로 향해 앞퇴가 달려 있다. 문간채 역시 부속건

29) 최영준, 1985, 『□자형 가옥의 문화지리학적 해석』, 『사대논집』 10,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101~120쪽.

물이 많은 편인데, 문간방을 비롯해 여물간, 외양간, 고방이 나열해 있다. 헛간은 안채 뒤편에도 있으며 여기에는 측간도 자리하고 있다. 사랑채는 댕돌 위에 축조되었으며 팔작지붕을 갖추어 다른 부분보다 격식을 높였다. 대문을 들어서면 소위 면벽(面壁)이라 불리는 내외벽이 외부인의 시선을 가로막는다. 내부인의 활동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흔히 중상류층 이상의 집에서 볼 수 있는 설비라 하겠다.

3) 취락의 유형

(1) 행정취락

일반적으로 도회란 신분과 직업에 관계없이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를 의미한다. 도회의 성립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우선 정치·행정적인 중심성이 인구를 흡인함으로써 취락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교통의 결절점이 접근성의 이점을 바탕으로 인접지역을 종속시키는 과정을 밟아 도회로 성장하기도 한다. 물론 시대와 장소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발달양상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결절성이 높은 지역이 취락의 계층에서 상위를 점하게 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공간구조의 원칙이라고 하겠다. 상업기능을 유지해 지역간 교류의 중심지로 발전한 사례도 적지 않다. 물자교환을 뒷받침하는 각종 서비스업이 시장에 밀집함으로써 지역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도회의 기원은 이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근대적인 교통발달의 역사가 늦고 상설시장의 역사가 일천한 우리의 특수한 실정을 감안하면 대개는 행정중심지로서 관아도회가 중심이 된다고 하겠다.

일찍이 다산은 지역경제력의 측정 지표로 가구와 농경지를 제시하고 각 군현의 등급을 정해본 일이 있는데, 대주(2만 5,000명 이상), 대군(2만명~2만 5,000명), 중군(1만 5,000명~2만명), 소군(1만명~1만 5,000명), 대현(8,000명~1만명), 중현(6,000명~8,000명), 소현(4,000명~6,000명) 등 모두 7계층을 확인하였다. 민호와 전결을 합쳐 4,000명에 미치지 못한 군현은 잔파읍으로 분류하였다. 물론 정약용이 지적한 대로 산읍(山邑)의 경우 화전예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등급을 정할 때 전결수보다는 민호가 더 중요한 변수일 것이다.³⁰⁾ 어찌 되었건 이 기준에 따르면 양군은 소현, 지평은 잔파읍으로 분류된다. 전체적으로 두 군현은 경제력과 인구 규모의 측면에서 큰 고을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지역 특유의 전략적인 중요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양군과 지평의 위상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다.

취락의 일부를 구성하는 도회의 입지도 전통적인 지리인식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한 과거의 이념 가운데 하나로 풍수사상을 들 수 있다. 풍수는 산과 물을 기초로 해서 성립되는 자연철학의 하나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합일하는 지점, 즉 명당을 찾는

30) 『경세유표』 4편 권10, 천관수제4, 군현분등조.

데 궁극의 목표를 두고 있다. 풍수는 장소의 의미를 해석하는 일종의 현상학적 자연관으로 파악할 수 있다. 향촌에서 고을의 양기를 정하는 풍수를 읍기풍수(邑基風水)라 부른다. 구체적으로 치소의 위치는 양기를 진호한다는 의미로 인식되고 있는 진산의 선정과 함께 결정된다. 대체로 관아의 뒤에서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는 지점에 자리한 진산은 한편으로 산신이 거주하는 성산으로도 인식되는데, 바로 이 진산에서 생기를 실어오는 산줄기에 인접한 지점에 읍기가 자리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믿음이 있었다.³¹⁾ 멀리서 보더라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웅장하고 수려하며 아늑한 형세를 갖춘 진산은 한 개 고을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내포하였다. 진산을 통해 수직적인 상징성이 결정되고 나면 수평적으로는 좌청룡 우백호의 주변 국면을 정하는 문제가 남는다. 산맥으로 둘러싸인 아늑한 장소, 가물거나 물이 불어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마을의 기를 모아줄 수 있는 하천은 없어서는 안될 조건이었다.

읍기는 이상과 현실의 조화를 바탕으로 입지가 결정되기도 한다. 양근의 경우 원래는 옥천 건지산 아래에 관아가 있었으나 1747년(영조 23) 한강변으로 이전되었다. 치소의 이전은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때문에 결코 쉽게 결정되고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재지사족 등 기득권세력의 강력한 저항이 뒤따르게 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치소의 이전 후에도 향교가 옥천 구읍에 그대로 유지된 사실로 미루어 재향 유림의 반대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진산인 건지산 중심의 상징관이 무너지는 관념상의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소를 옮길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한강수로와 중심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후미진 위치에 관아를 유지하는 것이 행정을 수행하는 데 많은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자연재해를 이유로 치소가 이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옥천 구읍의 경우 재해에 따른 위험요소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조선 후기 이래 정치적 안정이 찾아오면서 굳이 내지에 머무를 필요가 없었던 것도 큰 요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³²⁾ 상징적인 가치보다는 경제적·행정적 실리를 찾고자 한 의식의 발로로 양근치소의 이전을 해석해야 할 것 같다. 18세기의 기록인 『여지도서(輿地圖書)』에 따르면 고읍내면 옥천리는 62호, 200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큰 고장이었다.

읍기가 정해지면 고을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고 실제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각종 설비가 들어서게 된다. 도회의 물리적 경관은 해당 지역의 표상, 통로, 결절점, 경계, 영역 등 장소성의 가시적 표현요소로 구성된다.³³⁾ 상징과 의미로 충만된 비가시적 경관도 도시와 촌락을 구별짓는 중요한 지표로 거론되지만, 가시적 경관만큼 도시의 성격을 확

31) 村山智順, 1931, 『朝鮮の風水』, 조선총독부, 747~749쪽.

32) 비록 후대의 일기기는 하지만 자연재해를 계기로 행정관서가 이전된 사례를 강하면 운포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운포리는 남한강변에 자리하며 운포나루를 통해 강북의 대탄(大灘)과 연결된다. 을축년(1925) 대홍수로 인해 마을의 일부가 잠기면서 당시 남중면사무소가 현 상심리로 이전되었다. 운포리는 그후 복구되었지만 행정기관의 이전에 따라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한적한 마을로 남게 되었다.

33) K. Lynch, 1981, *A Theory of Good City Form*, Boston, MA: MIT Press.

연히 드러내주는 것은 없을 것이다. 양근과 지평의 도회경관은 당대의 이념적 가치를 대표하는 풍수설과 더불어 도시계획의 전형을 제시한 '주례고공기 도성제'에 의해 기본적인 틀이 결정되었다. 중국의 경우 이 도시계획 지침에 따라 황성의 규모와 형태, 도로의 배열, 관영시설물의 배치, 도시적 토지이용이 정해졌는데, 소중화를 자칭한 조선으로 유입되어 도성과 지방관아를 계획하는 데 그대로 응용되었다. 사직단, 성황단, 여단, 문묘 등 소위 삼단일묘는 좌묘우사의 원칙에 따라 관아를 중심으로 사직단은 관아 서쪽, 종묘를 대신하는 향교 내의 문묘는 동쪽, 성황단과 여단은 북쪽에 설치하였다. 관아의 배치는 왕권을 상징하는 객사가 중심이 되며, 수령이 정무를 보는 동헌과 재지사족의 향청이 이에 병렬하거나 바로 아래에 자리하게 된다. 실제 향촌의 행정업무가 시행되는 문·무 아전의 집무실은 각각 서쪽과 동쪽으로 나뉘어 배치되었다.³⁴⁾

조선시대 각종 지리지에는 양근 관내에 분포하고 있는 공해, 향교, 사묘 등의 규모와 구성 설비들이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다. 한곡리(후에 관문리)에 소재한 관아건물에는 수령의 사적인 생활공간인 내아를 비롯해 행랑, 대문, 외동헌, 동고, 서고, 내삼문, 공수, 책방, 향청, 작청, 장청, 관노청, 사령청, 외삼문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 설비는 현령, 좌수, 별감, 외감, 아전, 군관, 서기, 전령, 관노비 등의 인원이 집무를 보던 장소였는데, 이방을 비롯한 실무진이 머무는 직청(作廳)의 중요성이 컸다. 전패가 소장되어 있으며 수령이 매월 초하루와 보름 두 번에 걸쳐 망궐례를 올리는 상징성이 큰 장소인 객사는 관아에서 3리 떨어진 갈산강변에 지어졌다. 임금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방행정을 선정으로 이끌라는 무언의 계시를 느낄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하겠다. 향교는 옥천구읍에 소재하였으며 중앙집권적인 유교질서의 상징물인 사직단은 관아에서 북쪽으로 13리, 토착신앙과 관련되어 마을의 수호신을 제사지내는 성황단은 북쪽으로 10리, 각종 재액으로부터 무사를 기원하는 제단인 여단은 북쪽으로 15리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였다. 창고는 갈산강변과 구 미원현치소에 각각 1곳씩 자리하였다.³⁵⁾ 『여지도서』의 기록으로 관아가 소재한 읍내면 관문리에는 모두 60호가 있었으며 거주인구는 남녀 각각 73명과 24명(84명?)이었다(그림 14).

지평현 치소는 해발고도 216m의 봉미산 기슭에 자리하였다. 문자 그대로 본다면 봉황의 꼬리 부분에 해당된다고 하겠는데, 전면에는 지평천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고 있으며 하천 건너편에는 387m의 망미산이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 지평의 공해로는 내동헌(6칸), 외동헌(8칸), 아사(15칸), 군기고(4칸), 객사(16칸), 창고(13칸) 등이 있었다. 군현의 상징적인 시설물로는 읍치 서쪽에 위치한 사직단을 비롯해, 향교 내의 문묘와 현치 북쪽의 성황사와 여단이 있었다.³⁶⁾ 지평현치는 군내면 관사리에 있었으며, 『여지도서』에는 이곳에 429호에 남녀 각각

34) 박찬용·김한배, 1987, 「우리나라 도읍경관 변천과정의 기초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5, 110쪽 ; 「조선왕조시대의 도읍경관체계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5, 122쪽.

35) 『여지도서』: 『楊根郡邑誌與地圖成冊』(刊107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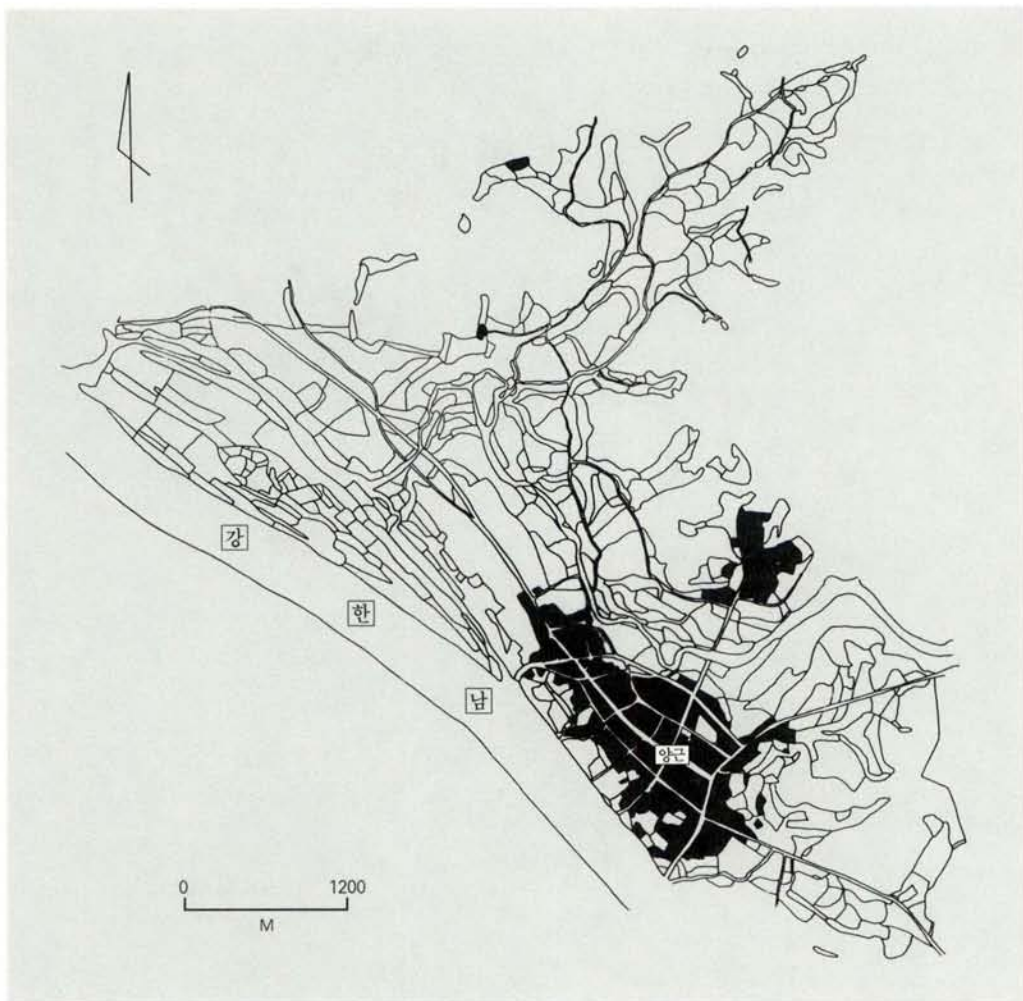


그림 14. 양근리(1913). 양근치소는 1747년 옥천 구읍에서 한곡리로 이전되었다.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실질적인 생활중심지로 중요하였기 때문에 후미진 곳을 피해 한강변으로 나오게 된 듯하다. 객사는 갈산나루터 서쪽, 현 양평경찰서 자리에 있다. 향교는 옥천 구읍에 그대로 유지되었다. 1908년 지평과 통합되어 양평군으로 개편된 뒤에도 군청사가 들어서 기존의 중심성이 유지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그 기능이 배가될 수 있었다. 도로를 따른 정연한 시가구획이 주목된다

1,935명과 1,580명이 거주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지평은 흑천으로 흘러드는 지평천변 내륙 한적한 곳에 위치하였는데,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전답 필지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과 다름이 없었다(그림 15, 사진 8). 전산업시대의 취락은 전체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월등했으며 도회 역시 순수한 소비중심지보다는 농촌도회의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유산계층을 끌 만한 특별한 매력을 지니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36) 『砥平郡邑誌與地圖成冊』(광무 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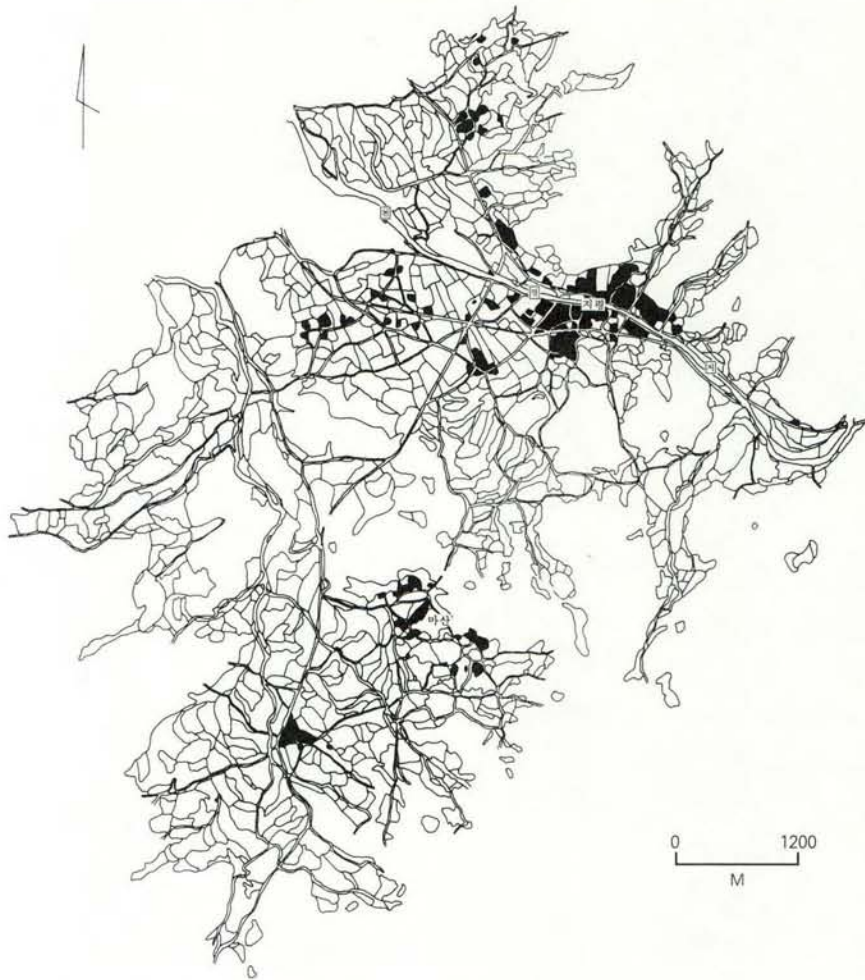


그림 15. 지평리(1913). 봉미산과 지평천의 조합으로 특수장풍의 이상적인 국면을 취하고 있는 지평현치는 관사리가 중심취락을 이루며 남쪽으로는 얼마간의 거리를 두고 마산과 한현 두 개의 소촌이 자리하고 있다. 관아 주변에는 크고 작은 필지의 농경지가 사방에 자리하고 있다. 행정취락의 성격이 강하지만 주민의 생업은 농업에 있었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도회는 인구의 수와 밀도에서 촌락보다 우세하고, 인구성장의 속도가 빠르며, 농업경제의 밀도는 전업 농촌에 비해 떨어지나 직업구성에서 장인과 행정관료의 비율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촌락에 거주하는 공무원이라고 해야 전직자나 사환이 전부이고 대개는 창직, 원직, 하전 등이 공무원인으로 분류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노비의 경우 소속에 따라 관노비·영노비·교노비는 도회에, 역노비·원노비는 촌락에 대부분 거주하였다. 양역의 담당자인 상민은 도회와 촌락에 보편적으로 존재했으며 다만 역종에 따라 지역적 편차가 나타날 뿐이었다. 도회의 농촌적 색채를 잘 말해주는 사실이다. 유학(幼學)을 비롯한 재지사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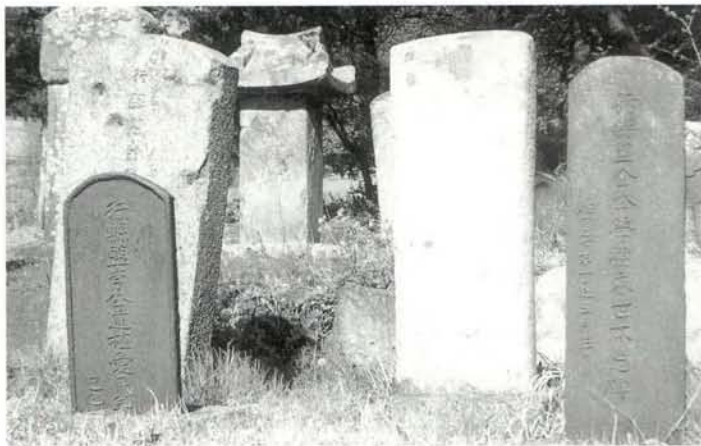


사진 8. 지평 비석거리에 있는 수령들의 선정비. 지평은 종6품관인 현감이 지방관으로 파견된 고을이었다. 사진에는 역대 수령의 선정비와 영세불망비가 나와 있다. 부임한 수령의 덕치를 기리기 위해 지역주민이 자체적으로 비를 세우지만 일부는 지방관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반강제적으로 설립되었다. 무석로 제작된 현감 김학례와 이도식의 선정비가 눈에 띈다

의 경우 강력한 견제세력인 수령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들의 경제적 기반인 농촌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었다.³⁷⁾ 이는 도회인구의 특성이 경제력과 신분보다는 주로 정치·행정적인 측면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조선 후기 이래로 모칭, 매관, 면천, 도망, 투탁 등의 사회적인 이유로 도회·촌락 모두 양반의 급증, 평민의 감소, 노비의 격감이라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분에 따른 취락의 구분이 설득력을 가질 수 없었다. 다만 인구의 유동성에서는 주변 촌락보다 도회에서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양근의 경우 관아를 드나들며 업무를 보던 인원에는 목민관인 군수를 포함해 군관(25), 아전(30), 지인(20), 사령(10), 좌수(1), 별감(2), 기수(12), 관노(13), 관비(6) 등이 있었다.³⁸⁾ 지평의 경우 종6품관인 현감을 비롯해 좌수(1), 별감(2), 군관(30), 아전(11), 지인(5), 사령(8), 관노(11), 관비(5) 등이 각 분야에서 향촌의 행정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이들 양 고을의 향교에 출입하던 부류로는 크게 양반 유림인 동재유생(東齋儒生), 평민 출신으로 숙직과 각종 의례를 주관하던 서재교생(西齋校生), 유생과 교생 가운데에서 선발된 임원인 재임(齎任) 등이 있었다.³⁹⁾ 이와 같이 비교적 고정된 인구 외에도 도회에는 계산되지 않은 많은 유동인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비근한 예로 지나는 길손, 행상, 날품팔이, 일일노동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⁴⁰⁾

37) 四方博, 1976, 「李朝時代の都市と農村に關する一試論」, 『조선사회경제사연구(중)』, 263~314쪽.

38) 『楊根郡邑誌與地圖成冊』(刊10728).

39) 전경목, 2000, 「향교의 개혁안과 수령권의 강화」,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기 사회사 연구반, 아카넷, 223~228쪽.

도회는 근대화를 거치면서 지역중심지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발전의 일차적인 원동력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도시인구라 할 수 있다. 인구는 곧 수요의 규모를 의미하는 동시에 상공업 중심의 도시경제의 발전 정도를 결정한다고 하겠는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양평의 인구는 성장세를 이어왔다. 지역경제의 성장과 교통·통신의 발달은 지역구조의 변화와 공간질서의 개편을 강요하였는데, 이에 따라 기존의 도회가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

(2) 농촌과 산촌

각종 지리지에는 양근의 풍속을 전하면서 “백성들이 곡식을 재배하는 데 힘쓰며 땀나무를 팔아 영리하였다[民藝黍粟以柴爲利]”는 식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농촌과 산촌의 점이적인 성격을 말해주는 기록이다. 양근과 지평에는 넓은 평야가 발달할 수 있는 자연환경의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대부분 계곡에 발달한 협소한 농경지와 인근 야산에서 나오는 임산물에 의지해 생계를 영위하였다. 강변에는 오고가는 장사치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나루터촌이 발달하였으며, 웅기를 굽거나 솥을 구워 생계를 유지하는 부류의 주민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양평은 산지 비율이 높아 평야에 근거한 전형적인 농촌과는 다소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으나 농업이 행해지는 곳에서는 협업을 강조하여 집촌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당시의 행정편제상으로 한 개 리는 집촌과 주변의 소촌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로 존재하였다. 촌락 주변에는 논과 밭의 경지가 분포하며 이 외에도 분묘, 임야, 잡종지 등의 토지이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먼 곳에 소재한 경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의 토지소유 및 거래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분할경지제는 어느 지역이 되는 가장 보편적인 경지패턴이었다.

산촌은 마을의 입지가 독특하기 때문에 농촌과 구별을 짓지만 농업을 생업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하나이다. 계곡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간 지점에 형성된 산지농촌은 교통이 불편하여 과거에는 고립된 단조로운 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근 마을과는 산을 넘나드는 고갯길을 통해 교류하였으며 각종 생활필수품을 자급자족하는 지역단위 경제활동이 생활의 축을 이루었다. 토지가 넉넉하지 않은 관계로 계단식으로 경지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확보한 경지라 하더라도 대개는 밭으로 활용되었다. 산촌은 척박한 경지가 문제이기는 하지만 수해와 한해의 염려가 없고 인구가 희박해 자영농의 비율이 높다. 평야지대가 논농사 위주로 운영된 데 반해 산촌에서는 잡곡을 재배하였으며 생계유지 차원에서 양잠, 양봉, 신탄 판매, 가축사양 등 각종 부업활동이 행해졌다. 전업농가보다는 겸업농가가, 겸업농에서도 1종 겸업보다는 농업이 주가 아닌 종으로 자리한 2종 겸업이 우세하였다.

40) Mark Elvin, 1973, “The revolution in market structure and urbanization,” in *The Pattern of the Chinese Past: A social and economic interpreta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76쪽.

농·산촌은 조선 초기까지도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존재하였다. 지방관이 전 지역에 파견되지 못했을 뿐더러 주읍(主邑)의 경우에도 수령 직할지인 직촌(直村)과 임내(任內)가 병존하였으며, 월경지(越境地)·견아상입지(犬牙相入地)와 같은 비효율적인 행정구역체제가 존속하고 있었다. 이후 군현제의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읍치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방위면이 정해지고 그 하위단위로 리가 정립되었다.⁴¹⁾ 그러한 노력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오가작통안'으로 명문화되었는데 5호를 1통, 5통을 1리로 하고 수개의 리를 합해 한 개 면으로 삼는다는 내용이다. 이들 단위지역의 행정은 통수, 이정, 권농관이 맡아보는 체제였다.⁴²⁾ 리 안에는 동(洞)·촌(村)·곡(谷)·실(室)·계(溪)·현(峴)·평(坪)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진 자연촌이 포함되어 있었다. 행정촌인 리는 25호에서 150호에 이르는 다양한 규모로 존재하였다.⁴³⁾ 앞서 밝힌 대로 양평의 촌락은 수적으로 놀랄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18세기 말의 기록인 『호구총수』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양근과 지평은 모두 118개 동리로 구성되었는데, 1910년에는 357동리로 증가하였다. 동리의 증가는 촌락의 내재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인데, 양역변통의 일환으로 마을 단위의 공동납제인 이정법을 실시할 수 있었던 것도 촌락의 성장에 원인을 돌릴 수 있다.⁴⁴⁾ 양역부과의 책임 일부를 촌락에 위임함으로써 법제 운영상의 폐단을 줄여보려는 시도의 하나가 바로 이정법이었는데, 반촌과 민촌의 자치능력의 신장이 뒷받침되어야만 실행이 가능한 제도였던 것이다.

촌락은 16세기 이래 재지사립과의 노력에 의해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향촌의 유력 반촌을 중심으로 향약의 실시가 각지에서 시도되고 있었고, 동약, 동계, 사창 등의 규범과 사업으로 구체화되었다. 향촌의 자치적 규약이라 할 수 있는 향약은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의 기본 덕목을 기초로 성립된다. 향약의 정신은 일반 동리에서 동약 혹은 동규로 구현된다.

양평의 경우 양서면 청계, 징동, 국수 등 일부 마을에서 1737년 무렵 작성한 동약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동계와 동약은 16세기 이후 재지사족층에 의해 촌락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던 각종 조직을 운영하는 규약으로서 단순한 친목도모의 차원을 넘어 재지사족의 촌락지배 장치였다.⁴⁵⁾ 동계원의 명단을 보면 진주 강씨 21명과 청주 한씨 20명의 유학을 중심으로 함평 이씨(5), 함중 어씨(5), 청주 정씨(4), 청송 심씨(3), 전주 이씨(2), 순흥 안씨(1), 청해 이씨(1), 고령 박씨(1), 경주 정씨(1) 등이 가세하고 있다.⁴⁶⁾ 진주 강씨와 청주 한씨가 중심이 되

41) 이수건, 1989, 『조선시대지방행정사』, 민음사.

42) 『경국대전』 권2, 호전 호적조.

43) "每一里自五統以上至十統者爲小里 自十一統以上至二十統者爲中里 自二十一統至三十統者爲大里" (『비변사등록』 31책, 숙종 원년 9월 26일 오가통사목).

44) 김준형, 1984, 「18세기 이정법의 전개」, 『진단학보』 58, 69~96쪽.

45) 정진영, 1998,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한길사, 199~200쪽.

46) 양평군지편찬위원회, 1991, 『양평군지』, 양평군, 1366~1368쪽.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계는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었다. 사창곡의 마련 외에도 각종 자연재해와 장례·혼례 등의 경조사를 부조하며 노동력을 조달하여 공동작업을 해결하는 등 동내의 제반 문제에 대한 의결기구로서 동계는 중요하였다. 동계가 행한 자치(自治)라는 것이 관치(官治)와의 적당한 타협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관의 행정체계와는 별도로 운영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사족중심의 자치기구를 동원해 양역변통의 폐단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정법이었던 것이다.

민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지사족의 통솔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향촌사회가 파쇄해지면서 사족 역시 하층민의 향도계(香徒契)와 타협을 구하고 있었다. 대체로 이 시기는 촌내 사족의 상계(上契)를 중심으로 일반민호의 하계(下契)를 결합한 상하계안(上下契案)을 작성하여 향촌결계(鄉村結契)의 전통을 강화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청계·징동·국수의 동계입의(洞契立議)에도 상하계원이 합심하여 마을의 중대사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⁴⁷⁾ 동계운영의 실질적인 주체가 사족이었던 것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18세기 들어 민촌이 독자적인 공의를 형성하고 자치력을 신장시키면서 사족중심의 일방적인 촌락운영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공동납제의 실행과 제도의 운영에서 파생된 신분과 빈부에 따른 양역의 불균등배분으로 인해 동 내부의 민의가 갈리게 된 것이 원인이라 하겠으며 향촌 전체로서는 사회발전의 한 단면이 갈등으로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⁴⁸⁾ 동약의 일부 규정에 하층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와 통제보다는 재지사족 자신의 유교적 생활규범의 확립과 하층민에 대한 무단적인 수탈행위에 대한 규제가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재지사족이 농민층의 성장을 직시하고 자기규제를 통해 향촌사회의 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대응에 다름 아니다. 자기규제란 곧 사족 공동의 이해에 심각한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에 대한 규제로서 향촌 지배를 위한 사족의 최소한의 양보였던 것이다.⁴⁹⁾ 실제로 청계·징동·국수의 동규에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억압했을 경우 공론으로 논죄한다는 조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양법의 보급으로 노동력이 5분의 4 정도로 감소하였고, 집약적 안정구조를 바탕으로 소농의 입지가 강화되는 한편, 전반적으로 농업생산력이 증대해 농민층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수 있었다. 기존의 신분구조를 유지하려던 재지사족층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18세기 중반을 전후로 봉건적인 향촌질서가 와해되어간다.

동계의 경우만 하더라도 하민은 자체적으로 각종 명목의 계를 조직하는 한편 마을 단위로 산천제 혹은 동제라는 이름으로 2~3월 중 길일을 택해 부락제를 거행하였다. 후대의 자료가

47) “洞內立議契序 於戲 洞內上下契者 國家流轉之古規也 蓋人之大事 非衆難齊而事之重大莫如喪葬 上下同契者 同心並力 結死生同 去就共濟大事之義也……” (양평군지편찬위원회, 1991, 『양평군지』, 양평군, 1368~1369쪽에서 재인용).

48) 김인걸, 1984, 「조선 후기 향촌사회통제책의 위기」, 『진단학보』 58, 97~143쪽.

49) 정진영, 앞의 책, 136~138쪽.

지만 1936년의 조사에 따르면 양평의 352마을 가운데 35마을이 동제를 시행하였는데, 우물제[井祭], 산제[山告祭], 성황제[城隍祭], 오방장군제[五方將軍神祭], 천지신명제[天帝地主山靈川澤神祭] 등이 거행되었다. 동제의 신역(神域)은 마을 뒷산 정상이 대부분이었으며, 약 2평 남짓한 목조 및 초가로 엮은 사당안에 신단(神壇)을 설치하고 성황신(城隍之神)이라고 쓴 위패를 신위로 하여 제를 올렸다. 신은 남신(男神)으로 동, 서, 남, 북, 중앙을 지키는 5방 신이었다. 제사를 주관하는 제관은 5~6일 전부터 음주와 육식을 금하고 제사 당일 목욕제게 하는 한편 집 앞에 적토를 뿌려 부정한 기운의 출입을 막았다. 마을 전체에게도 도살을 금하였다. 제사에 쓰일 음식은 마을 전체가 각출하여 제관의 집에서 조리를 하였으며 제사가 끝난 후 함께 나누었다. 정월 3일의 구천제(九天祭)에 개고기를 올리는 양평 특유의 전통도 있었다. 제사는 야간에 거행되는데, 축문을 낭독하고 동민의 호주와 부녀자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불태워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절차로 이루어졌다.⁵⁰⁾ 하계원은 그밖에도 자신들만의 자치제를 운영할 목적으로 분동의 목소리를 높여왔고 그 결과가 촌락수의 증가로 나타났던 것이다. 이에 대해 사족은 사대부계층에 국한된 배타적인 상계만을 운영하고 계의 성격도 식리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바뀌었다.

촌락의 변화는 반촌 내부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동족촌의 증가는 그 단적인 예이다. 동족촌은 일차적으로 본관과 성씨의 등장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따르면 양근의 토박이 성씨로는 함, 탁, 부, 경씨가 있었으며 경, 이, 정, 박씨가 망성으로 전하고 있다. 미원 함씨는 속성으로 기록되었는데, 속현이었던 미원현의 편입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지평의 토성으로는 이, 신, 경, 김, 방씨 등이 있었다.⁵¹⁾ 토성이란 출자처인 본관과 부계혈통을 의미하는 성으로 구성된 복합어로 형성시키는 나말여초로 볼 수 있다. 이들 성씨는 신라와 고려 이래 향촌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장리·향리층이었는데, 조선 후기로 오면서 망성이 되거나 새로운 향품관으로 등장하는 이입성씨의 지배를 받았다.⁵²⁾ 군현제 정비 초기에 정착한 사족은 입향조를 중심으로 향촌사회를 장악하게 되었으며 이후에 외부에서 이주해온 객반(客班)은 정착과정에서 재지 유력사족과 혼인관계를 맺어 인척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향촌에 정착할 수 있었으며 이들을 총칭하여 재지사족이라 하였다. 재지사족이란 지리적으로 재경, 신분적으로 이족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대체로 고려의 향리 가문 후예로서 여말선초에 이르러 침설직, 동정직, 군공, 과거 등을 통해 이족에서 사족으로 신분상승하였거나 상경종사하였다가 정치적 격변기에 본향, 처향, 외향을 따라 낙향하여 재지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던 계층을 일컫는다.⁵³⁾

50) 村山智順, 1937, 『부락제』, 조선총독부, 104·143·174·201·285·329·368~369쪽.

51)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52) 이수진, 1984, 『한국중세사연구』, 일조각, 2~3쪽.

53) 정진영, 앞의 책, 21쪽.



사진 9. 태풍당, 덕수 이씨 동족촌인 쌍학리 안골(내곡)에 있는 시화당으로 조선 중기의 문인이자 대사헌, 형조판서, 이조판서, 예조판서를 역임한 태당 이식이 지우 및 제자들을 위해 강론을 펴던 장소였다



사진 10. 세심정, 덕촌리 뽕촌마을에 있는 세심정은 1561년(명종 16) 설립되었으며, 조정암의 수제자였던 조육이 제자들과 학문을 논하던 장소로 활용되었다. 정자는 턱을 사이에 두고 안쪽의 우물마루와 바깥쪽의 뒷마루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주변을 노송이 둘러싸고 있다. 전면에는 연당이 자리한다

재지사족의 세거지는 혈연으로 맺어진 동성동족과 혼인으로 맺어진 이성동족의 집성촌 성격이 짙었다. 사족은 납속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양반을 모칭하는 부류와 문화적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하였고, 여타 사족에 대해서도 가문의 존재를 드높이고자 하였다. 재지사족은 양반가문 상호간 혹은 양반과 상민간의 위세를 상징적으로 과시하기 위해 종가, 제각, 정사, 비각 등을 건립하기도 하였다(사진 9·10). 사림파의 성장, 성리학적 질서의 정착, 주자가례 보급, 족보 편찬, 문집 발간, 서원·사우 건립 등도 양반의 위신을 높이고 문중조직을 강화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활발히 전개되었다. 양근의 여러 문중에서 시작한 문집편찬 사업을

통해 수입리 이제신의 『청강집(淸江集)』, 방일리 남언경의 『동강집(東岡集)』, 노문리 이항노의 『화서집(華西集)』, 정배리 박준빈의 『양서집(楊西集)』, 박영소의 『경은집(耕隱集)』, 서후리 신기범의 『명곡집(明谷集)』, 용택리 권극중의 『풍담집(楓潭集)』, 신원리 여이정의 『동강집(東江集)』, 목곡리 안억의 『삼청당집(三淸堂集)』이 간행되었고 지평에서는 쌍학리 이식의 『택당집(澤堂集)』, 덕촌리 조옥의 『용문집(龍門集)』, 지평리 천낙구의 『송재집(松齋集)』, 이근원의 『금계집(錦溪集)』, 수곡리 최운의 『신고당집(信古堂集)』이 출판되기도 하였다.⁵⁴⁾

재지사족의 집성촌은 18세기를 지나면서 점차 이성동족이 배제되고 동성동족이 주가 되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동성촌락은 “동성동본의 한두 성씨 집단이 혈연적으로 결합된 친족조직을 통해 촌락의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을 의미하며, 신분과 직역에 따라 반촌은 물론 중인촌, 민촌, 역촌, 점촌 등에서 나타나는데, 대체로 17세기 이후에 형성되어 18~19세기를 거치면서 보편적인 형태로 발전하였다. 16~17세기까지 재지사족은 신분, 경제력, 혈연, 동계 등 기득권과 다양한 향촌 주도기구를 통해 다져진 결속력을 바탕으로 민촌의 지배를 관철할 수 있었다. 18세기로 들어서면서 양반호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평민호가 급감하고 노비호가 실질적으로 소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한 신분구성의 변화와 함께 사족주도의 상하관계에 묶여 있던 농민의 공동체조직이 촌계, 두레, 향도와 같은 형태로 다시금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향촌지배질서가 붕괴되고 농민층의 경제적·신분적 상승이 계속되면서 사족은 향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제 촌락사회에서 수적인 우세나 혈연적인 결속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족이 신분 자체만 가지고 촌락을 지배한다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촌락에서 사족 상호간의 결속이 절실하였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로 동계·동약의 준수, 종법질서의 확립, 동성의 집단화라는 대책이 강구되었다. 인척과 방계를 포함한 기존의 확대된 개념으로서의 동족체제는 토지와 같은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가문 중심의 혈족단위 폐쇄공간의 형성과 평균분급의 해체 및 장자상속이라는 차등분급제는 재지사족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⁵⁵⁾ 요컨대, 17세기 이후 동성촌락의 형성과 발달은 촌락사회의 변화에 대한 사족의 자체적인 대응이었다.

1934년에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양평 거의 전 지역에 걸쳐 동족마을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집계된 동성호수를 기준으로 볼 때 30호 이상의 동족마을과 거주 성씨를 보면, 신북리 광산 김씨(66호), 봉성리 원주 이씨(48호), 창대리 경주 김씨(47호), 보룡리 한터 무안 박씨(45호), 신애리 전주 이씨(42호), 정배리 고령 박씨(41호), 송학리 전

54) 양평군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1376~1377쪽.

55) 정진영, 앞의 책, 306~307·318~319·322~323·327쪽; 이해준, 1996, 「동족마을의 형성과 조직」, 『조선시대 기혼가족사』, 민족문화사, 271~334쪽; 김용만, 1983, 「조선시대 균분상속제에 관한 일연구」, 『대구사학』 23, 1~47쪽.

주 이씨(40호), 망미리 전주 이씨(40호), 화양리 광산 김씨(38호), 병산리 영산 신씨(36호), 대평리 원주 이씨(36호), 덕촌리 평양 조씨(36호), 신화리 영산 신씨(34호), 병산리 전주 이씨(31호), 엄소리 우봉 이씨(30호), 청안리 김해 김씨(30호), 묵안리 양주 조씨(30호), 옥현리 전주 이씨(30호), 문호리 수원 백씨(30호) 등을 들 수 있다(표 3). 동족마을은 동리간의 통폐합, 토착 성씨의 몰락, 이입성의 도약 등을 이유로 시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일반 농산촌과 구별되는 사회·경제·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치적인 집성촌으로서 동족마을은 보수적이고, 전입과 전출에 대해 폐쇄성을 고집하며, 풍기가 엄한 반면 상부상조의 전통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관념상 성리학적 이상주의로 무장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자작농과 지주의 비율이 높다. 또한 마을의 중요한 경관요소로 노거수, 비각, 잘 관리된 분묘, 종가집 등을 가진다.⁵⁶⁾

표 3. 양평 명문성씨의 세거지

면	동리	성관	호수	면	동리	성관	호수
갈산면	신애리	전주 이	42	지제면	삼선리	덕수 이	15
	봉성리	원주 이	48		월산리	영해 박	24
	창대리	경주 김	47			전주 이	20
	회현리 가소	문화 류	18		옥현리	전주 이	30
강상면	병산리	전주 이	31			안동 김	15
	송학리	전주 이	40		망미리	전주 이	40
		영산 신	36			강릉 김	17
	신화리	영산 신	34		대평리	원주 이	36
	세월리	청송 심	28		무왕리 초천	순흥 안	25
	화양리	광산 김	38	용문면	신점리	광주 이	23
		전주 이	27		망릉리	전의 이	17
강하면	항금리	광주 이	17		덕촌리	평양 조	36
		파평 윤	17	서종면	문호리	수원 백	30
양서면	목왕리	광주 이	24			능성 구	18
옥천면	신복리	광산 김	66		서후리	거창 신	15
설악면	엄소리	우봉 이	30		정배리	고령 박	41
	청안리	김해 김	30		수입리	진주 강	15
	묵안리	양주 조	30		명달리	벽진 이	18
단월면	부안리	함평 이	20		삼회리	전의 이	20
	보룡리 한터	무안 박	45			청주 사	17
청운면	갈운리	무송 윤	15				

출처: 朝鮮總督府, 1934, 『朝鮮の姓』

56) 경기도내무부사회과, 1927, 『경기도농촌사회사정』, 26~3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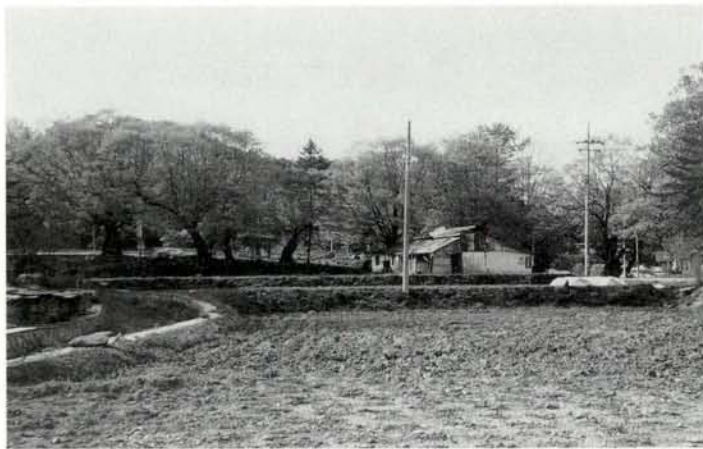


사진 11. 한터마을 동수. 대대리 무안 박씨 동족촌의 동구에는 600년 이상 된 느티나무 여러 그루가 마을을 보호하고 있다. 동수 중앙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듯한 적석의 흔적도 또한 발견된다. 동구 전면에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연못이 조성되어 있다

동족촌의 형성동기는 다양하다. 갈산면 회현리는 1930년대 초 전체 22호 가운데 18호가 문화 류씨 집안이었는데, 370년 전 승지공 류왕의 은거지로 시작되었다. 지제면 무왕리는 원래 오씨촌이었으나 약 310년 전 순흥 안씨 입향조가 전입해오면서 개간을 시작하여 동족촌으로 발전하였다. 무왕리에는 순흥 안씨 25호 외에도 타성씨 33호, 166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단월면 보룡리의 무안 박씨촌은 양근과 지평을 통틀어 670년의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는데, 공민왕대 인물인 박정의 은거지로 출발하였다.⁵⁷⁾ 양서면 목왕리는 광주 이씨 동족촌으로 조선시대 선조와 광해군대에 형조·병조·공조·예조·이조판서와 우의정·좌의정·영의정 등의 관직을 두루 역임한 이덕형을 파조로 하는 한음파의 세거지이다. 양근으로 이주하게 된 동기는 1605년 모친의 산소가 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에, 먼저 타개한 부인 한산 이씨의 묘소가 목왕리에 정해진 것이 계기가 되었다. 그는 송촌리에 대아당이라는 이름의 저택에 기거하였다. 광해군대 영창대군과 인목대비에 관련된 사건에 휩싸여 대북파의 모함으로 1913년 삭탈관직되었으며 한달 후 세상을 떠났다. 한음이 부인의 묘소에 합장되자 조정에서는 양서면 목왕리와 부용리 일대에 사패지를 지정하고 후손들이 제사지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 동족촌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⁵⁸⁾

기타 성씨의 정착시기를 추적하면, 1380년 연안 이씨, 1400년대 교하 노씨, 경주 최씨, 밀양 박씨, 한산 이씨, 안동 권씨, 영산 신씨, 양성 이씨, 초계 변씨, 문화 류씨, 영해 박씨, 1500년대 능성 구씨, 원주 이씨, 동래 정씨, 청주 한씨, 전의 이씨, 원주 변씨, 평양 조씨, 청풍 김

57) 조선총독부, 1933, 『朝鮮の聚落(下)』, 222쪽.

58) 이시우(양서면 목왕리, 종친회장) 제보 : 『한음 이덕형선생 일대기』, 광주 이씨 한음종회, 2~3·4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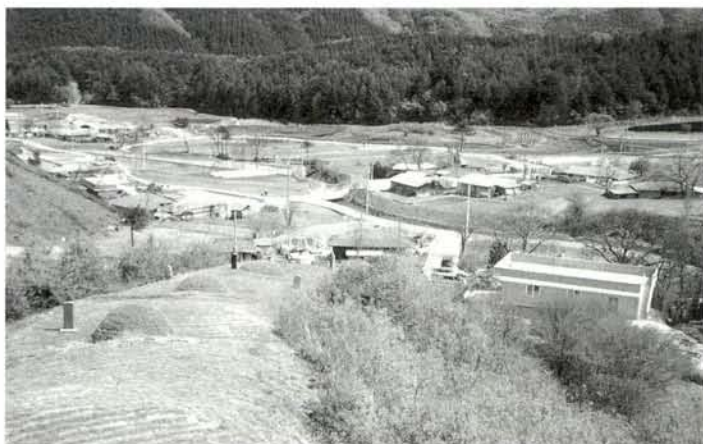


사진 12. 한터마을. 단월면 보룡리 한터[大堡]마을은 고려 공민왕대 무안 박씨가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다. 마을 안길이 끝나는 부분에 무안 박씨의 사당이 있으며 인근에는 선현의 분묘가 대룡 위에 들어서 있다

씨, 남원 양씨, 남평 문씨, 광산 김씨, 청송 심씨, 창원 유씨, 광주 정씨, 1600년대 순흥 안씨, 청해 이씨, 선산 김씨, 해평 윤씨, 남양 홍씨, 거창 신씨, 덕수 장씨, 고령 박씨, 인동 장씨, 수원 백씨, 여흥 민씨, 해주 정씨, 1700년대 신창 맹씨, 광주 김씨, 연일 정씨, 광주 이씨, 연안 김씨, 1800년대 벽진 이씨 등 시기별로 다양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⁵⁹⁾

양반사대부의 특권성은 단적으로 산자수명하고 아늑한 동족촌의 위치에 반영되어 있다. 동족촌은 대체로 경치가 수려한 곳에 들어선다. 외부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계곡은 촌락의 입지로서 선호되었다. 마을의 입구에 해당하는 동구가 병목 형태로 닫혀 안쪽에 마을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은밀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었다. 자연적으로 그러한 형국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마을을 보호하려는 시도의 흔적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룡리 한터[大堡]마을은 좋은 예이다. 한터마을은 고려 공민왕대 간의대부를 역임한 송림공 박정이 1357년 은거하면서 무안 박씨 동족촌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 그는 지평파에 속하는데, 파조는 정헌대부로서 호부상서를 지낸 박윤구이다. 박정은 1375년 동구밖에 시회장으로 보산정(寶山亭)을 건립하였으며 이 정자는 송림공의 6대손인 향양공 박원겸의 수학당으로 활용되었다.⁶⁰⁾ 한터마을 동구에는 수령 600년 이상의 느티나무 6그루가 심어져 있다. 이 동수는 마을 안쪽을 바깥 시선으로부터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동구를 지나면 마을이 눈앞에 펼쳐진다. 좁지 않은 면적의 경지도 마을 안쪽에 조성되어 있다. 동구를 제외한 사방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용맥을 따라 입향조인 박정을 비롯해 박천룡, 박성보, 박전, 박

59) 양평군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24쪽.

60) 박설재(69세, 단월면 보룡리 대대) 제보.

중 등 무안 박씨 선조의 묘가 자리하고 있다(사진 11·12).

(3) 교통·상업촌

도로는 특정 지역내 혹은 지역간 물화와 여객의 수송을 돕는 기간설비로서 중요하다. 그물망처럼 뻗어난 도로망은 지역경제의 발달상태를 대변하는 가시적인 증거가 되기도 한다. 잘 정비된 교통로는 지역간 교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근대교통의 시대가 열리기 이전 교통망의 핵심은 국가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역로였다. 역로는 정치, 경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왕조의 존립근거가 되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두고 운영에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중앙집권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큰 몫을 담당하였던 것이 바로 도로망이었다. 교통로 운영은 일정 구간별로 역도(驛道)를 나누고 여기에 찰방 혹은 역승이 관할하는 본역과 이에 부속된 속역을 구성하여 체역의 임무를 분담하는 체제로서 흔히 역제(驛制)라 칭한다. 일반적으로 역에는 관립 숙박설비인 원(院)이 딸리기 때문에 역원은 일체로서 거론된다. 도로관리를 위해 파견되는 관원의 직급은 도로의 중요성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역도의 명칭은 본역의 이름으로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역참(驛站)은 공문서 전달, 공물수송, 사신영송 등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서 역무를 관장하기 위해 역리·역졸·역노비·보인을 배치하고 마필을 사양하여 필요에 대비하였다. 역리는 신역을 대신해 역무를 담당한 주체로서 신분은 양인이었으나 천하고 자손 대대로 세습되는 일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양역천(身良役賤) 계층으로 분류된다. 역졸과 역노비는 역전을 경작하고, 역마를 사육하며, 역마를 운전하거나 급주졸역을 수행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술정, 일수, 사환으로도 불리는 보인은 인근에 거주하는 양인 가운데에서 차출하였다. 칠반천역(七般賤役)의 하나를 수행해야 할 의무는 있었지만 일반 양역보다는 부담이 적어 보인으로 차출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⁶¹⁾ 마필은 용도에 따라 통신용, 승용, 짐말로 구분되며 체형에 따라 대·중·소마로 구분된다. 역의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역전(驛田)을 지급하였다. 역전은 역무에 종사한 대가로 지불되는 유역인전(有役人田)과 역참운영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공수전(公須田) 및 역마사육을 위해 지급되는 마위전(馬位田)을 포함한다. 유역인전은 성격상 자경무세지(自耕無稅地), 즉 면세지였으며 『경국대전』의 규정에 따라 장전 2결, 부장전 1결 5부, 급주전 50부가 지급되었다. 『양근읍총』에는 역전에 대한 복호결이 68결 86부로 명시되어 있다. 마위전 역시 면세전으로서 대마 7결, 중마 5결 50부, 소마 4결의 토지가 배당되었다. 공수전은 수조권이 역에 귀속된 토지로서 대로 20결, 중로 15결, 소로 5결이 지급되었다. 지급된 토지의 규모는 도로의 등급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

61) 배기현, 1992, 「조선후기 역촌에 대하여」, 『대구사학』 43, 61~6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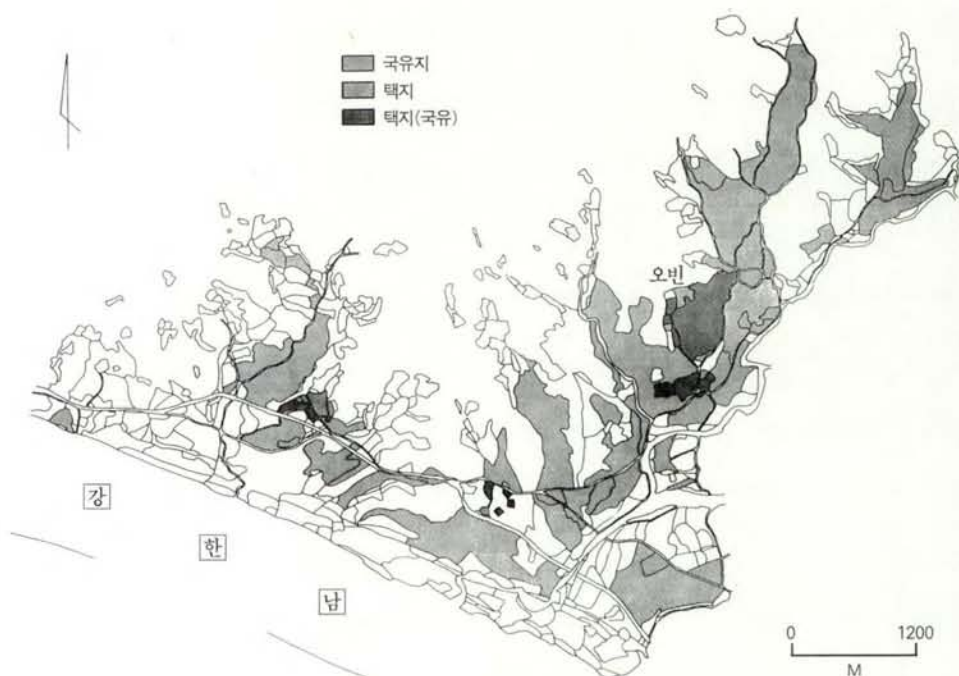


그림 16. 오빈역촌(1913). 양평 오빈리는 과거 평구역 소속의 오빈역이 자리하였던 곳으로 역마 13필을 갖추고 역리 55명, 역노 22명, 역비 3명이 배치되어 역무를 수행한 전형적인 역촌이었다. 국유지로 명시된 토지는 역전으로 지급된 토지였으며 마을 안쪽 큰 필지의 대지에 마방과 역사가 자리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역무를 수행하는 역리·역졸·역노비·보인을 일컬어 역민이라고 하며 이들 역민의 집단 거주지를 '역마을[驛村]'이라 부른다. 역마을의 주요 구성원은 역무 종사원이었지만 일상생활은 국가에서 지급한 농토를 경작하는 데 있었으므로 일반 농촌과 그리 큰 차이가 없었다. 역촌은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조성한 관설취락의 일종으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리고 역으로 몰려드는 공물·진상품을 노리는 도적을 집단으로 방어하기 위해 집촌으로 발전하게 되었을 것이다. 역촌은 역민의 주거지와 역전을 포함해 한 개 리 정도의 규모였을 텐데, 평구역 소속의 오빈역이 자리한 양근 읍내면 오빈리에는 『여지도서』에 58호, 남녀 각각 104명과 80명의 촌민이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다. 1913년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벌이면서 작성한 지적도에는 오빈리 전 지역에 걸쳐 분포한 국유지가 나와 있는데, 역둔토로 일괄 지정해 몰수하려던 대표적인 표적이었다(그림 16). 이들 국공유지는 과거 역전으로 지급된 토지였을 것이다. 역둔토가 한 개 리 대부분에 걸쳐 분포하고 있던 점으로 미루어 역촌은 하나의 행정촌 규모로 존재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뒷받침해 준다. 지역에 따라 비율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역촌민 가운데 약 60% 이상은 역리, 나머지

는 역보, 역졸, 역노비, 일반민 등으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역리의 신분은 자손에게 대대로 세습되고 사회적인 계층상승의 여지가 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역촌 가운데 상당수는 이성 혹은 동성동족촌이었을 것으로 보인다.⁶²⁾ 혼인과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역촌은 따라서 내부적으로 단합이 강하고, 외부인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며, 자치성향이 강한 양반 동족촌과 유사한 성격을 지녔다고 하겠다.

조선 후기가 되면 역촌 내부에 많은 변화가 찾아온다. 시대가 내려오면서 역리의 신분세습 성향은 점차 약화되었고, 많은 역민이 과역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양인 여성과 역노비 사이에 태어난 자손은 역리로의 신분상승을 인정한다는 역노승리법(驛奴昇吏法)이 채택되어 역노비의 수적인 감소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양인 조역인층이 양역의 폐해를 피해 사회적인 천대는 받을지언정 상대적으로 잡역의 부담이 훨씬 적은 역리나 역보로 투속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일반 노비 역시 같은 이유로 역노비로 투속하였다. 이처럼 양인의 역무참여가 진행되면서 사회적으로 질시받던 역촌의 민촌화(民村化)는 빠르게 진행되었다.⁶³⁾

역로를 따라서 10리마다 소후(小垵), 30리마다 대후(大垵)가 설치되었다.⁶⁴⁾ 지역에 따라 적석이 기능을 대신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후란 곧 장승을 일컫는다. 장승은 민간신앙의 대상이기 이전에 행려에게 지나는 마을의 이름과 지나온 거리, 앞으로 걸어야 할 거리를 알려주는 도로표지로서 중요한 노변설비였다. 역촌에는 장승 외에도 길손이 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는 버드나무나 느티나무가 동구에 자리하였으며, 역마의 안전과 역촌의 평안을 기원하는 성황당이 설립되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마신당(馬神堂)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송현리 전곡역촌의 경우 현재는 모두 사라지고 없지만 장승거리, 느티나무, 성황당이 실제로 존재했다. 특히 성황당에는 쇠로 만든 크고 작은 말 5개를 모시고 제를 올렸다는 촌로의 회고로 미루어 마신에 대한 믿음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사진 13).⁶⁵⁾ 마을 안쪽에는 마방·창고·질청으로 구성된 역사가 자리하였다. 역사로 접어드는 길목에는 홍살의 이문을 설치했다. 이문은 일종의 검문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였다. 주요 도로변에 검문소를 두는 이유는 군사·전략적인 목적이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행상인에게 통과세를 징수하는 비공식적인 세관의 기능도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⁶⁶⁾

역로를 따라 여행하면서 목격하게 되는 노변설비 가운데 행려를 위해 숙박의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한 원이 있다. 원은 고려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요소요소에 배치된 사찰의

62) 四方博, 1976, 「李朝人口に關する一研究」, 『조선사회경제사연구(중)』, 58~59쪽.

63) 최호, 1985, 「조선 후기 역촌에 대한 일고찰」, 『중앙사론』 4, 133~165쪽.

64) “外方道路每十里立小垵三十里大垵置驛”(垵刻里數地名)(『속대전』 공전 교로조).

65) 정지원(71세, 지제면 송현리 258번지) 제보. 마상(馬像)은 한국전쟁 이후에 모두 소실되었다고 한다.

66) Mark Elvin, 1973, *The Pattern of the Chinese Past: A social and economic interpreta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67쪽.



사진 13. 전곡역촌과 성황당터. 현 지재면 송현리에 해당하는 이 마을은 과거 지평의 전곡역촌으로서 역마를 비치하여 공무수행자의 여행을 보조하였다. 역촌은 신앙역천계층인 역리와 역촌을 구성원으로 하였다. 비료가 쌓여 있는 지점에는 역마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성황당이 있었다

분소에 기원을 두고 있다. 순회하는 승려와 순례에 나선 신자들이 하루 여정을 끝내고 비바람, 맹수, 산적을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시설이었던 듯하다.⁶⁷⁾ 양근에는 조선 중기까지 월계원, 다락원, 말원, 초원 등의 원이 운영된 일이 있으나 18세기 이후에는 월계원만 남기고 모두 폐지되었다. 지평에는 읍치로부터 서쪽으로 10리 떨어진 흑천변에 지덕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하나 이 역시 폐기되었다.⁶⁸⁾ 서시면 신원리는 조선 초기까지 국왕이 강무장까지 행차할 때 머물다 가는 장소로서 기능이 지명에 그대로 각인되어 있다. 18세기 『여지도서』 단계에서 원은 이미 철폐된 지 오래지만 교통상의 중요성 때문인지 취락은 37호, 126명의 작지 않은 규모로 발전하였다. 원 역시 하루 보행거리인 30리를 기준으로 역, 나루터, 고개, 시가지 등지에 입지하였다. 원에는 숙박할 수 있는 온돌방을 비롯해 주방, 마방, 초정 등이 갖추어져 있었다.⁶⁹⁾ 원의 운영은 현지에서 차출한 원주가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원주에게는 원주전과 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원전이 지급되었다. 원전은 도로의 등급에 따라 차등 있게 지급되었는데, 대로변에 위치한 원에는 1결 35부, 중로원 90부, 소로원 45부의 비율이었다. 원에 투숙하는 행려는 신분상 공무수행자와 양반 상류층이 대부분이었다.

일반 서민과 몰락한 양반은 비교적 고가의 사치스러운 원을 이용하는 대신 주막에서 숙식을 해결하였다. 조선 후기 이래로 공무수행자의 횡포, 취약한 재정기반, 신분적 차별 등의 이유로 쇠퇴일로에 있던 원과 달리 주막은 상품화폐경제의 발달과 사회 전체적인 기동성의 증

67) 허홍식, 1990, 『고려불교사연구』, 일조각, 333~335쪽.

68)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역원조.

69) 최재경, 1975, 「조선시대 원에 대하여」, 『영남사학』 4, 56·62~64쪽.



그림 14. 두물머리 나루터촌. 두물머리는 나루터촌으로 성장하였다. 상려의 경우 통제와 감찰이 심한 관영의 용진도를 지나는 것보다는 두물머리 나루의 우회로를 통해 한양으로 향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식축의 간단한 접안시설을 갖춘 이 나루터는 현재 기능을 상실하여 화석경관으로 남아 있다

대로 팔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양근의 주막으로는 갈산강변에 위치한 읍내점막을 비롯해 동중면 대곡동의 대곡점막, 읍내면의 덕곡점막, 고읍면 기곡의 월루악점막, 서시면 북포의 북포점막, 서시면 반양리의 반양점막, 서시면 신원리의 월계점막이 유명하였고, 지평에는 읍내점, 곡수장점, 흑천점, 광탄점, 두음방(노음평)점, 부연점 등이 있었다.⁷⁰⁾

역원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것은 구한국정부가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던 1894년의 일이다. 당시로서는 교통·통신체계의 변화에 따라 지역구조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는 건설적으로 파괴되었던 셈이다. 사회적인 편견과 저급한 생활수준으로 점철된 역촌의 일상생활도 점차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변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과중한 역무와 거주이전의 제약 등 각종 구속에서 벗어난 역촌은 이제 일반 농촌과 다름없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의 역사, 역전, 원, 원전은 1899년 재실토지정리사업에 맞추어 역둔토로 분류되어 국유지로 편입되었다. 역촌은 사회적인 편견과 낮은 생활수준 때문에 교통체계의 근대화와 함께 쇠퇴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부 교통요지에 입지한 역촌의 경우에는 상업기능을 유지하여 재기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후미진 곳에 있어서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한촌으로 남게 되었다.

수로교통의 요지에는 나루터촌이 발달한다. 일부 나루터의 경우 물화의 집산지로 발전하여 '내륙의 갯벌장[浦市]'으로서 지역경제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한강이 주위를

70) 『읍지』(1842~1843).

71) 『楊根郡邑誌與地圖成冊』(刊10728).

72) 『楊根邑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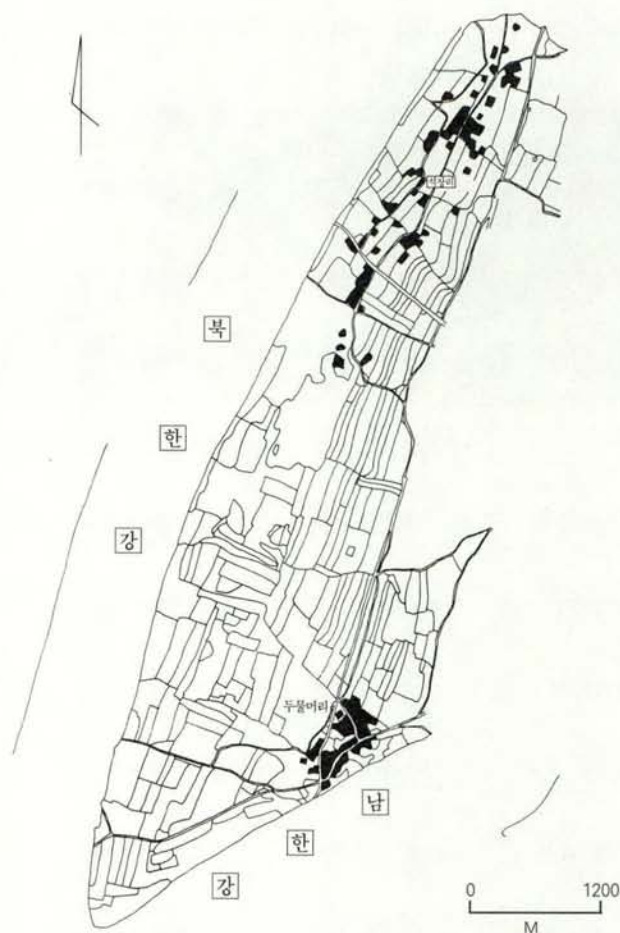


그림 17. 두물머리(二水頭)(1913).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한 두물머리마을은 한강유역 내륙에서 한양으로 가기 위해 물러드는 행려가 지나는 길목에 자리하였다. 북쪽에는 석장리의 여러 촌락이 산재해 있다. 도로가 끝나는 지점은 곧 용진도에 해당한다. 한강퇴적물로 이루어진 경지가 장방형(long-lot)으로 구획된 점이 인상적이다

감아 돌아드는 양근의 경우 북한강과 남한강변을 따라 크고 작은 나루터가 발달하였으며, 이곳으로는 주막이 들어서 길가는 행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화물선적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였다. 각종 기록에 등장하는 나루터로는 관영의 용진도(龍津渡)를 비롯해 서종면과 경기도 양주를 연결하는 수여진·수입진, 북면과 경기도 가평을 잇는 사참진 등이 북한강변에 자리하였고, 남한강을 따라서는 갈산강변에 자리한 갈산진, 광주방면으로 연결하는 상심진, 고

73) 切田太郎·古館市太郎, 1914, 『조선상업제요』, 1~13쪽.

읍면과 남중면을 잇는 월루진, 서시면과 남중면의 연결지점인 청탄진이 있었다.⁷¹⁾ 나루터촌은 육로와 수로를 연결하는 길목에 자리하며 석장리 이수두(두물머리) 나루터와 같이 대체로 가촌의 형태를 하였다(그림 17, 사진 14). 지나가는 길손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주막이 들어섰지만 주민의 주요 생업은 농업이었다. 용진도에 배치된 사공에 대해서는 13결의 복호전이 지급되었다.⁷²⁾ 용진도가 자리한 양근 서중면 용진리는 『여지도서』에 13호, 61명의 규모를 가진 취락으로 기록되고 있다. 그보다 상류의 서중면 수입리에는 양주 화도면을 연결하는 수입나루가 위치하였는데, 용진도와 달리 관영이 아닌 일반 민간인이 이용하던 나루터촌으로 28호, 64명의 규모였다.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곧 각 지방의 물화와 여객이 수렴하는 곳으로서 접근도가 높은 장점에 있어 종종 시장이 들어선다. 초보적인 물자의 교역이 시작된 이래 상업은 고도의 분화과정을 거쳤다. 일반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적인 소매업을 포함해 도매업, 운수·창고업, 은행업, 중개업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상업활동으로 볼 수 있다.⁷³⁾ 향촌의 행정중심지는 교역의 중심지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장시분류에서 읍내장의 위상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이때문이다. 내왕하는 행려의 수가 많은 것은 물론 치안유지와 도적으로부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며 물가 및 도량형에 대한 시책이 엄격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상거래질서가 확립되는 추가적인 장점도 있었다. 그러나 통제가 심하다는 것은 곧 장세납부의 의무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세율도 다른 곳에 비해 높았다. 보다 자율적인 분위기를 선호하는 상인의 경우 읍내장보다는 외곽의 일반 장시를 찾기 마련이었다. 장시는 조선 후기를 거치면서 농업생산력의 신장, 관영수공업의 민영화, 화폐의 유통, 인구증가, 지역간 분업의 진전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상업발달과 함께 시장과 시장촌도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상업은 부족간 물물교환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정기적으로 한 장소에 모여 물품을 교환하던 형태는 아니었지만 지역간 부족하고 남는 물자를 적절한 방법으로 소통하였던 것이다. 특히 해안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회소가치가 커서 이미 오래 전부터 내륙 멀리까지 수송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일반적으로 교역은 농업생산력, 인구, 도시화, 제도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제도적 상황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단기적으로 보면 전쟁 직후 물자가 태부족한 시점에 장시설립이 촉진되는 경향이 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장시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1770)에 조사된 양근과 지평의 장시는 갈산(1), 좌곡(2), 미원(2), 사탄(3), 우천(4), 상심(5), 지평읍내(2), 곡수(4), 부연(3), 노음평(1) 등 모두 10기였다.⁷⁴⁾ 정확히 168년이 지난 1938년에는 절반 수준인 5기로 줄었는데, 양근읍내장(3), 미원(3), 양수(2), 곡수(4), 용두(2) 등이 개시되

74) 『동국문헌비고』 권72, 시적고 향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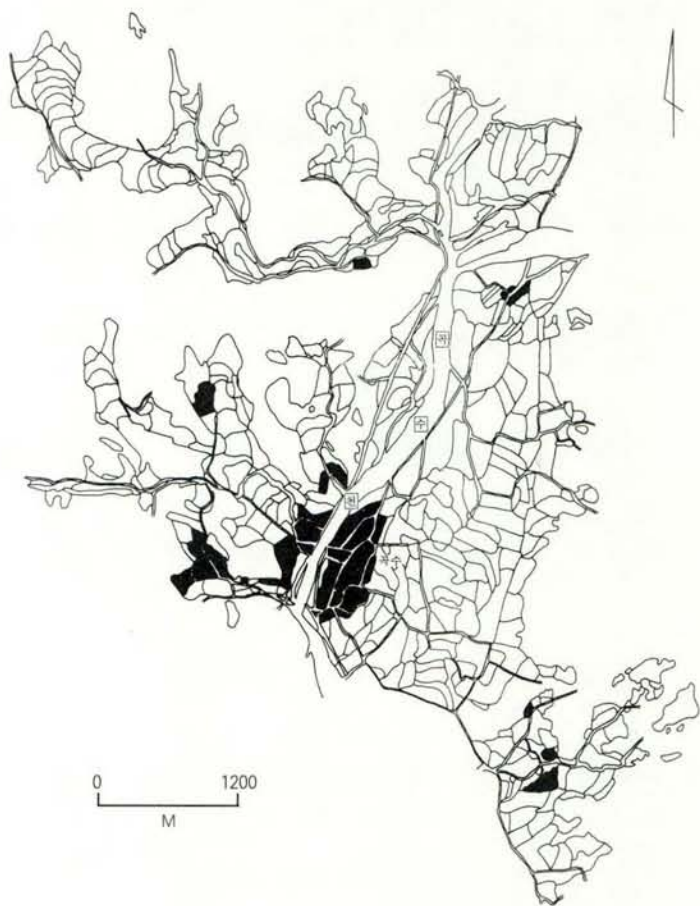


그림 18. 곡수장(1913). 곡수장은 과거 지평 서부와 한강 동쪽의 여주 관내를 시장권으로 가지고 있던 유명 장시로서 매월 초나흘에 첫장이 열렸다. 시장은 곡수천 좌안, 방향으로 보면 하천 동쪽에 위치하였는데 일반적인 출시품 외에도 시장 북면에서는 우시장이 크게 열렸다

었다. 양근장은 간선도로변을 따라 위치한 양평의 중심지에 열리던 시장으로서 중요하였다. 미원장의 경우 양평 북부를 권역으로 하는 유일한 시장이었으며, 곡수장은 양평 남동부와 한강 동쪽의 여주 관내를 시장권으로 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오랫동안 생명력 있게 잔존할 수 있었다. 곡수장은 개시일까지도 예전 그대로 유지되었다(그림 18).

한강과 '쇠내(牛川)'가 합류하는 지점에 자리한 남종면 우천리는 1914년 광주군으로 편입될 때까지 양평의 주요 시장 가운데 하나였다. 음력으로 매달 4일에 초시가 열리고 5일 간격으로 개시되었는데, 주요 거래품목으로는 하류에서 올라오는 소금, 새우젓, 잡화와 상류에서 한강을 타고 서울로 올라가는 땔감이 대종을 이루었다. 우천리에는 주막이 많아 장날이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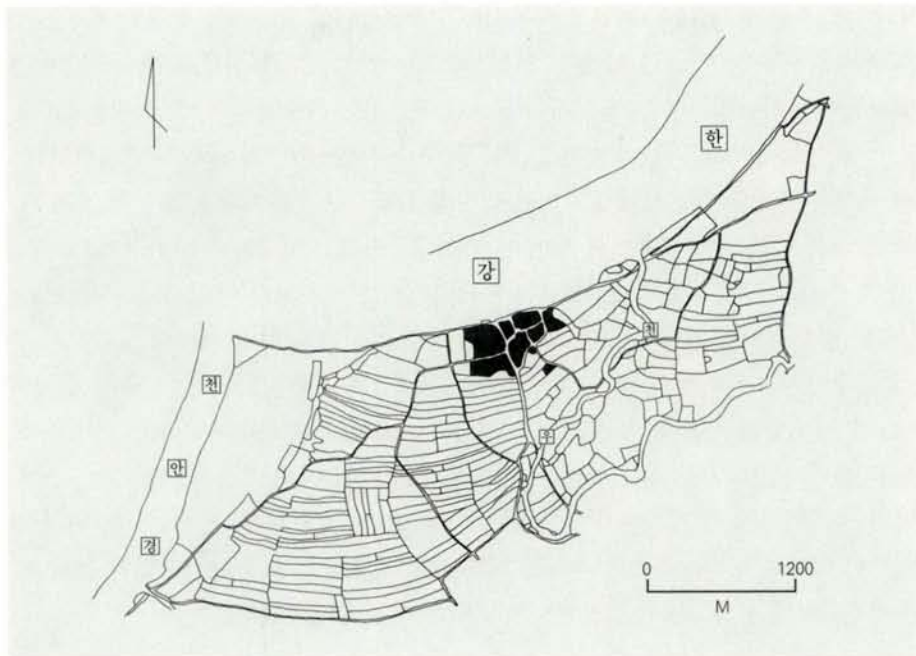


그림 19. 우천장(1913). 우천강변에 자리한 우천리는 4·9일의 5일장으로 남한강, 북한강, 한강 본류를 오고가는 선상이 머물다 가는 중간 기항지였다. 한강이 운반한 퇴적물로 구성된 경지는 지적도상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일부의 입야를 제외하면 모두 밭으로 조방적으로 이용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광주로 이속되었다

라 하더라도 오고가는 선상(船商)이 들러 쉬어가던 휴식처였다(그림 19). 『여지도서』가 편찬된 18세기 당시 우천리에는 16호에 남녀 각각 26명과 29명, 모두 55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었다. 그리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남한강과 북한강을 내려온 배들이 머물다 가는 장소로서 중요하였다.

시장촌은 상주하는 농민 외에도 장이 서는 날에 정기적으로 시장을 돌며 행상하는 보부상, 물품을 바꾸거나 구입하기 위한 일반 출신인이 집결하는 장소이다. 상주인구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기는 하지만 촌락의 기간 구성원은 엄연히 농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이었다. 물론 대부분의 장시가 교통이 편리한 지점에 입지하기 때문에 일부 주막은 장날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나가는 길손을 상대로 항시 영업을 수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장날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한 주체는 5일 간격으로 열리는 장을 돌아다니며 행상하는 보부상이었다. 부상(負商)은 소금, 도기, 철기, 염건어, 짚신 등을 지게에 짊어지고 판매하였기 때문에 흔히 등짐장수로 불린다. 보상(褌商)은 직물, 귀금속, 인삼, 피혁, 지필묵, 관구, 잡화 등의 물화를 보자기에 싸서 행상하던 붓짐장수, 장돌뱅이, 장돌림, 항아장수를 일컫는다. 보부상은 상행위상의 특권을 획득·유지할 목적으로 형성된 단체로서 상인길드적 성격이 강했는데, 충의(忠義)·정의(情誼)·신의(信義)의 엄격한 규율 아래 조직된 상업집단이었다.

보부상의 통솔자는 접장(接長)이었고 사무소는 임소(任所)라 불렀는데 접장이 머무는 임소는 본소(本所) 혹은 본부(本部)라 하였다. 보부상은 유사시에는 정탐임무를 수행하였고 평시에는 상업활동에 종사하면서 수집한 각지의 정보를 전파하는 정보전달의 매개자가 되었다.⁷⁵⁾

상인과 장을 보기 위해 나온 일반인을 상대로 주막에서는 탁주와 국밥을 판매하였다. 주막은 상시 개점하는 곳도 있었지만 장날에만 임시방편으로 간단한 배대를 조립해 지은 가게(假家)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주류였을 것이다. 간선도로변의 상설주막과 마찬가지로 시장 인근의 주막 역시 여인숙의 업무를 겸하였다. 투숙객에게는 베개로 사용할 목침만을 제공할 뿐 이부자리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숙박료는 따로 계산하지 않고 식비에 포함시키는 것이 관례였다. 주막은 3칸 이하의 초가이자 흙벽으로 마감한 온돌집이었다.⁷⁶⁾ 주막은 지역사회의 정보유통과 관련해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허기진 배를 채우거나 쉬어가기 위해 주막에 들어온 상인과 구매자는 한데 모여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그러한 가운데 인근 지역이나 멀리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이 소문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비단 정치적인 소식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교환되었던 것이다. 모든 소문의 진원지이자 정보교환의 결절점으로 주막은 매우 중요하였다.

(4) 교촌·사원촌·수공업촌

양평에는 행정취락, 농촌, 산촌, 교통촌, 시장촌 외에도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취락이 시기를 달리하면서 형성·발달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특수기능은 교육, 종교, 수공업, 광업과 관련되어 있다. 향교 및 서원이 자리한 곳에서는 향촌거주 사족의 자재를 교육하는 기능이 수행되었으며, 각지에 산재한 사찰 본당과 암자에는 승려와 신도가 거주하는 사원촌이 있었다. 사기와 자기 제조에 관여하는 장인은 수공업촌을 이루고 생활하였는데, 남종면에 있었던 사용원(司饗院)의 분원(分院)은 가장 유명한 수공업촌이었다.

향촌에서 서원과 향교는 지배층의 이데올로기인 성리학적 가치관을 재생산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공식적인 지방교육기관으로는 먼저 향교를 들 수 있다. 양근의 향교는 건지산 아래 옥천구읍에 소재하였으며 내부에는 대성전, 신문, 전사청, 제기고, 명륜당, 동재, 서재, 외삼문, 홍살문 등의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다(사진 15). 양근향교와 같이 뒷산에 기대어 축조될 경우에는 대개 전면 낮은 곳에 강학공간(講學空間)인 명륜당을 두고 뒤쪽 높은 터에 존현공간(尊賢空間)인 대성전을 배치하는 이른바 전학후묘(前學後廟)의 배치를 이룬다.⁷⁷⁾ 중앙의 문묘를 대신하는 향교의 대성전은 유학의 대성인 공자, 그의 수제자인 안자·증자·자사·맹자, 기타 공문의 제자와 우리 나라 현인의 위패를 모신 유교공간이다. 교촌에

75) 이훈섭·황선민, 1990, 『부보상연구』, 보경문화사, 17~22쪽 ; 박원선, 1965, 『부보상』, 한국연구원, 44~45·78~85·134쪽 ; 문정창, 1941, 『朝鮮의市場』, 일본평론사, 42~43쪽.

76) 조선총독부, 1929, 『朝鮮의市場經濟』, 279~280쪽 ; 경기도내무부사회과, 1929, 『경기도농촌사회사정』, 53~55쪽.



사진 15. 양근향교. 조선 중종때 건립된 것으로 전하는 양근향교는 양근리로 치소가 이전 될 때까지 행정중심지였던 옥천리 교촌에 자리하고 있다. 홍살문과 외삼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서면 명륜당이 있고 그 안쪽에 동재와 서재가 자리한다. 다시 내삼문을 열고 들어서면 대성전, 동무, 서무가 있다

있던 지평향교 역시 동일한 구조를 하고 있다. 향교 인근에는 자연스럽게 향촌교육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보조하고 설비를 유지할 목적의 교촌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유생과 교생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고 제례를 올리는 데 필요한 경비는 학전의 일종으로 지급된 향교전과 향교노비를 통해 충당하였다. 추가적인 경비는 교보가 납부하는 세, 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및 면강첩 발행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조달하였다. 제역촌의 일종인 향교촌은 수직, 수리, 사환 등의 잡역을 지원받을 수 있는 특권도 있었다.⁷⁸⁾ 『여지도서』의 기록을 참조하건대 양근 고읍내면의 향교리는 18세기 당시 22호(12호?), 56명 규모의 마을이었다.

향교와 더불어 향촌의 교육을 담당한 기관으로는 서원이 있다. 도회에서 관학인 향교가 성리학적 국가이념을 교육하는 장소로 중요하였다면 농촌에서는 서원과 사우가 유교적 질서를 세우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서원은 사문교육에 비중을 두고 혈연, 학연, 지연을 통해 인적 교류의 체계를 마련하여 향촌지배를 공고히 하겠다는 재지사족의 이념을 구현하는 장치였다. 서원은 소학을 장려하고, 현성을 추존하며, 사우의 도를 확립한다는 기치하에 사림이 교학을 진흥시키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중요하였다.⁷⁹⁾ 사설기관이지만 사액서원은 국가적으로 공인되어 일정 면적의 토지를 지급받아 권위가 설 수 있었다. 재지사족의 주도로 설립된 일반 서원의 경우 조정으로부터 공인을 얻지는 못했지만 수령과 지방 유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가며 성장할 수 있었다. 서원은 유교적인 향촌질서를 수립하고 예비관료를 교

77) 주남철, 2000,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292쪽.

78) 윤희면, 1990, 『조선후기 향교연구』, 일조각, 218~269쪽. 향교에는 5결의 향교전과 10명의 노비가 지급되었다(『속대전』 12, 태종 6년 7월 을유: 『경국대전』 5 형전 외노비).

79) 정만조, 1997,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사진 16. 운계서원. 명종 때의 학자 조옥을 추모하기 위해 제자들이 1594년에 건립한 운계서원은 현재 용문면 덕촌리 평양 조씨 동족촌에 위치한다. 서원 전면에는 용문천이 흐르고 있다. 현재 재실과 묘우가 남아 있으며 1932년 중건되었다. 서원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홍살문이 세워져 있다. 조옥의 묘는 서원에서 약간 떨어진 덕촌리 퇴촌에 있다

육한다는 실질적인 기능 때문에 영향력이 막강하였다. 때로는 그 영향력이 학파 및 당파와 맞물려 인근 군현을 넘어서까지 파급되었다. 서원촌은 서원 건립을 주도한 사대부, 서원에 배향된 인물의 친·외척, 원생, 서원에 소속된 노비, 서원전의 경작을 위해 모입한 농민이 주요 구성원이었다.⁸⁰⁾

서원은 종래의 불교적이고 음사적인 이족 중심의 향촌사회를 사족 중심의 유교적인 향촌 질서체제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탄생하였다. 서원이 정착되기 이전 사림계열의 학통은 서재·정사·가학으로 전수되었던 것인데, 중종대 교학진흥책이 시행되고 관학이 부진하면서 발전의 길이 열렸다. 서원은 퇴계에 의하여 사림의 강학처로서 성격을 분명히 할 수 있었으며 사람과가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되는 선조대부터 봉당정치의 중심에 자리할 정도로 역할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서원이 남설되는 한편 동성촌 내부의 상호결속이 강조되는 단계에서 서원은 기존의 사림의 공론에 입각한 공동조직체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반대로 현조의 제향을 통한 문중의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사적인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⁸¹⁾

지평의 운계서원(雲溪書院)도 어떤 면에서 보면 향촌단위 조직에서 문중 중심의 교육기관으로 위상이 바뀐 예로 볼 수 있다. 조정암의 문인인 조옥과 그의 친형인 조성을 배향하는 운계서원은 용문서원으로 더 잘 알려졌는데, 용문은 곧 조옥의 호이다. 운계서원은 1594년(선조 27)에 설립되어 1714년(숙종 40)에 사액되었다(사진 16).⁸²⁾ 용문서원은 학문적·정치적

80) 최원규, 1988, 「조선후기 서원전의 구조와 경영」, 『손보기 박사 정년기념 한국사학논총』, 지식산업사, 575~625쪽.

81) 이수환, 2001, 『조선후기서원연구』, 일조각, 12~14·39~40쪽.

82) 『砥平郡邑誌輿地圖成冊』.

성향이 비슷한 재지사족이 의견을 교환하고 기존의 특권적인 지위를 후대에 재생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영향력이 관내를 뛰어넘어 인근 지역까지 미칠 수 있는 상징적인 기관이었다. 운계서원이 위치한 덕촌리는 조옥의 세가인 평양 조씨의 동족촌으로 1934년 당시 36호의 동족호수가 파악되었다.⁸³⁾ 양근 북면에는 조광조와 김식을 배향한 미원서원(迷院書院)이 있었으며, 후에 김창흡, 김육, 남언경, 이제신이 배향인물로 추가되었다.⁸⁴⁾

서원은 서원전, 서원노비, 원숙, 속점, 속사, 기부와 보조 등의 경제적인 기반 위에 성립되었다. 서원전은 향교전과 함께 학전(學田)으로 분류되는데, 여기에는 유물교체가 철폐된 사찰의 토지, 쟁송에 계류되어 공유로 이속된 토지, 기부된 토지가 포함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서원 자체의 경제력에 의한 매득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서원노비는 서원전과 함께 서원경제의 양대 축으로 각종 잡역을 수행하거나 토지를 경작하는 중요한 일을 담당하였다. 서원노비는 잡역담당자로 서원에 완전히 예속된 원중차역자(院中差役者), 서원 인근에 거주하면서 향사·유회·향회 등 대소사가 있을 때 동원되는 원저노비(院底奴婢), 단순히 신평납부의 의무를 지는 납공노비(納貢奴婢)로 구성된다. 서원노비는 국가에서 사역을 내릴 때 지급되기도 하지만 대개는 매득 및 기진의 경로를 통하거나 노비인구의 재생산으로 유지되었다. 서원에는 이밖에도 피역을 이유로 투속한 양인, 장인, 수직군, 원생 등의 인적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각종 수공업체와 소속 사찰의 물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⁸⁵⁾

양평에는 종교시설로 유명 사찰과 암자가 각지에 분포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사원촌이 형성되는 것이 보통인데, 독특한 종교적 상징물을 경관의 일부로 하고 있다. 조선 초기까지 양근과 지평에는 각각 사나사·서방사·소설암과 상원사·보제사·용문사·죽장암·운필암 등의 사찰과 암자가 있었다. 이들 주요 종교시설 가운데 마유산의 서방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양평의 한가운데를 차지한 미지산(현 용문산)에 자리하였다. 세조가 자주 찾았다는 상원사와 신라 마의태자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용문사는 중요한 사찰이었던 것 같다(사진 17).⁸⁶⁾ 18세기 무렵이 되면 양근의 소설암과 서방사가 폐지되는 대신 쌍계암(통방산), 흥복사(금봉산), 운곡암(화야산)이 새롭게 설립되었다. 지평의 경우 보제사가 폐지되고 나머지는 오랫동안 존속되었다.⁸⁷⁾ 이들 사찰과 암자는 비록 고립된 산지에 위치하였지만 상주하는 승려와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평신도로 구성된 종교촌이었다. 상원사 같은 유명 사찰은 사위전을 지급받았으며 권세를 빌어 내원당이라는 명분으로 산촌 농민이 개간한 토지를 사찰재산으로 강제로 편입시키기도 하였다.⁸⁸⁾

83) 朝鮮總督府, 1934, 『朝鮮の姓』, 164쪽.

84) 『楊根郡邑誌與地圖成冊』(刊10728).

85) 이수환, 앞의 책, 156~221쪽.

86) 『신증동국여지승람』 불우조.

87) 『여지도서』 사찰조.

88) 『명종실록』 15, 8년 11월 17일 기미.



사진 17. 용문사 대웅전. 신라 신덕왕 2년(913) 대경대사가 창건하였다고 전하는 용문사는 고려시대에 경천사의 대장경을 봉안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수양대군이 모후 소헌왕후 심씨를 위해 보전을 짓는 등 왕실에서 많은 관심을 쏟았던 유명사찰이었다. 대웅전 앞에는 수령 1,000년이 넘는 은행나무가 있다

한편 조선시대 양근에는 왕실 소용의 각종 그릇을 제조하는 사옹원의 분원이 소재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양근에 두을만리 자기소와 탑동 도기소, 지평에 대동 자기소가 있었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비록 하품의 도자기였지만 후대에 입지가 정해진 분원의 기원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겠다. 왕실과 관청에 소용되는 수공업품은 대개 군현에서 납부하는 공물로 충당하였으나 일부 특수용품에 대해서는 전업적인 관영제조장을 두고 조달하였는데, 제기를 비롯한 다양한 도자기류가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 분원은 전문화된 수공업촌으로 양근 남종면의 분원이라는 행정리로 발전하였다. 원래 광주에 있었던 분원은 1752년(영조 임신년)에 양근의 분원으로 이전되었다.⁸⁹⁾ 『여지도서』에 따르면 남종면 분원리는 181호, 664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물론 이 모든 인구가 자기제조에 관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며, 대다수는 일반 농민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국대전』에 명시된 사옹원의 인적 구성을 보면 도제조(1), 제조(4), 부제조(5), 제거(2), 제검(2), 판관(1), 주부(1), 직장(2), 봉사(3), 참봉(3), 서리(6), 사기장(380) 등이 확인되는데,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작업에 투입된 인원은 사기장이며 이들 입역장인의 집단주거지가 바로 분원리였다고 생각된다. 사기장은 전문적인 도자기 기술자로서 업무의 특성상 다른 신역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 업을 자손 대대로 세습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의미에서 분원리는 동성 혹은 이성동족촌의 성격이 강했을 것으로 보인다. 분원리 주민의 성분에 대해 근거할 자료가 없어 단정은 할 수 없으나 과거 수공업자 가운데 일부는 범법자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으로 하대받았을 가능성이 크다.⁹⁰⁾ 원칙적으로 사기장은 춘추 양 기간에 걸쳐 자기를 굽고 이에 대한 대가로 4

89) “英宗壬申移設廣州樁造所于郡南五十里南終面 每歲司禦院監造進上”(『楊根郡邑誌與地圖成冊』).

필의 옷감과 7석의 미곡을 급료로 받는 한편, 일반 농토에 대해서는 5결의 복호가 허락되었다. 민영화의 바람이 불기 이전 사기장은 그릇을 만들어 납품하는 일 외에 평시에는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이어갔다. 수공업촌으로서 분원리는 청사, 고간, 공작청의 시설을 축으로 사기장의 가옥이 주변을 둘러싼 취락의 형태를 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자기 제조를 위해서는 도토와 많은 양의 연료가 필요하다. 분원의 입지는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원료와 연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고갈되기 마련이었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수송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여기서 한강변의 분원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내륙수로를 통한 원료와 연료의 수송에 편리한 입지이기 때문이다. 광주 내륙에서 한강과 경안천이 합류하는 지점으로 분원이 옮겨진 데에는 바로 이와 같은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 백토의 경우 광주, 양구, 진주, 원주, 곤양, 선천, 경주 등지에서 산출되는 것이 양질의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특히 양구토(楊口土)는 형태가 일그러지는 일이 없고 빗깔이 고와 선호되었던 것 같다. 양구토는 19세기까지 분원 백토의 대종으로서 연간 500여 석 물량이 채굴되었는데, 춘천(200석)·홍천(100석)·낭천(100석)·인제(50석)·양구(50석) 등의 고을에 분담하여 북한강을 따라 운반하도록 하였다. 백토의 운반을 위해 홍천 2척, 낭천(화천) 2척, 인제 1척, 양구 1척, 춘천 4척 등 총 10척의 선박이 배정되었다. 연료는 분원 전용의 시장(柴場)에서 충당하였으나 삼림이 고갈되면서 변동책이 강구되었다. 그 첫번째로 제시된 안은 목재상인에게 매입하는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화목구입에 필요한 경비는 기존의 시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살고 있는 민가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들 가옥에 대해서는 가호세, 기경한 경지에는 화전세를 부과·징수하여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한강을 통해 서울로 올라가는 뿔감을 구입하자는 안이었다.⁹¹⁾ 한강상류에서 하류방면으로 내려가는 물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뿔나무였던만큼 상당히 현실적인 발상이었다. 분원리는 구한말에 이르러 민영수공업촌으로 바뀌었으며 이후에는 자기회사가 들어서기도 하였다.

3. 교통과 경제활동

1) 도로교통의 발달

도시화와 공업화로 대표되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교통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응하여 새로운 교통양식과 기술에 대한 탐색이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교통의 혁신과 쇄신이 이룩되었다. 새로운 양식의 교통기술이 실생활에 응용되면서

90) 홍희유, 1989, 『조선중세수공업사연구』, 지양사, 189쪽.

91) 송찬식, 1973, 『이조후기 수공업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강만길, 1984, 「왕조후기 분원의 운영실태」, 『조선시대상공업사연구』, 한길사.

지역간 전문화와 공간분업이 초래되었다. 지역지리의 변화 뒤편에는 교통발달이 자리하고 있었다. 교통은 거리상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인문현상의 하나이다. 교통의 발달은 궁극적으로 시간과 공간이 일체가 되는 시·공 수렴의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전근대사회에서 교통로는 공간상의 결절점을 이어주는 혈맥인 동시에 문화전파의 통로로서 중요하였다. 중앙집권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이기도 했던 교통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여객과 화물의 이동을 중재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의 성장을 도왔다.

교통은 육로·내륙수로·해로를 통한 여객과 물자의 지역간 이동을 의미한다. 양평의 경우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해로보다는 육로와 내륙수로가 지역지리의 형성과 발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 양평의 도로교통은 자연환경, 특히 지세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지역 중앙에는 용문산을 축으로 하는 고도 300m 이상의 연속된 산지가 자리하고 있다. 전 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교통망을 기대하기 힘든 형국이 아닐 수 없다. 지형적인 영향으로 남북간 연계가 불량하였다. 물론 산과 산 사이의 안부를 통한 지역간 연결은 가능하지만 다량의 물자와 여객을 수송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하였다. 남한강과 북한강을 따라서는 하안도로가 발달하였다. 간선도로는 양수리에서 남한강을 따라 동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다가 양근에 이르러 북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흑천계곡을 타고 올라가는 경로를 취하였다. 그밖의 도로 역시 소하천을 거슬러 올라가는 계곡로가 대부분이었다.

전산업시대 전국의 도로는 중앙집권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중요하였다. 당연히 교통망은 지역간 수평적인 연결보다는 왕도에서 지방의 행정중심지를 연결하는 수직적인 체계가 우세하였다. 국가운영에 필요한 정령을 전달하고 비상시 전략을 수립하는 데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로가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왕조의 교체와 함께 도로교통의 최대 결절점 또한 위치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수레바퀴 축으로 수렴하는 방사상의 도로패턴에는 변화가 없었다. 도로망은 육로교통을 유지·관리하는 가장 기초적인 설비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도로의 운영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기구와 조직이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다. 중앙집권적인 정치질서의 구축과 효율적인 방어체제의 일부로서 중앙정부와 읍치를 연결하는 관도는 지속적인 관심 아래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되었다.

교통은 연결성과 접근성을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운영의 방향이 모색되었다. 도로교통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역대왕조는 이미 삼국시대부터 역참제(驛站制)를 수립하였는데, 중국에서 이식된 이후에 우리 실정에 맞도록 짜임새를 갖추었다. 전산업시대의 관영교통체제로서 역참제는 숙박시설인 원과 일체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역원제(驛院制)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도로의 관리는 국사를 운영하는 데 최우선의 고려사항이었다. 도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는 각 지방으로 뻗은 도로를 일정 구간의 역도로 나누고 도로의 중요도에 따라 종6품관인 찰방 혹은 종9품의 역승을 파견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도로의 중요성은 전략적인 측면, 다시 말해 정치·군사·행정·외교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역도는 군현

경계와 무관하게 설정되었다. 찰방과 역승은 본역에 머물면서 역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관장하였으며, 본역은 하위에 여러 개의 속역을 두고 있었다.

관원, 사객, 기타 공무수행자는 속역에 비치된 역마를 이용하여 다음 역까지 이동하고 도 착지에서 다시 말을 갈아타는 방식으로 이동하였다. 여행자가 요구할 수 있는 말의 수효는 마패에 표시되었으며, 이용할 수 있는 말의 종류는 『경국대전』의 급마규정에 따로 명기되어 있다. 말에는 승용마와 화물운반에 필요한 짐말이 있었으며, 전자에는 말의 능력에 따라 상·중·하 3등의 구별을 두었다. 조선 후기의 법전인 『대전통편(大典通編)』에는 문무내외의 관원이 공적인 임무를 띠고 여행할 때 연도의 고을에 여행허가증인 노문(路文)을 발송하도록 규정하였다. 각 고을의 수령은 노문을 소지한 여행자의 숙박은 물론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었다. 노문에는 수행원, 이용 가능한 마필수, 여정, 목적지 등이 자세히 기록되었다.

조선 초기의 기록에 따르면 양근과 지평은 한양에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역대 국왕이 강무장을 두고 자주 찾았으며 용문산에서 산천제가 열릴 때에도 중앙에서 사람을 파견하였던 것으로 전한다. 양근에 있었다는 강무장이 정확히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구역 내에서는 일체의 사냥, 개간, 벌목 등이 금지되었다. 강무장은 종묘의례에 사용할 희생을 사냥하는 사냥터로도 중요하였다.⁹²⁾ 한편, 세종대왕 사후 여주에 영릉이 건립되면서 기일에 국왕과 헌관이 주기적으로 경기남부를 왕래하였다. 영릉에 이르는 길은 과거 광주와 이천을 지나는 도로 하나였는데, 두 고을의 부담이 컸기 때문에 성종대에 이르러 광주의 낙생·용인의 구흥역과 김양역·양지현을 지나는 도로, 양주 평구역과 양근 오빈역을 지나는 도로를 추가하여 접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조치하였다.⁹³⁾

양근의 오빈역과 지평의 전곡역·백동역은 경기도 양주의 평구역을 본역으로 하는 평구도(平邱道)를 따라 분포하였다(표 4). 평구도 찰방역의 업무는 역장인 평구찰방을 비롯해 역리, 역졸, 역정, 일수, 노비, 술인 등이 관장하였다.

표 4. 역 사례

군현	역	본역	역마	역리	역노	역비	원
양근군	오빈역	평구역	13	55	22	3	월계원(서 30리, 존), 다락원(서 20리, 폐), 말원(서 50리, 폐), 초원(서 40리, 폐)
지평현	전곡역		7		22	28	지덕원(서 10리, 폐)
	백동역		6		42	34	

출처 :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92) 『태종실록』 권27, 14년 2월 17일 신유; 3월 15일 무자; 권30, 15년 8월 25일 기축; 『세종실록』 권7, 2년 2월 22일 경신.

93) 『성종실록』 권27, 4년 2월 22일 계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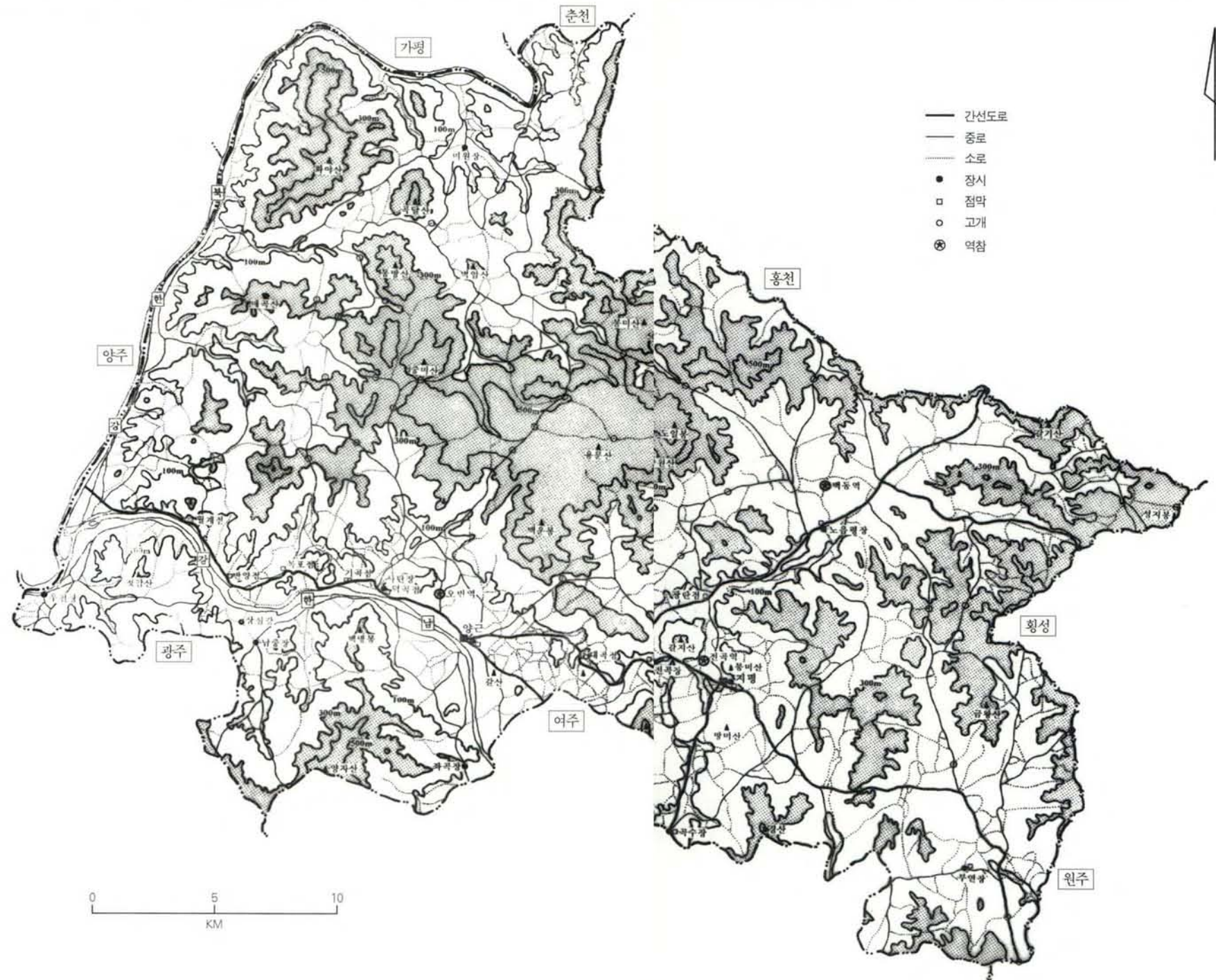


그림 20. 양근과 지평의 도로망(18·19세기)



사진 18. 백동역 구도로. 조선시대 역촌은 일반적으로 간선도로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백동역은 양근과 지평에서 강원도 홍천과 횡성으로 나가는 중간지점에 들어섰는데, 사진 우측의 구도로는 간선도로에서 역촌까지 이어진다. 시내를 사이에 두고 포장된 마을길이 새로 들어서면서 옛길은 기능을 잃어버리고 현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

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에서 지급하는 토지와 급료로 충당되었다. 『경국대전』의 규정으로 모든 역에 관둔전 12결이 지급되는 한편 공수전 명목으로 대로역에 20결, 중로역에 15결, 소로역에 5결이 추가로 배분되었다. 양근의 오빈역은 중로역, 지평의 전곡역과 백동역은 소로역이었다.⁹⁴⁾ 역마의 사육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마위전 명목으로 대마 7결, 중마 5결 50부, 소마 4결이 책정되었다. 역무에 종사한 대가로 지급되는 유역인전의 경우 장전 2결, 부장전 1결 5부, 급주전 50부가 배정되었다. 역의 운영과 관련된 이상의 토지를 일컬어 역전이라 하는데, 역전은 원칙적으로 자경무세지였다.

조선시대의 간선도로는 지방 행정중심지를 잇는 도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양근의 간선도로는 용진나루에서 시작해 남한강을 따라 읍치까지 이어지는데, 중간에 산허리를 끼고 도는 강변험로인 월계천(月溪遷)을 지나야 했다.⁹⁵⁾ ‘천(遷)’이란 물가의 돌길을 일컫는 신라의 방언이다.⁹⁶⁾ 양근 읍치에서 도로는 여주로 들어가는 대로와 지평 및 강원도 여러 지역으로 통하는 대로로 분기한다. 강원도로 향하는 도로는 대체로 흑천을 따라 큰 굴곡 없이 직선상으로 나아간다. 전곡장터 어귀에서는 도로가 갈라져 지평 읍치로 들어오는데, 관문 앞에서는 곡수장을 거쳐 여주로 빠지는 도로, 동남쪽으로 나아가 송현을 넘어 원주로 들어가는 도로, 흑천변의 광탄으로 이어져 강원도로 나가는 도로가 교차한다. 용두리는 강원도 홍천과 횡성의 갈림길에 해당한다. 이들 대로와 함께 양근과 지평에는 주요 취락을 잇는 중로와 산

94) 신경준, 『도로고』, 驛路大中小分定之式.

95) “月溪遷 在郡西三十里縈紆山腹下臨江水”(『신증동국여지승람』 산천조).

96) 한진호(이민수 역), 1993, 『도담행정기』, 일조각, 7쪽.

건너편의 마을로 통하는 지름길이 거미줄망을 형성하였다(그림 20, 사진 18).

전산업시대 주요도로를 따라서는 군인들이 검문소를 설치하고 출입을 감시하였는데, 역참이 아마 그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주요도로의 경우 검문소는 비공식적인 세관의 성격을 띤다. 다시 말해 상인들의 물품에 통과세 명목으로 일정 액의 세금을 징수하였던 것이다. 도로 이용자에게 세금부담은 매우 컸기 때문에 상인들은 주로 새길을 이용해 여행하였다.⁹⁷⁾ 관도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도적의 피해를 입는 것은 다반사였다. 1466년(세조 12)에 양근과 지평을 거쳐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는 강원도 유생과 행인이 피해를 보자 경기 관찰사에게 명령하여 도로가 지나는 고을의 수령을 국문하도록 명령이 하달된 일이 있으며, 1719년(숙종 45)에는 이 지역의 도적이 상납하는 군포와 기타 공물을 약탈당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⁹⁸⁾

역로를 따라서는 다양한 노변경관(路邊景觀)이 펼쳐진다. 30리 간격으로 도로표지 역할을 하는 적석과 장승이 설치되었으며 마을 입구의 느티나무는 길손이 여행길에 지친 몸을 쉬어갈 수 있는 그늘과 쉼터를 제공하였다.⁹⁹⁾ 역촌에는 마조신을 모시는 성황당과 마방이 갖추어져 있었다. 역원제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마였기 때문에 말을 관리하는 것은 상당한 고역이었다. 역마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기라도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역촌의 안녕은 곧 역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당집은 바로 말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의례공간이었던 셈이다. 행려의 숙박설비인 원도 중요한 노변설비의 하나였다. 일찍이 세종은 지평 유다곡에서 매사냥을 관람하고 지덕원(支/祇德院) 냇가에서 점심을 먹은 뒤 종현들에서 저녁을 보낸 일이 있다.¹⁰⁰⁾ 『여지도서』에 지덕원(之德院)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동일한 시설물임은 틀림없다. 지덕원은 18세기 말엽에는 이미 폐지된 것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오고가는 사객의 편의를 돕는 중요한 설비였다. 양근에는 월계원, 다락원, 말원, 초원 등이 운영되었으나 월계천상의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18세기 말엽이 되면 거의 모두 폐지되었다. 관영 숙박설비인 원은 원주가 운영의 책임을 맡았는데, 필요한 경비 는 원전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로원에는 1결 35부, 중로원 90부, 소로원 45부의 토지가 지급되었다. 원은 원칙적으로 공무수행자의 숙식을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되었다고는 하지만 일반인, 특히 양반 사대부를 상대로 영업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원은 역, 나루터, 고개, 교차로 등지에 입지하였으며 내부시설로는 주방, 마방, 청실, 누정 등이 있었다.¹⁰¹⁾

97) Mark Elvin, 1973, "The revolution in market structure and urbanization," in *The Pattern of the Chinese Past: A social and economic interpreta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67쪽.

98) 『세조실록』 권38, 12년 4월 15일 을묘 : 『숙종실록』 권63, 45년 1월 15일 무자.

99) 『목민심서』, 공전 도로조.

100) 『세종실록』 권6, 1년 11월 4일 갑진.

101) 최계경, 1975, 「조선시대 원에 대하여」, 『영남사학』 4, 56·62~64쪽.

전통적인 도로운영체계는 1894년을 기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신식 교통수단의 도입과 도로의 보수 및 확장이 진행되면서 역원제가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이 폐지의 가장 큰 원인이다. 구한말은 또한 일제가 한반도 진출을 위한 사전 정치작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기간에 해당하며 도로개수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도로망 정비의 일차적인 목표는 원료공급지로서 조선을 철저히하게 이용하겠다는 데 있었으며 나아가 대륙침략을 위한 발판을 놓겠다는 장기적인 포석이 깔려 있었다. 일본으로 향하는 항로의 기점이 되는 주요 항구의 개발과 함께 이들 항구로 수렴하는 모든 도로의 정비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통감부 치도국이 주관한 도로정비사업의 결과 양평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소위 신작로가 들어섰다. 신작로는 기존의 도로에 비해 노폭이 넓고, 가로수를 일정하게 심어 외관상으로도 식별이 가능할 뿐더러, 노면도 자동차·승합차·트럭을 고려해 평탄화 과정을 거쳤다.

일제강점 직후인 1911년 조선총독부가 발표한 도로규칙에는 등외도로를 포함해 모두 4종의 도로가 구분되었다. 경성과 도청소재지 및 군사령부, 항구, 철도역을 잇는 도로는 경제·전략적인 중요성을 고려해 1등도로(노폭 7.3m)로 지정되었고, 2등도로(5.5m)는 도청과 인접한 도청, 도청과 부·군청, 혹은 도내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도로, 3등도로(3.6m)는 도·부·군내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도로였다. 1·2등도로의 관리는 조선총독, 3등도로는 도지사, 등외도로는 부윤·군수의 소관으로 하였다.¹⁰²⁾ 일제시대 정비된 주요 신작로는 남한강, 흑천, 지평천, 곡수천, 갈운천 등의 하곡을 따라 조성되었다. 과거 용진도가 있었던 나루터를 건너면 양근까지 계속되는 남한강변의 도로가 나타난다. 가정리와 용담리를 지나면 하안상의 협로인 월계천을 통과하게 되는데, 반장리를 벗어나면서 도로는 내륙으로 약간 꺾이어 북포리로 향하게 된다. 이후 도로는 당곡리, 사탄리, 오빈리를 지나 양근에 도달한다. 남한강 남안에서는 광주 퇴촌면을 지나온 도로가 양근을 향해 들어오는데, 왕창리와 상심리를 거쳐 나루터가 있는 진변리에서 끝난다.

남한강 남북안에서 양근으로 유입하는 도로는 다시 세 방향으로 갈라진다. 한 갈래는 창대리·회현리·석장리를 지나 양덕나루에서 여주 이포로 건너가는 길이며, 또 하나는 회암·신천·불곡리·하자포리 등 남한강 동쪽의 여주 관내를 통과하는 길이다. 흑천을 타고 동북방향으로 나가는 도로는 강원도로 들어간다. 노선 중간에는 마룻리, 광탄리, 용두리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취락이 자리하고 있다. 광탄리는 여주와의 접경에 자리한 곡수장과 과거 지평현치에 해당하는 지평리를 지나는 도로가 유입하는 결절지이며, 용두리는 신당치를 넘어 홍천 양덕원으로 이어지는 도로와 도덕현을 넘어 횡성 풍수원으로 향하는 도로가 분기하는 중요한 길목이었다.¹⁰³⁾ 노선을 비교해보면 일제시대 양평의 신작로는 조선시대 양근과 지평의

102) 조선총독부, 1928, 『조선토목사업지』, 76~78쪽.

103) 대정 7년(1918) 작도 1:50000 지형도 참조.



사진 19. 지평역. 지제면 지평리 117번지에 입지한 지평역은 1940년 4월 1일 양평과 원주간 중앙선의 개통과 함께 보통역으로 역무를 개시하였다. 현재는 간이역으로 교통량이 많지 않아 한적한 편이다

역로와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의 도로를 대상으로 노폭을 확대하고 노면을 정비하는 추가적인 작업이 있었을 뿐이었다.

도로와 함께 철로도 양평의 교통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으로는 중앙선이 통과하는데, 1937년 1월 18일 청량리와 양평 구간에 대한 공사가 시작되어 1939년 4월 1일을 기해 52.5km의 선로가 완공되었다. 그에 앞서 1938년 2월 6일에는 양평 - 원주간 공사가 착수되어 1940년 4월 1일 완공되었다.¹⁰⁴⁾ 양평 관내에는 중앙선을 따라 양수, 신원, 국수, 아신, 양평, 원덕, 용문, 지평, 구둔, 매곡, 양동 등의 역이 생겨났으며, 역전에는 오고가는 여행자를 상대로 한 간이업무설비가 들어서 소규모 역전취락을 형성하였다(사진 19).

2) 수로교통

양평의 주요 하천은 군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남한강과 북한강이라 할 수 있다(사진 20). 한강의 본류는 흔히 남한강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유로연장 317.5km의 북한강은 한강 최대의 지류라고 하겠다. 한강 이외에도 홍천강 하류도 양평에 걸쳐 있다. 비록 대하천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양평 내부적으로는 청운면에서 발원하여 갈산면과 여주 개군면의 경계를 지나 한강으로 합류하는 흑천(41.5km)이 지역 주민의 생활과 관련하여 중요한 하천으로 거론할 수 있다.¹⁰⁵⁾ 흑천은 사료상에 신은천이란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아 내륙수로의 역할을 수행하지는 못한 듯하다. 이밖에 양평의 소하천으로는 우천, 미원천, 곡수천, 산음천, 석산천, 명성천, 북포천, 신내천, 용담천, 향리천, 세월천, 도곡천, 덕평천, 신복천, 성덕

104) 양평군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617·623쪽.

105) 조선총독부, 1919, 『조선지리지자료』, 86~89쪽.



사진 20. 양수리. 남·북한강 합류점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에서 내려다본 한강의 모습이
다. 남한강과 북한강은 양수리에서 만나 서쪽으로 흐른다. 사진 상단에는 남한
강, 하단에는 북한강이 흐르고 있다. 북한강변에는 왼쪽에서 차례로 양수철교,
양수교, 양수대교가 놓여 있다. 사진 우측에는 광주에서 한강으로 유입하는 경안
천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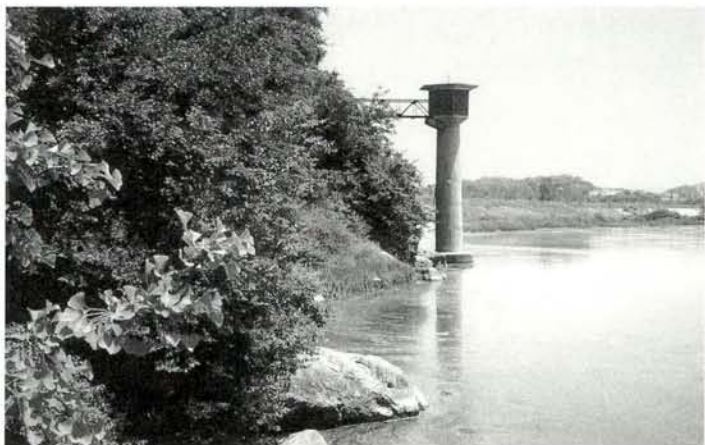


사진 21. 갈산강변 수위표. 한강은 한반도내 다른 하천과 마찬가지로 유황이 불안정하다.
강수량은 대부분 하계 집중호우시 방출되며 나머지 기간에는 유량이 부족하여 내
륙수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어렵게 한다. 특히 갈수기에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범
선은 끌어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천, 항금천, 영동천, 가정천, 문호천, 서후천, 벗고개천, 월산천, 삼성천, 석곡천, 매월천, 단
석천, 계정천, 벽계천, 중미천, 미세천, 금당천, 일신천, 양근천, 사탄천, 여물천, 용두천, 갈
운천, 덕수천, 고송천, 부안천, 대왕천, 지평천, 용문천, 중원천, 연수천 등이 있지만 마찬가지로
도로 교통로의 효용가치는 거의 없었다고 하겠다. 내륙수로로 중요한 하천은 남한강, 북한
강, 홍천강이었다.

내륙수운을 이용할 때에는 몇 가지 제약이 따르기 마련이다. 연중 강수가 고르지 않아 증

수기와 갈수기간 수위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운 또한 주변상황을 고려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사진 21). 강수의 대부분이 하계 집중호우시 유출된다는 사실은 나머지 기간에 이루어지는 수운에 큰 장애가 된다. 하천 상류로 갈수록 하상경사가 급해지고 암초와 여울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점도 있다. 겨울철에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하천수가 동결하여 내륙수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다. 운항이 가능한 기간이라도 소강과 하강에는 시간과 노력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수로는 다량의 물품을 빠르게 운반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단위면적당 수송비가 낮고 육로교통에 비해 수송효율이 높은 장점을 가진다.

보통 범선을 이용한 한강의 내륙수운은 임진강과 합류하는 지점에서 강원도 영월에 이르는 약 298.7km 구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강의 경우 양구군 서호리에서 남한강과의 합류점까지 약 137.6km에서 수로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었다. 시기상으로 12월 중순에서 다음해 3월 상순까지 계속되는 겨울철 결빙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배를 띄울 수 있지만 특히 해빙직후와 결빙직전의 소통량이 많았다. 선박의 규모는 구간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충청북도 단양 부근에서 우천리에 이르는 약 149km 구간에서는 미곡 50~60석을 적재할 수 있는 재래식 선박의 통행이 가능한 반면, 우천리에서 하구까지 약 90km 사이에서는 100~150석 규모의 범선이 무리없이 운항할 수 있었다. 북한강을 올라가는 범선은 대략 50석을 적재할 수 있는 규모였다. 내륙수로변의 주요 기항지로는 남한강 연안의 영월, 영춘, 단양, 탄금대, 목계, 백암, 여주, 양평, 우천, 뚝섬, 서빙고, 용산, 마포, 양화진, 북한강 연안의 화천, 춘천, 가평, 청평천 등을 들 수 있다. 용산에서 충주 부근까지 올라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7~14일이었지만, 하항에는 5일이면 충분하였다. 용산에서 춘천까지는 올라가는 데 10~20일, 내려오는 데 7일이 소요되었다.¹⁰⁶⁾

내륙수로는 국가적인 활동과 일반 상인 혹은 서민의 사적인 활동을 돕는 두 가지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먼저 한강은 조선시대 내륙지방의 세곡(稅穀)을 운송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바다를 통한 조운제와 대비하여 내륙수로를 이용한 세곡운송은 수참제(水站制)로 체계화되었다. 경기내륙, 충청도, 강원도, 경상북부의 경우 한강을 이용해 세미를 한양까지 수송하였는데, 충주 금천·가흥, 원주 흥원, 여주 이포, 양근 서심탄·대탄, 광주 용촌진·하진, 과천 흑석 등의 수참(水站)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였다. 수참은 수운판관의 책임하에 세곡을 실어나르는 일 외에도 공물수송과 사신영송 등 국사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다.¹⁰⁷⁾ 조선초 양근 대탄의 수참에는 15척의 선박이 구비되어 있었다.¹⁰⁸⁾

한강의 내륙수로는 선운업의 성장과 궤를 같이 하면서 발달하였다. 대동법의 실시와 함께

106) 경기도, 1922, 『경기도사정요람』, 84~86쪽.

107) 六反田豊, 1991, 「李朝初期漢江の水站制度について」, 『史淵』 128·77~120쪽.

108)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사진 22. 황포돛배. 두물머리에 남아 있는 범선으로 과거 인근 지역을 오고가거나 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였다. 강선은 갈수기에도 운항할 수 있도록 평지선의 형태로 제작되었다. 전면의 느티나무 그늘에는 매년 9월 마을에서 산천신에게 제를 올리는 제단이 있다

기존의 전세뿐만 아니라 대동미도 수운하는 쪽으로 결정되면서 한강의 수송량이 비약적으로 늘어났던 것이다. 중앙의 각급 관청과 공방은 물론 지방출신 양반 사대부의 지대곡 또한 한강으로 수송되었다. 미곡수송에는 관선이 동원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사선을 임운하는 쪽으로 선회하였다. 양근과 지평도 내륙의 여러 군현과 마찬가지로 임운에 의존하였다. 임운에는 경강상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것 같다.¹⁰⁹⁾ 경강상인이 소유한 선박과 함께 세곡수송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각 군현이 소유한 지토선(地土船)이었다(사진 22). 18세기 지평의 전세는 미곡 33섬 6말 5되 8홉, 대두 91섬 4말 5되 8홉이었다. 지평은 한강에서 떨어져 있어 세곡을 실어나갈 하항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3월을 기해 여주 자진포까지 육로로 운반하고 이후 선박에 선적하여 양근의 대탄·월계, 양주의 독음, 광주의 광진을 거쳐 용산에 도착하였다. 선해청에 납부하는 미곡 94섬 14말 2되 8홉 역시 선적 장소와 수송경로 및 시기는 동일하였다. 양근의 경우 전세로 미곡 59섬 4말 2되 5홉과 대두 192섬 4말을 2월에 수합해 3월 갈산진에서 적재하여 대탄, 병탄, 두미추, 추탄, 광진, 세고탄, 저도, 동작진을 거쳐 3일째 되는 날에 노량진에 도착하였다. 이후 호조가 지정하는 대로 광흥창이나 군자감 혹은 별영의 각 창고에 보관되었다. 양근의 대동미는 281섬 4말 7되 2홉의 규모였다.¹¹⁰⁾

정기적인 세곡운송과 함께 한강수로는 선상의 활동무대로 중요하였다. 한강변에는 간단한 접안시설을 갖춘 크고 작은 하항이 존재하였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물산의 집산지였다. 양근 남종면의 우천과 같이 시장의 기능을 겸한 하항은 해안의 갯벌장과 견줄 수 있을 만큼 빠른

109) 최완기, 1989, 『조선 후기 선운업사연구』, 일조각, 94~102쪽.

110) 『여지도서』 전세·대동조.



사진 23. 갈산나루. 남한강변의 나지막한 구릉성 산지인 갈산을 등지고 자리한 갈산나루터는 남시·남중·남종면을 이어주는 도하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강을 오고가는 상선의 정박지로 중요하였다. 양평대교가 놓이면서 기능이 사라졌다

속도로 성장하였다. 양근의 주요 나루로는 양주로 건너가는 관영의 용진도를 비롯해 여주와 이천으로 연결되는 갈산진, 서시면의 상심진, 고읍면의 월루진, 남종면의 청탄진, 서종면의 수여진과 수입진, 북면의 사참진 등이 있었다(그림 21, 사진 23). 이들 나루를 건너 양주, 여주, 이천, 광주, 가평 등지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¹¹¹⁾ 나루터에는 배를 타고 오고가는 여객과 상인이 쉬어갈 수 있는 주막이 있었으며, 가까운 거리에 정기시장이 있어 화물을 내리거나 싣는 데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꾼들로 번잡하였다.

양평을 기준으로 하류에서 올라오는 주요 물품으로는 소금, 어물, 젓갈, 잡화를 들 수 있고, 하류로 나가는 물품으로는 곡물, 땀감, 잡곡, 담배 등이 중요하였다. 특히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오는 소금은 희소가치가 큰 물품으로 성황리에 판매되었다. 소금은 체액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것을 포함해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였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고 일상생활을 무리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적어도 2g 분량의 소금을 섭취해야 한다는 통계치도 있는데, 사회발전 추세와 함께 소금의 소비량은 증대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제정권하에서 소금은 국가의 재원을 확충하는 전매품으로 중요하였고, 군사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소금의 공급로가 승패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물물교환의 주요 품목으로서 소금은 초보적인 가치척도의 기능 또한 수행하였다. 일반 서민에게는 초근목피로 연명

111) 『楊根郡邑誌與地圖成冊』(규10728).

112) 홍금수, 2001, 「소금의 역사와 문화」, 『해양과 문화』 6, 84~93쪽.

113) 조선총독부, 1929, 『조선하천조사서』, 397~399쪽.

114) 최순종(73세, 강하면 전수1리) 제보.

115) 『京畿道各郡訴狀』 9책, 광무 7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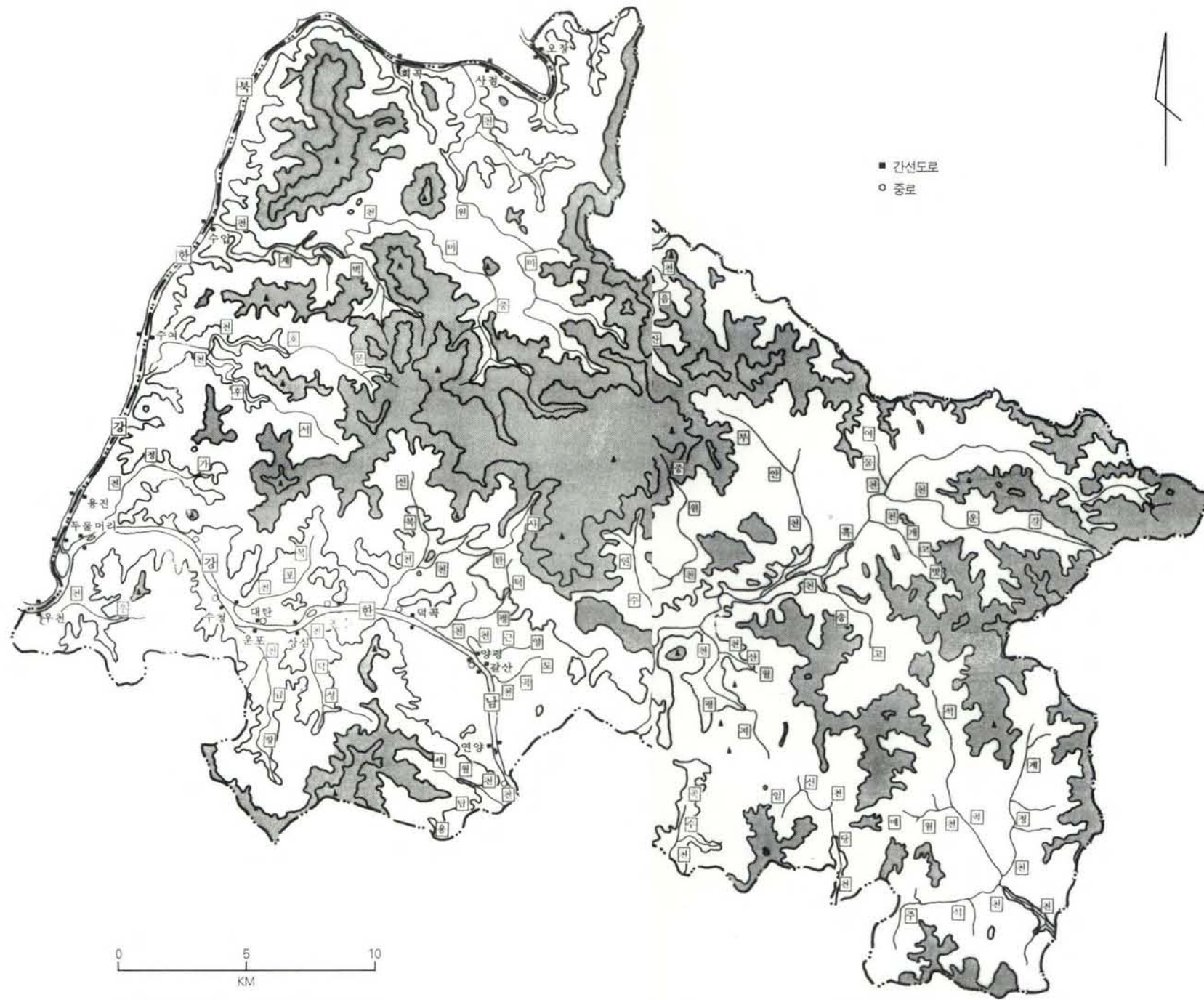


그림 21. 양평의 하천과 나루터

해야 할 상황에서 부황을 방지하기 위한 구황식품으로 없어서는 안될 식품이 소금이었다. 소금생산이 불가능한 내륙에서 소금길은 곧 생명선이었다. 이 길을 통해 산지의 임산자원, 평야의 곡식, 해안지방의 수산물도 또한 교류되었다. 지역간 교류를 증대시킨 소금길 덕택에 산간오지는 사회적인 고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으며 취락발달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¹¹²⁾ 양평을 오고가는 선박은 100석 규모의 범선이었다. 상류로 올라갈수록 선박의 규모는 작아지기 마련이었는데, 북한강을 벗어나 홍천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선박의 경우 60석 규모였다.¹¹³⁾ 소금을 싣고 올라오는 범선은 이보다 규모가 작았으며 배를 타고 온다기보다는 오히려 끌고 오는 편에 가까웠다. 여울을 만나거나 수량이 줄어들 때에는 선박의 소항이 어려워 배의 조타를 담당할 한 사람을 남기고 나머지 사공은 내려서 목도줄을 연장해 배를 끌고 올라갔다.¹¹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상류로 이동하였던 것은 그만큼 소금을 팔아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있었기 때문이다. 구한말에는 궁내부에서 해세과감을 두고 양근에서 매매되는 소금 1석에 엽전 3전의 세를 부과하였다.¹¹⁵⁾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오는 물품으로는 땔감, 숯, 목재가 중요하였다. 목재는 배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물종으로 특히 송목과 같이 전·병선과 조선 등의 선박을 제조하고 왕궁의 건축재나 관을 짤 때 필요한 수종은 자유로운 벌채와 매매가 허용되지 않았다.¹¹⁶⁾ 그러나 전통사회에서 목재는 시량(柴糧)이라는 별칭이 따라붙을 정도로 난방 및 취사에 없어서는 안될 생활필수품이었다. 사상들의 활동에 의해 목재거래는 왕성하게 진행되었다고 보는데, 판매용으로 출시되는 것은 국용목재를 피해 벌채하거나 생계를 위해 일반 농민이 투작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목상이 지방의 토호나 산직배와 결탁하여 목재를 공급하기도 하였다. 각급 국가기관의 시장(柴場)에서 채취된 목재도 수운되었다. 양근에는 사옹원 시장 외에도 군기사, 훈련도감, 상의원, 전생시 소속의 시장이 있었으며 대략적인 위치는 남한강 이남의 남시, 남중, 남종 등 남3면과 남한강 이북의 서중면과 북면이었다.¹¹⁷⁾

땔감은 선박에 실려 이동하기도 하지만 일시에 다량 운반할 때에는 목재 자체를 뗏목으로 엮어 띄우는 소위 ‘뗏배’ 형태로 강을 따라 하류로 내려갔다. 뗏류는 남한강과 북한강 양편에서 모두 행해졌다. 남한강을 따라 이동하는 뗏사공을 향해 강변의 소년들이 “돼지우리 지어라 멧석말이 돌돌”이라는 장난기어린 말을 건네곤 했다는 촌로의 회상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뗏목 운항은 항상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¹¹⁸⁾ 뗏목은 여러 바닥으로 구성되었는데, 보통 한바닥은 6m 정도의 목재 150여 개로 조립되었다. 뗏목의 운항은 해빙기이자 증수기인 3월과 4월 무렵에 시작되며, 빈도는 하천수의 증감에 따라 달라진다.¹¹⁹⁾ 뗏목은 가끔 모래톱이 쌓여 운

116) 오 성, 1989, 「목재상인과 송금정책」, 『조선후기상인연구』, 일조각, 59~108쪽.

117) 『京畿道各郡報告』 1책, 광무 4년 8월 31일 ; 3책, 광무 5년 9월 10일.

118) 정홍태(87세, 강상면 병산4리 571번지) 제보.

119) 강원대학교박물관, 1986, 『인제뗏목』, 강원대학교박물관 유적조사보고 5집.

행이 어려운 부분을 지나게 되는데, 특히 이런 지점에는 지역민으로 구성된 작업인부가 머무르면서 뱃길을 쳐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받는 소위 통천세(通川稅)가 부과되었다. 통천세는 선박이나 뗏목에 부과하는 통과세이자 수수료로 대개 싣고 가는 화물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백일세율을 적용하였다. 선주가 납부를 거부할 경우 폭력행사도 드물지 않게 벌어졌다.¹²⁰⁾

하상에는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는 암초가 많았다. 양근 대탄 부근의 것은 세곡운송과 관련해 국가적인 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암초는 한강을 가로지르고 있었는데, 물이 불었을 경우 보이지 않지만 물이 줄면 격랑이 일어 세곡수송선이나 지나는 일반 선박이 가끔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고려와 조선에서는 암초를 제거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정은 암초 주변에 목책을 둘러 물의 침입을 막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세종대에는 석공과 군인 100명을 동원해 돌을 깨내 배가 다니는 데 약간 편해지기는 했지만, 완결에는 이르지 못했다.¹²¹⁾ 암초를 파내는 작업에는 양근 주민이 수시로 동원되었으며, 그 때문에 실농의 피해를 염려하는 상소도 잦았다.¹²²⁾ 당시 말해지기로는 광진에서 여주에 이르는 구간까지 무려 26곳의 여울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대탄은 물살이 거세고 길목이 좁아 가장 험난한 곳이었다.¹²³⁾ 양근에는 이밖에도 세심탄, 파내탄, 사탄, 제탄, 병탄 등의 여울이 있어 운항하는 선박과 사공을 괴롭혔다. 여울목은 가물 경우 걸어서 도하할 수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선박이 헤쳐나가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단독으로 소항이 곤란한 경우 다른 선박과 선단(船團)을 이루어 함께 여행하는 방법으로 난관을 헤쳐나갔다. 여울이 나타나면 ‘폼앗이’ 하여 배를 공동으로 끌어나갔던 것이다.¹²⁴⁾

임진왜란 당시 전략적인 방어선으로 중요했던 용진과 파사성 사이에 들어 있는 남한강변의 여울목은 한양을 지키기 위한 광역 방어체제에서 군사를 주둔시켜 비상시를 대비해야 할 곳으로 비변사가 나서 건의하기도 하였다.¹²⁵⁾ 그러나 여울의 전략적 중요성이 발휘되지 못하는 평화시에는 내륙수로상의 장애에 불과하였다. 1823년(순조 23) 4월 12일에서 5월 13일에 걸쳐 단양까지 여행했던 한진호의 여행기에도 양평의 여울에 얽힌 일화가 소개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경험을 실감나게 들려주고 있다.

병탄(并灘)은 급한 여울이어서 거슬러 올라가기 매우 어렵다. 남쪽강과 북쪽강이 여기에 이르러 합류한다. 남강은 곧 습수(濕水)요 북강은 곧 선강(仙江)이니 두 강이 합해져

120) 농상공부, 1905,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경기·충청·강원)』, 348~349쪽.

121) 『세종실록』 권50, 12년 10월 15일 임오: “大灘在郡西十五里 卽波乃灘下流 有石橫截水中 水漲則不見 水淺則波濤激崩下道 漕船往往漂沒 高麗時王康建白稍鑿其石工未易就 而破自後水勢尤險 本朝世祖時遣具達夷鑿之 就水中設木槌圍其石 令瀾而鑿 竟亦未就……”(『楊根郡邑誌與地圖成冊』(규10728)).

122) 『영조실록』 권61, 21년 4월 5일 정미.

123) 『현종실록』 권22, 15년 3월 25일 기축.

124) 최영준, 1987, 「남한강수운」, 『지리학』 35, 55~56쪽.

125) 『선조실록』 권42, 26년 9월 26일 정축: 권82, 29년 11월 17일 기유; 권83, 29년 12월 8일 경오.

이름을 열수(洑水)라고 하였다……두 근원이 簇尺島 앞에서 합해져 병탄이 되었다. 옛날 두 강이 이 마을 앞에서 합쳐졌기 때문에 二水頭라고 이름했던 것인데, 지금은 물길이 점점 변하여 마을 아래 10리쯤 되는 죽척도 앞에서 합류한다……이 곳은 관동의 상류가 모이는 도회처이다……月溪遷 강가 기슭의 돌길이 얹히고 험하고 어렵다. 월계천 위가 곧 沙灘이니 곧 여지승람에 말한 바 沒乃灘이다……얼마 가지 않아 大灘 아래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는데, 이곳이 곧 상류의 가장 험한 여울인데 순풍을 얻어 돛을 달고 바로 올라가니 바람과 물이 서로 부딪쳐 물결이 드세서 마음이 몹시 두렵다. 여울 가운데 큰 돌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것을 세속에서 遮日岩이라 하여 물이 넘치면 보이지 않고 물이 얇으면 물결이 부딪쳐서 그 아래로 지나는 漕船들이 가끔 뒤집히기도 한다. 고려 때 왕강이 건의해서 그 돌을 깨뜨렸으나 공사를 이루지 못하고 중지했다. 세조조에 구달충을 보내 물속에 방죽을 세워 그 돌을 둘러싸고서 깨뜨렸으나 마침내 그 일을 이루지 못하니……저녁 무렵 誡灘을 지났는데 이상국 병모의 별장이 있던 곳이다. 저물게 物林禿村에 배를 대고 원씨 성을 가진 사람의 주점에서 묵었다……이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노라면 급한 여울이 많은데 長灘, 盤渦灘, 西心灘이라는 것이 모두 물살이 마치 지붕 위에서 물을 쏟는 것과 같다. 반와탄 아래에서 점심을 먹고 순풍을 얻지 못하여 여울을 올라갈 수가 없어 여러 배의 사공들이 힘을 합하여 돌러가면서 끌고 뱃머리에 네 개의 큰 밧줄을 매어 끌어올리는데, 앞의 배를 끌어올리고 나서 뒷배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자연 시간이 지체되어 강길이 지리함을 깨닫게 한다. 내가 탄 배는 23인이 끌고 5인이 밀어서 거의 만나절에 비로소 올라갔으니 물의 힘의 급한 것을 가히 알 수가 있다¹²⁶⁾……

한강변 주요 하항에는 화물의 선적과 하역을 위한 간단한 접안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다. 또 한 오고가는 여객과 상인을 위한 주막이 적어도 한두 채는 있었다. 장날이 다가오면 하항도 교역할 물품을 들고 찾아오는 출신인구로 붐비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한때 번성했던 한강변의 하항과 내륙수로는 철도의 등장과 신작로의 정비로 새로운 국면을 맞기에 이른다. 단적으로 말해 새로운 교통수단이 소개되면서 내륙수로는 급속하게 쇠퇴하였던 것이다. 중앙선의 등장으로 간이역이 하항 역할을 대신하게 되자 기존의 하항은 단지 한강 양안을 이어주는 도하기능에 전담할 수밖에 없었다.

3) 경제활동

(1) 농업

각종 지리서에는 양근의 풍속을 논하면서 주민들이 농업에 열심이라는 지역실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전산업시대 양평민의 생업은 농업이었다. 물론 취락의 위치에 따라 농업의

126) 한진호(이민수 역), 1823, 『도담행정기』, 일조각(1993), 9~25쪽.

형태와 밀도는 달라졌을 것이다. 넓은 평야가 발달한 지역의 경우 농업의 비중이 가장 컸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촌에서는 화전을 기반으로 한 조방적인 농업이 우세했을 것으로 보인다. 강변의 하향은 농업과 상업을 병행하는 인구 비중이 다른 곳에 비해 높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작물재배를 통해 생활을 영위한다는 측면에서는 모두 동일하였다.

양근과 지평의 농업상황을 알 수 있는 가장 이른 기록은 『세종실록』 지리지일 것이다. 동 기록에 따르면 양근은 땅이 메마르고 산이 높고 험하며 기후도 한랭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토지의 규모는 4,343결이었고 이 가운데 불과 6분의 1(약 724결)만이 논이었다. 전체적으로 밭농사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재배되는 작물로는 오곡, 조, 팔, 메밀, 깨, 뽕나무, 삼 등이 있었다. 지평 역시 땅이 메마른 것으로 설명되었는데, 3,335결의 토지 가운데 논은 5분의 1(약 667결)에 불과하였다. 오곡과 함께 조, 팔, 메밀, 뽕나무, 삼 등이 생산되고 있는 것은 양근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밖에 기록에는 언급되고 있지 않으나 채소, 과일 등 식생활에 빠질 수 없는 다양한 작물과 유실수도 재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으로 양 지역 모두 밭의 비율이 압도적인 점으로 미루어 아직 이앙법이 널리 보급되지 못했으며 따라서 수리시설의 개발도 부진했을 것으로 보인다.

18세기의 자료인 『여지도서』에는 양근의 논에 대한 기록에서 원전(元田) 379결 81부 2속 가운데 진결(陳結) 157결 49부 8속을 제외한 나머지 222결 31부 4속을 실결(實結)로 밝히고 있다. 밭은 원전 1,618결 97부 9속 가운데 진결이 901결 38부 7속, 실결이 714결 76부로 기록되었다. 산화전(山火田) 2결 83부의 소재도 파악되었다. 지평의 경우 원전의 규모만 거론되고 있는데, 논은 125결 39부 3속, 밭은 342결 39부 5속의 규모였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한 면적은 선초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이는 1결의 상대면적이 조정되었거나 경지개량에 의한 토지등급의 조정에 의해 초래된 결과이지 실제 경지면적이 줄어든 것은 아니었다. 논·밭의 비율은 상호비교가 가능한데, 선초에 비해 큰 폭은 아닐지라도 양근은 16.7%에서 19%, 지평은 20%에서 26.8%로 각각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수전비율의 증대는 곧 농업방식의 변화를 암시하며, 이는 곧 이앙법의 보급과 저수지를 포함한 수리시설의 확충을 의미한다. 19세기 양근의 양안에는 수전의 소재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평야의 명칭으로는 읍내면 대평·상평·하평·둔전평, 동종면 가지평·사지평·신대리 하평과 중평·회암리 중평, 고읍면 와부평·지변평·조산평·하남산평·남산평·산정평·두득평·구봉평·수외평·정법평·시위평, 남시면 갈산월평, 서시면 매화평·동산평 등이 있다.¹²⁷⁾

1905년에 편찬된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에는 양근과 지평의 농업상황이 좀더 구체적으

127) 『도광8년양근군전안』 : 『도광9년양근군전안』 : 『도광22년양근전답양안』 : 『도광26년양근군전안』 : 『도광28년양근전답양안』 (고려대학교도서관 소장).

로 소개되어 있다. 지주소유의 경지는 대체로 소작인이 경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소작료는 지평의 경우 논밭 모두 타조법의 예에 따라 납부하였다. 즉 종자와 조세는 지주가 부담하고 수확량의 절반과 부산물로 나오는 짚은 소작인이 차지하는 방식이었다. 양근의 경우 논에 대해서는 타조법, 밭은 1일경에 15~20두의 소작료가 부과되는 체제였다. 재배되는 농산물은 다양하였다. 채마밭에서는 옥수수와 함께 피마자를 심었다. 피마자는 야외에서도 여러 작물과 혼작 혹은 간작의 형식으로 재배되었는데, 3~4월경에 파종하여 10월에 수확하였다. 피마지에서 나오는 기름은 도발용, 약용, 등화용, 식용으로 중요하였다. 뽕나무는 지평의 성동·광양리·마산동과 양근의 대곡·덕곡·사탄·북포·노대곡·검단리·기두원·이수두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지평의 광양리·마산포·신대와 양근의 대곡·제탄·검단리에는 과수가 많았다. 지평의 흑천, 양근의 대곡·양근·오빈·도산에는 1~6그루의 대추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지평에는 섬유작물(면화), 유류작물(깨·호마), 과수(밤), 기호작물(연초) 등 다양한 농작물이 생산되었고, 양근에서도 벼·대맥·콩·밀 등 곡식과 섬유작물(닥나무·면화), 유류작물(깨·호마), 과수(밤·대추·배), 기호작물(연초)이 생산되었다. 주요작물의 종자는 서울에서 유입되었다. 농경에 필요한 소는 농가 100호당 10호의 비율로 분포하였다.¹²⁸⁾

양평은 한해가 적은 반면 풍수해가 잦은 지역으로 기록되고 있다. 도열병 피해도 심하여 때로는 절반의 수확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¹²⁹⁾ 전국적으로 가뭄 피해가 가장 컸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양평은 농업경제를 영위하는 데 비교적 유리했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논농사는 빗물에 의지하거나 하천수 또는 관개시설에 저장된 용수를 사용해 이루어진다. 양평지역에서 조선 후기 이래 확충된 수리시설로 구한말 당시 소재가 파악된 것으로는 연두평제언(신만제), 간마동제언(백동제), 망포리제언, 현내면지, 철지제언(남면제), 석실제언 등이 있었다. 신만리 연두평에 설치된 연두평제언은 몽리면적이 15섬지기를 약간 넘어서 지역 전체적으로 가장 규모가 컸던 저수지였다. 동종면 간마리에 소재한 간마동제언은 백동제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6섬 5마지기의 몽리면적을 두고 있었다. 지평 지곡에 있었던 현내면제언은 3섬지기, 과거 지평현 사창 인근에 위치한 철지제언은 2섬 4마지기의 몽리구역으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표 5). 제언과 함께 중요한 수리시설로 보를 들 수 있는데,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역단위로 많은 수의 보가 운영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9세기 양안에서 확인한 동종면의 신대리 방축, 축동리 축동, 갈방축, 고읍면의 와야지제, 유목제, 편전 이목제 등은 좋은 예이다.¹³⁰⁾ 천방관개의 중요성은 이미 15세기부터 인식

128) 농상공부, 1905,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경기·충청·강원), 461·503·555·582~583·586·588·613·633쪽.

129) 농상공부, 위의 책, 534·539쪽.

130) 『도광8년양근군전안』; 『도광9년양근군전안』(고려대학교도서관 소장).

되기 시작하였으며 사대부 지식인층이 보급을 위해 노력한 결과 조선 후기에는 보편화되었다고 한다.¹³¹⁾ 보는 계절적으로 수축해야 하는 번잡함이 따르기는 하지만 작은 노력으로 축조하여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표 5. 양평의 제언

위치	제언명	둘레	길이	넓이	수심	수문	수목	몽리
고읍면	연두평제언	422척	174척	72척4촌	2척	1	106(45주)	15석10두락
동중면	간마동제언	349척	97척5촌	80척	5촌	1	110(21주)	6석5두락
동중면	망포리제언	457척	124척	99척	5촌	1	150(18주)	
현내면	현내면지	384척	144척	76척	1척3촌	1	130주	3석락
남면	철지제언	724척	220척	176척	1척5촌	1	95주	2석4두8승
상동면	석실제언						산곡·사태	폐기

출처 : 『道光28年5月京畿各邑堤堰都結成冊』; 농상공부농무국, 1910, 『제언조사서』, 9쪽

수리시설의 보급과 함께 양평의 농업도 적지 않은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우선 수전농업의 비중이 약간 높아지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1909년 조사된 농업통계에 의하면 양평의 논과 밭은 각각 1,340결 32부 6속과 842결 18부 9속이었다. 전체 경지면적에서 약 38.6%가 논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다. 경지에서 생산된 작물로는 미곡 4만 1,449섬, 보리 4,392섬, 콩 4,454섬이었다.¹³²⁾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는 1910년의 통계는 좀더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있다(표 6). 맷쌀, 찰쌀, 발벼의 재배면적은 총 2,280.4정보였으며, 여기서 수확되는 미곡은 무려 14만 3,972석에 달하였다. 맥류의 재배면적은 902.4정보였으며, 겔보리 1만 6,529석, 밀 1,395석, 귀리 168석 등 총 1만 8,092석의 수확량이 기록되었다. 주곡인 대두는 755.1정보의 경지에서 7,351석의 수확을 올릴 수 있었다. 그밖의 작물로는 팥, 조, 수수, 피, 기장 등이

표 6. 양평의 농업현황(1910)

	면적(정)						수확(석·관)					
	맷쌀	찰쌀	발벼	맷쌀	찰쌀	발벼	맷쌀	찰쌀	발벼	맷쌀	찰쌀	발벼
미곡	2,734.2	143.8	2.4	136,710	7,190	72						
맥류	보리	밀	귀리	보리	밀	귀리						
	739.5	146.5	16.4	16,529	1,395	168						
두류	콩	팥	조	기장	수수	피	콩	팥	조	기장	수수	피
잡곡	755.1	50.2	31.2	2.7	18.3	10.8	7,351	1,004	936	67	632	324
특용	면화	대마	연초	깨	면화	대마	연초	깨	면화	대마	연초	깨
작물	80.4	39.5	103.8	51.7	1,616	1,185	6,228	103				

출처 : 조선총독부, 1910, 『조선총독부통계연보』, 25·40·55·62·77·92쪽

131) 이태진, 1986, 『한국사회사연구』, 지식산업사, 221~222쪽.

132) 통감부, 1910, 『제3차통감부통계연보』, 266쪽.

있었으며, 특용작물에는 면화, 대마, 연초, 들깨가 중요하였다. 연초는 재배면적(103.8정보)과 생산량(6,228관)에서 다른 작물을 압도하였으며 그만큼 지역경제에 끼친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잠업도 일부지역에서 시행되었는데, 당시 상전면적은 3.7정보, 고치수확고를 보면 춘잠 148석, 하잠 28석, 총 177석이였다. 누에를 사양하는 가구는 1,183호, 제사가구는 977호로 밝혀졌다.

양평의 농경지는 지역간 비옥도의 차이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밝혀진 바로는 1910년 이래 1914년까지 5개년 평균 수치로 걸보리의 단보당 수확량은 최저 0.105석에서 최고 1.455석으로 편차가 컸다. 미곡도 마찬가지로 최저와 최고수확량간 차이가 컸는데, 0.357석에서 3.033석으로 다양하였던 것이다. 농업경영 실태는 지주와 각 지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지면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평에는 총 1만 1,777명의 지주가 있었으며 지주 1인당 소유면적은 1.4421정보, 1인당 소유 필지수는 7필로 나타났다. 양평의 총면적은 10만 2,058.4정으로 조사되었다. 총면적에 대한 경지(1만 6,778.9정)와 대지(640.4정)의 합산비율은 17.1% 정도였다. 대지를 제외한 순수한 경지율은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³³⁾

양평의 경지 가운데 약 3%는 소유자가 국가로 등록되어 있는 국유지였다. 1923년의 통계를 보면 논 171.1정보, 밭 180.9정보, 대지 17.9정보, 기타 199.8정보를 합한 총 569.7정보가 국유지였다. 민유지는 논 7,756.4정보, 밭 8,428.2정보, 대지 625.8정보, 잡종지 2.8정보, 기타 2.3정보 등 총 1만 6,815.5정보의 규모였다.¹³⁴⁾ 국유지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해 조선총독부가 미신고지로 접수한 것을 포함해, 과거 왕실 및 각급 국가기관이 소유한 둔전과 역전 등 소위 역둔토에 기원을 두고 있다. 둔토에는 유토무세전(有土無稅田), 무토유세전(無土有稅田), 유도유세전(有賭有稅田)의 세 종류가 있었으며 양평에는 각종 형태의 둔전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지평에는 장용영의 무토유세전인 장둔을 비롯해 죽장광둔, 노일유토둔, 전곡역전, 백동역전, 서원토, 관둔이 있었으며, 양근에는 용호둔, 충훈둔, 군기시와 사옹원 소관의 시장, 상의원·전생시·훈련도감 소관의 시장화세전, 오빈역전, 서원토, 제언토, 관둔 등의 공토가 밝혀졌다. 수진궁은 지평에 16결 1부 9속의 면세전과 양근에 춘추 1,500동의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을 보유하고있으며, 명례궁 역시 양근에 200동 규모의 시장을 소유하였다.¹³⁵⁾ 이들 공토는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역둔토 명목으로 내장원에 귀속되었으며 유토와 무토의 구별 및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1920년대 들어서 양평의 농업상황은 해가 다르게 개선되고 있었다. 자연환경의 제약을 직

133) 조선총독부, 1918, 『조선지지자료』, 415·427·431쪽.

134) 조선총독부, 1929, 『조선하천조사서(부표)』, 1117쪽.

135) 『京畿道各郡報告』 2책, 광무 5년 2월 3일 : 3책, 광무 5년 9월 10일 : 7책, 광무 7년 10월 11일 : 8책, 광무 8년 6월 25일 : 9책, 광무 8년 11월 20일 : 9책, 광무 8년 11월 26일 : 『京畿道各郡開狀』 4책, 광무 5년 2월 : 6책, 광무 5년 10월 : 『壽進宮井間冊』 : 『明禮宮井間冊』.

접적으로 받는 농업의 특성상 작황은 해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지만 1910년에 비해 모든 면에서 사정이 나아지고 있었다. 미곡, 맥류, 두류의 주곡을 포함해 잡곡, 채소, 특용작물의 경작면적과 수확량은 월등히 신장되었던 것이다. 산미증식계획을 계기로 식민정부가 주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한 농법개량과 농경지개간의 단기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오는 데 신품종, 동력화된 수리관개, 정조법, 화학비료의 보급이 상당 부분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표 7). 그러나 이러한 외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내적인 운영상은 영세성을 벗어날 수 없었다. 1921년의 조사에 의하면 양평의 토지소유 및 경영구조에서 지주 4%, 자작 14%, 자작 겸 소작 33%, 소작 49%로 대부분 소작인에 의해 농토가 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¹³⁶⁾

표 7. 양평의 농업현황(1920~1922)

연도	1920		1921		1922		평균	
구분	면적(정)	수확(석)	면적(정)	수확(석)	면적(정)	수확(석)	면적(정)	수확(석)
벼	7,556.8	102,313	7898.9	61,422	7,899.4	62,444	7,785.0	75,393
겉보리	3,092.5	29,788	3092.5	29,995	3,031.4	23,212	3,072.1	27,665
밀	846.5	5,428	850.4	6,329	847.5	5,147	848.1	5,635
콩	4,902.5	39,283	5628.5	37,342	5,612.6	28,104	5,381.2	34,910
잡곡	2,174.1	17,431	2177.5	15,819	1,979.6	14,159	2,110.4	15,803
소채	626.3	1,932,924관	644.5	1,377,500관	627.6	150,296관	632.8	1,603,873관
면화	137.1	8,135근	166.8	16,757근	108.2	7,925근	137.4	10,939근
연초	39.7	23,835관	40.5	24,590관	36.8	21,474관	39.0	23,300관

출처 : 조선총독부, 1929, 『조선하천조사서(부표)』, 1119~1126쪽

1930년 1만 3,509호에 달하는 양평의 가구수에서 농가는 1만 2,678호를 차지하였다. 전체 7만 904명의 인구에서 무려 6만 5,616명이 농업에 관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호수로 미루어 전업호는 1만 2,099호, 겸업호는 579호로 대다수의 농가는 부업이 없이 농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좀더 세분하면 소유지 전부를 소작시킨 지주는 87호, 전부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소유한 경지 대부분을 소작시킨 지주는 519호, 자작농은 1,093호, 자작 겸 소작농은 3,143호, 소작농은 7,836호로 나타났다. 순수한 소작농가의 비율은 무려 61%에 달하고 있으며 자작 겸 소작농 25%를 합하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고 하겠는데, 결국 양평에는 영세농이 많았다고 하겠다. 화전농가도 65호나 되었다. 경지는 논 8만 731정보, 밭 8만 2,830정보, 화전 247정보 등 총 16만 3,808정보로 합산되었다. 수전 가운데 1,132정보는 이모작 논으로서 시기를 달리하면서 벼와 보리를 함께 재배하는 집약적 토지이용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화전을 포함해 농가 1호당 경지면적은 논 6.3단보, 밭 6.5단보, 총 12.8단보로

136) 경기도 내무부 사회과, 1924, 『경기도농촌사회사정』, 92쪽.

표 8. 양평의 농업현황(1930)

	면적(정)						수확(석·관)							
미곡	멥쌀		참쌀		밭벼		멥쌀		참쌀		밭벼			
	7,794.2		426		17.4		62,634		2,893		109			
백류	보리		밀		쌀보리		보리		밀		쌀보리			
	(논) 152.4		2		0.7		987		1		3			
	(밭) 3,403		856.4		26.9		22,431		4,407		142			
두류	콩	팥	녹두	완두	기타		콩	팥	녹두	완두	기타			
	3,851.2	1,249.4	243.8	3.6	77.5		14,736	3,408	546	10	183			
잡곡	조	피	기장	수수	옥수수	귀리	메밀	조	피	기장	수수	옥수수	귀리	메밀
	1,022.8	101.5	27.5	263.4	30.8	41.4	315.2	6,534	650	154	1,670	174	225	1,935
특용 작물	면화	대마	닥나무	호마	깨	피마		면화	대마	닥나무	호마	깨	피마	
	217	65.6	54.2	47.4	66.6	15.0		97,407근	13,708관	13,899관	167	287	112	
과수	사과		배		포도		사과		배		포도			
	943주		1,272주		18주		344관		4,518관		3관			
채소	무		배추		오이		무		배추		오이			
	332.6		233.3		35.8		477,137관		340,168관		52,334관			

출처 : 경기도, 1930, 『경기도농사통계』, 13·15~20쪽

계산되는데, 1정보를 약간 웃도는 수준이었다. 자작지와 소작지의 면적비는 31%와 69%로 나타났다. 이를 논밭으로 세분해서 살펴보면 자작논은 2,374.1정보(15%), 밭은 2,654.1정보(16%)였으며, 소작논은 5,694.6정보(35%), 밭은 5,620.2정보(35%)의 규모로 나타났다.¹³⁷⁾

농산물 통계를 살펴보면 양평의 농업은 이전에 비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표 8). 미곡의 재배면적은 8,237.6정보로, 수확량은 6만 5,635석으로 늘었다. 늘어난 수확량은 신품종 벼에 기인한 바 크다. 우량품종은 양평의 수전 총면적의 74%인 5,758.9정보의 논에서 재배되었는데, 규모로 보면 곡량도(5,033.4정보, 65%), 석백(259.6정보, 3%), 다마금(121정보, 2%), 조신력(160.8정보, 2%), 일출(184.1정보, 2%)의 순으로 재배면적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1단보당 수확량은 곡량도 853홉, 석백 828홉, 조신력 816홉, 일출 816홉, 다마금 807홉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곡량도의 재배면적이 가장 넓었던 것은 타 품종에 비해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가장 많았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당시 양평에는 43곳의 크고 작은 저수지가 있었으며, 무려 1,030처에서 보가 설치되었다. 양수기는 도입초기에 있었기 때문에 불과 2기밖에 실용화되지 못하였다. 기타 재래 설비로 2,948개가 있었으며 이들 관개시설과 기구에 의해 4,686.4정보의 농지가 혜택을 보고 있었다. 천수답은 3,382.3정보였다. 양평의 미곡생산량을 경기도내 22개 군과 비교하면 19위에 머물고 있다. 아마 논 면적이 넓지 못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137) 경기도, 1930, 『경기도농사통계』, 13·15~20쪽.

맥류는 대부분 밭작물이다. 양평에서는 겉보리와 소량의 밀·쌀보리가 논·밭의 이모작 작물로 재배되었는데, 152.3정보의 좁지 않은 면적으로서 991석의 생산량이 기록되었다. 나머지 4,286.3정보는 밭이며 여기서 재배되는 맥류는 총 2만 6,980석에 달하였다. 겉보리가 생산되는 경기도내 21개 군 가운데 양평은 17번째의 생산량을 기록하여 미미한 편이었다. 당시 재배되던 겉보리는 대부분 캘리포니아 원산의 품종으로서 984정보의 재배면적에서 643석의 생산량이 기록되었다. 콩, 팥, 녹두, 완두 및 기타 콩과작물의 생산도 그리 많은 편은 아니었다. 두류 경작면적은 5,425.5정보였으며, 생산량은 1만 8,883석으로 경기도내 두류생산이 가능한 20개 군에서 최하위의 성적을 거두는 데 불과하였다. 대두의 경우 우량품종으로 양평에 보급된 것은 장단콩으로서 486.9정보, 2,399석의 수확량을 올렸다. 조, 피, 기장, 수수, 옥수수, 귀리, 메밀을 포함한 잡곡의 생산량은 경기도내 22개군 가운데 8위에 해당하는 성적을 올렸다. 산전이 곳곳에 발달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밭작물은 많이 생산되었다고 보인다. 조는 1,022.8정보의 재배면적과 6,534석의 생산량으로 잡곡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실적을 올렸으며 구황작물인 메밀 또한 중요한 작물이었다. 섬유작물인 면화의 경우 육지면과 재래면이 함께 재배되었지만 대종은 전통적으로 재배해온 재래면이었다. 재배면적에서 육지면이 21.2정보에 그친 데 반해 재래면은 196.1정보에 달하였고, 수확량에서도 1만 1,029근과 8만 6,378근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1단보당 수확량에 있어서는 육지면이 52근, 재래면이 44근으로 이식품종이 우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양평의 면화생산 실적은 21개 군에서 20위로 그리 주목할 만한 수준은 못 되었다. 면화 이외의 섬유작물로는 대마 1만 3,708관, 청마 85관, 닥나무 1만 3,899관, 왕골 6,047관의 실적이 기록되었다.

식생활의 보조식품으로 중요했던 감자와 고구마도 적지 않은 양이 생산되었다. 고구마의 경우 48.4정보의 재배면적에서 5,386관의 수확을 올렸으며, 감자는 우량종과 재래종을 합쳐 129.1정보에서 15만 3,412관의 생산량을 기록할 정도였다. 무, 배추, 오이 등 김장용 채소와 사과, 배, 포도의 과수재배도 비교적 활발하였다. 과수는 대부분 외래종이었는데, 사과는 홍옥 339그루, 국광 112그루, 왜금 195그루, 축 297그루가 재배되고 있었다. 배의 경우 장십랑 514그루, 만삼길 347그루, 명월 214그루, 금춘추 197그루 등이 조사·확인되었다. 포도나무는 18그루에 불과하였다.

작물수확을 위해 다량의 비료가 투입되었다. 일반 농가에서는 비용이 소요되는 금비보다도 녹비와 퇴비에 대한 의존도가 컸다고 할 수 있는데, 녹비로 중요했던 것은 콩과 비치(vetch)였다. 녹비작물은 논과 밭에서 재배되었는데, 논에서는 콩 700정보, 비치 36정보, 밭에서는 비치 28정보가 할애되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수확으로는 콩 9만 459관, 비치 2만 4,456관이었다. 퇴비제조에는 323가구가 참여하고 있었으며 춘기 41만 7,210관, 추기 30만 9,109관을 합해 모두 72만 6,319관의 실적을 올렸다. 한 가구당 2,248관이 생산된 셈이다. 이 때는 이미 신식 농기구도 일부 보급되었는데, 발동기 3대, 동력용 양수기 1대, 개량쟁기 14

개, 탈곡기 498대, 정미기계 2대, 새끼짜개 30대, 가마니짜개 671대, 당기 326개, 만석 1대, 인습기 29대, 콩분쇄기 2대가 확인되었다. 전통농경이 근대적인 방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산지가 많은 양평에는 산촌과 산전의 비율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선초의 기록에도 양근과 지평은 산전이 대부분이라 매년 경작하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들판으로 나가 작물의 생육상황을 확인한 뒤 세액을 정해야 한다는 상소가 많이 올라 왔다.¹³⁸⁾ 그런데, 산전 대부분은 화전에서 출발하여 숙전으로 바뀐 것이라 할 수 있다. 화전은 이미 17~18세기에 이르면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계수단뿐만 아니라 양반 관료, 궁방, 기타 지배계층과 기관의 수입원으로 자리하게 된다. 국가적으로 보면 당시 농촌에서 유민이 급증하여 사회적인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터라 이들을 정주시키는 것이 시급한 일이었고 그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농경지 개간이 장려되었는데, 화전개간은 예외적으로 금지되었다. 산림황폐, 수원고갈, 민란의 우려 등 각종 폐해를 염려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전은 빈곤층의 호구지책으로 계속해서 확대되었다. 나무가 적고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적은 일부 산지의 허리 이하는 경지조성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화전개간의 일차적인 대상이 되었는데, 그밖의 경작금지 지역에서도 화전은 암암리에 확대되고 있었다. 화전은 우선 과중한 역을 피할 수 있고, 삼수미·대동미·각종 부과세가 없어 세율에서 평전에 비해 낮을 수밖에 없었으며, 개간 가능한 토지를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조정에서도 화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화전양안(火田量案)을 작성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세하는 쪽으로 정책을 폈다. 양전의 원칙에 따라 화전은 6등전으로 분류되었고 25일경을 1결로 환산하여 등록되었다.¹³⁹⁾ 그만큼 토지이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 될 듯하다. 『양근읍지』에 명기된 산화전 2결 83부는 그러한 원칙에 따라 파악된 공식적인 기록이고 그 외에도 조사되지 못한 넓은 면적의 화전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다.

1920년만 하더라도 양평에는 143정보의 화전이 있었다. 1924년에는 90정보로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무려 883호, 3,317명이 화전에 의지하고 있었을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생계유지 수단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1930년의 조사에 의하면 양평의 화전면적은 247정보로 늘었다.¹⁴⁰⁾ 화전은 화경의 운영방식을 취한다. 우선 경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지점을 선정해 벌목한 뒤 불을 놓아 초목을 태우고 타다 남은 재를 거름으로 삼아 파종하는 간단한 방식이었다. 개간에 그리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주변 여건만 허락한다면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었다. 경작 첫 해의 개간지는 '부덕이[火德]라 부르며 다음 해부터

138) 『세조실록』 권28, 8년 3월 9일 갑진.

139) 신호철, 1981, 「조선후기 화전의 확대에 대하여」, 『역사학보』 91, 58~91쪽.

140) 朝鮮總督府, 1926, 『火田の現状』 7·67쪽; 경기도, 1930, 『경기도농사통계』.



사진 24. 여물리 산전. 화전이 숙전으로 바뀐 개간지를 산전이라 부른다. 사진에서 농민이 작업하고 있는 경지 역시 화전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매년 경작할 수 있는 일반 경지로 바뀌었다. 산전에서는 주로 전작물이 재배된다. 산 능선이 만나는 지점은 덕수리 백동으로 넘어가는 백동고개로서 고개 정상부에는 여물리와 덕수리 주민이 오고가며 쌓아올린 적석의 흔적이 남아 있다. 현재는 이용되지 않아 통행이 어려운 상태이다

‘화전(火田)’이라는 용어를 붙이게 된다. 화전은 일정기간 경작하고 수확체감현상이 나타나 지력이 다했다고 판단했을 경우 휴경하는 조방적인 토지이용법으로 볼 수 있는데, 대개 3~4년간 경작하고 5~6년간 휴경하는 체제였다. 시비가 행해져 별도로 휴경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 숙전(熟田)으로 인정된다.¹⁴¹⁾ 숙전은 ‘산전(山田)’이라 명명되기도 한다. 청운면 여물리 인근에도 화전이 많았는데, 일제시대만 하더라도 여물리 전 가구의 약 10%는 화전을 일구어 콩, 조, 옥수수, 감자와 같은 밭작물을 재배해 생계를 유지하였다(사진 24).¹⁴²⁾

화전의 또 다른 주요작물로 연초를 들 수 있다. 조선 후기 이래 농업생산력의 증대로 상품화폐경제가 발전하였으며 그 결과 지역간 분업과 전문화가 이룩될 수 있었다. 고추와 연초 등 상품화가 가능한 신작물의 도입과 인삼과 같은 특용작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상업적 농업이 대세로 굳어져 가기 시작하였다. 전래 당시 약초로 인식된 연초는 소비층이 상류층에 국한되어 성장할 수 있는 폭이 좁았으나 신품종이 개발되고 재배방법이 체계화되면서 생산량이 늘고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기호품으로 성격이 바뀌었고 따라서 일반 서민층도 일상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되면서 상품화가 촉진되었다.¹⁴³⁾ 인삼, 채소, 면화와 함께 농작물의 상품화를 선도한 연초는 화전에서 재배가 성하였다. 용인방면에서 유입된 것으로 전해지는 양평의 연초는 자가수요를 위해 뒷밭에서 재배되는 것을 제외하면 화전에서 경작되는 것이 대

141) 朝鮮總督府, 1926, 『火田の現狀』 43~48쪽.

142) 원인식(69세, 청운면 여물리 93번지) 제보.

143) 이영학, 1985, 「18세기 연초의 생산과 유통」, 『한국사론』 13, 188·192·204쪽.

부분이었다.¹⁴⁴⁾ 1907년의 연초재배 상황을 보면 양근지역에서는 1,886호의 가구가 연초재배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경작면적은 3만 9,860정보, 생산량은 1만 1,161관에 달하였다. 한편 과거 지평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하서·하북 양면을 중심으로 1,504호가 연초를 재배하였으며, 2만 2,640정보의 재배면적에 6,339관의 수확량을 기록하였다.¹⁴⁵⁾ 일반 경지에서 대체로 3~5년 주기로 윤작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화전에서는 10년에 한 번 경작하는 데 불과하였다. 양평의 연초경작은 4월 상순경에 파종하여 6월 상순에 이식, 7월 중순에 적심, 8월 중순에 수확, 9월 하순에 건조를 완료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가공된 엽연초는 11월과 12월 전후해서 인근의 여주로 판매되었다.¹⁴⁶⁾

(2) 상업경제

향촌의 교역활동은 일차적으로 행정중심지에서 행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른 나라 담당 기관의 통제와 경찰 치안력의 도움을 빌어 약탈과 혼란의 걱정 없이 안심하고 교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반 농민을 상대로 한 교역은 전통적인 방식을 좇아 정기적으로 한 장소에 모여 매매가 이루어졌다. 지역경제는 시장경제와 무관할 수 없었다. 많은 농민은 자본주의의 침범이라 할 수 있는 시장과 친숙해지면서 소경영자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배양할 수 있었다. 시장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신종직업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각종 1차산업의 상업화가 진전되는 결과도 낳았다. 건축용 목재, 채소, 과일, 종이, 섬유, 기름 등 기존의 생활용품이 이제는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었다. 향시의 성장은 결국 소농경제의 상업화에 대한 원인이자 결과였다. 그리고 상품화폐경제의 발달 배후에는 능동적인 상인과 공인층이 있었다. 시장은 난립해 있는 듯 보이지만 엄연한 공간조직의 원리에 입각해서 배치되었다. 지역경제력의 수준에 따라 시장은 근접하지도 혹은 너무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위치가 정해졌다. 시장간의 경쟁을 피하고 촌락주민의 이동거리를 감안했을 경우 약 10km의 간격이 가장 이상적이었다. 상업발달은 업무의 전문화를 초래하였다. 보관, 수송, 회계, 중개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상인층이 속속 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상업발달은 곧 사회발전으로 이어졌다.¹⁴⁷⁾

초보적인 물물교환을 상업으로 포함시킨다면 양평지역 상업발달의 역사는 고대이전으로 소급시킬 수 있을 것이다. 좀더 체계적으로 교역이 진행된 것은 삼국시대 이후의 일로 추측되지만 생활사의 일부로 진행된 상업활동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어 실상을 파악할 길이 없다. 이론적으로도 국가는 물물교환과 재분배의 중간과정을 거쳐 교역 단계에 이르

144) 탁지부, 1909, 『제4회한국재무경과보고』, 498·503쪽.

145) 『제5회한국재정정리보고』(1907), 191쪽.

146) 탁지부임시재원조사국, 1911, 『한국연초조사서』, 57·131·137·185·191쪽.

147) Mark Elvin, 1973, "The revolution in market structure and urbanization", in *The Pattern of the Chinese Past: A social and economic interpreta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65~172쪽.

렸을 때 등장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¹⁴⁸⁾ 고려시대의 경우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된 시대적인 상황으로 미루어 국내상업도 그에 못지 않게 왕성했을 것이다. 조선시대는 사농공상의 구별이 엄격하여 상업이 천시되기는 하였지만 신분적인 구별을 엄격히 했다는 자체는 상인이 하나의 계층을 형성할 정도로 양적으로 성장했음을 반증해 준다. 농업의 토대 위에 성립된 조선왕조이지만 상업은 전·후기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경제활동의 일부였을 것이다. 조선 후기는 이양법의 도입으로 농업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신장되었고, 가내수공업도 대체로 활기를 띠고 있었으며, 인구성장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기간이었다. 농촌의 잉여인구는 유리민으로 지방 중심도시와 기타 인구밀집지인 도회로 유입되어 노동자가 되거나 상인 혹은 상업사용인이 되었다. 또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대동법의 실시로 공인, 수공업자, 상인의 역할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서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도로망의 정비와 금속화폐의 통용으로 측면지원을 얻을 수 있었다.

상품화폐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양평의 시장경제도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18세기 이후에는 개시일의 체계적인 조정으로 장시가 일정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상설시장권을 형성하면서 발달하였다. 해를 거듭하면서 장시가 신설되기도 하고 대장이 소규모 장시를 흡수하는가 하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 장시는 소멸되고 비슷한 규모의 두 장시가 통합되는 등 일련의 변화를 겪으면서도 개시일의 조정을 통한 시장권은 오래도록 유지되었다.¹⁴⁹⁾ 양평의 시장은 물화의 집산지로서 주로 교통의 결절점에 들어섰다. 1770년 무렵 양근에는 갈산장(1), 좌곡장(2), 사탄장(3), 상심장(5), 우천장(4), 미원장(2) 등 6기, 지평에는 읍내장(2), 곡수장(4), 부연장(3), 노음평장(1) 등 4기의 장시가 있었다(표 9).

갈산장은 양근 읍내장으로 한강변의 갈산나루와 사방으로 통하는 육로의 중간에 위치하였다(사진 25). 사탄, 상심, 우천 등의 장지도 한강변 나루터 혹은 여울이 위치한 지점에 들어선 장시였다. 좌곡장, 우천장, 상심장은 양근 관내에서 남한강 이남에 자리하였다. 좌곡장은 운포리에 있었던 상심장에서 5리 못 미치는 지점에 위치했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남한강 북쪽의 '윗상심' 대안인 '아랫상심' 이나 갈산나루 건너 남쪽으로 15리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세심리가 아닌가 한다. 미원장은 후미진 북면 전체를 상권으로 하는 시장이었다. 지평의 경우 곡수장은 여주와의 경계지점에 위치하여 양 지역주민을 상대하고 있었으며, 흑천변의 노음평장은 장둔면을 비롯한 지역 북동부, 부연장은 상동면을 포함한 남동부를 상권으로 하고 있었다. 개시된 장시에 대해서는 읍에서 장세가 부과되었다. 1794년의 부세상황을 기록한 자료에는 양근 읍내장의 경우 매달 2냥 4전, 사탄장 1냥 8전, 세심장 6전, 미원장 6전, 우천장 6냥을 포함해 한 해 총 136냥 8전의 장세가 납부되었다.¹⁵⁰⁾

148) Karl Polanyi, 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New York: Farrar & Rinehart.

149) 한상권, 1981, 「18세기말~19세기초의 장시발달에 대한 기초연구」, 『한국사론』 7, 180~237쪽.

150) 『賦役實總』(1794).

표 9. 양평의 시장(1770~1938)

	동국문헌 (1770)	임원경제 (1830)	읍지 (1842)	대동지지 (1860)	읍지 (1871)		토지농산 (1905)	택지부 (1909)	지지자료 (1914)	상공통계 (1927)	조선시장 (1938)
양 근	갈산(1)			읍내(1)	읍내(3)	양 평	양근(3)	홍문동(3)	읍내(3)	읍내(3)	양근(3)
	좌곡(2)	가좌곡(2)		좌곡(2)			남중(2)				
	사탄(3)	사탄(3)	사탄(3)	사탄(3)	사탄(1)						
	상삼(5)	심리(5)	상삼(5)	상삼리(5)	상삼(5)						
	우천(4)		우천(4)	우천(4)	우천(4)		우천(4)	우천동(4)			
	미원(2)	미원리(2)	미원(2)	미원(2)	미원(2)				미원(3)	미원(3)	
							월하리(4)				
지 평	읍내(2)			읍내(2)							양수(2)
		전곡(2)	상서(2)		상서(2)						
	곡수(4)	곡수(4)	곡수(4)		곡수(4)		곡수(4)	곡수(2)	곡수(4)	곡수(4)	곡수(4)
	부연(3)	부연(3)	상동(3)	부연(3)							
	노음평(1)	유평(1)	북면(1)	노음평(1)	북면(1)						
							용두(2)	용두리(2)	용두리(2)	용두(2)	용두(2)



사진 25. 양근 읍내장터. 양근 읍내장은 양근천변에 자리하며 가축장도 겸해서 열렸다. 사진에 '동물시장'이라는 표기된 곳과 배수펌프장 너머가 바로 장터거리에 해당한다. 갈산나루를 거쳐 유입된 한강하류의 물화와 경기 및 강원내륙의 물화의 집산지로서 중요한 시장이었다

1830년에 개시된 장시는 양근과 지평을 합해 모두 8기로 전에 비해 2기가 줄었다. 양근의 갈산장과 우천장이 빠져 있고, 지평에서는 읍내장을 대신해 상서면의 전곡장이 새롭게 등장하였다. 개시일이 같고 지리적으로도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만큼 읍내장의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다. 우천장의 경우 기록에 누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열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기록상으로 1910년까지 존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근의 출시

품목에는 뽕감, 쌀, 잡곡, 무명, 삼베, 어물, 대추, 감, 연초, 명석 등이 올라 있다. 지평에서는 뽕감, 쌀, 콩, 보리, 깨, 무명, 삼베, 어염, 철기, 유기, 옹기, 연초, 소 등이 거래되었다.¹⁵¹⁾

10년이 지난 이후의 상황을 담고 있는 『읍지』의 기록을 보면 장시의 수에는 변화가 없고 단지 양근에서 좌곡장이 철회되고 우천장이 다시 개시되는 변화가 있었다. 장시의 명칭이 소속면의 이름으로 바뀌기는 하였지만 위치와 개시일은 동일하였다. 『대동지지』에 올라 있는 장시는 모두 9기이다. 양평에서는 읍내장과 좌곡장이 다시 등장하였고, 지평의 경우 상서장과 곡수장이 빠지는 대신 읍내장이 추가되었다. 대동지지의 기록이 대체로 전대의 지지서를 참고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의 신빙성은 다소 떨어진다. 지평의 곡수장도 여주에 소속된 것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반면 1871년의 『읍지』에 거론되고 있는 8기의 장시는 당시 개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근에서는 읍내장이 개시일 3·8일의 5일장으로 다시 등장하였으며, 사탄장은 읍내장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1·6일로 개시일을 변경하였다. 지평에서는 간선도로변에서 좀 들어가 있는 부연장이 급기야 철회되는 변화가 있었다.

양근과 지평이 양평으로 통합된 이후의 시장기록은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에 올라있다. 당시 양평에는 양근장(3), 남중장(2), 우천장(4), 곡수장(4), 용두장(2) 등 모두 5기의 장시가 열렸다. 양근장은 읍내장을 계승하였고 남중장은 현재 강하면 왕창리에 소재하였는데, 현재는 논으로 바뀌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단지 '장터논'이라는 지명만 남아 있다. 용두리에 시장이 새로 들어선 것도 주목된다. 이들 시장으로 유입되는 물품으로는 한강하류에서 올라온 소금과 어물이 가장 중요하였으며 미곡, 콩, 팥, 유박, 길경근 등은 타 지역으로 팔려 나가는 주요 품목이었다.¹⁵²⁾ 일제강점 직전 탁지부 사세국에서 조사한 양평의 시장은 모두 5기로 양근장이 홍문동장이라는 다른 명칭으로 표기되고, 남중장이 철회되었으며, 군내면에 월하리장(4·9)이 추가되는 변화가 있었다. 당시 양평의 주요 거래품목으로는 쌀, 콩, 팥, 면화, 연초, 옷감, 종이, 짚신, 어염, 도기 등이 있었다.¹⁵³⁾ 군내면에 들어선 월하리장은 아마도 과거의 지평읍내장으로 추정된다. 1910년의 통감부통계연보에도 양평의 장시가 5기였다고 소개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월하리장이 한동안 운영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들 장시의 월별 평균 거래액을 보면 축산물 4,140엔, 직물 3,351엔, 농산물 1,880엔, 잡화 441엔, 수산물 210엔으로 총 1만 22엔을 기록하였다.¹⁵⁴⁾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한 축산물은 재래시장에 딸린 가축시장에서 거래되었다. 1911년 보고에 따르면 가축시장은 5기로서 한해 소 2만 6,260두가 출시되어 3,480두가 실질적으로 거래되었는데, 매매액은 6만 9,600엔에 달하였다.¹⁵⁵⁾

151) 『임원경제지』 예규지 4, 화식 八城場市條.

152) 농상공부, 1905,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 670쪽.

153) 탁지부사세국, 1909, 『한국각부군시장상황조사서』.

154) 통감부, 1910, 『제3차통감부통계연보』, 319쪽.



사진 26. 곡수장. 곡수장은 이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18세기부터 20세기까지 개시일(4·9)의 변경 없이 지속된 장시이다. 곡수천변 좌안에 자리한 곡수장은 여주와의 경계에 자리하여 두 지역 주민이 찾던 시장으로서 농산물과 임산물로 주로 거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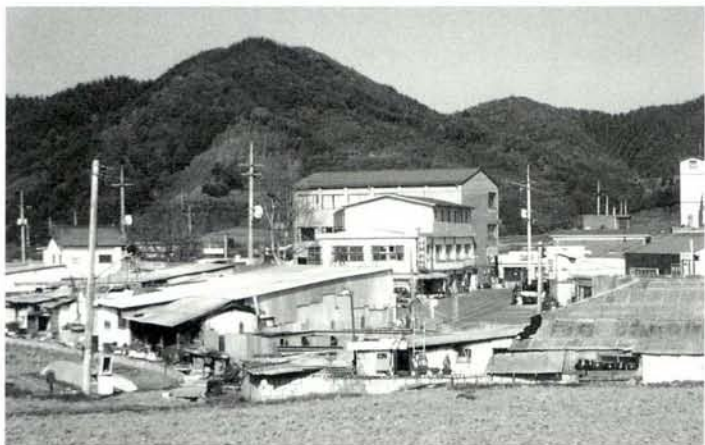


사진 27. 용두리장터. 홍천과 횡성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자리한 용두리는 교통의 요지로서 20세기 초에 2·7장의 정기시장이 개설되어 현재까지 계속해서 장이 열리고 있다. 장은 사진 중앙의 넓은 공터에서 열렸으며 주변에는 허름한 가옥이 둘러싸고 있다. 가옥 뒤에는 경지가 바로 닿아 있는데, 시장터 주민의 생업은 농업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1914년의 시장상황을 담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양평에는 곡수장(4), 읍내장(3), 용두리장(2) 등 모두 3기가 존재했다. 이 지역 장시 가운데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들인데, 새로운 교통수단과 행정체제에 맞추어 공간조직이 새롭게 형성되어 가는 와중에 경쟁력이 떨어지는 몇몇 장시는 철시된 듯하다. 갈산면의 읍내장에는 소, 쌀, 무명, 소금, 명태 등이 주로 거래되

155) 조선총독부, 1911, 『조선총독부통계연보』, 106쪽.

표 10. 양평의 시장(1927)

시장명	소재지	경영자	개시수	농산물	수산물	직물	축산물	잡화	계(門)	개시일
읍내장	갈산 양근리	갈산면	73	13,326	1,447	3,125	192,716	6,256	216,870	3·8
곡수장	지제 곡수리	지제면	73	8,809	2,527	3,183	123,989	3,819	142,327	4·9
미원장	설악 신천리	설악면	73	380	260	210	27,149	600	28,599	3·8
용두장	청운 용두리	청운면	73	9,337	1,835	4,891	4,819	1,519	22,401	2·7

출처 : 경기도, 1927, 『소화2년상공통계』, 48쪽

있으며 한 해 거래액은 5만 8,818엔으로 기록되었다. 그 다음은 4만 2,000엔의 실적을 올린 지제면의 곡수장으로 소, 쌀, 무명, 명태, 신탄 등의 출시품목이 있었다(사진 26). 청운면의 용두리장은 쌀, 삼베, 무명, 명태, 해조 등의 거래를 통해 1만 8,131엔의 매매액이 기록되었다(사진 27).¹⁵⁶⁾ 1927년이 되면 장시는 설악면 신천리의 미원장이 추가되어 모두 4기가 운영되었다(표 10). 시장은 각 면에서 운영하였으며 한 해 73회의 개시가 기록되었다. 출시품에는 농산물을 비롯해 축산물, 수산물, 직물, 잡화 등 다양하였다. 거래액에서 읍내장은 21만 6,870엔으로 가장 규모가 컸던 시장으로 기록되고 있으며, 곡수장도 14만 2,327엔의 매매액으로 비교적 출시인구가 많았던 장시로 밝혀졌다.

1930년대가 끝나갈 무렵 양평에는 양근리, 신천리, 용두리, 곡수리 등 네 곳에 자리한 기존의 장시에 양서면 양수리의 양수장(2·7)이 추가되어 모두 5기가 운영되었다. 남한강과 북한강의 합류부에 입지한 양수리의 경우 양수교의 완공으로 양주와 이어지고 1939년 중앙선의 간이역이 들어서 일약 도로·철도·수로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이러한 교통상의 이점이 추가되어 일개 나루터촌에 불과했던 양수리가 물화의 집산지로 거듭날 수 있었다. 1938년의 시장거래액으로 판단하여 지역내 최대시장은 양근장으로서 111만 882엔을 기록하였다. 곡수장에서는 그 다음으로 많은 27만 350엔, 신설된 양수장은 그에 약간 뒤진 22만 1,720엔, 미원장에서는 15만 8,069엔 상당의 거래가 있었다. 용두장은 3만 7,046엔으로 규모가 가장 작았다.¹⁵⁷⁾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한데 모여 물품을 거래하는 장소이다. 물물교환과 같은 초보적인 교환체계에서는 상인과 구매자의 구별이 모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업경제가 발달하면서 전문적인 상인이 출현하였고, 회계와 부기 등 관련 지식의 축적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상거래의 주체로는 보통상인, 중개상인, 기관상인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보통상인과 중개상인이 상거래를 주도한다고 하겠다. 보통상인에는 생산자나 다른 상인으로부터 일시에 다량의 물품을 구입한 뒤 이를 다른 상인 또는 제조업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상인과 도매상이나 생산자로부터 직접 물품을 구입해 일반 소비자에게 소량씩 판매하는

156) 조선총독부, 1918, 『조선지리지자료』, 367쪽.

157) 문정창, 1941, 『朝鮮의市場』, 일본평론사, 243쪽.

소매상인으로 구성된다. 한편 중개상인은 거래를 중개한 대가로 부과하는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상인을 지칭하며, 여기에는 특정 상인을 대표해 영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맡아 운영하는 대리인, 타인이 위탁한 물품을 자신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객주, 이해 당사자 간 거래를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거간, 운송업자와 화물주인의 중간에서 계약을 체결해주는 운송취급인, 위탁받은 물품을 공개된 장소에서 경매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매인이 포함된다.¹⁵⁸⁾

양평에는 이들 상인이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체가 밝혀진 것은 1909년 2명의 객주에 불과하다. 과거 양근에 속했던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들 객주는 백목·동포·당목·광목·옥양목·생당포·대하·광동포를 포함한 직물, 북어·미역·소금과 같은 해산물, 누룩, 웅기, 등유 등을 취급하였다.¹⁵⁹⁾ 객주의 본 업무는 위탁매매 및 중개이고 일시적으로 창고, 대출, 수송분야에도 관여하기도 한다. 취급하는 물종은 대개 곡물, 우피, 연초 등 지방특산물이었다. 객주는 시세를 의뢰인에게 알려주면 의뢰인은 시장 가격이 높은 때를 기다려 원하는 판매가격과 함께 화물을 객주에게 발송해 판매를 위탁하게 되는데, 객주는 화물을 받는 동시에 임치표(任置票)를 발급한다. 판매가 끝나면 구문과 제반 경비를 제한 잔액을 의뢰인에게 송부하는 체제였다. 상거래에서 현지사정에 어두우면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기 어려운데,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객주가 있었다. 객주의 부수업무인 대출업은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한다. 우선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화주가 객주에게 위탁판매를 의뢰한 뒤 갑작스럽게 시세가 변하여 판매가 불투명할 때 화주가 위탁한 화물을 담보로 객주가 자금을 변통하는 경우이다. 이때 객주는 화물을 판매한 뒤에 빌려준 대출금을 제한 나머지만을 의뢰인에게 송부하면 된다. 다른 하나는 지방 농산물을 매입할 때 객주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이다. 이때 매입한 농산물은 매입자금을 마련해준 객주를 통해 판매하기 때문에 객주는 흔쾌히 응할 수 있는 것이다. 객주의 부수활동인 창고업과 수송업은 의뢰인의 화물을 운반하고 보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로서 수익을 목적으로 이를 전업으로 수행하는 예는 드물다고 하겠다.¹⁶⁰⁾

좌상인 객주보다 활동영역이 넓었던 것은 행상인 보부상이었다. 보부상은 행정경계를 초월해 개시일에 맞추어 순회하던 상인으로서 붓집장수인 보상과 등집장수인 부상을 포함한다. 취급하는 물종과 행동반경이 다르기는 했지만 보부상은 엄격한 규율과 규약을 가진 상인길드로서 자체방어를 위해 무리를 지어 움직였다. 이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였지만 간접적으로 유통을 활성화시킨 것 외에도 지역간 정보전달의 매개자로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다.¹⁶¹⁾ 보부상이 판매하는 물품은 객주와 같은 좌상이나 방문한 장지에서 또는 이동시 일반

158) 切田太郎·古籐市太郎, 1917, 『개정조선상업제요』, 11~15쪽.

159) 『조선』 2권 3호, 1908, 『朝鮮の間屋制度』, 78~79쪽.

160) 내외상품신보사편집부, 1915, 『조선상업총람』, 9~11쪽.

농가에서 구입하였다. 농촌을 순회하면서 행상하던 일반 상인의 활동도 활발했을 것이다. 보부상의 조직력은 없었지만 촌락을 돌며 집집마다 방문해서 판매하는 가운데 촌락민과 신뢰를 기초로 한 상거래 관계를 유지하였다. 지역 농민들도 잉여농산물을 운반해 시장바닥에 벌려 놓고 다른 농민의 것과 맞바꾸거나 판매하였다. 정오 무렵에는 주막에서 국밥, 순대국, 탁주, 메밀국수 등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간간이 벌어지는 연예행사를 관람하기도 하였다. 장시는 이처럼 유무상전(有無相遷)하는 물화교역의 장소인 동시에 정보교환, 홍보, 오락 및 유희의 공간이었다.¹⁶²⁾ 과장할 무렵이 되면 농민은 판매하여 얻은 현금으로 농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뒤 귀가길에 올랐다. 한강을 오고가는 선상의 활동도 활발하였다. 양평은 경강은 물론 해로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염의 거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았다. 구한 말에는 궁내부에서 거래되는 어염에 대해 춘추로 500냥의 세금을 징수할 정도였다.¹⁶³⁾

(3) 기타 경제활동

1910년 내부경무국에서 조사한 자료에는 전국의 직업호가 제시되어 있다. 당시 양평에는 총 1만 3,351호가 있었는데, 호주의 직업을 가지고 분류해본 결과 관공리 49호, 양반 646호, 유생 83호, 상업 354호, 농업 1만 2,917호, 공업 121호, 노동 194호, 기타 6호, 무직 29호 등으로 나타났다. 중복된 직업이 있기 때문에 직업호 총수는 실제 호수보다 더 많은 1만 4,399호였다.¹⁶⁴⁾ 양반과 유생의 경우 직업보다 신분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당시 양평의 주요 산업은 농업과 상업이었다. 위의 분류에서 공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가내수공업에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 분원의 자기회사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노동력을 상품화한 일일노동자 가구도 194호나 되었는데, 이들은 하항이나 광산에서 일하거나 농번기 일손을 공급하는 농업노동자로 판단된다. 지명으로 미루어 보면 남중면의 상심리와 사기막리, 서종면의 사기막와 동점리, 서시면의 도곡리 등은 사기제조와 관련된 활동이 있었던 곳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농업의 비중은 압도적이었으며 상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부과된 신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일찍 폐기되기는 하였지만 지평에는 세종 초까지 철장이 있었으며, 양근에 소재한 사섬서 분서에서는 공장 30명이 동원되어 50개 대장간에서 동전을 주조하였다.¹⁶⁵⁾ 아전과 이졸 및 인부 200인이 한 조가 되어 두 조가 금광에 동원되기도 하였으며, 조정에서 연군을 지원해 다량의 숯을 구워 병기도감에 올

161) 문정창, 1941, 『朝鮮의市場』, 일본평론사, 42~43쪽.

162) 김대길, 1992, 「조선후기 장시의 사회적 기능」, 『국사관논총』 37, 173~200쪽.

163) 『京畿道各郡圖狀』 9, 광무 7년 4월.

164) 내부경무국, 1910, 『민적통계표』(이현창 편, 1997,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87쪽.

165) 『세종실록』 권148 지리지 : 권25, 6년 7월 26일 기해 : 권26, 6년 10월 20일 신유.

려보내는 작업도 행해졌다.¹⁶⁶⁾ 궁가의 시장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분묘를 설치하였다는 죄명으로 일정량의 솥을 부과하여 거두는 사례도 있었다.¹⁶⁷⁾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업무는 정기적인 것은 아니었다. 단, 사옹원 분원의 경우는 예외로서 춘추 양기에 그릇을 구워 중앙으로 올려보내야 했기 때문에 전문 수공업으로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분원의 공장은 사옹원이 소유한 시장과 무토면세지에서 나오는 세미의 일부에서 지급되는 급료로 생활하였다.¹⁶⁸⁾ 분원에는 구한말 당시 양근분원번기회사(楊根分院燐器會社)가 설치되어 한동안 내장원에 사기를 제조해 납부하였다.¹⁶⁹⁾ 이 전통이 이어져 1911년 6월에는 근대적인 조직을 갖춘 분원자기주식회사의 창립을 볼 수 있었다. 분원리에 설립된 이 회사는 104평의 대지에 자본금 2만 엔과 2명의 기술자 및 14인의 직공을 갖추었으며, 한해 약 270일의 작업을 통해 3,000엔 상당의 제품을 생산하였다.¹⁷⁰⁾ 1920년 4월에는 양평 갈산면 양근리 414번지에 광동자동차주식회사가 이 지역 최초의 운수업체로 발족하였다. 사장인 변상호는 공칭자본 2만 5,000엔과 불입자본 12만 5,000엔으로 사업을 출발하였다.¹⁷¹⁾

1930년 양평의 직업분류를 통해 지역경제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10세 이상

표 11. 직업대분류(1930)

	1-9	농업	수산업	광업	공업	상업	교통	자유업	자가사용인	기타	무직
양평	36,033	31,696(43.1)	8(0.01)	192(0.26)	511(0.7)	1,361(1.8)	406(0.55)	410(0.6)	403(0.5)	1,046(1.4)	37,566(51.0)
갈산	3,915	2,988(33.9)	1(0.01)	1(0.01)	131(1.5)	315(3.6)	102(1.16)	99(1.1)	110(1.2)	168(1.9)	4,888(55.5)
양서	3,243	2,852(51.0)	1(0.02)	2(0.04)	53(0.9)	140(2.5)	104(1.86)	18(0.3)	22(0.4)	51(0.9)	2,352(42.0)
설악	4,420	4,080(46.3)	1(0.01)	1(0.01)	43(0.5)	98(1.1)	55(0.62)	33(0.4)	38(0.4)	71(0.8)	4,386(49.8)
용문	3,563	3,167(39.1)		1(0.01)	43(0.5)	131(1.6)	25(0.31)	44(0.5)	40(0.5)	112(1.4)	4,544(56.1)
지체	3,863	3,389(42.4)		5(0.06)	66(0.8)	215(2.7)	2(0.03)	41(0.5)	27(0.3)	118(1.5)	4,137(51.7)
청운	2,245	1,931(40.8)		18(0.38)	52(1.1)	107(2.3)	14(0.3)	24(0.5)	10(0.2)	89(1.9)	2,484(52.5)
단월	2,719	2,451(52.2)	2(0.04)	4(0.09)	20(0.4)	62(1.3)	3(0.06)	24(0.5)	11(0.2)	142(3.0)	1,974(42.1)
강상	2,022	1,909(46.7)	2(0.05)	2(0.05)	13(0.3)	37(0.9)	3(0.07)	9(0.2)	32(0.8)	15(0.4)	2,067(50.6)
강하	1,954	1,793(50.8)			19(0.5)	43(1.2)	18(0.51)	46(1.3)	9(0.3)	26(0.7)	1,576(44.6)
양동	2,690	2,328(35.3)		153(2.32)	20(0.3)	63(1.0)		34(0.5)	24(0.4)	68(1.0)	3,898(59.2)
고읍	2,217	2,039(48.6)		5(0.12)	16(0.4)	54(1.3)	7(0.17)	15(0.4)	25(0.6)	56(1.3)	1,980(47.2)
서종	3,182	2,769(42.9)	1(0.02)		35(0.5)	96(1.5)	73(1.13)	23(0.4)	55(0.9)	130(2.0)	3,280(50.8)

* 괄호 안의 수치는 전체 경제활동 종사자에 대한 해당업종 종사자의 비율(%)이며, 1-9는 무직을 제외한 합계
출처 : 조선총독부, 1930, 『조선국세조사보고』, 104~105쪽

166) 『세조실록』 권45, 14년 3월 16일 병자 : 『광해군일기』 권139, 11년 4월 28일 신사.

167) 『숙종실록』 권3, 1년 3월 28일 병술.

168) 『숙종실록』 권62, 44년 8월 19일 을미.

169) 『京畿道各郡詳狀』 16책, 광무 9년 3월.

170) 조선총독부, 1913, 『명치44년도조선총독부통계연보』, 117쪽.

171) 조선총독부, 1923, 『朝鮮に於ける會社及工場の狀況』, 39쪽.



사진 28. 지평양조장. 일제시대 이종한이 설립한 지평양조장에서는 탁주를 제조하여 인근 지역의 소비자에게 공급하였다. 주조장 밖에는 폐기된 양조탱크가 방치되어 있는데, 내부에서는 밀가루, 쌀, 누룩 등의 원료와 발효설비를 갖추고, 현재에도 '지평막걸리'라는 상표의 탁주를 제조하고 있다

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직 51%, 농업 43.1%, 상업 1.8%, 공업 0.7%, 공무자유업 0.6%, 교통 0.55%, 자가사용인 0.5%, 광업 0.26%, 기타 1.4%로 나타났다(표 11). 무직의 범주에는 아마 많은 여성과 15세 미만의 소년 및 노년층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아직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업인구는 1,361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갈산면에 가장 많은 315명이 거주하고 있었다. 공업 및 광업인구는 각각 511명, 192명으로 나타났다. 당시 양평에는 증안금광, 양평금산, 삼전금광 등의 광업회사가 있었는데, 모두 금과 은을 채굴하는 업체였다. 증안금광의 경우 손봉상이라는 한국인이 경영하던 광산으로 186명의 광부가 270일 작업해서 5만 8,752엔 상당의 금과 783엔 상당의 은을 채굴하였다. 양평금산은 이시구라(石黑清治)라는 일본인이 운영하였는데, 260명의 광부가 250일 작업하여 금 1만 2,881엔, 은 113엔의 생산을 올렸다. 한국인 조진원이 운영한 삼전금광은 65명의 광부의 작업으로 2만 6,356엔 상당의 금을 채굴하였다.¹⁷²⁾ 광업인구는 양동면의 153명이 최대였다.

초보적이기는 하지만 공장공업도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비교적 규모가 컸던 공장으로는 일본인 오가와(大川振秀)가 소유한 강상면 송학리의 양평제지조합을 들 수 있다. 그는 또한 서종면 정배리에 양평제지조합 제2공동작업장을 운영하였다. 지제면 지평리의 지평주조장에서는 탁주를 제조하였다(사진 28).¹⁷³⁾ 공업인구는 군청소재지인 갈산면에 가장 많은 131명이 거주하였다. 교통과 관련된 업종도 406명에 달하여 사회발전과 함께 점차 직종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2) 조선총독부식산국광산과, 1932, 『朝鮮鑛業の推移』, 172~173쪽. 양평의 금광에 대해서는 이미 1911년에 1건, 1912년에 3건, 1913년에 8건의 광구 채굴인가가 있었다(경성일보사, 1913, 『조선광업지』).

173) 조선총독부식산국, 1942, 『조선공장명부』.

제2절 도시화와 지역의 변화*

우리 삶의 터전인 지역은 각종 사상(事象)이 충전(充塡)되어 있는 공간이다. 더불어 지역의 특성은 시·공간상에서 사회 현상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인 인간 활동에 의해 거듭 재구성된다.¹⁾

1960년 이래 추진된 경제개발계획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우리 국토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낳았고,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에는 세계화·지방화·정보화라는 물결 속에 다양한 지역구조의 변화가 더욱 속도감 있게 전개되고 있다.

이제 우리 국토의 대부분은 도시지역으로 변모하였다. 1960년대에 28.0%였던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1995년 89.0%로 증가하였다. 또한 1970년만 해도 1차산업 인구가 50.8%를, 2·3차 도시적 산업인구가 49.2%인 1차산업 우위구조를 이루었으나, 1995년에는 2·3차 산업인구가 79.2%에 육박하여 우리나라는 도시형 산업국가로 변모하였다.

게다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은 1960년 이후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적 격차에 의한 이촌향도현상과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취업기회의 확대로 전국의 인구가 집중되었다. 특히 수도 서울은 인구와 기능면에서 과대화하여 주택 부족 및 집적 불경제가 발생하였고 그 해결책으로 주변지역에 신도시가 건설되는 한편 외곽지역으로 거주 및 고용 교외화가 진행되어 왔다.²⁾

하지만 수도권 동부지역에 위치한 양평지역은 여타의 경기도지역과는 상이한 지역 상황을 경험해 왔다. 즉, 1973년 팔당댐 준공으로 2천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 공급지역이 되었고, 이로 인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었을 뿐 아니라 1997년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상에서 양평의 모든 지역이 자연보호권역으로 지정됨으로써 개발보다는 '보전되어야 할 지역'으로 지속되어 온 것이다.

물론 모든 지역이 모두 동일한 수의 변수나 요소들을 종합하여 개별적 특성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들은 각기 다른 변인들에 의하여 그 자체의 변화 과정을 경험하게 되고, 지역 자체의 질서와 특성을 창출하기 마련이다.³⁾ 그렇다면, 양평지역은 어떤 도시화의

* 제2절은 정부매 집필임.

* 도시화율은 전국인구에 대한 도시인구비율을 뜻한다.

1) Pred, A., 1985, "The social becomes the spatial, the spatial becomes the social",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 Macmillan, 337~365쪽.

2) 제29차 세계지리학회 조직위원회, 2000, 『한국지리』, 교학사; 남영우·서태열 공저, 2001, 『도시와 국토』, 법문사; 권용우 외 공저, 1998, 『도시의 이해』, 33쪽; 권용우·이자원, 2000, 「우리 나라 인구이동의 공간적 패턴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제34권 제3호, 151~166쪽.

3) 최기업 외 3인, 1992, 「우리 나라 촌락환경의 종합적 진단연구」, 『응용지리』 제15호,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12쪽.

경험과 산업화의 차별성이 더해져 지역 변화의 길을 걷고 있을까? 본 절에서 양평군이 갖고 있는 변화의 양상을 지역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인구, 산업, 생활권 특성을 통해 알아보자.

1. 인구와 지역사회의 변화

인문경관을 형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인간이며, 인구는 곧 지표상에서 공간변화의 주체가 되는 인간집단이다. 결국 인구현상은 자연적·문화적·경제적 제조건을 반영하는 특정지역의 사회 환경적 소산이므로, 인구는 모든 지역에서 사회현상과 그 변화과정을 평가하고 예측하는 데 근본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특정지역의 인구 규모·성장·구조적 특성과 공간분포 및 이들의 변화와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지역특성을, 좁은 의미에서는 인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구문제와 지역사회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한다.⁴⁾

양평지역의 전반적인 인구 및 가구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가구수는 꾸준히 상승하여 2000년 현재 28,975가구에 이른 반면, 인구수는 1965년 11만 명대까지 증가하였다가 1975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해 현재 82,963명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인구밀도는 94명/km², 가구당 인구수는 2.9명으로 1960년 이래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표 1, 그림 1).

1) 인구의 자연적 증감과 사회적 증감

인구는 출생률과 사망률의 차이에 따른 자연증감과 지역간 이동에 따른 사회적 증감에 의해 성장 또는 감소한다. 우리 나라는 1962년부터 경제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온 가족계획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1960년 6.0명에 이르던 합계출산율*이 1984년에 인구대치수준인 2.1명 수준으로 저하되었고, 1999년에는 1.4명까지 낮아졌다. 이와 같은 출산율의 급속한 저하는 유소년인구비율의 감소와 함께 노년인구비율의 증가 등 인구구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변동은 미래의 노동력 부족 문제, 노령인구의 부양 문제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⁵⁾

2000년 현재 양평군의 출생률은 0.8%이고 사망률은 0.9%로 모두 1970년 이후 계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1962년부터 실시된 경제개발정책의 실시와 더불어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출산억제정책, 그리고 혼인연령의 상승 및 경

*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1명의 생애 총출산아수를 뜻한다.

4) 이회연, 1998, 『인구지리학』, 법문사; 조혜중, 2001, 「인구변화 및 노년인구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36권 제4호, 256~381쪽.

5) 변용찬, 2001, 「인구변동과 사회정책」, 『보건복지포럼』, 5~15쪽.

표 1. 양평군의 연도별 인구 추이

(단위 : 세대, 명)

연도	가구수	인구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
		계	남	여		
1961	10,498	95,463	47,657	47,806	102.5	5.8
1965	18,615	113,292	57,478	55,814	121.7	6.1
1970	18,538	104,410	52,202	52,208	112.1	5.6
1975	20,105	107,086	54,878	52,208	118.8	5.3
1980	19,966	93,444	47,559	45,885	107.1	4.7
1985	20,486	85,691	43,733	41,958	98.0	4.2
1990	20,288	77,185	38,950	38,235	88.4	3.8
1995	24,528	78,846	39,951	38,895	89.8	3.2
1996	26,217	81,430	41,201	40,229	92.7	3.1
1997	27,120	81,632	41,175	40,457	93.0	3.0
1998	27,246	81,301	41,023	40,278	92.6	3.0
1999	28,013	82,018	41,468	40,550	93.4	2.9
2000	28,975	82,963	41,844	41,119	94.0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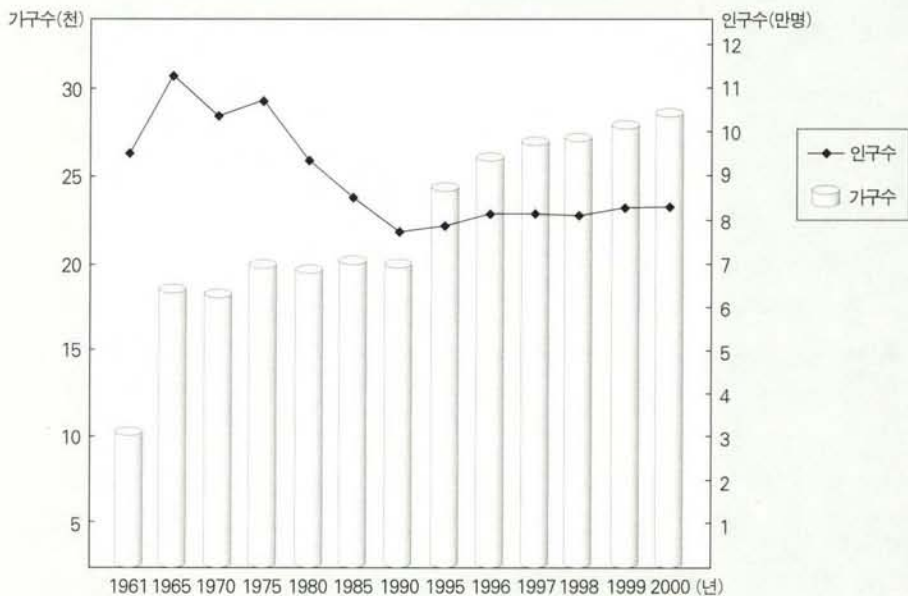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인구수 및 가구수 변화

표 2. 양평군의 연도별 출생률과 사망률

(단위 : 명, %)

연도	총인구	출생률	사망률
1970	104,410	4.4(4.5)	1.2
1980	93,444	6.0(2.8)	1.3
1985	85,691	1.7(1.7)	1.0
1990	77,185	1.4(1.6)	1.2
1995	78,846	1.1(1.7)	1.0
2000	82,965	0.8(1.5)	0.9

* 출생률의 괄호 안 수치는 전국평균 출생률

제성장과 근대화에 따른 소자녀 가치관의 확대에 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국평균출생률과 비교해 볼 때(표 2), 양평군의 출생률 감소시기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그 까닭은 농촌지역의 경제발전정도 및 도시와는 다른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출생률의 감소가 사망률의 감소보다 큰 폭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양평군 전체 인구수의 감소추세와 더불어 생각해 볼 때, 출산력을 가진 청장년층의 감소와 관련한다고 여겨진다.

특히 전국 평균을 밑도는 출생률은 곧 유소년층의 감소로 연장되며, 사망률의 감소 또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수도권 지역에 위치하지만 농촌적 성향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행정구역상 군부(郡部)지역에 속해 있는 양평지역의 특색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덧붙여 2000년 인구의 자연적 증감이 급기야 부(負, 마이너스)의 수치를 보이고 있어 유소년층 인구감소의 심각함을 더해주고 있다(표 3).

오늘날 인구증가와 이로 인한 인구밀도의 상승은 도시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작용하며, 이는 인구증가 및 인구밀도가 출생과 사망을 통한 자연적 조건뿐만 아니라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을 말한다.

양평군은 1990년대 접어들어 읍면별 차이가 다소 있기는 하지만, 인구의 사회적 증감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감소의 시기인 1990~1994년과 1997~1998년은 공통적으로 국가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와 맞물려 있는 특징이 포착되는데, 앞 시기는 농산물 시장 개방을 포함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의 진행과 타결이 이루어진 기간이었고, 뒤이은 시기는 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시점으로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양평지역 경제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고 인구의 압출요인(push factor)으로 작용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1995년과 1996년 두 해 동안 뚜렷한 인구의 사회적 증가가 나타나는데 이는 거주환경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를 배경으로 쾌적한 환경을 찾아 전원생활을 향유하려는 중산층 이상의 주택수요가 양평지역으로 인구를 흡인(pull factor)한 결과라 할 수 있다(표 4).

표 3. 양평군의 연도별 자연적 인구 증감

(단위 : 명)

연도	총인구	출생(A)	사망(B)	자연증가(A-B)
1961	95,463	10,498	2,920	7,578
1965	113,192	4,274	901	3,373
1970	104,410	4,572	1,287	3,285
1975	107,086	469	97	372
1980	93,444	2,616	1,223	1,393
1985	85,691	1,425	864	561
1990	77,185	1,063	932	131
1994	76,638	954	816	138
1995	78,846	870	802	68
1996	81,430	906	774	132
1997	81,632	888	760	128
1998	81,301	897	769	128
1999	82,018	851	766	85
2000	82,965	676	725	- 49

표 4. 양평군의 사회적 인구증감

(단위 : 명)

연도	총인구	인구 이동			사회적 증감(A-B)
		계	전입(A)	전출(B)	
1985	85,731	22,495	11,611	10,884	727
1990	77,185	17,513	7,522	9,991	-2,469
1994	76,638	15,470	7,443	8,027	-584
1995	78,846	20,144	11,161	8,983	2,178
1996	81,430	24,108	13,286	10,822	2,464
1997	81,632	23,214	11,603	11,611	-8
1998	81,301	19,946	9,785	10,161	-376
1999	82,018	21,637	11,117	10,520	597
2000	82,965	21,349	11,137	10,212	925

2) 인구구조의 변화

양평지역을 구성하는 인구의 짜임새를 연령별 및 성별 구성비를 통해 살펴보자. 우선 연령 대별 인구 구성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0~14세 이하 유소년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5~64세 이하 청장년층은 1985~1996년까지 소폭의 증가를 보이다가 1996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이렇듯 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청장년층의 반복적인 증감 현상은 지역경제의 상황을 대변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양평지역의 연령대별 인구구성 특징 중 가장 뚜렷한 것은 65세 이상 노년층의 비중이 14.9%까지 상승하여 1985년에 비해

표 5. 양평군의 연도별 인구 구성

(단위 : %)

연도	0~14세(유소년층)			15~64세(청장년층)			65세 이상(노년층)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1985	28.8	28.8	29.0	63.5	64.3	62.4	7.7	7.1	8.5
1990	22.7	22.2	23.1	67.2	69	65.8	9.7	8.7	11.1
1996	18.7	19.3	18.0	70.1	71.5	68.5	11.2	9.3	13.3
1999	18.1	18.7	17.3	69.2	71.0	67.3	12.7	10.3	15.4
2000	18.6	19.6	17.7	66.5	68	64.7	14.9	12.4	17.6
전국	21.0			71.7			7.3		
경기도	시부	21.6			73.0			5.4	
	읍면부	18.6			66.7			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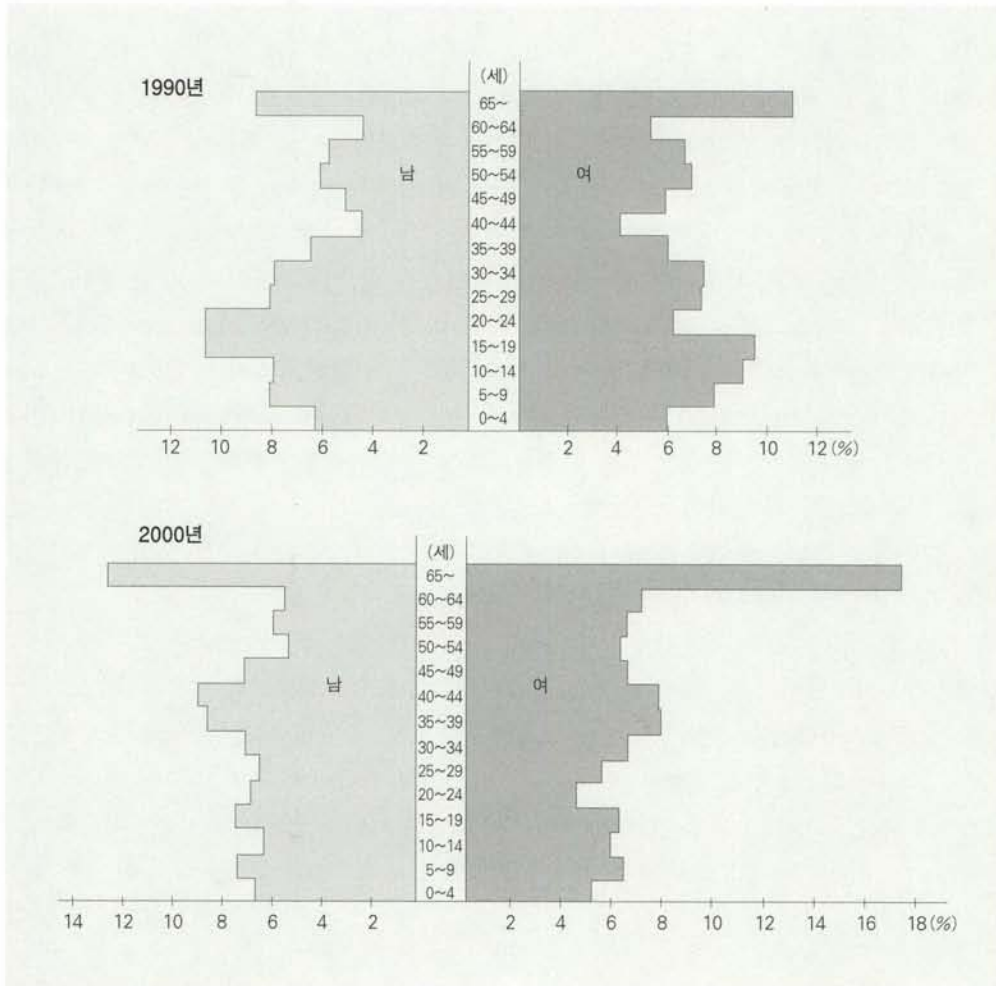


그림 2. 양평군의 인구 피라미드

두 배 정도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여성 노년층의 비중이 17.6%의 높은 수치를 보이며 일반적인 남녀의 수명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연령대별 인구구조의 변화는 인구피라미드(인구탑)를 통해 좀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시지역[市部]은 청장년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두터운 별형의 인구탑을 보이며, 순수농촌지역(읍면지역, 郡部)은 반대로 청장년층이 빈약한 표주박형(호리병형)을 나타낸다. 양평지역은 1985년 이후 순수농촌지역형과 도시형이 중첩된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써 농촌과 도시의 생활양식이 혼재된 오늘날 양평의 지역특성을 엿볼 수 있다.

인구피라미드를 통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생산가능연령층인 청장년층 가운데 15~24세 연령층은 1990년에 비해 2000년도에 현격히 줄었으며, 25~49세 연령층 중 35세 이하의 연령층은 좀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35세 이상의 보다 높은 연령층은 1990년에 비교해 볼 때 다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전국적인 도시·농촌 인구구조 변화에서도 확인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양평지역과 같은 읍·면 지역의 인구는 전체적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유소년 및 청장년이 모두 줄어들었으나, 65세 이상 인구는 오히려 증가하여 고령화되어 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000년 현재 우리 나라 읍·면 지역 인구구조는 15~64세의 청장년 인구와 0~14세 유소년 인구구성비의 경우 동(洞) 지역보다 적은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구성비는 동부(洞部)의 경우 전체인구의 5.4%이나 읍·면 지역의 경우 동 지역보다 9.3%가 높은 14.7%로 나타나 우리 나라 읍·면 지역의 고령화가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 현재 양평지역은 노령인구 비율이 14.9%로 전국 읍·면 평균을 웃돌고 있으며 여성 노령인구의 비율은 17.9%나 되어 고령화 정도가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표 5, 그림 2). 이는 196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젊은 연령층 중심의 선별적인 이촌향도형(離村向都型) 인구가동과 읍·면 지역의 도시 편입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⁶⁾

3) 읍면별 인구수와 가구수 변화

과거 12만 명까지 웃돌았던 양평군의 인구수는 1975년 이후 급격한 감소를 보이기 시작해 1990년에 77,185명까지 줄어들었는데, 이는 1973년 서종면의 삼회리와 노문리의 일부가 가평군으로 이속된 배경과 더불어 1960년 이래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이촌향도의 결과로 정리할 수 있다. 이후 1990년대 초반부터 점진적인 인구의 유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수의 증가분보다 다소 많은 가구수의 증가가 발견된다. 그러나 여타의 군부(郡部) 농촌지역에서 경험하는 농촌공업화나 산업화에 따른 경제활동 기회의 증가확충이 새로운 가구의 유입을 이

6) 통계청, 2001, 『2000 인구주택총조사』-전수집계결과(인구부문); 변용찬, 2001, 『인구변동과 사회정책』, 『보건복지포럼』, 6~10쪽.

표 6. 양평군의 1970년 이후 인구 및 가구의 증감

(단위 : 명, 호, %)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증감률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1970~1980		1980~1990		1990~2000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인구	가구
양평읍	16,079	3,152	17,204	3,772	19,726	4,841	22,198	7,370	7.0	19.7	14.7	28.3	12.5	52.5
강상면	4,900	890	4,493	909	3,551	896	4,028	1,348	-8.3	21.3	-21.0	-1.4	13.4	59.4
강하면	3,748	724	3,122	694	2,345	657	3,150	1,181	-16.7	-4.1	-24.9	-5.3	34.3	79.8
양서면	8,648	1,668	8,072	1,782	7,095	1,915	8,550	3,032	-6.7	6.8	-12.1	7.5	20.5	58.3
옥천면	5,653	1,131	5,341	1,167	4,403	1,129	5,196	1,827	-5.5	3.2	-17.6	-3.3	18.0	61.8
서종면	6,398	1,183	4,224	945	3,264	943	4,720	1,814	-3.4	-20.1	-22.7	-0.2	44.6	92.4
단월면	7,553	1,131	5,246	1,088	3,139	899	3,162	1,127	-30.5	-3.8	-40.2	-71.4	0.7	25.4
청운면	8,783	1,594	6,730	1,382	4,268	1,193	3,896	1,377	-23.4	-13.3	-36.6	-13.7	-8.7	15.4
양동면	10,888	1,954	8,649	1,800	6,416	1,671	5,351	1,923	-20.6	-7.9	-25.8	-7.2	-16.6	15.1
지제면	12,112	2,199	10,522	2,239	6,860	2,028	6,466	2,325	-13.1	18.2	-34.8	-9.4	-5.7	14.6
용문면	13,633	2,529	13,848	2,951	11,447	2,954	11,933	4,215	15.8	16.7	-17.3	0.1	4.2	42.7
개군면	6,026	1,163	5,882	1,237	4,671	1,152	4,243	1,436	-2.4	6.4	-20.6	-6.9	-9.2	24.7
계	104,421	19,318	93,333	19,966	77,185	20,278	82,893	28,975	-10.5	2.2	-17.4	1.6	7.5	5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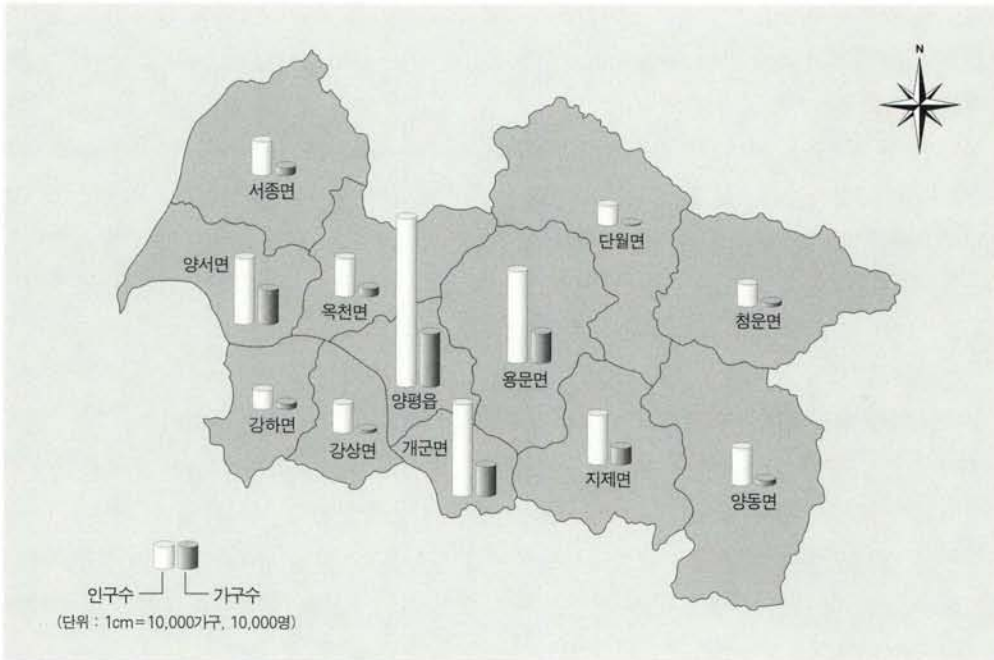


그림 3. 양평군의 읍면별 인구·가구수 분포(2000년)

끈 주된 힘이 아니라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거주환경에 대한 공간 인지 변화라는 사회적 배경을 지닌 전원주택지의 입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양평지역이 경기 도내 다른 인구 유입지역과 구분되는 특징이다.

1970년대 이후 읍면별 인구변화를 살펴보면, 양평 전체인구는 1970~1980년 사이에 10.5%, 1980~1990년 사이에 17.4% 감소하였으나 1990~2000년 사이에는 7.5%의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그리고 양평 전체 가구는 1970~1980년 사이에 2.2%, 1980~1990년 사이에 7.5%, 1990~2000년 사이에는 무려 42.8%나 증가하였다.

최근 10년 동안의 인구 및 가구의 증감양상은 세 유형으로 나누어 큰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 인구와 가구수 모두 계속 증가하는 지역으로는 단지 양평읍만 해당한다. 1979년 읍으로 승격된 이래 계속적으로 상대적 우위성을 보유하면서 전형적인 농촌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인구와 가구수 모두 군(郡) 평균 이상으로 증가하는 읍면에는 양평, 강상, 강하, 양서, 옥천, 서종 6개 지역이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공통적으로 거리상 서울과 근접한 읍면들이며, 특히 서종면은 1990~2000년 사이에 인구는 44.2%, 가구는 92.4%라는 놀랄 만한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서울로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곳을 선호하는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된 것에 기인하며 기존의 촌락경관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지역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셋째, 인구와 가구수 모두 군(郡) 평균 이하로 감소하는 면으로 강원도 인접지역인 청운면이 해당하며, 상대적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낮고 농촌적 성향이 좀더 짙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읍면별 인구분포를 보면, 양평읍은 1979년 읍으로 승격된 이후 지속적인 인구 우위를 점하고 있다. 1970년 군(郡) 전체 인구의 15.4%를 차지했던 이곳은 2000년 현재 26.7%(22,198명), 즉 4분의 1 이상이 집중 거주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용문면 14.4%(11,933명), 양서면 10.3%(8,550명) 순의 분포를 보인다. 이로써 양평군 내에서 읍면별 중심성이 양평읍, 용문면 그리고 양서면순으로 발휘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4) 전원주택단지의 조성 and 도시적 생활양식의 유입

소득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추구하는 주거환경의 열망과 더불어 교통환경이 개선되면서 1980년대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원주택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들어와서는 전원주택이 대중적인 관심대상으로 부상하였으며, 특히 1994년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된 이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여왔다. 양평지역은 청정한 자연환경과 양호한 서울과의 접근성에 힘입어 전원주택지로서의 최적지로 손꼽히고 있다.⁷⁾

7) 구동희, 1997, 「대도시 주민의 전원지향 이주과정과 생활양식 - 수도권 전원주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김관식, 2002, 「전원주택 개발에 따른 지역환경 변화 연구 - 양평군 강상면을 사례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원주택 경관(강하면)

표 7. 전원주택단지의 분포(2001년)⁸⁾

소재지		단지수	소재지	단지수	소재지	단지수
경기도	남양주시	7	안성시	1	화성시	1
	가평군	2	파주시	2	충청도	3
	포천시	1	양평군	32		
	강화군	1	여주군	2		
	광주시	9	용인시	40		
	김포시	2	이천시	2		

표 8. 양평군 전원주택단지조성 현황(1994~1996년)

(단위 : 건, 평, %)

연도	건수	전용허가면적	건축면적(A)	건축세대수(B)	세대별 건축면적(A-B)
1994	11	67,845	18,743	146	128
1995	28	163,923	34,727	311	112
1996	31	129,283	24,994	219	114
1997	70	361,051	78,464	676	116

더욱이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거주공간에 대한 인지변화와 주 5일제 근무의 시행 및 세컨드 홈(second home)의 욕구, 그리고 2005년 완공될 예정인 경전철로 인해 서울과의 시간거리를 단축하게 됨으로써 전원주택지로서의 양평은 더욱 주목받는 지역이 될 전망이다.

양평군의 단지형 전원주택은 동쪽에 치우쳐 있는 청운면과 양동면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8) 구시온·손세옥, 2001, 「전원주택단지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12권 제2호, 134쪽의 표 2 소재지별 조사대상 단지 사례수를 재인용함.

표 9. 양평군 단지형 전원주택 분포(1994~1996년)⁹⁾

	양평읍	강상	강하	양서	옥천	서종	단월	청운	양동	지제	용문	개군	계
1994	-	1	1	5	-	2	-	-	-	1	1	-	11
1995	2	5	1	5	-	9	3	-	-	-	3	-	28
1996	5	3	3	3	3	8	1	-	-	-	3	2	31
소계	7(65)	9(84)	5(44)	13(139)	3(22)	19(62)	4(42)	-	-	1(17)	7(85)	2(16)	70(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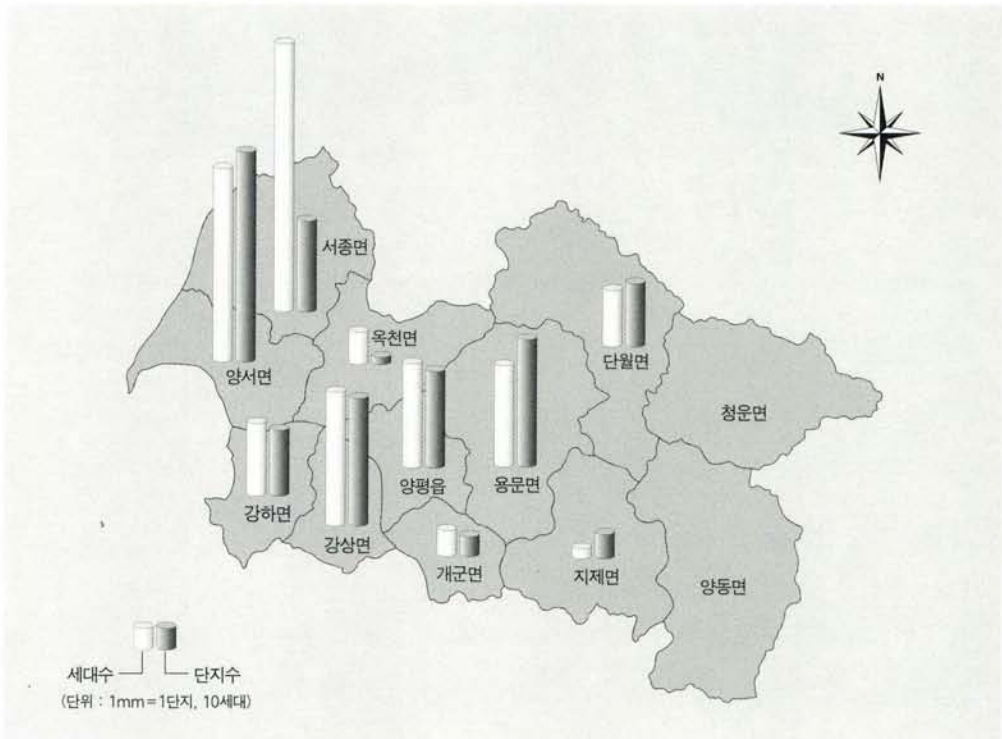


그림 4. 단지형 전원주택의 읍면별 분포(1994~1996년)

분포하고 있지만 서종면, 양서면, 강상면, 용문면 등이 탁월한데, 이들 지역들은 양평군내에서도 특히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서울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다(표 9, 그림 4).

따라서 양평지역이 지닌 전원주택 입지의 유리함은 도시적 생활양식의 편리함과 자연친화적인 삶을 공유하기 위해 '서울 탈출(Exodus)'을 감행한 도시 중산층 인구의 유입을 이끌 것이며, 이로써 기존의 마을 경관뿐만 아니라 지역 원주민이 누리던 삶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지역문화가 혼재하는 새로운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9) 구동희, 앞의 논문, 82쪽.

2. 산업화와 지역사회의 변화

1960년대 이후 우리 나라 경제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어 지역사회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국가의 의도된 정부정책에 의해 공업도시 또는 산업지역으로 개발되어 단기간에 매우 급격한 변화를 겪기도 하지만, 실제로 전국의 많은 지역들은 국가정책의 혜택에서 벗어나 변화의 속도가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곳들이다. 이러한 지역들에서는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내·외 여건에 적응하여 생계수단을 유지하는 경제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그들만의 고유한 지역특성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오늘날 양평지역의 경제기반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법에 의한 개발규제를 들 수 있다. 1979년 팔당댐 건설로 만들어진 팔당호는 서울의 상수도원이 되었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법적 규제가 양평지역에 작용하게 되었다.

양평은 오늘날까지 정부의 정책적 혜택보다는 제도적인 개발규제를 더 많이 받고 있어 제조업 입지에 큰 제약이 따르는 지역이다. 다시말해 공업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농업 및 축산업과 같은 전통적인 1차산업의 지속도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로 제약받는 곳이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기반인 농축산업 부문의 구조적 개선과 수려한 자연경관 및 독특한 역사·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관광산업을 비롯한 새로운 생태·문화 산업의 육성을 통해 차별적인 산업구조의 껍힘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표 10. 토지이용 규제현황

(단위 : km, %)

구분	자연보전 권역	특별대책권역		상수원 보호구역	그린벨트 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수변구역
		1권역	2권역				
면적	876.21	371.6	242.7	25.7	17.2	3.25	44.1
총면적대비	100	27.6	27.6	3	2	0.4	5

표 11. 지역여건¹⁰⁾

- 각종 법령규제 중첩 → 발전저해, 주민불편 고조
 - 환경정책기본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 군사시설보호법
 - 도시계획법 • 수도법 • 한강수계법
- 산자수명한 자연경관 → 수도권 최고의 청정지역, 미개발 관광자원 풍부
- 국도 4차선과 전철 복선화 착수 → 서울에서 40분내의 근접성 확보, 지역 발전 여건 성숙
- 독특한 역사적·문화적 배경 → 삼국시대~조선조에 이르기까지
 - * 수천년 동안 수운의 중심지, 남한강·북한강 중하류 유역, 대규모 선사~고대 유물 매장 다수

10) 민병채, 1999, 『지방정부의 발전전략 21: 양평군 편-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 『자치공론』 56, 112쪽.

1) 농축산업에 기반한 경제활동

우리 나라 산업구조는 1960년 이후 1차산업에서 2·3차산업 중심으로 변화하여 농가인구의 비중은 1960년 59.6%에서 1990년 15.5%로 줄어들었고, 2000년 현재 8.6%로 감소하여 10% 미만의 미비한 수준에 처해 있다.¹¹⁾ 게다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영세한 우리 나라 농업은 대내외적으로 강한 압력을 받게 되었고, 이로써 농촌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은 농업 및 농촌지역의 질적인 개편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전통적으로 농업에 기반한 양평지역도 이와 같은 고민의 선상에 놓여 있으며 지역특성상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가 더해져 농업 생산공간으로서의 어려움이 한층 심각한 지역이라 볼 수 있다.

양평은 다른 산업에 비해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농업입지상의 탁월한 유리함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지형적으로 양평군 중앙의 용문산(1,157m)을 중심으로 하여 남북으로 뻗은 봉미산(856m)과 백운봉(940m), 도일봉(864m), 그리고 남동 도(道) 경계의 성지봉(791m) 등이 솟아 험준한 산지를 이룬다. 남부에서 북서로 흐르는 남한강은 북부에서 남양주시와의 경계를 따라 남으로 흐르는 북한강 양수리에서 합류한다. 평야가 적고 산림(임야)이 전체 군 면적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경지가 매우 협소한 지역이다. 특히 북부 일대는 용문산이 있는 산간지역으로 경지가 협소한 편이며, 북한강의 지류인 수입천·문호천, 그리고 남한강의 지류인 흑천과 신내개울 유역에 약간의 평지가 펼쳐져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비옥한 농경지는 희소한 편이다. 그리고 양평군은 경기 동부 내륙지방에 있어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매우 심한 대륙성기후가 나타난다. 최근 10년간(1992~2001년) 연평균기온은 10.8℃로 전국 평균기온인 12.6℃, 경기도지역 평균기온 11.6℃에 비해 낮은 평균기온을 보이며, 1월 평균기온은 -4.9℃, 8월 평균기온 24.6℃이다. 연평균강수량은 1,301mm로서 전국 평균강수량 1,150mm, 경기지역 평균강수량 1,278mm에 비해 다우지역에 속한다. 또한 강수는 여름철 집중강수도가 연간강수량의 60.4%로서 우리 나라의 전형적인 하계강수 집중도 패턴을 그대로 나타낸다.¹²⁾

양평군의 전체 경지면적은 2000년 현재 10,370ha이고, 이 중 논면적은 6,111ha, 밭면적은 4,259ha로 논면적의 비율은 58.9%, 밭면적의 비율은 41.1%로 논면적의 비율이 높다. 경지율은 15.7%로 경기도평균 25.8%와 전국평균 21%에 비하여 매우 낮은 편이고, 가구당 경지면적도 1.11ha로 경기도평균 1.42ha와 전국평균 1.32ha에 비하여 낮다. 그러나 이러한 협소한 경지면적에 비해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수는 전체 2만 8,975가구 중 9,727세대로 33.6%의 높은 농가비율을 보이고 있어, 충분치 않은 자연 환경에도 지역경제에서 농업 활동이 중요한 몫을

11) 통계청, 2001, 『2000 농업총조사 분석보고서』.

12) 본 군지 제1장 제3절 기상 및 기후에서 재인용함.

표 12. 양평군의 농가수 및 경지면적의 변화

(단위 : 가구, %, ha)

	전체 세대수	농가	농가율	경지면적			농가당 경지면적		
				계	논	밭	계	논	밭
1985	20,486	12,786	62.4	13,104	8,512	4,592	1.02	0.66	0.36
1990	20,288	10,276	50.7	11,295	7,555	3,740	1.05	0.70	0.35
1995	24,528	9,603	39.2	11,954	7,465	4,489	1.25	0.78	0.47
2000	28,975	9,727	33.6	10,370	6,111	4,259	1.06	0.63	0.44
경기도	2,167,683	148,504	6.9	182,097	122,104	59,993	1.23	0.82	0.40
전국	12,955,486	1,383,468	10.7	1,602,355	998,558	603,797	1.16	0.72	0.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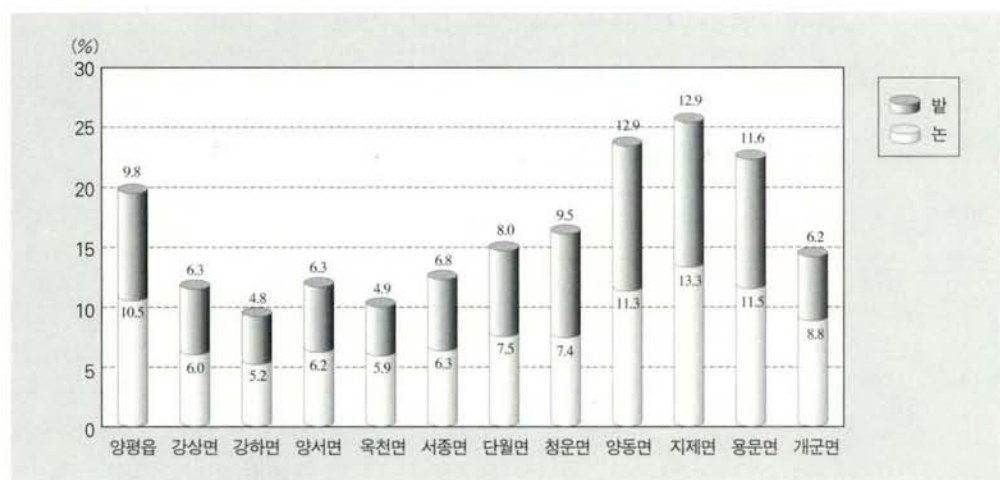


그림 5. 양평군의 읍면별 경지 분포(2000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 농가 중 60%(5,828가구)가 전업농가이고, 겸업농가는 40%(3,899가구)를 차지하고 있어 겸업농가율은 전국평균(34.8%)보다는 높지만 경기도 평균 겸업농가율(51.0%)보다는 10% 정도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¹³⁾

양평지역의 농가호수는 지난 1990년 1만 276호에서 1995년 9,603호, 2000년 9,727호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인구도 1990년 40,126명에서 1995년 3만 1,774명, 2000년 1만 448명으로 감소하였다. 양평지역의 농가호수 및 농가인구가 감소한 원인은 수입개방과 IMF 외환 위기 등 농업여건이 악화된 원인도 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농업생산활동에 크게 제약을 받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읍면별 경지분포를 보면, 동부에 위치하고 강원도에 인접한 양동면, 단월면, 청운면과 북서부에 자리한 서종면 그리고 군 중앙의 용문면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5). 이들

13) 농림부, 2001, 『농림통계연보』.

표 13. 양평군의 식량작물 생산면적과 생산량 변화(1975~2000년)

(단위 : ha, M/T)

연도	합계		미곡		맥류		잡곡		두류		서류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75	15,215	49,712	7,694	30,926	2,885	6,499	889	871	3,366	4,158	381	7,258
1980	11,417	28,776	7,663	20,386	210	411	588	2,350	2,493	2,840	463	2,789
1985	10,489	44,444	7,664	38,916	96	221	506	1,317	1,616	1,972	607	2,018
1990	13,473	37,963	7,750	32,938	45	105	340	811	5,218	1,852	120	2,257
1995	8,152	7,193	7,010	2,699	1,0	2.2	184	565	800	1,071	157	2,856
2000	6,386	29,933	5,090	25,605	8.5	15	405	1,280	760	1,020	122	2,013

표 14. 양평군의 채소류 14) 재배면적과 생산량 변화(1980~2000년)

(단위 : ha, M/T)

연도	합계		과채류		엽채류		근채류		조미채소류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80	1,604	30,884	275	6,330	243	12,560	266	8,380	820	3,614
1985	2,011	42,566	349	6,773	397	22,775	284	9,466	981	3,552
1990	1,308	33,303	236	4,276	314	16,970	235	8,302	523	3,755
1995	1,263	23,689	90	1,816	293	8,581	266	10,195	614	3,097
2000	945	15,052	90	1,864	252	8,383	153	3,244	450	1,561

지역들은 지형적으로 산간곡지를 따라 흐르는 지류 연안에 길고 협소한 경지분포를 보이는 곳이다. 주요 재배작물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75년 이래 전체 식량작물의 면적과 생산량은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우리 나라의 국민 식생활 구조 변화로 인한 식량작물의 수요감소와 관련된다. 또한 맥류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은 1970년대 이후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소비량이 줄어들어 따라 주곡작물에서 밀려난 전국적인 상황과 일치한다.

이렇듯 국민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식생활이 개선됨에 따라 식량작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줄어드는 반면 채소류, 특용 작물 및 과수의 수요는 증가하여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급증하게 되었다.¹⁵⁾

양평지역은 대소비시장이 가까이 자리하고 있고 도로교통의 접근성이 높아 시장지향성이 강한 상품성 농산물 재배에 유리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UR)가 체결되어 시장개방의 압력이 가속화되고 값싼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

14) 과채류 : 수박, 참외, 딸기, 오이, 호박, 토마토

근채류 : 무, 당근

엽채류 : 배추, 시금치, 상추, 양배추

조미채소류 : 고추, 파, 양파, 생강, 마늘

15) 권혁재, 1999, 『한국지리 - 총론편』, 200~221쪽.

표 15. 양평군의 특용작물 재배면적과 생산량 변화(1980~2000년)

(단위 : ha, M/T)

연도	합계		참깨		들깨		땅콩		면화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80	525	297	331	169	167	105	-	-	27	23
1985	646	494	445	341	196	151	-	-	5	2
1990	871	608	467	296	402	310	-	-	2	2
1995	531	2,370	175	98	325	2,219	31	53	-	-
2000	579	192	205	110	370	75	4	7	-	-

표 16. 양평군의 과수 재배면적과 생산량 변화(1980~2000년)

(단위 : ha, M/T)

연도	합계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		자두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1980	250	486	115	133	66	85	44	193	23	67	2	8	-	-
1985	208	1,930	105	1,147	73	572	15	90	15	120	0.2	1	-	-
1990	135	1,920	63	885	61	949	4	34	6	43	0.4	2	0.2	7.2
1995	132	1,610	53	382	68	1,123	6	57	5	48	-	-	-	-
2000	206	4,363	27	571	152	3,359	22	334	5	99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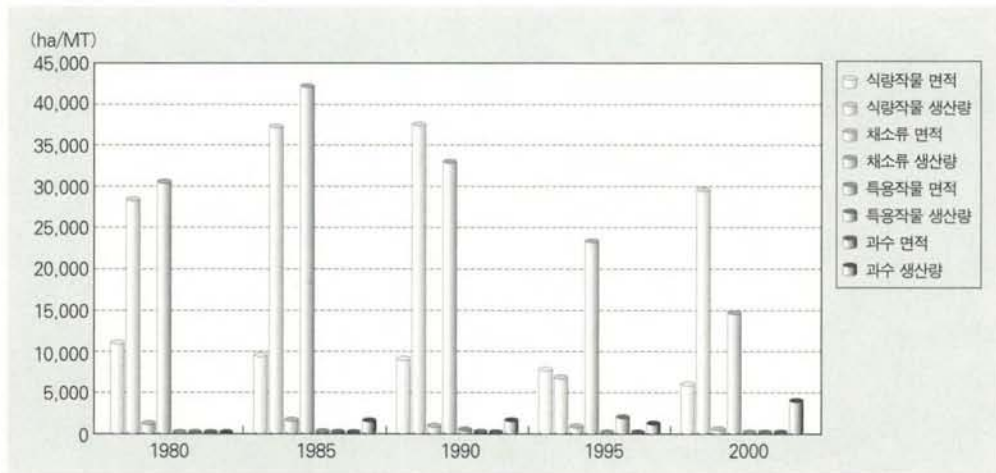


그림 6. 양평군의 농작물 재배 면적과 생산량 변화 추이(1980~2000년)

실이다. 채소류의 경우 1985년까지 큰 증가폭을 보이던 것이 그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며 2000년에 들어와서는 1980년의 절반 수준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표 14).

또한 1990년까지 재배면적과 생산량 면에서 꾸준한 증가를 보이던 특용작물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매우 유동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다. 그 까닭은 1995년도의 WTO체제 출범이후 농산물 수입개방과 함께 특용작물가격이 불안정하게 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¹⁶⁾(표 15).

하지만 다른 작물에 비해 소득이 높은 과수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육질이 단단하지 않아 소비시장 인접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이 유리한 배와 복숭아는 양평지역에서 큰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표 16).

이처럼 양평지역은 지형적으로 협소한 경지분포와 각종 환경규제가 작용하는 불리한 자연적, 사회적 환경으로 농가수와 농업인구의 감소가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농업생산활동은 중심적인 역할을 지속하면서 재배작물의 다양화와 영농방식의 쇄신을 통해 최근의 대내외적인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표 17. 양평군의 가축사육농가의 변화

(단위: 호, 두)

	계		한우		젖소		돼지		닭	
	농가수	두수	농가수	두수	농가수	두수	농가수	두수	농가수	두수
1975	17,513	22,247	9,855	14,822	50	217	2,913	7,208	4695	-
1980	9,538	440,016	7,116	11,090	249	1,222	1,060	8,789	1113	418,915
1985	9,533	235,951	7,765	20,512	671	4,068	507	17,371	590	194,000
1990	4,927	671,643	3,766	11,836	482	5,523	283	39,208	396	615,076
1995	4,063	1,226,016	3,128	19,386	316	5,724	139	47,527	480	1,153,379
1996	3,830	1,150,556	3,085	20,653	275	5,345	97	40,809	373	1,083,749
1997	3,143	1,010,713	2,556	19,320	222	4,866	73	38,234	292	948,293
1998	2,626	1,252,268	2,068	16,714	193	4,821	73	39,492	292	1,191,241
1999	2,662	1,239,401	1,908	19,209	173	5,064	82	41,205	499	1,173,923
2000	2,237	1,610,670	1,508	12,694	165	5,059	104	41,291	460	1,551,626

또한 각 축종별 농가 및 사육두수 현황을 보면, 1975년 이래 축산 농가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1996년 이후부터 사육두수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농가수의 면에서 1990년대 이후 비교적 축산분뇨의 농도가 낮은 한우와 닭의 경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젖소와 돼지의 농가수는 크게 줄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은 양평지역이 갖고 있는 불리한 사회적 축산환경 여건을 말해주는 것으로, 양평지역이 상수원보호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어, 가축 오폐수문제 등 각종 환경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대책지역에서 축산규제는 허가대상 이상의 시설을 불허하고 있으며, 새로 제정된 상수원특별조치법에서는 신고대상 농가까지 신규참여를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로 톱밥 및 왕겨와 같은 축산분뇨조절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축산분뇨를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을 실천하고 있다.

16) 통계청, 앞의 책, 30쪽.

2) 환경농업의 육성과 지역농업 구조의 재편성¹⁷⁾

21세기는 전지구적으로 그 동안의 환경파괴적 산업화를 극복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감을 얻어가는 '환경 시대'임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21세기는 1960년대 이후 발전주의적 경제개발 논리에 따라 국가주도의 급속한 경제개발과 중앙집권적 정책으로 발생한 지방의 피해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잘사는 '지방(지역)'의 시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발전과 환경보전을 어떻게 둘 다 성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과제이며, 이는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과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논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전체가 산업화,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속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도 양평군은 1973년 팔당댐이 준공된 이후 서울을 비롯한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연접지역이라는 이유로 그 동안 각종 규제중첩으로 지역발전이 철저히 차단되고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그 동안 자의든 타의든 팔당호로 인하여 개발이 규제됨으로써 양평은 수도권에서 가장 환경이 잘 보전된 환경지역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수질이 날로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업이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이러한 오명을 벗고 농약과 화학비료로 날로 황폐화되는 농경지를 보호하고자 양평군 전체를 환경농업지구로 육성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고가의 가격지지를 유도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양평지역이 환경농업을 선택한 배경에는 1995년부터 실시된 지방자치제를 들 수 있다. 지자체의 실시에 따라 농업·농촌을 기반으로 행정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에게 안정된 소득보장과 농업발전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지역 자원의 종합적 활용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의 특수성을 이용한 농업경쟁력 제고, 이를 통한 지역농민의 소득증대와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상수원보호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양평지역은 정부의 각종 환경규제 강화로 농업생산에 많은 제약을 받는 지역적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곳에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구조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의 법적·제도적 제약조건을 갖고 있는 상수원관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의 일환으로 전문화된 환경농업을 적극 권장하는

17) 양평군, 2001, 『양평-21C 환경농업의 중심』; 양평군, 2001, 『특강자료』; 민병채, 1999, 「지방정부의 발전전략 21 : 양평군편-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 『자치공론』 56, 109~125쪽; 권오균, 2001, 「환경과 농업」, 『광장』 215호, 27~31쪽; 오세익, 1996, 「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농촌경제』 74호, 1~3쪽; 유덕기·윤주이, 1999, 「환경농업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 양평지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7호, 303~320쪽; 이영민·허남혁, 2001, 「농촌지역 환경갈등과 농촌주민 환경운동의 역할과 의미: 양평군 팔당지역 유기농업운동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 제7권 제4호, 18~32쪽.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이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농업을 육성함으로써, 도시민에게는 맑은 물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현지 농민들에게는 타지역에 비해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없는 제약에 따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농업으로 보존되는 맑은 수자원으로 인한 관광수입 증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1세기는 지식·정보·문화의 시대이자, 우리 삶의 근원인 환경의 시대라는 사회적, 지역적 인식은 농업정책도 1970년대 녹색혁명과 1990년대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백색혁명에서 2000년대에는 식량자급기반 확충과 더불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 즉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환경 친화적인 생명농업으로 전환, 환경정책과 이를 실천하는 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이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는 인식하에 양평군은 21세기 환경농업의 메카로서의 발돋움을 내딛게 되었다.

이어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지난 1997년 양평지역은 제2의 농업부흥운동을 선언하고 지방행정력과 지역 생산자 단체, 소비자 단체 및 정계, 학계 등 농업전문인으로 구성된 100명 내외의 민간인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전군민이 참여하는 순수 민간운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1998년 2월 “양평환경농업-21”(YEAM-21 : Yang-pyong Environment Agriculture Movement)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더불어 양평지역에서 실천하고 있는 환경농업은 ① 농업이 수질오염의 비점 오염원이란 오해를 불식시키고 ② 무분별한 화학비료 농약 사용으로부터 오는 수질오염을 차단하며 ③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축산분뇨를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sustainable Agriculture)을 실천하고 ④ 토양의 생산성이 후세대까지 지속되도록 건전한 토양상태를 유지하여 ⑤ 토양은 영원한 식량자원의 생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안전한 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환경농업의 조기확산과 정착이 국가적으로도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양평의 지역적 특성에 기초해 추진되고 있는 “양평환경농업-21” 8개년 계획은 다음과 같다.

환경농업 기초확립단계의 시작이었던 1998년 양평군의 환경농업 실천농가의 실태를 보면, 유기·무농약·저농약 농업의 실천농가는 모두 2,569농가로 군 전체(9,472농가)의 약 27%로 전국 환경농업 실천농가 비율인 0.7%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였다. 환경농업의 보급단계에 들어선 2000년에는 전체 농가 중 34.9%, 그리고 2001년에는 46.9%가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8. 양평 환경농업-21(8개년 계획)

제1단계(1998~1999년) 환경농업 기초확립단계	제2단계(2000~2002년) 환경농업 보급단계	제3단계(2003~2005년) 환경농업 정착단계
“양평환경농업-21” 용역의뢰 - 양평군 환경농업의 정의, 목적 설정 - 환경농업 정보망 구축 - 현재 실천 가능한 환경농업 기술 정립 및 시범사업 추진 - 유기·자연농업 및 농약, 화학 비료사용 절감 농업 등 - 환경농산물 유통체계 정비 - 양평환경농업 필요성 등을 군민에게 홍보하여 공감대 형성 - 양평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 및 기술개발 확대	- 지역단위(읍·면별) 환경농업 추진계획 수립 - 개발된 환경농업의 기술보급 - 축산분뇨 자원화 및 비료의 기술 발전 보급 - 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응용기술 개발 보급	- 농업의 전분야에서 환경농업 실시 기반 확립 - 생산유통과 소비자 홍보 및 브랜드화 정착 - 새로운 기술 및 자재의 활용으로 차원 높은 환경농업 실현 - 양평환경농업 생산 및 유통체계 정착

표 19. 환경농업 실천농가 실태(1998년)

(단위: 호, ha)

구 분	계		벼		채소류		과수		특작 기타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계	2,569	2,057	2,194	1,880	257	98.4	67	55.4	51	23.1
유기	12	6.2	-	-	12	6.2	-	-	-	-
무농약	302	137.6	268	-	-	-	-	-	34	-
저농약	2,255	1,914	1,926	1,758	245	92.2	67	55.4	17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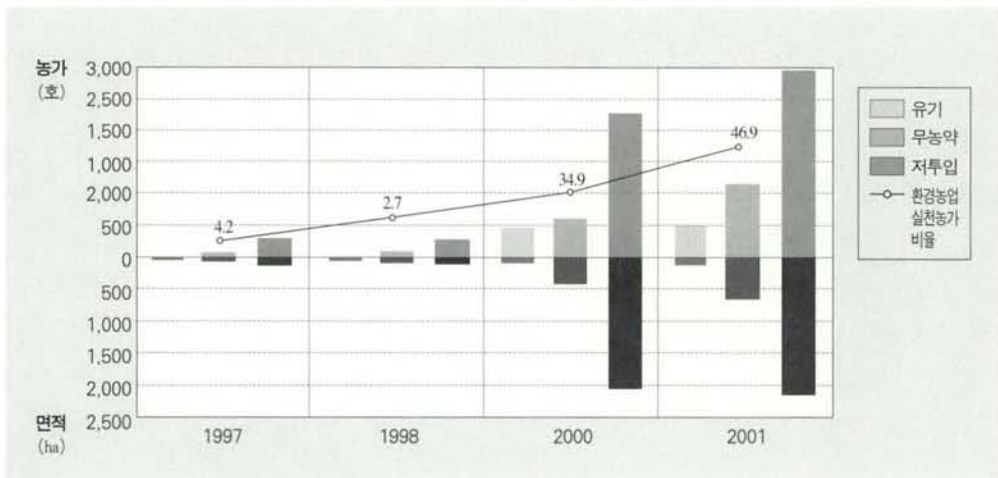


그림 7. 환경농업 실천농가 추이(1997~2001년)¹⁸⁾

또한 유기농으로의 전환단계별로 볼 때 1998년에는 가장 기초단계인 저농약(투입) 농업의 비율이 가장 높아 환경농업의 초기단계에 머물렀으나 2000년 이후 점차 무농약과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는 1998년 유기재배 곡류 1품목(2농가), 채소류 25품목(7농가), 거세비육은 1농가가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매우 저조한 상태로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환경농산물의 품질인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망되었는데, 2001년 1월에는 국제적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rganization)으로부터 '환경농업경영부문'과 '환경경영시스템부문'에서 ISO 14001 인증을 세계 최초로, '공공행정부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다.

환경농업의 실천은 지역내 농업 종사자의 환경농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소비자들의 수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환경농산품에 대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줄 수 있는 유통조직의 정비가 요구된다. 현재 양평군내 유기농산물의 유통조직은 '팔당유기농운동본부'가 형성되어 있고, 생협 또는 농협 및 정기시장(5일장)을 통해 일부 유기농산물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국책사업으로서 양평지역에 '친환경농산물 물류센터'를 건립하도록 확정(2000년 10월)됨으로써 미비한 유통조직의 개선은 물론 더 나아가 환경 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관광연계 상품으로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3) 부진한 제조업의 입지

양평이 속해 있는 수도권지역은 1980년대 들어서 중심도시인 서울 대도시권의 강력한 영향하에서 거주 및 고용 교외화가 진행되어 도시적 거주지역과 산업지역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양평지역은 서울로부터 반경 60km의 다소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교외화 현상에 직접 맞닿아 있지 못한 상태이고, 1997년 수립된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자연보전권역으로 설정되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2차산업의 입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토지이용은 흔히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의한 급속한 발전으로 자연적인 추세보다는 계획적인 과정에 의해 변모되는데, 양평지역은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거의 없어 개발이 규제, 억제되고 있는 지역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1980년 이후 고용 교외화가 진행되어 온 경기도 지역은 표 20에서와 같이 1980~1985년 사이 68.84%의 높은 2·3차 산업종사자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이후 시기에도 증가율의 폭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연보호권역 및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설정된 양평지역은 행정적으로 인접한 가평군, 여주군, 남양주시와 함께 낮은 증가율을

18) 유덕기·윤주이, 앞의 책, 제7호, 30쪽; 양평군, 2001, 『양평-21C 환경농업의 중심』, 7쪽을 토대로 제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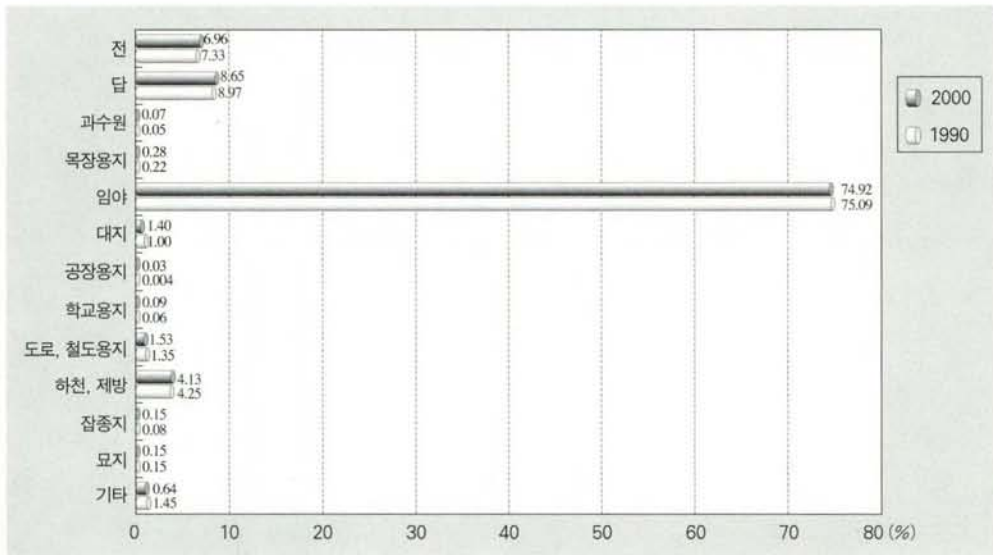


그림 8. 지목별 토지이용

표 20. 2·3차 산업종사자 증가율 19)

(단위 : 명, %)

구분	1981	1986	1991	1995	1997	증가율		
						'80~'85	'85~'90	'90~'95
경기	647,696	1,092,281	1,567,931	2,115,583	2,137,765	68.84	43.55	34.93
양평	6,697	8,855	9,828	13,632	14,750	33.22	10.99	38.71
가평	6,040	7,794	9,206	15,337	12,825	29.04	18.12	66.60
여주	9,760	12,683	18,098	24,748	24,846	29.95	42.69	36.74
남양주	30,383	26,323	38,057	42,951	44,566	-13.36	44.58	12.86

보이고 있다. 결국 개발규제로 2·3차산업의 성장이 순조롭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2000년 현재 등록된 사업체수는 4,946업체이고 종사자수는 1만 6,725명이다. 산업별로 볼 때, 숙박 및 음식점업이 사업체수(1,557개, 31.5%)와 종사자수(4,328명, 25.9%)면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도소매업(1,245명, 25.6%)이 뒤를 잇고 있다. 반면에 제조업은 사업체수가 364개, 종사자수가 1,227명으로 전체 사업체수와 종사자 중 7.3%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음식료품 제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지역별 사업체수 분포를 보면, 양평읍에 1,673개로 전체 사업체수 중 33.8%가 집중하고 있으며 용문면(777개, 15.7%), 양서면(494개, 10.0%)순이다. 그러나 대부분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로 볼 때, 종사자수가 5명 미만의 사업체가 87.6%(4,335)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영세한 상태이다. 제조업

19) 경기개발연구원, 1999, 『수도권 인구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85쪽 자료를 재구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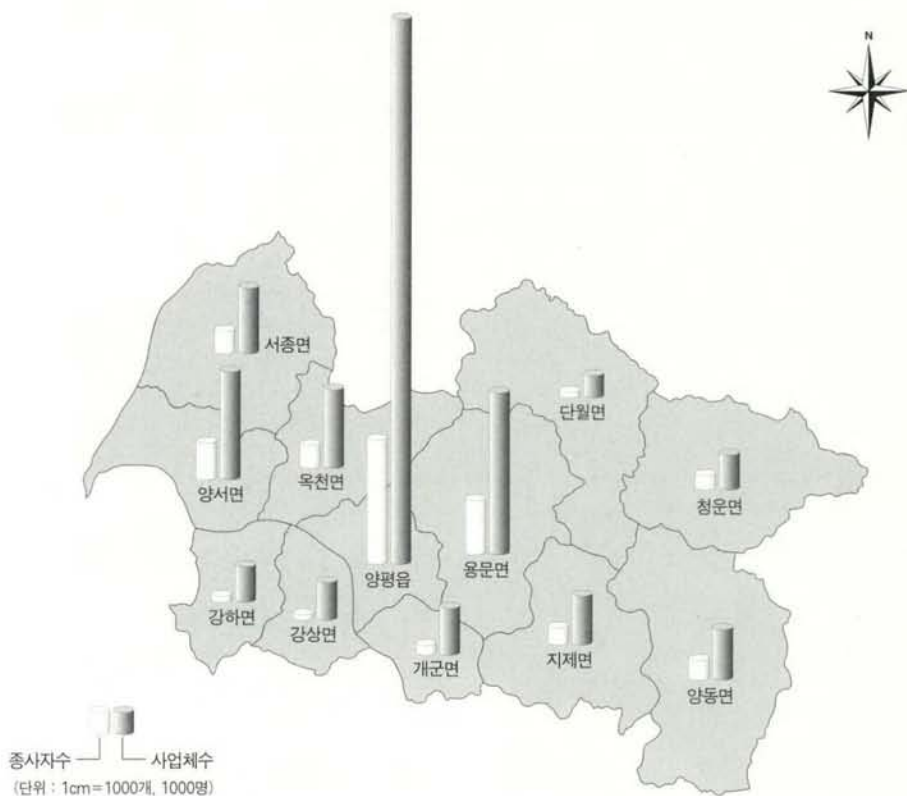


그림 9. 읍면별 사업체수 분포(2000년)

의 경우에도 양평읍에 105개(28.7%)의 사업체가 집중 분포하며, 용문면에 73개(20.0%) 제조업체가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10~35개의 업체가 분포한다.²⁰⁾ 따라서 제조업이 일반적으로 겨냥하는 집적이익의 효과는 쉽게 찾을 수 없으며 대체로 소수의 제조업체들이 양평지역이 갖는 법적 규제의 틀 안에서 불규칙하게 분산 분포하는 경향을 띤다.

4) 관광 및 문화산업 활성화 모색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관광수요가 증대되고 대중화되는 것은 경제의 고도성장에 의한 국민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 각종 기술과 기계의 발달로 인한 여가시간의 증대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 또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에서 오는 긴장감 해소의 증대, 물질적 풍요에서 오는 인간의 정신적 욕구 증대, 여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교육수준의 향상, 통신 및 교통수단의

20) 양평군, 2001, 『양평통계연보』; 양평군, 2001,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발달 등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나라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생활양식이 변모하면서 국민 관광시대가 열렸다. 이제껏 달려왔던 경제적인 양적 성장을 넘어선 '삶의 질(qaulity of life)'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주 5일제 근무형태의 출현과 함께 경제적 풍요와 더불어 자신의 시간을 활용하고 자아를 발전시키려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어 앞으로의 관광수요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관광산업을 낙후된 지역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이미 새로운 일이 아니며,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내 관광자원의 발굴과 관련 편의시설의 신설 및 다양한 지역문화행사와 관광루트 개발 등을 통해 관광수익 증대를 꾀하고 있다. 양평지역도 "문화적 가치 창출"로 문화의 세기를 준비한다는 기조 아래 잘 보존된 산자수려한 자연환경을 문화와 예술 그리고 관광에 접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 관광산업 여건과 관광자원의 분포

양평은 백두대간을 축으로 한 남·북 국토의 중심지이며, 남·북한강 합수지역으로 수도권 상수원의 맑은 물 공급지 역할을 하는 수도권 최고의 청정지역이다. 또한 산·강·계곡이 어우러진 자연 자원의 보고인데다 1971년 관광지로 지정된 해발 1,157m의 용문산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고, 삼국시대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수천년 동안 수운의 중심지 기능을 해왔고, 대규모 선사시대와 고대시대 유물이 다수 매장되어 있어 독특한 역사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까닭에 관광산업의 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광산업 발달에 필수적인 교통망의 확충면에 있어서 양평군은 영동·중부·중앙고속도로에서 30분대의 진입이 가능하며, 국도 6호선의 4차선 확장으로 서울과의 30~40분대의 시간거리에 놓이게 되어 접근성이 매우 용이하다. 또한 기존의 중앙선의 전철화(2003년) 추진으로 서울과의 거리가 20분대로 단축될 것이 예상되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좀더 개선될 것이고 이로써 수도권 도시민의 관광 안식처로서 갖는 매력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표 21. 양평군의 연도별 관광객 및 관광수입 추이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관광객			관광수입(내화)
	계	내국인	외국인	
1994	486,728	486,137	591	246
1995	543,381	542,836	545	347
1996	569,348	568,632	716	561
1997	554,927	554,588	339	552
1998	448,946	448,496	450	463
1999	507,729	507,318	411	519
2000	1,179,322	1,158,246	21,076	617

표 22. 양평군의 관광사업체 현황(2000년)

(단위 : 개수, 실)

관광숙박업										여행업		
관광호텔업		국민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		가족호텔업		한국전통 호텔업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
호텔	객실	호텔	객실	호텔	객실	호텔	객실	호텔	객실			
1	36	-	-	3	656	-	-	-	-	-	4	7

표 23. 양평군의 주요 관광자원

구분	자원명	위치	구분	자원명	지정현황	위치
자연적 관광 자원	용문산관광지	용문면 신점리	문화적 관광 자원	정지국사부도 및 비	보물 제531호	용문면 신점리 용문사
	용문산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80호)	용문면 신점리		원증국사석탑	도유형문화재 제72호	옥천면 용천리 사나사
	중미산휴양림	옥천면 신복리		원증국사석종비	도유형문화재 제73호	옥천면 용천리 사나사
	산음휴양림	단월면 산음리		이향로선생생가	도유형문화재 제105호	서종면 노문리
	설매재휴양림	옥천면 용천리		이호민선생영정 및 유물	도유형문화재 제144호	옥천면 신복리
	사나사계곡	옥천면 용천2리		노산사지	도기념물 제43호	서종면 노문리
	중원계곡	용문면 중원리		류관선생묘	도기념물 제62호	강하면 동오리
	밤나무숲	단월면 봉상리		이덕형선생묘 및 신도비	도기념물 제89호	양서면 목왕리
	연수계곡	용문면 연수1리		이순몽장군묘	도기념물 제92호	개군면 공세리
	석산계곡	단월면 석산리		이준경선생묘	도기념물 제96호	양서면 부용리
	상촌계곡	강상면 대석2리		함왕성지	도기념물 제123호	옥천면 용천리
	큰골계곡	옥천면 용천3리		강맹경묘역	도기념물 제154호	옥천면 신복리
	정배계곡	서종면 정배리		김병호고가	도민속자료 제5호	용문면 오촌리
	선바위계곡	서종면 노문리		창대리고가	도민속자료 제7호	양평읍 창대리
	명달리유원지	서종면 명달리		운계서원	도문화재자료 제18호	용문면 덕촌리
	문호5리유원지	서종면 문호5리		양근향교	도문화재자료 제19호	옥천면 옥천리
	도장리	서종면 도장리		지평향교	도문화재자료 제20호	지제면 지평리
	수능리유원지	서종면 수능리		용천리삼층석탑	도문화재자료 제21호	옥천면 용천리
	밤골유원지	청운면 비룡리		정창손묘역 석물일괄	도문화재자료 제85호	양서면 부용리
	삼성리유원지	용문면 삼성리				
	광탄리유원지	용문면 광탄리				
	화전리유원지	용문면 화전리				
	학골계곡유원지	용문면 연수리				
	금곡리갈지	용문면 금곡리				
	덕촌리유원지	용문면 덕촌리				
	조계곡	용문면 신점리				
	조현리유원지	용문면 조현리				
	오촌리유원지	용문면 오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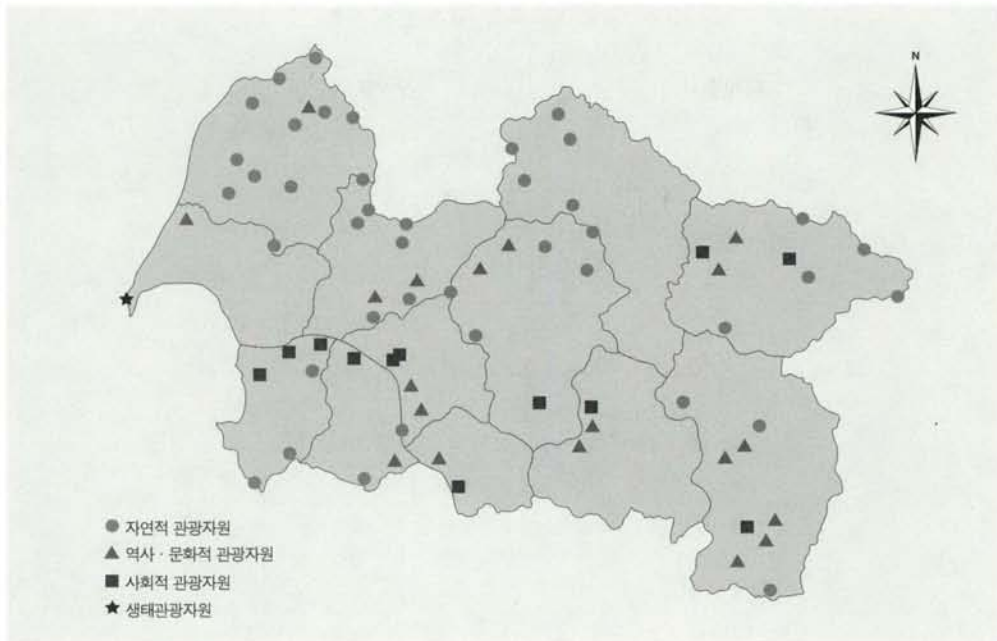


그림 10. 관광자원의 분포²¹⁾

최근 관광지로서 양평을 찾은 관광객과 관광수입은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거나 1997년과 1998년은 IMF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다시 상승세를 회복하고 2000년은 1999년에 비해 50% 이상 관광객수가 늘었고 관광수입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1999년 현재 등록된 관광사업체는 4개 관광숙박업체와 11개의 국내외여행업체가 양평읍, 옥천면 그리고 용문면에 위치하고 있으나 수적으로 미비한 상태이다.²²⁾ 그러나 숙박시설면에서 양평 유스호스텔과 세 곳의 휴양림(중미산휴양림, 산음휴양림, 설매재휴양림), 또한 수련원, 야영장, 교육원 등의 시설들이 분포하고 있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관광자원은 일반적으로 자원특성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즉 자연적 관광자원, 문화적 관광자원, 사회적 관광자원, 산업적 관광자원으로 나뉘는데, 양평지역은 자연적 관광자원과 문화적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오늘날 축제와 이벤트를 중심으로 한 지역문화행사는 지역 주민에게 지역 정체성(identity)을 심어 주고, 대내외적으로 지역 이미지 홍보를 통해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적 효과를 일으킴으로써 관광 산업 발전에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 양평지역은 (표 24)와 같은 여러 지역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최근 각 지자체별 지역행사들이 문화축제뿐

21) 『양평군 관광안내도』 팸플릿을 기초로 작성함.

22) 문화관광부, 2001, 『관광동향 연차보고서』; 양평군, 2001, 『양평통계연보』.

표 24. 양평군의 축제 및 이벤트 현황

축제 및 이벤트	개최시기	문화	예술	상품	내용
백운 문화제	9월	○			풍년놀이마당, 민속놀이, 의병놀이, 투호놀이
맑은물 사랑예술제	6월		○		숲속의 음악회, 이봉주하프마라톤
양평 군민의 날	9월	○			기념행사, 국악, 사물놀이 공연, 체육행사
세계 사물놀이 겨루기 한마당대회	9월	○			본선 및 결선 부대행사
허수아비 축제	9월	○			허수아비 설치경기, 세계허수아비 전시전
은행나무축제	10월	○			국악한마당, 열린음악회, 학술세미나, 백일장, 사진전, 노래자랑, 민속놀이

표 25. 양평군이 제안·개설하고 있는 관광코스

관광 코스	주요 관광자원
제1코스	- 팔당호(북한강) → 양수리 두물머리(물안개, 황포돛단배) → 용늪(연꽃) → 강변도로(버드나무길) → 서종카페촌 → 노산팔경 → 이항로선생 생가 → 정배리 → 양평한화리조트 → 사나사
제2코스	- 팔당호(남한강) → 강하 · 강상카페촌 → 온천수 → 드라이브인 양평극장 → 한울림공방 → 대명콘도 → 증원계곡 → 은행나무길 → 용문사
제3코스	- 팔당호(남한강) → 신양수대교 → 용담대교 → 양수 · 옥천카페촌 → 양평공항 → 가곡마을 → 신론리 벚꽃길 → 산촌마을(잔디음악당) → 갈기산 → 산음휴양림 → 사나사 → 증미산 휴양림
용문산 등산코스	- 용문사 → 용각바위 → 마당바위 → 용문사 - 용문사 → 상원사 → 백운봉 → 백안리
백운봉 등산코스	- 양평읍 백안리(새수골) → 백운봉 → 형제우물 → 새수골 - 용문면 연수리(수득골) → 형제우물 → 연수리 - 사나사 → 함왕사지 → 백운봉 → 연수리
산악자전거코스	- 팔당호(북한강) → 서종 강변도로 → 노산팔경 → 유명산계곡 → 양평 한화리조트 - 팔당호(남한강) → 강하 · 강상카페촌 → 온천수 → 대명콘도 → 용문관광단지

만 아니라 예술 및 상품판매와 관련된 축제 및 이벤트가 크게 증가²³⁾한 데 반해 양평지역은 문화축제의 성향이 강한 행사가 주종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편, 양평군이 자체적으로 제안·개설하고 있는 관광코스에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서종면, 강상·강하면, 양수·옥천면 강변을 따라 준비하게 들어서 있는 카페촌은 서울을 비롯한 인근 도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어 또 다른 문화 휴식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게다가 드라이브인 양평극장, 잔디음악당, 양평 바탕골예술관 등은 지역주민과 인근 도시민들 모두에게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다가서고 있다.

23) 경기개발연구원, 2001, 『경기도 관광 종합개발계획』, 36~38쪽.

(2) 생태 관광지로서의 양평

생태관광(eco-tourism)은 자연환경의 가치를 존중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는 대안관광의 한 형태이다. 최근의 관광행태는 과거 정적인 관광에서 동적인 관광으로 변화하고 있고, 체험관광 등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관광으로 변모하고 있다.

청정지역인 양평은 두물머리, 용늪, 궁들, 수생식물공원, 수변테크, 자연학습장 등의 생태수변공간을 조성중이며, 반딧불이 마을 및 환경농업지 등 생태관광지로서의 잠재력을 풍부하게 지니고 있어 관광산업의 미래가 밝다고 하겠다.

3. 21세기 양평의 생활권과 지역권

양평군은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면적(서울시의 1.45배)을 갖고 수도권 동부에 위치해 있다. 행정적으로 2개 도(경기도, 강원도)와 3개의 시(광주시, 남양주시, 원주시) 그리고 4개군(가평군, 여주군, 홍천군, 횡성군)과 맞닿아 있다.

오늘날 교통·통신의 발달은 시공간 압축을 통해 지역간 거리를 더욱 단축시키고 있으며, 지역간 인구와 물자의 흐름은 급속히 증가하여 각 지역의 생활권은 날로 확대 추세에 있다.

생활권(life space)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펼쳐가는 장(場)으로서 역사적으로 정주와 이주 패턴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각 생활권은 부분적으로 중복되면서 상호의존하는 불완전하고, 느슨하게 구조화된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²⁴⁾

생활권은 반드시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권은 일종의 기능지역(functional region : 결절지역 nodal region)으로 각 기능의 중심 결절지가 영향을 발휘하는 최대 범위이며, 중심성의 차이에 따라 계층 구조를 갖는 특징이 있다.

양평지역은 경기도를 5대 생활권으로 구분할 때, 동남 내륙권에 속하며, 그 중 이천, 여주와 함께 동남 2권으로 분류되어, 이천을 1차 중심지로 하면서 여주, 장호원 지역과 더불어 2차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²⁵⁾

또한 양평은 단일 군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통합성과 경쟁력 확보 그리고 투자효율성을 감안하여 5개의 생활권을 설정해 볼 때, 양평권(양평읍·옥천면), 양서권(양서·서종면), 남부권(강상·강하면), 용문권(용문·개군면) 그리고 동부권(단월·청운·양동·지제면)으로 구분하기도 한다.²⁶⁾

이와 같이 생활권은 대상지역의 공간범위와 구분기준에 따라 설정된 권역에 차이가 나타

24) 경기개발연구원, 2000, 「수도권의 지역구조 및 생활권 분석과 개편전략 연구」, 19쪽.

25) 21세기 경기발전위원회, 1997, 「경기 2020 : 비전과 전략-21세기 경기발전구상」, 67쪽에서 발췌하여 인용함.

26) 양평군, 2000, 「21세기 양평의 미래상 종합계획(권역별 보고서)」, 2쪽에서 인용함.

표 26. 경기도 생활권과 도시체계

5대 생활권	지역 소권(해당 시·군)	1차 중심도시(시·읍)	2차 중심도시(시·읍)
동북내륙권	동북 1권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의정부	화천·동두천·전곡·포천·영증
	동북 2권(구리·남양주·가평)	구리	미금·진접·청평·가평
서북해안권	고양·파주권(고양·파주)	고양	금촌·문산
	김포권(김포·강화권)		김포(강화)
동남내륙권	동남 1권(성남·하남·광주·용인)	성남	하남·광주·용인·기흥
	동남 2권(이천·여주·양평)	이천	여주·양평·장호원
남부임해권	평택권(평택·안성)	구 평택	안성·송탄·팽성·안중·청북
	수원권(수원·오산·화성)	수원	오산·발안·남양
서울인접 서남도시권	위성도시권(부천·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		
	안산권(안산·시화(시흥일부))	안산	(배후지역: 시화공단 매립지 시화향)

표 27. 양평군 생활권역의 설정

권역 구분	대상 지역	권역 명칭
양평권	양평읍·옥천면	서부중심권
양서권	양서·서종면	도농복합도시권
남부권	강상·강하면	남부권
용문권	용문·개군면	국민관광지중심권
동부권	단월·청운·양동·지제면	동부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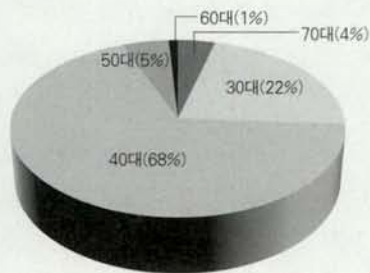
나며, 게다가 교통·통신 및 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통해 그 공간범위가 역동적으로 재구성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생동감 있는 현재의 생활권 분석을 위해서는 실제조사가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되며, 2001년 11~12월 사이에 양평지역의 12개 읍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권 형성의 기초기능이라 할 수 있는 통학·통근권, 물품구매 및 판매권(시장권), 의료서비스권 등의 공간범위와 행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응답 결과에 따르면, 양평지역 주민들의 생활권은 전체적으로는 농촌중심지로서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양평읍을 중심으로 엮여지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경기도 구리·남양주시를 지향하는 서종면과 양서면, 강원도 원주·홍천지역을 지향하는 청운면과 양동면 그리고 양평읍을 중심으로 각 생활 기초기능이 발휘되고 있는 나머지 읍면지역들로 크게 세 개의 하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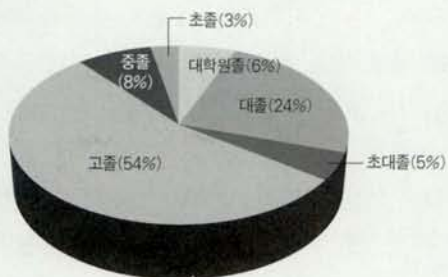
1) 생활권 조사 개관

양평지역의 생활권 파악을 위해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2001년 11~12월 설문조사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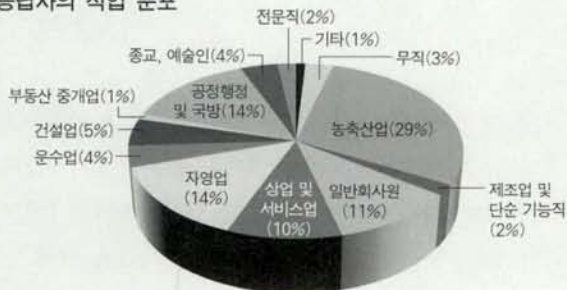
설문 응답자의 연령 분포



설문 응답자의 학력 분포



설문 응답자의 직업 분포



설문 응답자의 월소득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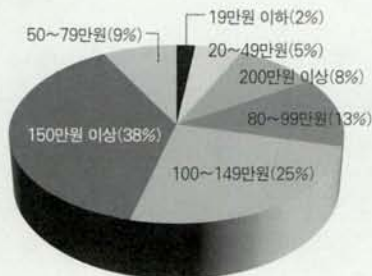


그림 11. 설문 응답자의 연령, 학력, 직업 및 월소득 분포(2001년 11월~12월)

하였다. 양평군의 지역범위가 넓은 관계로 설문지의 배포, 작성 및 수합은 양평문화원과 각 읍면 지역에서 기초기능을 담당하는 각급 학교의 협조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양평군 전체 학생수의 약 10%인 1,267부를 배포하여 890부(회수율 70.2%)를 회수하였으며, 이는 1999년 양평군 총세대수 2만 8,013가구의 약 3.2%에 해당한다. 또한 직접 방문을 통한 질의응답 과정을 더함으로써 회수된 설문결과에 나타난 각 항목별 응답정도의 차이를 보완하였다.

설문의 주요내용은 ① 세대주의 가족 구성 및 직업, 학력, 수입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일반사항 ② 주택, 생활환경, 정주·이주 의향 ③ 토지소유 및 농업 관련사항 ④ 주요 구매·판매 행태 및 각종 서비스 시설 이용권 ⑤ 서울 및 주변 지역과의 관계 ⑥ 생활 만족도 ⑦ 마을의 유래와 역사 ⑧ 지역문화 및 지역 공동체의식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전체 설문 응답자의 연령, 학력, 직업 및 소득분포 특성은 농축산업과 자영업, 그리고 국방 및 공공행정에 종사하는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상의 40대 고졸 학력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설문 응답자의 분포는 앞서 살펴본 인구와 산업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양평지역 주민의 생활권 특성을 전반적으로 대변해 주리라 기대해 볼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양평지역의 생활권 특성을 우선 기초기능에 속하는 통학·통근권, 물품 구매권, 의료 서비스권 특성을 파악해 보았다. 다음 서울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비롯해 거주동기와 생활 만족도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양평지역 주민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일상 생활의 궤적들을 읽어보도록 한다.

2) 통학·통근권 특성

통학·통근 행태는 지역 생활권의 범위를 가장 기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바탕이 된다. 2001년 9월 현재 양평군 각급 학교수는 초등학교 27개, 중학교 13개 그리고 고등학교 7개교가 있다(표 28). 읍면별 각급 학교의 분포를 살펴보면, 모든 읍면에 초등학교가 분포하고 있으나 옥천면과 강상면은 중학교가 분포하지 않으며, 고차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등학교는 양평읍, 양서면, 청운면, 용문면, 지제면, 양동면에 각각 1개교씩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양평지역의 유일한 대학교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이 옥천면에 자리하고 있다(그림 12).

표 28. 양평군 각급 학교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수	27(4)	13(1)	7	47
학급수	225	84	107	416
학생수	6,105	2,754	3,559	12,418

출처 : 양평교육청(2001년 9월 1일 기준)

* ()안의 수치는 분교수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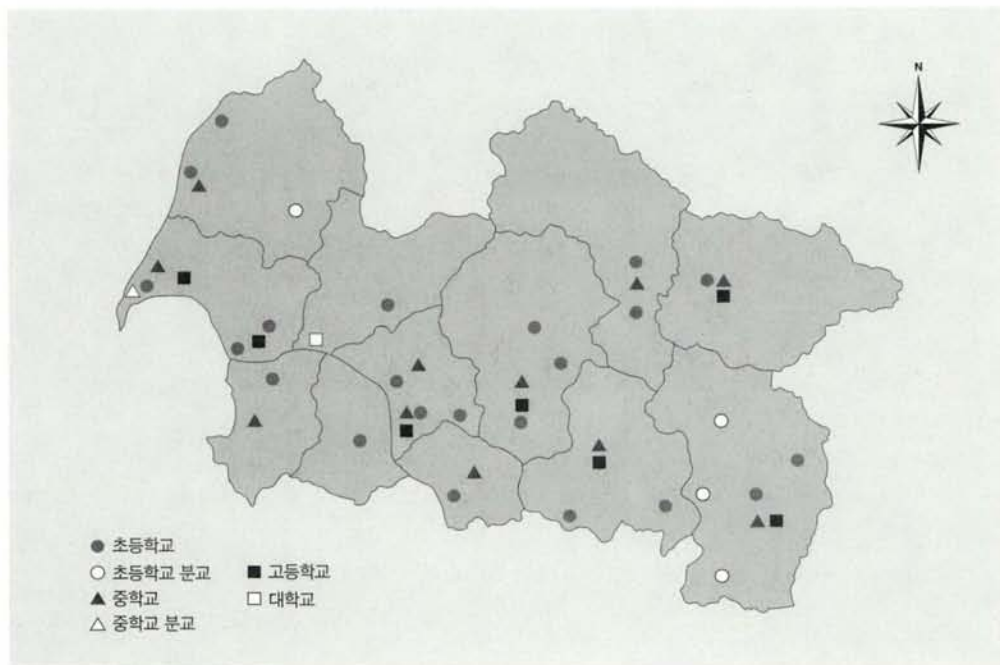


그림 12. 읍면별 각급 학교의 분포

설문 결과에 나타난 각급 학교별 통학권²⁷⁾을 살펴보자. 양평지역 초등학생들의 통학권은 거주지인 읍면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일반적인 공간특성을 그대로 보이고 있으나, 양평읍내에 위치한 양평초등학교의 경우는 인접한 옥천, 강상, 개군면을 비롯해 강하, 양서, 용문, 개군면의 다소 원거리까지 통학권을 형성하고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중학교의 통학권 역시 거주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학교의 분포가 없는 강상면과 옥천면의 경우 양평읍과 강하면으로의 통학권을 형성하고 있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통학권의 범위는 확대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양평지역의 고등학교 통학권 범위는 타지역에 비해 훨씬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데, 양서면의 양서종합고는 서종, 옥천, 강상, 강하면, 양평읍 및 지제면까지, 용문면의 용문고는 양평읍과 단월, 지제면까지 상당히 광범위한 통학권을 이루고 있다. 대조적으로 청운면의 청운고와 양동면의 양동종합고는 거주지 내의 통학범위를 갖고 있다(그림 13-1, 13-2, 13-3).

27) 설문조사가 각급 학교의 학생들을 통해 배포되어 이루어졌기에 통학권 또한 학생들의 거주지를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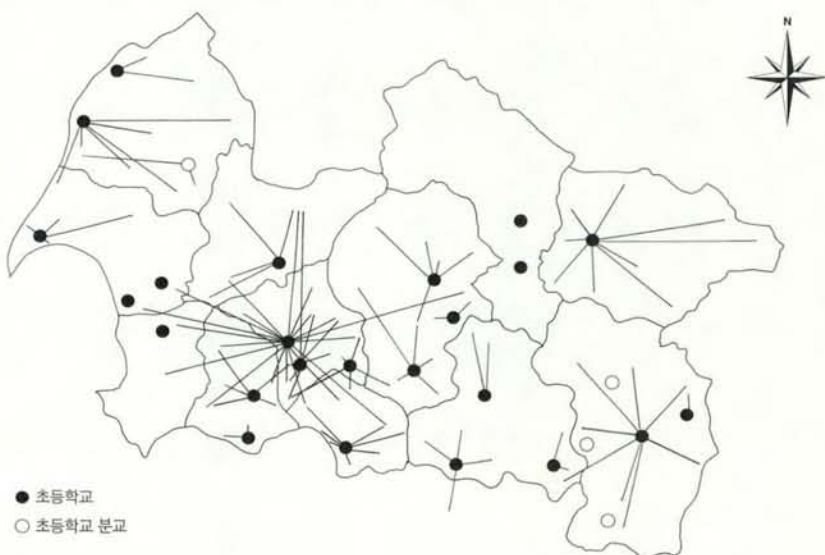


그림 13-1. 초등학교 통학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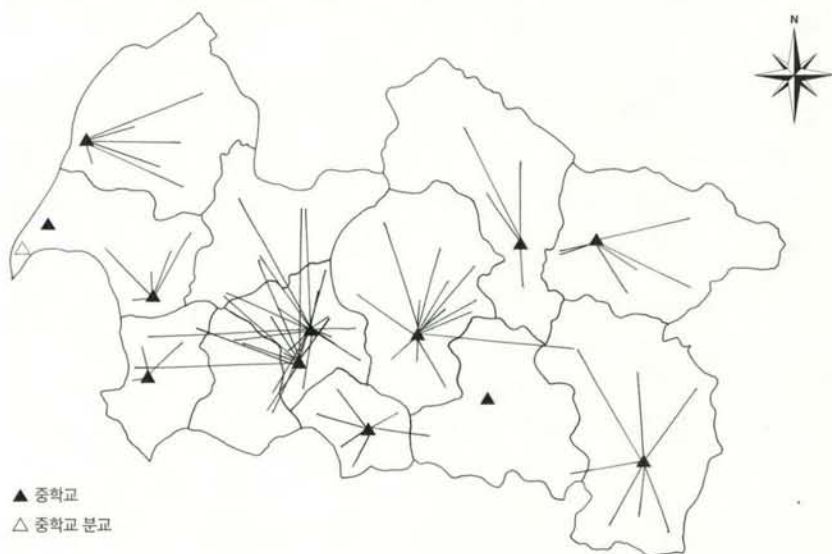


그림 13-2. 중학교 통학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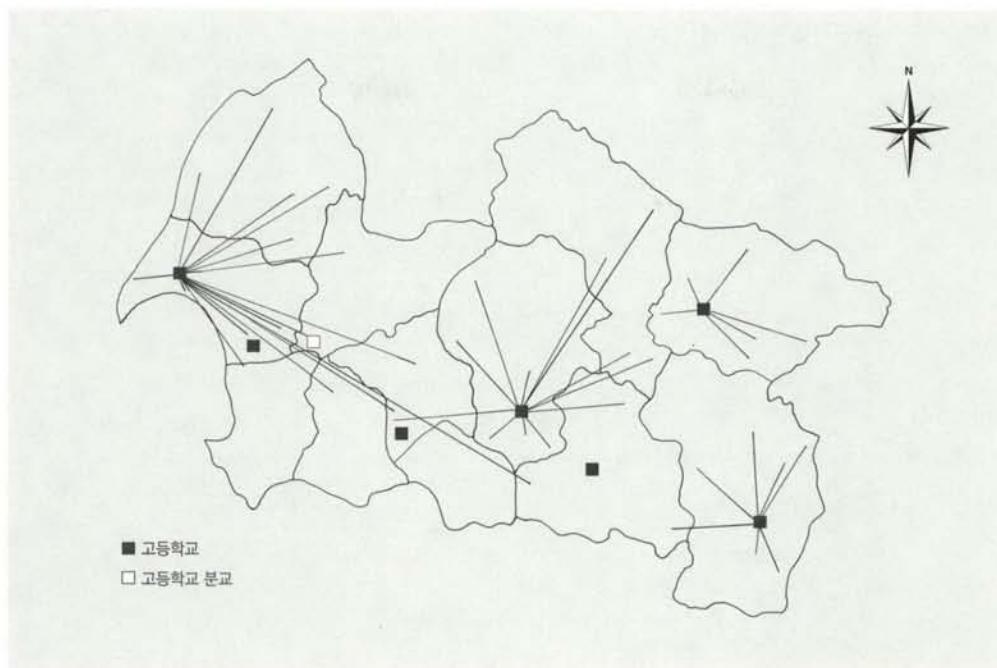


그림 13-3. 고등학교 통학권

한편 통학에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초등학교에서는 도보, 일반버스, 자가용순으로, 중학교는 일반버스, 도보, 자가용순으로, 고등학교의 경우는 일반버스, 도보, 자가용순의 이용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스쿨버스를 이용한 통학이 눈에 띄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기차가 통학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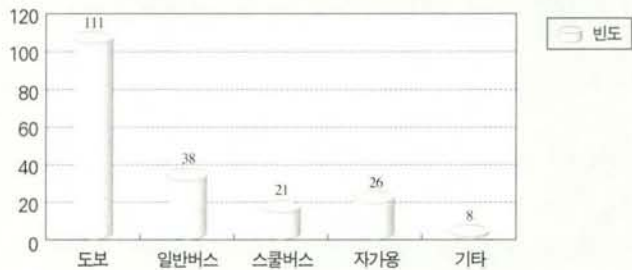
통학수단과 소요시간은 도보와 자가용으로 20분 이내, 버스로 30분 이내에 집중해 있다. 그러나 1시간 이상 버스로 통학을 하거나, 기차를 타고 30분 이상 소요되는 통학거리도 발생하고 있다. 그 외에 자전거, 봉고차 또는 학원차 등을 이용한 통학도 이루어지고 있다(그림 14, 표 29).

표 29. 통학 수단별 소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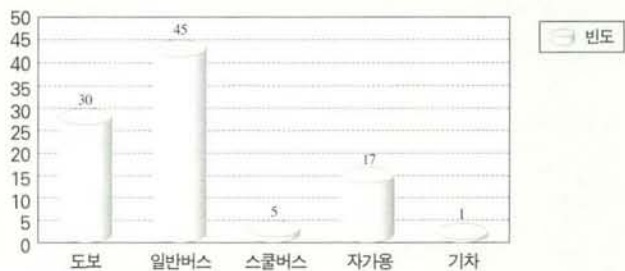
(단위 : 빈도)

	도보	버스	자가용	기차	기타
10분 미만	32	8	13	0	3
10~19분	83	41	32	0	3
20~29분	35	56	7	1	1
30분 이상	13	26	0	2	3
60분 이상	0	5	0	0	0
합계	163	136	52	3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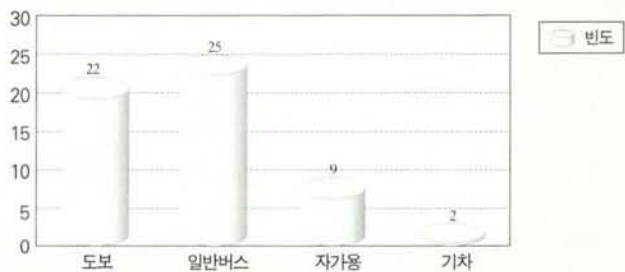
초등학교 통학 수단



중학교 통학 수단



고등학교 통학 수단



초·중·고등학교 통학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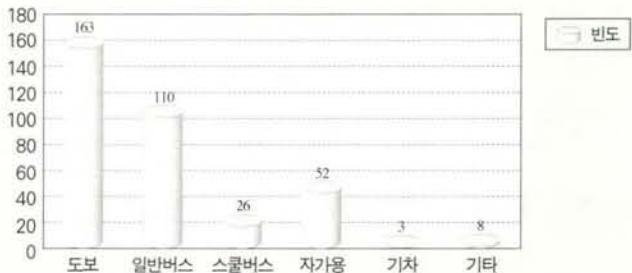


그림 14. 각급 학교별 통학수단

그렇다면, 거주지와 직장 사이의 통근권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을까? 세대주의 직장은 전체 설문 응답자 중 72%가 동일읍면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평군 내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합하면 85%가 양평지역 경제권 내에서 경제활동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양평지역은 서울을 중심도시로 하는 고용 교외화의 영향권 밖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서울로의 통근빈도가 경기도 내의 정도보다 다소 앞서고 있음은 눈여겨볼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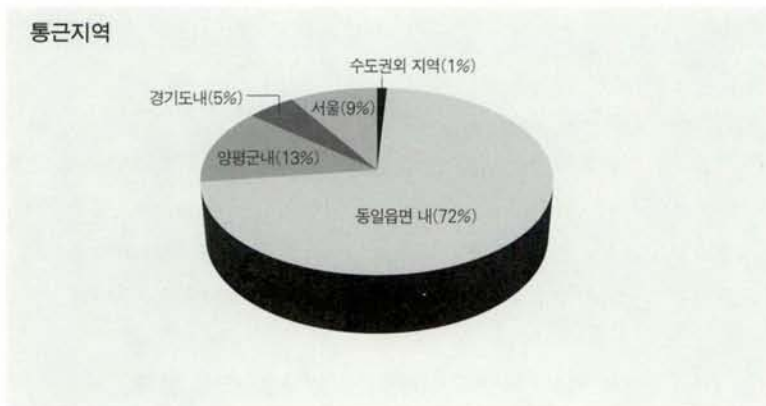


그림 15. 세대주의 직장위치

통근수단으로 자가용의 이용빈도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지역내 자동차 보급 수준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통근수단은 대체로 15분 미만의 시간거리 내에서 자가용, 도보, 기타 자전거 및 자가소유의 봉고차, 트럭 등의 순으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자가용으로 2시간 또는 기차를 이용한 1시간 이상의 시간 거리까지도 통근권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그림 15, 표 30).

표 30. 통근수단별 소요시간

(단위 : 빈도)

	도보	버스	자가용	기차	기타
15분 미만	76	7	185	1	20
15~29분	8	1	55	1	8
30~59분	2	7	39	1	3
60분 이상	0	3	39	3	2
90분 이상	0	1	14	2	0
120분 이상	0	0	9	1	2
합계	86	19	341	9	35

3) 시장권-정기시장과 상설시장의 공존 속에 새로운 유통구조 등장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상품거래가 행해지는 시설 또는 장소를 가리키며 장날의 상설여부에 따라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으로 구분된다. 재래시장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집합하여 물품을 매매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 매장 또는 장터로서 주로 근대적 유통시설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이전에 개설된 상설시장 또는 정기시장을 총칭한다. 1996년 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1997년 점포수 및 매장면적 규제의 완전철폐로 외국 유통업체의 국내진출 확대, 국내 대기업의 유통산업 진입, 인터넷 쇼핑몰의 등장 등 유통산업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재래시장은 존립기반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렇듯 재래시장은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할인점 등의 출현으로 그 위상이 점차 감소되고 있지만 아직도 농·축산물, 청과류, 야채류, 제수용품, 의류, 일상생활필수품 등은 여전히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게다가 재래시장은 과거부터 지역주민의 전통문화와 정서가 담긴 곳으로 일괄구매의 가능, 지역주민과 가까이 하려는 입지적 특성, 영세상인의 고용기회제공, 서민층에게 좀 더 값싼 구매기회제공 등 지역경제의 측면에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²⁸⁾

표 31. 양평군의 재래시장(5일장) 및 대형할인점 현황

구분	시장 / 업체명	주 소	정기 장날 / 취급 물품
재래시장 (5일장)	양평읍	양평읍 양근리 166-9	3·8일
	양서면	양서면 양수리 1060	1·6일
	용문면	용문면 다문리 706-30	5·10일
	양동면	양동면 쌍학리 213-4	3·8일
	청운면	청운면 용두리 717-4	2·7일
	지제면	지제면 지평리 576-11	1·6일
대형할인점	해오름	양평읍 양근리 169-1	식품, 잡화, 의류, 소매, 정육 등 기타
	농심가	양평읍 양근리 358-3	*
	태영유통	양평읍 양근리 167-6	*
	용문하나로	용문면 다문리 726-2	식품, 잡화, 소매, 정육
	용문마트	용문면 다문리 699-1	식품, 잡화, 소매, 정육, 의류 소매
	양동하나로	양동면 쌍학리 185-10	*

출처 : 서선원, 2001, 『군민토론회 자료』, 양평군

양평의 정기시장(5일장)은 지역내 곳곳에 크고 작은 상점들이 들어선 오늘날에도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물품구매 장소로 친근하게 이용되고 있다. 양평읍 양근리에서 3·8일에 열리는 양평장은 12개 읍면지역 주민들 모두가 가장 빈번하게 찾고 있는 5일장이며, 용문장, 양수장, 양동장이 그 다음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한편 정기시장의 이용범위는

28) 서선원, 2001, 『재래시장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군민토론회 자료』, 양평군, 73~87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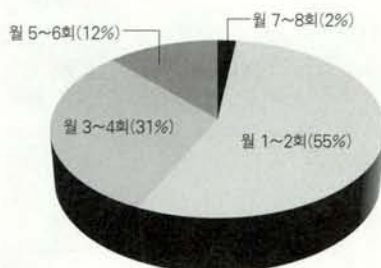
양평장의 모습

양평지역과 행정경계상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지역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여주와 이천장을 양동, 지제, 개군면, 그리고 원주, 홍천, 횡성, 양덕장을 양평읍 및 서종, 청운, 용문면 지역주민들이 물품구매와 판매지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표 32. 읍면별 정기시장 이용 공간범위

구분		양평	강상	강하	양서	옥천	서종	단월	청운	양동	지제	용문	개군	이용 정도	
														빈도	%
양평군	양평장	○	○	○	○	○	○	○	○	○	○	○	○	474	66.3
	용문장	○						○	○	○	○	○		74	10.3
	양수장				○		○							60	8.4
	용두장								○					23	3.2
	청운장								○					4	0.6
	양동장									○				29	4.1
	쌍학장									○				1	0.1
	지평장										○	○		23	3.2
	지제장												○	1	0.1
경기	여주장									○	○		○	14	2.0
	이천장												○	1	0.1
강원	홍천장	○					○		○			○		5	0.7
	횡성장								○			○		2	0.3
	원주장								○					1	0.1
	양덕장								○					3	0.4

정기시장 월평균 이용률



교통수단별 이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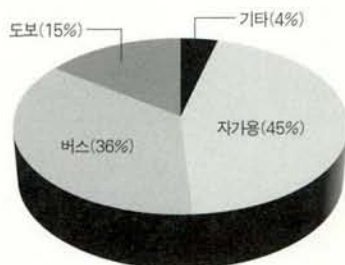


그림 16. 양평군의 정기시장 이용행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정기시장의 이용빈도는 월평균 1~2회가 55%로 가장 많고, 월 3~4회가 31%, 월 5회 이상 이용하는 주민도 1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시장을 찾을 때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이 4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버스가 36%, 도보가 15%순이다(그림 16). 구매하는 물품의 종류는 곡물과 채소류 위주의 식료품과 생필품, 의류 순이다. 판매를 목적으로 정기시장을 이용할 때의 주요품목이 채소와 곡물이며, 강원도 원주·횡성장은 가축판매를 위해 이용되는 등 지역내 농가의 농축산물의 주요 판매경로로서 오일장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규모와 이용 빈도면에서는 쇠퇴했으나 여전히 양평지역 내에서 그 기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다음으로 양평지역 주민들의 주요 구매행태를 생필품, 가정용품, 고급상품 그리고 문화관련상품으로 나누어 구입장소, 통행횟수, 주요 교통수단별로 알아보았다. 양평지역 주민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물품을 자신의 거주지에 위치한 상점과 읍내 시장에서 구매하고 있다. 대체로 구매물품의 성격에 따라 생필품·문화관련상품 → 가정용품 → 고급상품으로 가면서 구매행태에 의한 공간적 이동 및 점유범위는 확대되고 이용빈도는 감소하는 일반

적인 경향을 보이며, 높은 자가용 보급률에 힘입어 모든 물품구매에서 서울로의 지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더욱이 인터넷 및 홈쇼핑을 활용한 물품구입이 이뤄지고 있음은 오늘날의 정보통신발달 정도가 양평지역 주민의 생활양식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겠다.

생필품 중 식료품·일용품과 가정연료의 구매를 위한 공간이동은 거주지내, 양평읍내, 양평군내에서 단거리 이동을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일상의류 및 신발의 경우는 양평읍내, 거주지내 그리고 서울순으로 좀더 계층이 높은 시장지역으로 구매공간을 넓히고 있다. 물품구매 빈도는 식료품과 일용품의 경우 주 1회가, 가정연료와 일상의류 및 신발은 월 1회가 가장 높으며, 공간이동시 교통수단은 자가용, 버스, 도보의 순으로, 구매 공간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일상의류 및 신발의 경우에는 기차를 이용한 이동도 이뤄지고 있다. 가정연료의 경우는 주문배달의 비중이 매우 높는데, 이는 양평의 12개 읍면지역에서 모두 기름보일러를 가장 일반적인 난방시설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다(그림 17-1, 18-1, 19-1).²⁹⁾

가정용품 구입행태의 특징을 살펴보면, 주방용·일반가전 제품 및 가구류 모두 거주지내, 양평읍내, 서울순의 구매공간 범위를 갖고 있으며, 가구류의 경우 광주, 남양주, 포천 등 경기도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가구단지를 이용한 구매가 나타난다. 구매활동은 연 단위 내지는 부정기적으로 이뤄지며, 자가용을 이용해 직접 구입을 하거나 또는 주문배달로 이뤄진다(그림 17-2, 18-2, 19-2).

상대적으로 고급상품에 속하는 화장품, 카메라·보석류와 양복·구두의 구매행태는 좀더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화장품의 경우 거주지 및 양평읍내 전문상점이나 방문판매를 통해 월 또는 연 단위로 구입을 하며, 카메라·보석류와 양복·구두의 구입은 서울로의 지향정도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양평읍내와 거주지 내에서 연단위의 부정기적인 빈도를 보인다. 자가용을 이용한 구매가 약 70%에 육박하며, 일반버스와 기차의 이용률도 다른 물품 구매시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17-3, 18-3,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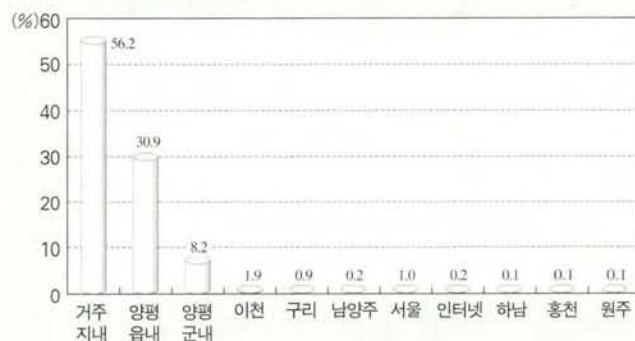
한편, 문구와 서적류를 포함한 문화관련상품은 생필품구매 때처럼 거주지 내와 양평읍내에서 자가용, 도보, 버스순의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 또는 월 단위로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그림 17-4, 18-4, 19-4).

이렇듯 설문 응답결과를 바탕으로 한 물품구매의 공간범위는 전반적으로 양평지역 내의 정기시장 및 일반 상설시장과 전문상점을 통해 원활히 이뤄지면서, 동시에 서울 및 구리시의 대형백화점(서울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구리시의 LG백화점) 및 전문상점으로서의 지향이 병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홈쇼핑을 통한 물품구입과 방문판매를 활용한 구매행태도 이뤄지고 있는 등 구매공간 범위와 구매방법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특징을 보인다. 결과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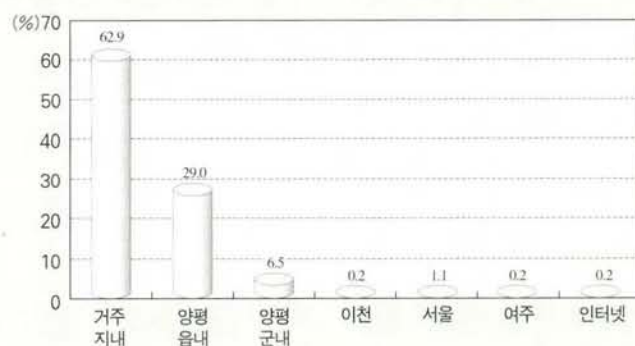
29) 설문 응답결과에 따르면, 난방시설 중 기름보일러의 이용률이 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으로 볼 때, 양평지역의 구매활동은 도로망의 확충, 자가용의 보급 및 각종 통신매체의 성장을 배경으로 하여, 공간거리를 극복하면서 원거리의 시장지역에서의 구매활동도 어렵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생필품①-식료품 및 일용품



생필품②-가정연료



생필품③-일상식류 및 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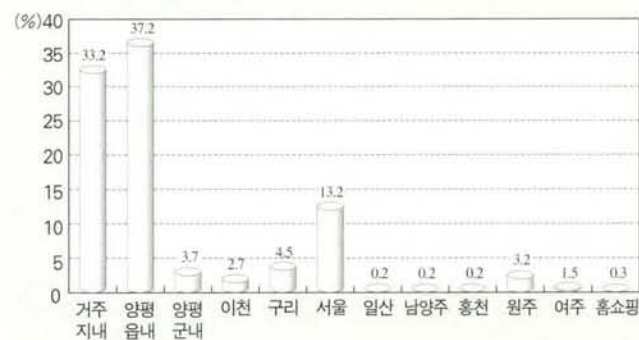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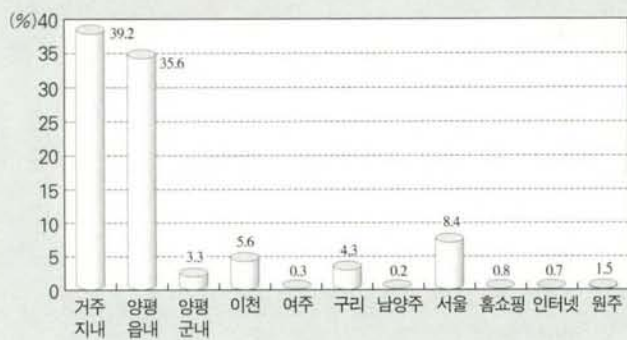


그림 17-1. 양평 주민들의 생필품 구매지역

가정용품① - 주방용 가전제품



가정용품② - 일반 가전제품



가정용품③ - 가구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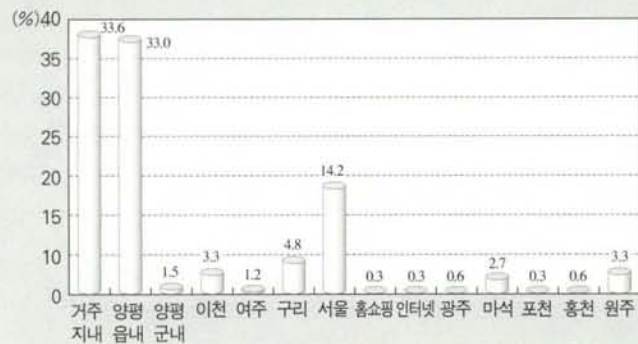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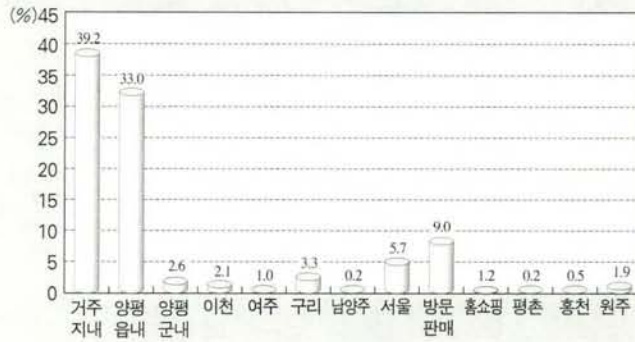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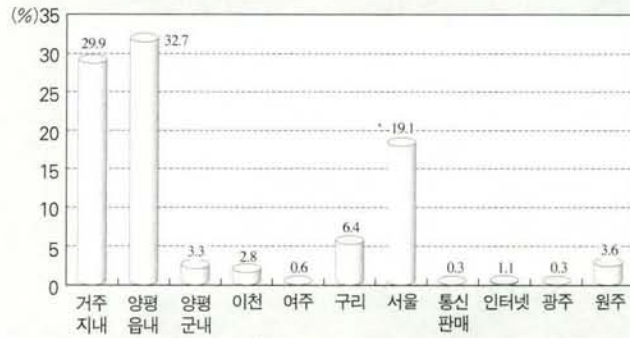


그림 17-2. 양평 주민들의 가정용품 구매지역

고급상품① - 화장품



고급상품② - 카메라 및 보석류



고급상품③ - 양복 및 구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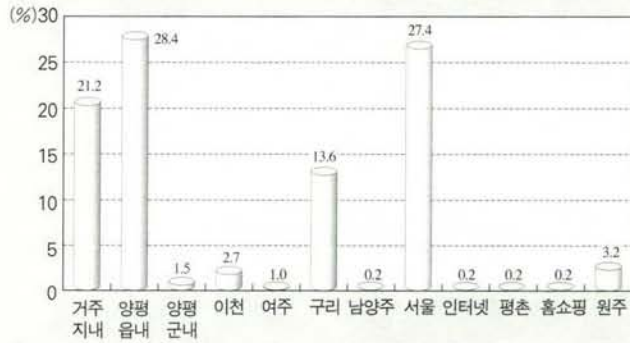


그림 17-3. 양평 주민들의 고급상품 구매지역

문화관련상품 - 문구 및 서적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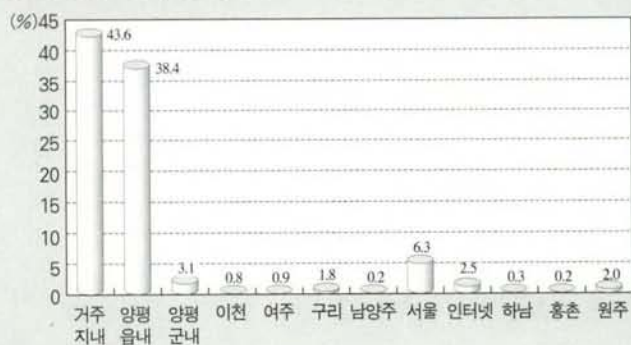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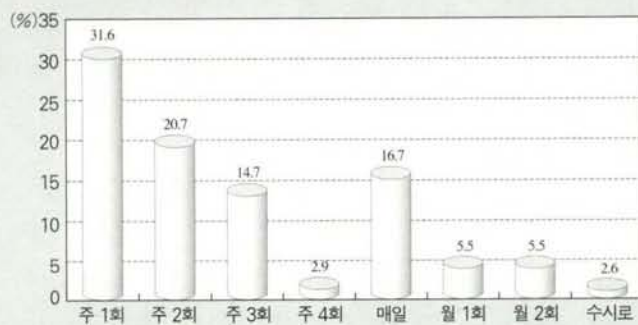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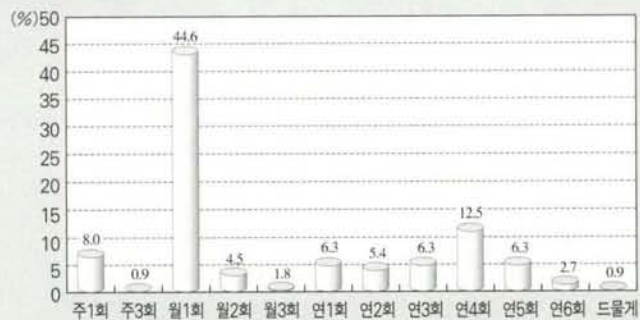


그림 17-4. 양평 주민들의 문화관련상품 구매지역

생필품① - 식료품 및 일용품



생필품② - 가정연료



생필품③ - 일상식류 및 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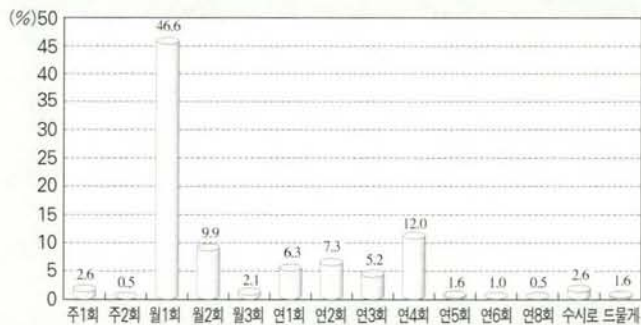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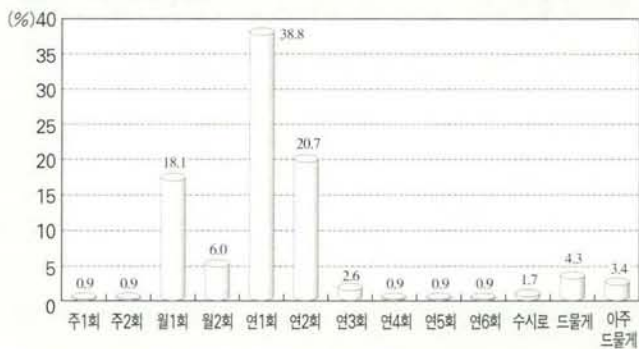


그림 18-1. 양평 주민들의 생필품 구매빈도

가정용품 - 주방용 가전제품



가정용품② - 일반 가전제품



가정용품③-가구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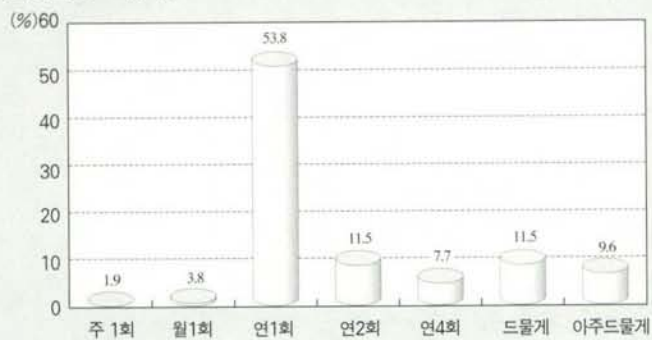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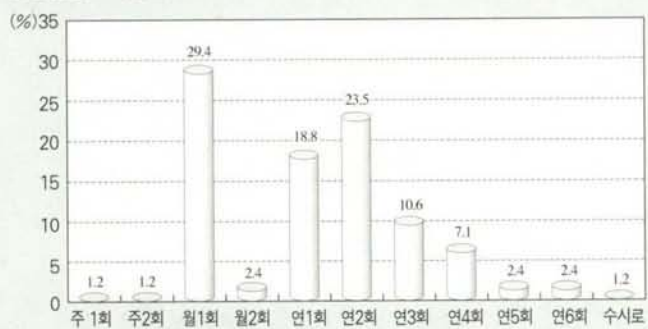


그림 18-2. 양평 주민들의 가정용품 구매빈도

고급상품①-화장품



고급상품②-카메라 및 보석류



고급상품③ - 양복 및 구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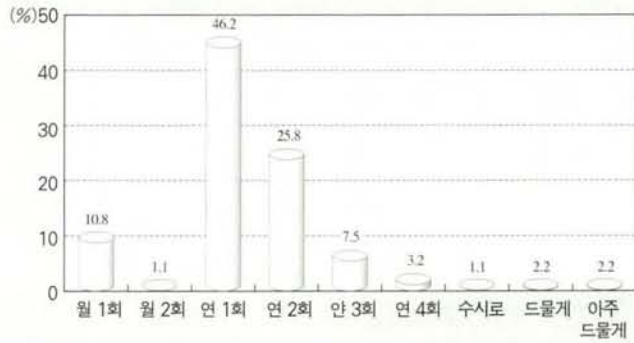


그림 18-3. 양평 주민들의 고급상품 구매빈도

문화관련상품 - 문구 및 서적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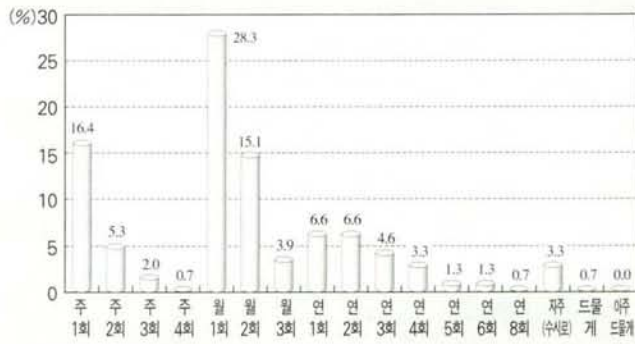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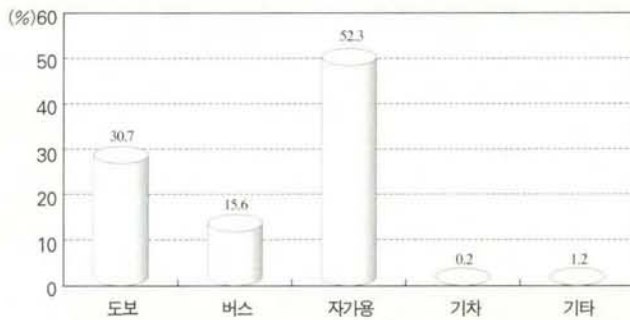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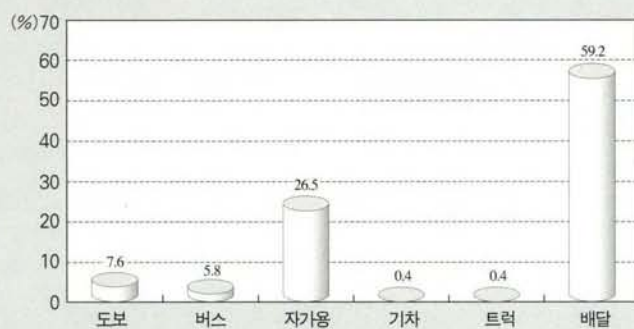


그림 18-4. 양평 주민들의 문화관련상품 구매빈도

생필품① - 식료품 및 일용품



생필품② - 가정연료



생필품③ - 일상용품 및 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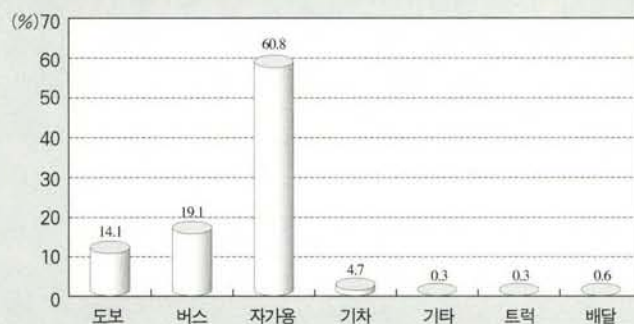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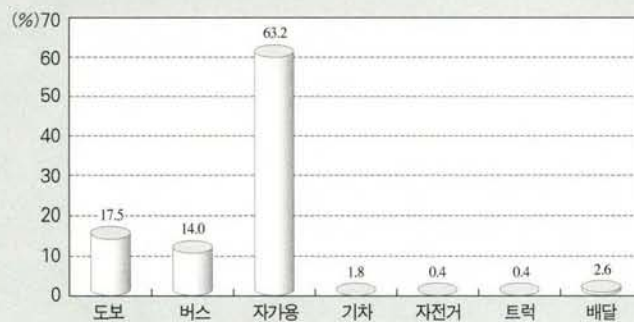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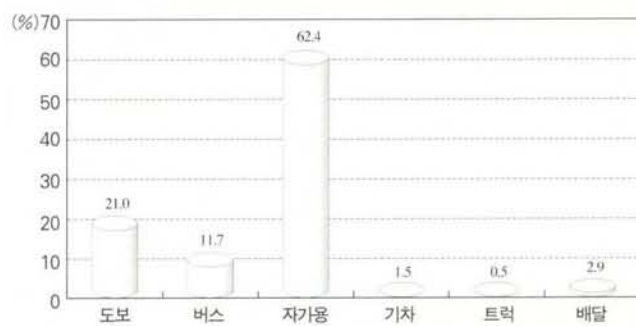


그림 19-1. 양평 주민들의 생필품 구매시 교통수단별 이용률

가정용품① - 주방용 가전제품



가정용품② - 일반 가전제품



가정용품③ - 가구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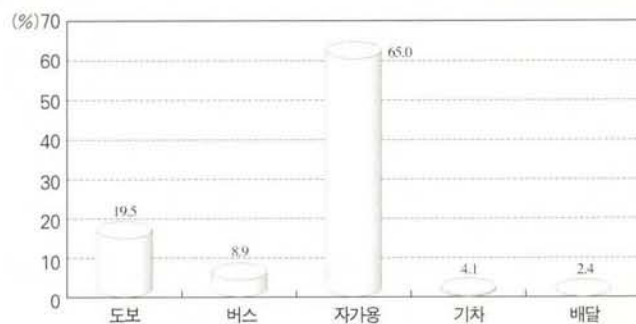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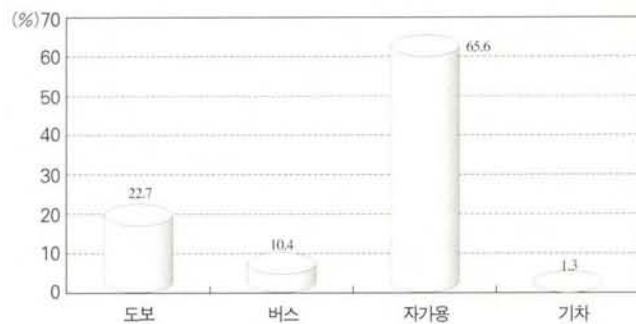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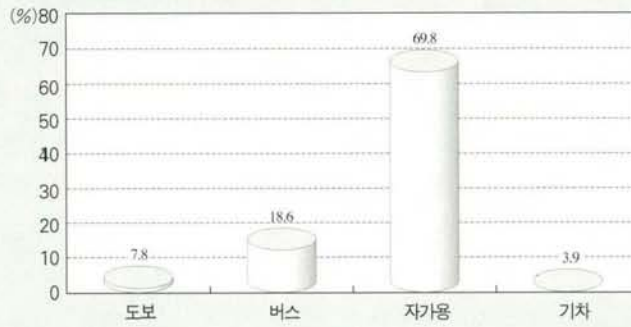


그림 19-2. 양평 주민들의 가정용품 구매시 교통수단별 이용률

고급상품① - 화장품



고급상품② - 카메라 및 보석류



고급상품③ - 양복 및 구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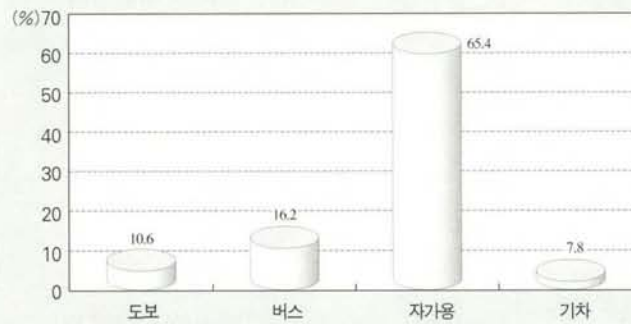


그림 19-3. 양평 주민들의 고급상품 구매시 교통수단별 이용률

문화관련상품 - 문구 및 서적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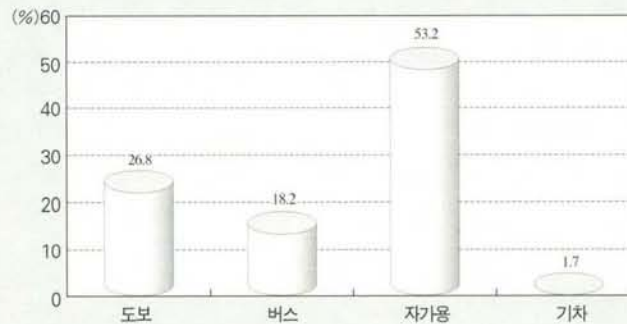


그림 19-4. 양평 주민들의 문화관련상품 구매시 교통수단별 이용률

덧붙여 설문 응답결과에 따르면 읍면별로 지향하고 있는 구매지역 범위는 12개 읍면지역 대부분이 거주지내, 양평읍내 그리고 서울지역을 상품 구입지역으로 삼고 있다. 한편, 양평 군내의 면급 지역 중 대형마트가 입지해 있는 용문·양서·지제면은 자신의 지역은 물론 양평군내의 인근지역도 상권으로 포함하고 있다. 즉, 용문면은 양평읍·강하·옥천·단월·청운·양동·지제면까지 매우 넓은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 양평지역 내에서 제2의 중심지역 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양서면은 서종면, 지제면은 개군면 지역주민들이 자주 찾는 또 다른 시장권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이천지역은 양평지역과 인접해 있는데다가 초대형 상설매장(E마트)이 입지하는 까닭에 강하·서종·청운면을 제외한 대부분의 양평지역 주민들이 가까이 하는 시장권이며, 더불어 대형할인매장이 위치한 여주지역은 양동, 지제 주민들이 시장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양평읍 및 양서면과 서종면의 경우 모든 물품구입에 있어 구리시와 서울시를 구매지역으로 삼고 있어 양평의 다른 읍면지역에 비해, 이 두 지역에 대한 지향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원도 홍천의 경우 청운면, 원주시의 경우는 청운·양동면의 물품구매 대상지역을 형성하고 있어, 수도 서울 및 구리시와 같은 수도권지역을 지향하고 있는 양서·서종면 지역과는 대비되는 구매공간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표 33).

표 33. 읍면별 물품구매 지향지

구분	거주 지내	양평 읍내	양평 군내	이천	여주	광주	구리	남양주	서울	홍천	원주	홍소평	인터넷	방문 판매
양 평 읍	생필품	○	○	○ 용문	○		○		○			○	○	
	가정용품	○	○	○ 용문	○		○		○			○	○	
	고급상품	○	○		○		○		○			○	○	○
	문화상품	○	○		○		○		○				○	
강 상 면	생필품	○	○		○				○					
	가정용품	○	○		○	○		○	○					
	고급상품		○		○				○				○	
	문화상품		○		○				○				○	
강 하 면	생필품	○	○	○ 용문				○	○					
	가정용품	○	○	○ 용문		○			○					
	고급상품	○	○	○ 용문		○			○					○
	문화상품	○	○										○	
양 서 면	생필품	○	○	○ 용문			○	○	○					
	가정용품	○	○	○ 용문	○		○	○	○			○		
	고급상품	○	○	○ 용문	○		○	○	○					
	문화상품	○	○				○	○	○				○	

구분	거주 지내	양평 읍내	양평 군내	이천	여주	광주	구리	남양주	서울	홍천	원주	홍소평	인터넷	방문 판매
옥천면	생필품	○	○	○ 용문	○		○		○					
	가정용품		○		○		○	○	○					
	고급상품	○	○				○		○				○	
	문화상품	○	○										○	
서종면	생필품	○	○	○ 양서			○		○					
	가정용품	○	○	○ 양서			○	○	○					
	고급상품	○	○	○ 양서			○		○					
	문화상품	○	○	○ 양서			○		○				○	
단월면	생필품	○	○	○ 용문	○		○							
	가정용품	○	○	○ 용문	○		○		○			○		
	고급상품	○	○	○ 용문	○		○					○		
	문화상품	○	○	○ 용문					○				○	
청운면	생필품	○	○	○ 용문					○	○	○			
	가정용품	○	○	○ 용문					○	○	○			
	고급상품	○	○	○ 용문					○	○	○			
	문화상품	○	○	○ 용문					○	○	○			
양동면	생필품	○	○		○	○			○		○			
	가정용품	○		○ 용문	○	○		○	○		○			
	고급상품	○				○			○		○			○
	문화상품	○	○			○			○		○		○	
지제면	생필품	○	○	○ 용문	○	○								
	가정용품	○	○	○ 용문	○	○								
	고급상품	○	○	○ 용문	○	○		○	○					○
	문화상품	○	○	○ 용문		○								
용문면	생필품	○	○	○ 용문	○		○		○					
	가정용품	○	○	○ 용문	○		○	○	○				○	
	고급상품	○	○	○ 용문	○		○		○					○
	문화상품	○	○	○ 용문					○				○	
개군면	생필품	○	○	○ 지제	○		○		○					
	가정용품		○	○ 지제	○				○					
	고급상품		○	○ 지제	○		○		○					○
	문화상품		○		○		○							

4) 의료서비스권

2000년 현재 양평군내에 입지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곳, 병원 1곳, 의원 10곳, 치과의원 9곳, 한방의원 9곳, 보건소 1곳, 보건지소 9곳, 보건진료소 13곳이 있다(표 34). 의료 서비스 기능이 갖는 진료체계의 특성상 양평지역의 의료서비스권은 거주지역과 양평읍내에 입지한

표 34. 양평지역의 의료기관

	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방의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1996	32	1	—	17	—9	4	1	10	16
1997	33	1	—	17	—9	5	1	10	16
1998	39	1	1	20	—9	7	1	9	13
1999	40	1	1	21	—8	8	1	9	13
2000	44	1	1	23	—9	9	1	9	13

출처 : 양평 보건소(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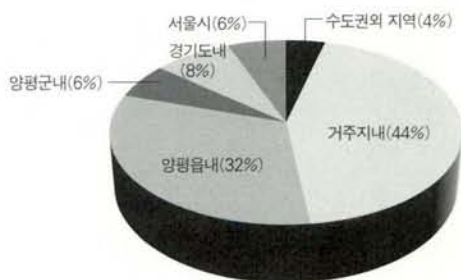


그림 20. 의료서비스 지역

표 35. 읍면별 의료서비스 이용 지역범위

	거주지내	양평읍내	양평군내	경기도 지역	서울	수도권외 지역
양평읍	○	○		구리, 수원	○	
강상면	○	○	용문			
강하면		○			○	
양서면	○	○		구리, 덕소, 하남	○	
옥천면		○			○	
서종면	○	○	양서	구리, 남양주, 덕소, 하남	○	
단월면	○	○	용문		○	홍천
청운면	○	○			○	원주, 홍천
양동면	○	○	용문	여주		원주
지제면	○	○	용문	구리, 여주, 이천	○	원주, 홍천
용문면	○	○		구리	○	춘천, 홍천
개군면		○	용문	하남	○	



그림 21. 서울 및 주변지역 방문목적

1차 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그리고 개인의·병원의 이용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다(그림 20). 또한 양평읍의 길병원, 용문면의 중앙병원, 양서면 양수리 삼성종합병원도 양평지역 주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편이다. 더불어 10개의 보건지소(단월, 국수, 강하, 개군, 지제, 서종, 용문, 양동, 청운 보건지소)는 의료서비스의 접근이 쉽지 않은 의료취약지역과 타 지역에 비해 노년층 인구의 비중이 높은 양평지역의 의료서비스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이동 보건소 순회진료를 운영하고 있다.

그밖에 양평읍을 비롯한 양서, 서종, 지제면 등의 양평지역의 서부와 남부지역 읍면주민들은 인접한 구리, 남양주, 덕소, 하남, 수원 지역의 의료서비스 기관을 가까이 하며, 지제, 양동면은 여주지역, 그리고 단월, 청운, 양동, 용문면 등 대체로 동부지역에 치우쳐 있는 읍면주민들은 강원도 홍천, 원주, 춘천 등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표 35).

5) 다양한 삶의 양식을 공유하는 생활권 형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평지역의 생활권은 교통·통신망의 발달, 높은 자가용 보급률, 그리고 삶을 영위하는 사고방식의 변화 등을 배경으로 행정경계를 넘어 시·공간적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양평지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경기도, 강원도 지역 그리고 수도 서울과의 연관성도 다방면에서 깊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2001년 현재의 양평지역 주민들의 서울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는 어떤 측면에서 이뤄지고 있을까? 설문 응답결과, 서울 및 주변 지역을 방문하는 목적은 가족, 친척 방문 및 관혼상제 참석을 위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물품구입을 위한 방문이 그 뒤를 잇고 있어(그림 21), 아직은 일상생활의 일정부분에서 생활권 확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앞으로 생활의 여러 방면에서 서울 및 주변지역과 교류망이 확대되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연계성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 또한 그리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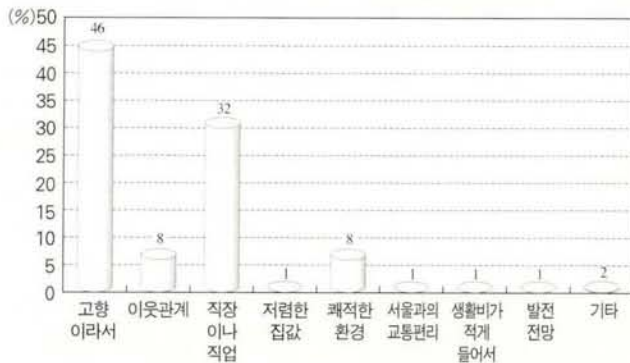


그림 22. 거주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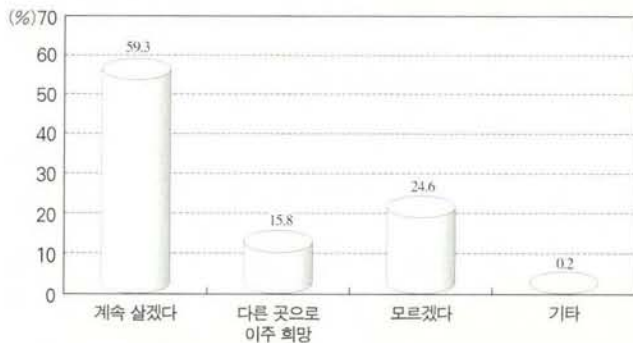


그림 23. 정주 의향

한편, 생활권 확대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교통·통신의 발달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수도 서울 또는 인접지역 도시민이 양평지역으로 유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역도시화 현상을 이끌고 있다. 이로써 양평지역은 다양한 생활양식을 가진 지역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정주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부여받고 있다. 특히 주거환경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전원지향적인 정주공간을 추구하는 도시민들이 서종·양서·강상·강하면을 위시한 양평의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이 유입하여 기존의 원주민과 생활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듯 양평지역을 구성하는 지역주민의 다양화는 고향이라는 심정적 애착을 지니면서 계속 거주 의향을 강하게 보이고 있는 토착 원주민과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적 생활 양식을 함께 얻고자 유입한 외지인과의 지혜로운 어울림을 통해, 생산·생활·상징 공간 모두에서 세계화·지방화·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그림 22·23).

- 20세기 경기발전위원회, 1997, 『경기 2020 : 비전과 전략-21세기 경기발전구상』.
- 경기개발연구원, 1999, 『수도권 인구가동 특성에 관한 연구』.
- 경기개발연구원, 2000, 『수도권의 지역구조 및 생활권 분석과 개편전략 연구』.
- 경기개발연구원, 2001, 『경기도 관광 종합개발계획』.
- 구동회, 1997, 「대도시 주민의 전원지향 이주과정과 생활양식-수도권 전원주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구시온·손세옥, 2001, 「전원주택단지 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제12권 제2호.
- 권오균, 2001, 「환경과 농업」, 『광장』 215호.
- 권용우 외 공저, 1998, 『도시의 이해』, 박영사.
- 권용우·이자원, 2000, 「우리 나라 인구가동의 공간적 패턴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제34권 제3호.
- 권혁재, 1999, 『한국지리-총론편』, 법문사.
- 김관식, 2002, 「전원주택 개발에 따른 지역환경 변화 연구-양평군 강상면을 사례로」, 한국교원대학교 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영우·서태열 공저, 2001, 『도시와 국토』, 법문사.
- 농림부, 2001, 『농림통계연보』.
- 문화관광부, 2001, 『관광동향 연차보고서』.
- 문옥표 외 4인 공저, 1993, 『근교농촌의 해체과정』,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민병채, 1999, 「지방정부의 발전전략 21 : 양평군 편-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 건설」, 『자치공론』 56.
- 변용찬, 2001, 「인구변동과 사회정책」, 『보건복지포럼』.
- 서선원, 2001, 「재래시장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군민토론회 자료』, 양평군.
- 양평군, 2000, 『21세기 양평의 미래상 종합계획(권역별 보고서)』.
- 양평군, 2001,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
- 양평군, 2001, 『양평-21C 환경농업의 중심』.
- 양평군, 2001, 『특강 자료』.
- 양평군, 『양평군 관광안내도 팸플렛』.
- 양평군, 각 연도, 『양평 통계연보』.
- 오세익, 1996, 「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농촌경제』.
- 유덕기·윤주이, 1999, 「환경농업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경기 양평지역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제7호.
- 이영민·허남혁, 2001, 「농촌지역 환경갈등과 농촌주민 환경운동의 역할과 의미 : 양평군 팔당지역 유기농업운동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 제7권 제4호.
- 이희연, 1998, 『인구지리학』, 법문사.

- 정부매·최기엽, 1994, 「서울 근교 전통 농촌의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제29권 제3호.
- 제29차 세계지리학회 조직위원회, 2000, 『한국지리』, 교학사.
- 조혜중, 2001, 「인구변화 및 노년인구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대한지리학회지』 제36권 제4호.
- 최기엽 외 3인, 1992, 「우리 나라 촌락환경의 종합적 진단연구」, 『응용지리』 제15호,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지리연구소.
- 최재석, 1988, 『한국농촌사회변동연구』, 일지사.
- 통계청, 2001, 『2000 농업총조사 분석 보고서』.
- 통계청, 2001, 『2000 인구주택총조사 - 전수집계결과(인구부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경기지역의 향토문화(상), (하)』.
- Pred. A., 1985, "The social becomes the spatial, the spatial becomes the social",
Social Relations and Spatial Structure, Macmillan.
- Brian Ilbery, 1998, *THE GEOGRAPHY OF RURAL CHANGE*, LONGMAN.

제3장 친환경적 생활공간으로서의 양평군*

제1절 청정지역으로서 양평군의 생태지표

1. 수자원

지표면의 4분의 3을 차지하면서 자연에 존재하는 가장 풍부한 물질 중의 하나가 물이다. 그러나 이 중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담수호, 하천, 지하수 등으로 지구 전체 물의 0.62%에 지나지 않는다.¹⁾ 특히 하천수는 상수도 급수원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으나 오염에 쉽게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위생관리를 필요로 한다. 매일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하는 인간에게 상수원의 오염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수원의 관리는 특히 중요하다.

양평군은 우리 나라의 수도 서울을 비롯하여 많은 도시들이 입지해 있고 전 국민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상수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양평군은 수도권 전체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젓줄로서 국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수질관리에 오랫동안 신경을 써왔던 지역이다. 국가적인 노력과 더불어 양평군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호응 덕분에 양평군은 수도권 최고의 청정지역으로 어느 지역 못지 않게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²⁾

일반적으로 수질오염이란 “자연수역(自然水域)의 수질이 폐물질(廢物質)의 유입 때문에

* 제3장은 박익준·김대영 집필임.

1) McKnight, 1994(5th edition), *Living in the Environment*, Saunders Publishing.

2) 민병채, 1999, 「지방정부의 발전전략 21 : 양평군편-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 건설」, 『자치공론』 56, 109~125쪽.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말한다.³⁾ 자연수역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하천 호수 해역 등과 같이 눈에 띄는 표면수를 가리키며, 폐물질이라 함은 가정폐수·공장폐수 등 문명사회로부터 배출되는 액상 폐기물을 가리킨다. 오늘날 공업화된 선진 각국에서는 자국 수역의 오염방지와 이미 오염된 수질의 복구를 위하여 연구·법적 규제·시설투자 등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범 지구적인 환경보전을 위하여 국제간의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환경기준에 제정된 목표수질에 도달하고 또 그 수준으로 공용수역의 수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출수 허용기준과 총량 규제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전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시설에 대하여 업종별로 규제대상이 되는 배출물질농도의 허용한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각 산업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의 오염물질농도가 배출허용기준 내에 들더라도, 한 공용수역에 폐수를 배출하는 산업시설의 규모가 너무 크거나 또는 수가 너무 많을 때 그 수역의 목표수질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럴 때에는 후자, 즉 총량규제조항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해당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1990. 8. 1 법률 제4257호)에서는 자연환경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물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까지 광역적으로 보전하는 적극적 대책을 취하고 있으며, 수질환경기준의 설정, 오염물질배출규제 등에 추가하여 분쟁조정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항까지 제정되어 있다.

1) 남한강 수계 수질현황

오염총량 관리제에 적용될 목표수질은 환경부고시 제91-35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환경부고시에서 설정된 하천별 환경기준 적용등급과 달성기간은 전국 195개 하천구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양평군 관내에서는 흑천(黑川)이 대표적인 대상이다. 남한강 수계에 해당하는 흑천은 달성등급이 1등급으로 되어 있으며, BOD 기준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2000년 수질을 기준으로 할 때 흑천의 상류지역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하류지역은 아직 2등급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목표수질이 BOD 기준으로 1등급인 경우 오염원이 거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흑천의 상류지역은 남한강 수계에서 유일하게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⁴⁾

남한강 전체의 수질을 보면, BOD 기준으로 2000년에 1.8ppm으로 전반적으로 1등급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98년 이후로는 BOD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점차 남한강 수계의 하천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평군을 가로질러 남한강과 합류하는 흑천은 대체로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1995년 이후 계속

3) 이종문·이민부, 1997, 『환경교육』,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4) 경기개발연구원, 1997,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해서 수질이 좋아지고 있으며, 남한강 수계 하천 중에서 유일하게 1등급 수준의 수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남한강 수계 하천별 수질현황

수계	하천명	달성등급	2000년 수질현황	
			수질 측정소명	BOD 기준 수질등급
남한강 수계	청미천	2	청미천 1	3
			청미천 2	3
			청미천 3	3
	양화천	2	양화천	2
	북하천	2	북하천 1	2
			북하천 2	2
			북하천 3	3
	흑 천	1	흑천 1	1
			흑천 2	2

출처 : 경기도, 2000, 『경기환경백서』

표 2. 하천수질 환경기준

구분	등급	이용목적별 적용대상	기준				
			수소이온농도 (pH)	생화학적 산소요구량 (BOD)	부유물질량 (SS)	용존산소량 (DO)	대장균군수 (MPN/100ml)
생활 환경	1	상수원수 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 이하	25 이하	7.5 이상	50 이하
	2	상수원수 2급 수산업수 1급 수영 용수	6.5~8.5	3 이하	25 이하	5 이상	1,000 이하
	3	상수원수 3급 수산업수 2급 공업용수 1급	6.5~8.5	6 이하	25 이하	5 이상	5,000 이하
	4	공업용수 2급 농업용수	6.0~8.5	8 이하	100 이하	2 이상	-
	5	공업용수 3급 생활환경보전	6.0~8.5	10 이하	쓰레기 등이 떠다니지 아니할 것	2 이상	-

출처 : 경기도, 2000, 『경기환경백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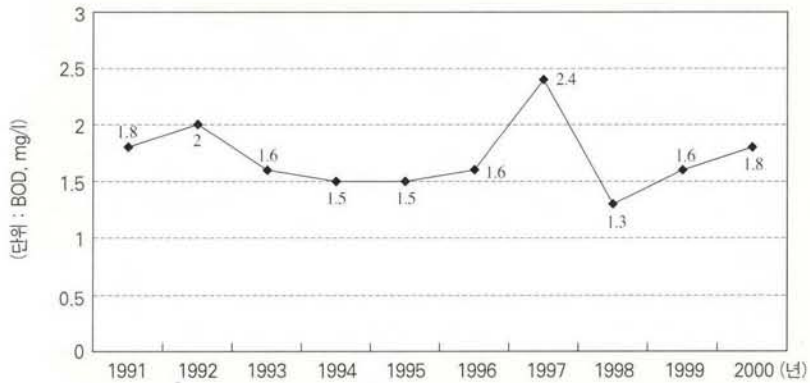


그림 1. 남한강 수질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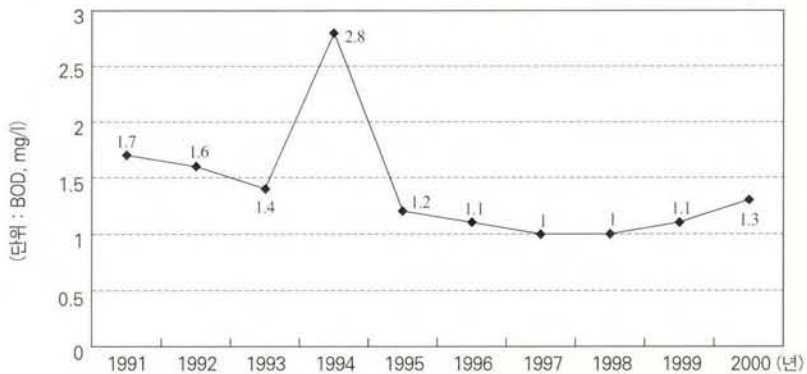


그림 2. 흑천의 수질 오염도

2) 상수원수 수질측정망 현황

상수원수 수질측정망은 하천 및 호소 등 수질보전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장래 수질보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1974년부터 운영되었다. 시·도와 수자원공사가 측정업무를 분담하여 환경부에 보고하고, 환경부에서는 총괄적으로 측정자료를 관리하여 수질변화 추이파악 및 분석을 실시하여 수질개선 대책수립에 이용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상수원수 수질측정망 지점은 502곳이며, 경기도내 수질측정망은 하천수가 26곳, 호소수는 광교·가능·광백 등 4곳으로 총 30곳에서 측정·운영하고 있고, 측정항목은 상수원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하천수는 BOD 등 23개 항목, 호소수는 COD 등 23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다. 양평군 관내에서는 5곳에서 측

표 3. 상수원수 수질측정망 지점

취수장 명칭	취수장 위치	수계
지제	양평군 지제면 마룡리	흑천
양평	양평군 양평읍 회현리	흑천
양동	양평군 양동면 쌍학리	계정천
양서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북한강
용문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흑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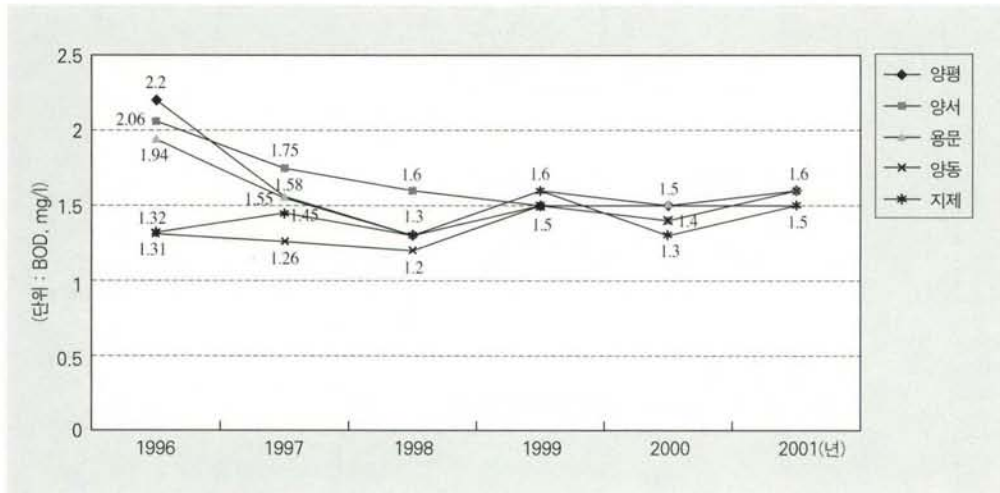


그림 3. 상수원수 수질측정망 오염도(BOD)

정하고 있는데, 지점별 현황은 위와 같다.

양평·양서·용문 취수장의 경우 1996년에는 BOD 기준 2ppm을 상회하였으나 그 뒤로 꾸준히 낮아져 현재는 1.5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동·지제 취수장은 주변 수질이 깨끗하여 1.3 정도를 꾸준히 나타내고 있다.

3) 하천 및 호소 측정망 현황

하천 및 호소 측정망은 전국 하천 및 호소 등 수질보전대상 공공수역에 대한 수질현황을 파악하여 수질변화 추세를 파악하고 이미 집행된 주요 정책사업의 효과를 분석하여 장래 수질보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환경오염의 조사), 수질환경조사법 제3조(상시측정)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2(원수의 수질검사) 등의 법적 근거로 수행하고 있으며, 월 1회 현지출장 시료채취 및 분석 후 환경부·경기도 및 해당 시·군에 보고 및 통보하고 있다. 이 중 양평군과 관련된 측정 지점별 위치는 다음과 같다(표 4).⁵⁾

표 4. 양평군 관련 하천 및 호소측정망 측정 지점

수계	지점명	채수지점	조사기관
남한강	강상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양평교)	원주지방환경관리청
남한강	양평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이포나루)	원주지방환경관리청
한강	흑천 1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광현리)	원주지방환경관리청
한강	흑천 2	양평군 양평읍 원덕리(흑천교)	원주지방환경관리청
한강	팔당댐 1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다루데기나루터)	한강수질검사소
한강	팔당댐 3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월계사 앞)	한강수질검사소
한강	팔당댐 4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한강수질검사소 앞)	한강수질검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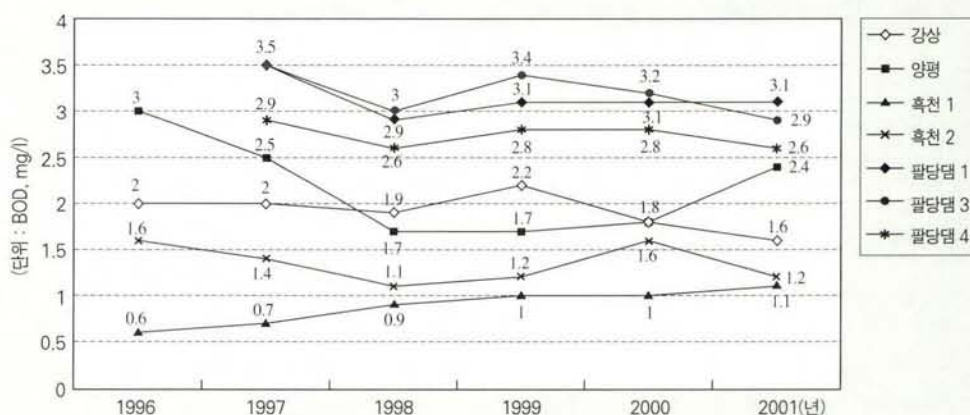


그림 4. 하천 및 호소측정망 BOD 오염도

2001년 현재 팔당댐 1, 팔당댐 3, 팔당댐 4, 양평지점은 BOD 기준 2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강상, 흑천 1, 흑천 2 등 주로 흑천 수계에 해당하는 곳은 BOD 기준 2 이하로 대체로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2. 토지자원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지역은 인구집중과 이에 따른 다양한 토지개발로 말미암아 시가지 면적은 53.9%가 증가한 반면, 농경지와 산림지역은 각각 58.7%, 38.7%가 줄어들었

5) 경기도, 2001, 『경기도 환경백서』.

6) 경기도, 위의 책.

다.⁷⁾ 수도권에 이 같은 과도한 토지개발은 도시녹지의 훼손과 파괴의 주범역할을 하였다. 현재 수도권의 녹지는 대부분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개발의 논리에 의해 생육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현대사회의 도시적 토지이용에 따른 녹지공간의 파괴는 두 가지 면에서 환경파괴를 가져오고 있다. 먼저 녹지의 파괴는 도시역(都市域) 내에 개발밀도의 상승과 함께 진행된다. 도심건물의 과도한 밀집은 지표면의 포장과 지하공간의 파괴, 건물 복사열과 도심기류의 변화 등을 유발하여 도시 미기후(micro-climate)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인구활동의 고밀화에 따른 다양한 소음 및 폐기물의 발생을 유발한다. 둘째는 녹지공간의 파괴 그 자체가 주는 효과이다. 이 효과는 공기순환기능의 단절, 지표수 및 지하수의 정수기능의 폐절, 도심 생물군의 변화, 주민 휴식공간의 축소 등으로 나타난다.⁸⁾ 최근 녹지공간의 파괴는 토지이용의 전환에 의해서뿐 아니라 산성비나 도시 미기후의 변화, 온도상승 등에 의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특히 산성비는 잎새 및 침엽 공극으로의 태양광선의 흡수를 약 40%까지 감소시켜 식물의 광합성작용을 둔화시킨다.⁹⁾

1) 토지이용

양평군은 산지와 하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형적인 특징으로 말미암아, 이들 토양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토지이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산지사면과 하천 주변 충적지를 이용한 농경지역, 산지지역의 지질적인 특징을 이용한 광산지역, 그리고 관광지역 및 휴양림지역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토지이용에 대한 형태와 특성을 정리하는 것은 양평군의 토지이용 현황 및 앞으로의 변화양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1) 농경지

양평군의 농경지는 논과 밭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그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농경지 139.1km² 가운데 논농사지역은 77.2km², 밭농사지역이 61.9km²로 나타났다.¹⁰⁾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논농사지역이 밭농사지역에 비해서 우세하다. 이 중 논농사지역은 대부분 하천 주변의 배후습지 및 자연제방을 개간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고, 밭농사지역의 대부분은 산지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양평군의 산지지역 이용에서 밭농사지역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이유는 밭의 대부분이 산지 사면에 있기 때문에 밭농사에 따른 토양침식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양평군의 지역별 농경지의 면적 및 면적분포는 다음과 같다(표 5, 그림 5).

7) 국토개발연구원, 1997,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 구상(1997~2001)』.

8) Cutter, S.L. and Renwick, W.H., 1999(3th edition), *Exploitation, Conservation, Preservation : A Geographic Perspective on Natural Resource Use*, John Wiley & Sons.

9) Howells, G., 1990, *Acid Rain and Acid Waters*, Ellis Horwood.

10) 양평군, 2000, 『양평군 통계연보』, 통계청.

표 5. 양평군 행정구역별 농경지 면적

(단위 : km)

행정 구역	농경지		행정 구역	농경지		행정 구역	농경지		행정 구역	농경지	
	밭	논		밭	논		밭	논		밭	논
양평읍	6.16	8.20	강상면	3.93	4.69	강하면	2.94	4.05	양서면	3.95	4.81
옥천면	3.03	4.62	서종면	4.22	4.88	단월면	4.87	5.81	청운면	5.86	5.71
양동면	7.91	8.58	지제면	8.00	10.15	용문면	7.18	8.82	개군면	3.91	6.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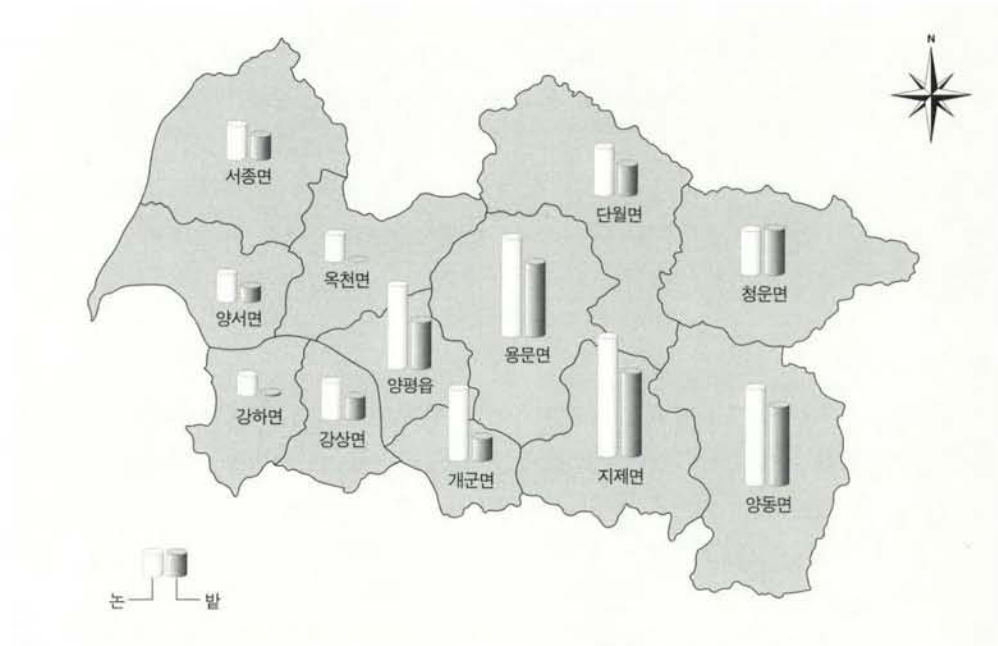


그림 5. 양평군의 지역별 농경지 면적분포

(2) 광 산

2002년 현재 양평군의 산지지역에는 모두 4곳의 광산이 있다(표 6). 이 광산들은 대부분 편마암 계열의 지질분포를 보이는 산지에 있는데, 주요 생산물은 규석·견운모·금·은 등이다. 이와 같은 광산지역은 경제적으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이점이 있으나, 산림

표 6. 양평군의 주요 광산

광산명	위치	광산물
동경규석 광산	청운면 갈운리 산 143	규석
유성 광산	서종면 노문리 산 97-1	견운모
신흥 광산	용문면 삼성리 108	금·은
신당 광산	청운면 삼성리 산 49	금·은



그림 6. 용문산 관광지 개발현황도

의 훼손·하천수의 오염·토사의 유출 및 지하수 오염이라는 환경적인 문제점 역시 안고 있다. 따라서 광산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폐광이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부터 합리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하는 대책이 요구된다.

(3) 관광지 및 휴양림

산지지역은 자연 환경 조건으로 말미암아 각종 국립 및 도립·시립공원 등 관광지로 이용하는데 적합한 지역이다. 우리 나라 역시 1960년대 말부터 산지지역의 관광지화를 정책적으로 시행하였으며, 1970년대의 자연보호시대, 1980년대의 여가와 휴양시대를 거쳐 현재는 합리적인 관리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관광시설 중심의 개발, 이용자의 급증에 따른 환경훼손 등 산지지역 관광지의 자연환경 보전에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양평군의 경우에도 용문산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지에 각종 위락시설이 산지지역에 다수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관광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환경·생태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용문산은 이름처럼 거대한 용(龍)을 연상시킨다. 힘차게 내리뿜은 산세가 그렇고 울창한 숲과 풍부한 물 역시 그렇다. 광주산맥의 일부인 용문산(1,157m)은 양평군의 북쪽 경계선 한가운데 우뚝 솟은 명산으로 경기도에서 네번째로 높은 산이다. '제2의 금강산', '경기의 남설악'으로도 불리는 이 산은 산골짜기마다 흐르는 계곡과 울창한 숲으로 장관을 이루며, 고찰 용문사를 비롯 사나사·상원암 등의 사찰과 함왕 왕터·공손 은행나무 등의 문화유적이 남아 있다.¹¹⁾



중미산 휴양림의 산책로

한편 용문산에는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된 수령 1,100년의 은행나무가 있는데, 일년에 수확 가능한 은행(銀杏)이 무려 15가마나 된다고 한다. 나무에 관한 전설도 있어, 하나는 통일신라가 망했을 때 금강산으로 찾아가던 마의태자가 이곳에 들러 고향을 돌아보고 눈물을 흘리며 심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상대사가 불법의 위대함을 보이기 위해 지니던 지팡이를 쬔 것이 이처럼 장대하게 자랐다는 것이다.¹²⁾ 따라서 전자의 전설이 사실이라면 수령은 1,100년이고, 후자의 전설이 사실이라면 수령은 1,300년 이상이 된다.

휴양림은 자연생태계를 유지·보전하면서, 공익재(公益材)의 생산 공간으로 질서있게 개발하여 국민의 보건휴양, 정서함양, 산림 소유자의 소득향상 및 대국민 산림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하는 산림을 칭하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림을 지정할 수 있다.¹³⁾ 휴양림에 설치 가능한 기본시설로는 산책로, 야영장, 편익시설, 어린이 놀이터, 체력단련 시설, 자연 관찰원, 야외교실 등이 있고, 특수시설로는 수렵장, 수목원이 있다.

휴양림은 가능하면 자연상태의 산림을 이용하여 휴양 중심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하면 시설을 최소화하고, 휴식과 관찰, 학습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주차장 등을 국도나 지방도 가까운 곳에 설치하고 가능하면 도보로 휴양림을 이용하도록 하여 산림의 휴양림 기능을 극대화하고, 시설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삼림훼손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1) 양평군지편찬위원회, 1991, 『양평군지』, 양평군.

12) 양평군지편찬위원회, 위의 책.

13) 산림청, 1996, 『국토탐방로 연결계획구상』, 산림청 산지계획과.

중미산은 양평군 옥천면에 있는 해발 833m의 준령으로 가평군 설악면과 경계를 이룬다. 골이 깊고 형세가 웅장하여 정상에 서면 먼 발치에 용문산과 백운봉이 한눈에 잡힌다. 중미산은 광릉수목원과 함께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휴양림으로 각광받고 있는 곳이다.

중미산 휴양림은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곳으로 서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한철 쉬어갈 수 있는 수도권 주변의 대표적인 국민휴식공간이다(2001년에는 2만 6,700명이 이곳을 찾았다). 편의시설 또한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야영장, 삼림욕장, 어린이 물 놀이터, 자전거 코스, 사색의 숲 등이 곳곳에 잘 단장되어 있다.

(4) 산지의 이용과 보전의 조화

산지지역에 대한 현대사회의 매력은 매우 크다. 삼림자원의 공급, 산소 생산과 이산화탄소의 흡수 기능, 함수(含水) 기능, 산사태와 홍수의 조절기능은 산지지역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생태적 가치이다. 또한 휴양기능, 수려한 경관에 대한 요구 등도 산지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으로 환산되지 않는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이러한 산지에 대한 생태적인 보존에 대한 요구와 산지에 대한 이용을 동시에 요구하는 모순에 빠지기도 한다. 산지에 대한 이러한 토지이용에 대한 공급은 무한한 것이 아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 또한 거의 불가능하다. 훼손되는 만큼 피해가 오며, 훼손이 심할수록 피해는 지수적(指數的)으로 증가한다. 따라서 산지지역에서의 산업적 이용, 택지 공급원 등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적어도 자연림 지역에서는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 외의 기능은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¹⁴⁾

21세기의 산지이용에 대한 전망을 정리하면,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과 임업적인 기능을 강조하면서도 산지에 대한 산업과 도시적 토지공급의 압력에 의해서 공장, 택지, 스키장, 골프장 등으로 산지개발을 강조하는 모순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¹⁵⁾ 따라서 이미 개발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평가되는 우리 나라의 산지에 대한 개발 정책은 재고해야 하며, 더욱이 산림의 보존 상태가 매우 우수한 양평군의 경우에는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2) 생태지향적인 양평군의 토지이용

제1장 자연환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양평군은 매우 우수한 녹지공간 면적 및 녹지자연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한다. 따라서 현재의 이와 같은 우수한 생태적 특성을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향후 양평군 내에서 일어날 각종 토지이용 및 경관계획에 생태지향적인 실천방안이 지속적으로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지형경관에 기초한 지

14) 산림청·대한지리학회, 1997, 『백두대간 실태조사 및 합리적인 보전방안 연구』.

15) 국토개발원, 1997,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에 관한 연구』.

역계획”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¹⁶⁾

“지형경관에 기초한 지역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본적으로 지형경관을 대권역과 소권역으로 구분한 후 권역별 지형경관의 특징을 살펴보고, 생태적 중요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각의 지형경관에 허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을 제한하며 동시에 금지·제한되어야 할 토지이용을 설정하며, 이러한 계획을 지역의 지형경관에 적용하여 생태지향적인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⁷⁾

물론 이러한 지형경관의 분류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연구의 결과가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연구방법의 주된 내용인 세부 권역 분류와 권역별 이용 및 금지방안 제시는 지형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가치, 외부의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과 회복속도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 다양한 지형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지역계획에서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표 7. 생태 지향적 지역계획에서 권고하는 지형경관의 유형과 이용 가능성

지형경관 유형	이용방안
산록완사면(Piedmont)	도시화 정책 시행의 주무대
고지대(Upland), 해안평야	가능한 한 개발 자제
지표수(하천, 호수)	절대적으로 보호
습지	도시화 정책 배제, 자체의 생태적 기능 인식 요구
범람원	도시화 정책 배제
대수층	도시화 정책 제한
급경사지	개발에 신중성 요구
산림(forest)	개발에 신중성 요구
농업지역	농업생산성의 창고, 농업기능 지속

양평군의 지형경관별 이용현황을 제1장의 자연환경에서 구분한 지형경관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표 8). 우선 양평군의 지형경관은 크게 산지지역·산간 분지지역·하천 및 하천 주변지역으로 구분되고, 각각의 지형경관은 다시 세부적인 지형으로 세분된다.

양평군의 경우 산지지역은 대부분 자연녹지 및 산림보전지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 광산 및 군부대·위락시설이 입지하여 있다. 산간분지의 경우, 산록완사면은 소규모 촌락 및 농경지 지역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분지저(盆地底)의 침식 평탄지는 도시화 시행의

16) 박의준, 2001, 「예방적 차원의 도시환경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용·용지리』 제22호

17) Ruzicka, M. and Miklos, L., 1990, *Basic Premise and Methods in Landscape Ecological Planning and Optimization*, Springer-Verlag.

표 8. 양평군의 주요 지형경관별 이용현황

지형경관 분류		주요 이용현황	비고
대권역	소권역		
산지	급경사 지역	보호지역, 자연산림 지역	일부 지역에 광산 및 위락 시설, 군부대 입지
산간분지	산록완사면, 구릉지	소규모 촌락, 농경지 지역	양평군 대부분의 자연취락
	분지저	도시화 정책의 주무대	양평읍
하천경관	하천	철저한 개발 제한	상수원 보호구역
	범람원	농경지 및 촌락	

무대로써 이용되고 있는데 이의 대표적인 지역은 화강암 침식 분지저에 입지하고 있는 양평읍이다. 또한 하천의 경우, 상수원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유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보호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자연제방과 배후습지로 이루어져 있는 범람원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농경지 및 촌락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지형·경관별 이용 현황을 정리하면 양평군의 토지이용 및 경관계획은 자의건 타의건 간에 선진국 생태도시의 지형경관 구조와 비교해도 조금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양평군의 자연생태 우수마을

우수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생태계 보전지역 등의) 법적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자연경관이 우수한 도내 147개 지역에 대하여 시·군 자체 환경보전관리대책 수립 및 지역주민 휴식처, 생태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먼저 147곳에 대하여 홍보를 하고 있다. 우수한 자연환경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자율적인 환경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자연 그대로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생태관광 자원으로 개발보전하거나 자연휴양림과 생태학습장으로 개발·제공할 예정이다. 양평군에서는 6개 지역이 자연환경보전 및 우수사례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한편 환경부는 2002년 2월 8일 자연생태계를 잘 보전하거나 훼손된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복원한 전국 11개 마을을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선정하였는데, 그 중에서 양평군 명달마을이 선정되었다. 명달리는 경기도 가평군·청평군 및 강원도 홍천군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있는 통방산·중미산·유명산 줄기에 있는 해발 660m 정도에 있는 작은 산촌으로 양평 시내에서는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다. 서울과의 거리는 차량으로 약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데, 남한강과 북한강을 허리에 끼고 자리잡은 높은 산과 어우러져 있는 계곡은 많은 잣나무가 있으며 주변 중미산 휴양림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매력을 느끼게 한다.

이곳에서는 개발논리와 정반대가 되는 ‘산촌 녹색관광 프로젝트’가 국내 최초로 시도돼 주목을 받고 있다. 이곳은 마치 설악산 깊은 곳을 방불케 하는 깊고도 오밀조밀한 산세를 갖

추었으며, 상수원 보호구역이어서 개발이 제한돼 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처녀지로 토끼와 청설모 등 야생동물도 심심찮게 나타난다. 녹색관광은 농촌 및 산촌의 자연생활 문화자원을 도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마을의 소득증대를 꾀하는 전략이다. '관람형'이 아닌 '체험형'을 지향하며 주민들이 '체험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관광지와 구별된다.

표 9. 자연환경보전 및 우수사례 현황(양평군)

선정지역	위치	내용
사나사계곡	옥천면 용천리 304	하천 및 계곡의 자연경관이 수려함
중미산휴양림	옥천면 신북리	자연녹지 우수사례
보호수(느티나무)	양서면 양수리	수령이 오래된 느티나무를 보호수로 지정관리
용문사 은행나무	용문면 신점리 626-1	천연기념물 제30호
추읍산	용문면 삼성리	자연녹지가 울창하고 경관이 수려함
갈현계곡	옥천면 용천2리	계곡주변의 자연림 경관이 수려함

출처 : 경기도, 2000, 「경기도 환경백서」

녹색관광(Green Tour)은 농·산촌의 자연, 생활, 역사 및 문화자원을 재발견하여 도시민과의 교류를 통하여 농·산촌을 활성화시키는 지역활성화 전략의 하나이다.¹⁸⁾ 쉽게 말해 “농·산촌에서 즐기는 여유로운 휴가”로 이해할 수 있다. ①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농·산촌에 대한 향수와 농·산촌 보전의식이 성숙되었다는 점, ② 답답한 도시를 떠나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농·산촌지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다는 점, ③ 농·산촌의 새로운 소득증대와 고용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의 이유로 국내에서도 녹색관광이 차츰 발전할 전망이다. 특히 산림자원이 풍부한 국내의 경우, 산촌을 대상으로 한 녹색관광의 발전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시적인 결과는 결국 양평군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추진하여 온 친환경적인 군정(郡政)의 결과이며, 동시에 이는 양평군의 토지이용이 생태지향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3. 폐기물 문제

1)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시·군의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은 시·군별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몇 가지 방식을 택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양평군의 경우 군에서 직접 수거하는 직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종량제 규격봉투의 재질은 대부분이 폴리에스테르(PE)가 주종을 이루지만 전분 등이 함유된 썩는

18) 김귀곤, 1994, 「생태도시와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과 생명』 여름호.

비닐을 사용하는 시·군이 4개 있는데, 그 중에는 양평군도 포함된다.

양평군에 운영중인 폐기물 매립시설은 지제면 무왕리 산 93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부지면적 10만 5,000㎡, 1일 매립량 22톤, 침출수 발생량 47㎡/일이며 처리방법은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있고, 지하검사정은 4곳이 있다.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에 설치한 매립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 또는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시설별 관리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하검사정을 수시로 검사하여 인근지역 지하수 오염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또한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의 7곳(광주 4·양평 3)에 대해서는 국비 15억 원을 지원 받아 매립된 쓰레기 전량을 이전처리함으로써 오염원을 제거할 계획이다.¹⁹⁾

현재 양평군에는 사용이 종료된 매립지가 총 3곳 있다. 팔당 특별대책지역 내의 사용 종료된 매립지에 대해서 국비의 지원을 받아 매립쓰레기 전량을 소각 및 위생매립지로 이전함으로써 매립지에 의한 오염원을 제거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관계지침에 의거 소요사업비는 국비와 군비로 각각 50%씩 부담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행정자치부에 관계지침 개정을 건의하였고 환경부와도 협의 중에 있다.

2) 하수처리

하수처리의 주대상은 생활하수 중에서 오수이며, 하수는 공공하수도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된 후 공공수역에 방류된다. 하수처리시설이 미비한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대해서는 개별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처리·방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리시설 설치대상시설이 아닌 경우는 생활하수가 미처리되어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수처리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이므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단일체계에 의해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 하수도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수립하고 하수도설치의 신청, 유지관리, 하수도사용료 징수 모두 시·군의 기초지자체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양평군은 1990년 7월 환경부로부터 수도권 광역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1994년 4월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오·폐수를 깨끗하게 처리하고자 환경사업소를 신설하였다. 하수 및 오폐수처리를 위해 그 동안 확충된 시설의 건립과정은 다음과 같다.

- 1985. 7. 3 양평 위생처리장 준공
- 1992. 12. 9 창대리마을 하수도 준공

19) 경기도, 앞의 책.

1992. 12. 9	세월리마을 하수도 준공
1992. 12. 9	석장리마을 하수도 준공
1993. 3. 30	하자포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1993. 7. 12	용문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1993. 10. 12	양서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1993. 10. 2	부리 간이 축산분뇨처리장 준공
1994. 1. 30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1994. 4. 29	환경사업소(환경보호과에서 분리) 신설
1997. 1. 31	양평 위생처리장 증설 완공
1997. 8. 5	양평 분뇨처리장 준공
1998. 4. 29	서종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1998. 4. 29	강하 하수종말처리장 준공
1999. 6. 30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증설(5,100 → 7,000m ³ /일)
2000. 5. 8	양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800 → 1,200m ³ /일)
2000. 12. 31	용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1,300 → 2,000m ³ /일)

표 10. 하수종말처리장 현황(6개소)

구분	양평	용문	양서	하자포	강하	서종
위치	옥천면 옥천리 903-15	용문면 다문리 834-1	양서면 양수리 814-1	개군면 하자포리 365	강하면 운심리 216	서종면 문호리 84
시설용량(m ³ /일)	7,000	2,600	2,000	300	3,600	900
사업비(백만원)	13,245	2,210	13,643	1,065	19,996	4,356
처리방법	표준활성 슬러지법	P/LⅡ 공법	SBR공법	토양피복형 접촉산화법	산화구법	토양피복형 접촉산화법
설치 인가일	91. 3. 13	91. 3. 13	91. 3. 13	91. 3. 13	95. 12. 7	96. 5. 7
사업기간	(1차증설) 97. 11. 15~ 99. 6. 20	(증설) 00. 3. 2~ 00. 12. 31	(증설) 98. 7. 27~ 00. 5. 8	91. 7. 20 ~ 93. 7. 12	96. 1. 5~ 98. 4. 29	96. 5. 8~ 98. 4. 29
처리구역 인구(명)	18,700	8,100	5,000	800	8,700	2,200
부지면적(m ²)	19,389	6,581	10,533	5,487	23,176	10,400
처리구역 면적(km ²)	2.701	1.216	1.003	0.175	2.389	0.313
차집관로(km)	57.43	12.60	27.55	2.50	45.67	5.10
중계 펌프장	12개소	1개소	7개소	1개소	5개소	1개소

표 11. 양평군 하수 및 오폐수 처리장 현황

구분	개소	시설명	처리용량
계	21		18,170m ³ /일
하수종말처리장	6	양평, 용문, 양서, 하자포, 강하, 서종	16,400m ³ /일
마을 하수도처리장	16	창대리, 석장리, 세월리 새터, 새수골, 초왕골, 거치리, 애플, 저른, 취락, 진목, 평장, 원두물, 광암, 밤나무골, 옥천 문화마을	1,460m ³ /일
축노 및 위생처리장	3	양평축노, 부리축노, 위생(분뇨)처리장	310kl/일

표 12. 증설 및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양평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양서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 위치 :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903-15 · 사업량 : 시설용량 6,000톤/일, 차집관거 70km · 총소요사업비 : 446억 3,000만 원 · 공사기간 : 1999. 9~2002. 9 · 처리방법 : 5-stage BNR공법 · 시공회사 : 삼성엔지니어링(주) 외 3개회사 · 발주처 : 환경관리공단	· 위치 :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814-1 · 사업량 : 시설용량 1,200톤/일, 차집관거 11km · 총소요사업비 : 115억 9,200만 원 · 공사기간 : 1998. 7. 27~2000. 10. 26 · 처리방법 : SBR공법 · 시공회사 : 삼성엔지니어링(주) · 발주처 : 환경관리공단
용문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지평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 위치 :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834-1 · 사업량 : 시설용량 2,600톤/일 · 기존 : 1,600톤/일 · 증설 : 1,000톤/일 · 총소요사업비 : 4억 원 · 공사기간 : 2000. 3~9(소요기간 6개월 예정) · 처리방법 : P/L II 공법	· 위치 : 양평군 지제면 지평리 일원 · 사업량 : 시설용량 1,500톤/일, 차집관거 30km · 총소요사업비 : 116억 9,000만 원 · 공사기간 : 사업인가 후 결정(소요기간 24개월 예정) · 처리방법 : 미정(설계 중)

3) 분뇨처리

인간의 분뇨발생은 1인당 하루에 1리터 정도가 되는데 이중 분(糞)이 14%, 뇨(尿)가 86%로 추산된다. 2000년말 현재 양평군의 분뇨발생량은 1일 83톤씩 발생하고 있다.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하는 것은 정화조 또는 오수정화시설에서 1차 처리하고 있고, 이를 다시 수거하여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최종처리하며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 변소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직접 수거 수집하여 분뇨처리시설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현재 양평군에서 운영중에 있는 분뇨처리장은 양평읍 양근리 34번지에 있으며, 하루 처리능력은 90톤이다. 이 분뇨처리장은 1985년, 1994년, 1997년에 공사를 하였으며, 처리방식은 액상부식 하수연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4) 축산폐수처리

축산폐수는 소·말·돼지의 분뇨와 축산 세정수가 혼합되어 발생하는 폐수로 오염 부하량이 높아 미처리 방류시 하천의 수질악화 및 호소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며 상수원 및 농업용수를 오염시킬 뿐 아니라 악취 및 해충 발생 등으로 쾌적한 농촌환경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양평군의 축산폐수 발생량은 727m³/일에 이르고 있다. 축산물은 국민보건 향상과 식생활에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업은 농촌경제의 주요 소득원으로 축산폐수의 적절한 처리는 중요하다.

현재 양평군에서 운영중인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개군면 부리 441-1번지에 있으며 처리용량은 20킬로리터이다. 하수연계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2억 4천만 원을 들여 1992년 12월에 완공하였다. 규제미만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는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팔당특별대책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축산폐수가 1일 400톤 이상 발생하는 일반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하고 있다. 1997년 현재 양평군에서 운영중인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옥천면 옥천리 7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처리용량은 200킬로리터다. 국비 55억 원·도비 15억 3천만 원·군비 10억 원 등 총사업비 80여억 원을 들여 1997년에 완공하였다.

표 13. 위생 및 축산분뇨처리장

구분	위생처리장	양평축노처리장	부리축노처리장
위치	양평읍 양근리 34, 35	옥천면 옥천리 7	개군면 부리 441-3
용량(kl/일)	90	200	20
사업비(백만원)	4,479	8,204	240
처리방법	BiosSUF 1995. 12. 29~1997. 1. 31	자연정화법 1995. 12. 29~1997. 8. 5	저장액비화법
사업기간	시설개선기간 (2001. 6. 18~12. 28)	시설개선기간 (1999. 11. 26~2000. 3. 30)	1991. 12. 31~1993. 12. 3
부지면적(m ²)	4,486	9,446	1,111
처리구역 및 면적(km ²)	군 전지역(878.21)	군 전지역(878.21)	부리(0.12)
차집관로(km)	방류관로 : 1.2	방류관로 : 1.865	1.75

제2절 한강상수원으로서의 양평군

양평군은 한강을 비롯한 다양한 치수와 규모의 하천이 분포하고,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수문 생태적인 접이지대이며 연간 수분 잉여량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의 하나라는 수문환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군(郡)의 90% 이상이 녹지 및 준(準)녹지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표 유출(surface runoff)에 의한 수자원의 손실이 적으며, 한강 상수원으로서 법적·제도적 규제 및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양평군 건설을 위해서는 수자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대책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지역이다.

1. 각종 규제정책

팔당 상수원은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우리 나라 최대의 상수원으로서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 팔당호는 남한강, 북한강, 경안천의 합류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담수량은 2억 4,400만톤으로 현재 1일 775만톤을 취수하여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일원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지역, 특히 팔당호 상류지역은 표 14·16과 같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같은 수도권 지역에 속하면서도 팔당수계지역이라는 이유로 인근지역에 비해 개발에 제한이 가해질 뿐만 아니라 각종 행위제한으로 상류지역 주민들은 큰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다.²⁰⁾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을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오·폐수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발생되는 오·폐수를 맑고 깨끗이 정화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운영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불법행위의 철저한 단속을 위해 지도·단속 전담 기수인 '한강환경감시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환경부 장관, 5개 시·도지사(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구성된 '한강수계 관리위원회'를 운영,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현안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²¹⁾

20) 이양주·박경미, 1999, 「상수원 주민의 환경의식 조사 : 양평군을 사례로」, 『경기연구』 4, 137~153쪽.

21) 최지용, 1998,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방안」, 『팔당 상수원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표 14. 규제에 따른 관련법 현황

	근거법	연도	해당부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1975	건교부 → 환경부
자연보전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1982	건교부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1990	환경부
청정지역	수질환경보전법	1991	환경부
수변구역	한강수계법	1999	환경부

그러나 각종 법령규제의 중첩으로 말미암아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불편이 고조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수도권정비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도시계획법·수도법(水道法)·한강수계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해 토지이용에 규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는 것도 양평군의 현실이다.²²⁾

1) 상수원보호구역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1975년 7월 9일 양평군을 비롯하여 남양주·하남·광주 등 4개 시·군 157.3km²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입지·어로 행위·행락·쓰레기 투기 등 각종 수질오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²³⁾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를 위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상수원 수질을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여 국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된 취수구(取水口) 상류의 수면과 인접한 토지를 말한다. 보호구역지정은 보호구역 관할시장·군수가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청하고, 시·도 지사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행위제한이 가해지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된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토지이용 및 생산활동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가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집단항의 및 민원이 빈발하고 있다. 서울 대도시권에는 서울·인천 각 1개소, 경기도 18개소 등 20개소의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팔당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남양주시·하남시·광주시·양평군의 157km²가 1975년에 지정되었으며, 양평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양평읍과 개군면 지역이 1995년에 지정되었다.

22) 최혁재, 1998,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국토개발연구원.

23) 최지용, 앞의 책.

표 15. 양평군의 상수원 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 규제현황

구분	상수원보호 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보전권역
		1권역	2권역	
지정일	1975년 7월	1990년 7월	1990년 7월	1982년 12월
공장	입지불허	·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불허 · 500톤/일 이상 배출시설 입지불허	·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지불허 · 기타시설은 규모에 상관없이 입지하여 BOD 20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허용	수도권정비계획법
숙박 시설	입지불허	· 연면적 400㎡ 이상 입지불허 -하수처리구역은 입지가능 -연면적 400㎡ 미만 입지가능 -간이오수처리조 설치	·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BOD 2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택지조성, 농업용지조성, 관광지조성사업 : 30,000㎡ 이상 금지(영 제13조), 60,000㎡ 이하 수도권 심의위원회 심의(영 제1조)
음식점	입지불허 -하수도정비완료지역은 제한적으로 허용	· 연면적 400㎡ 이상 입지불허 -하수처리구역은 입지가능 -연면적 400㎡ 미만 입지가능 -간이오수처리조 설치	·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BOD 2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인구집중유발시설인 학교,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직업훈련시설 입지금지(영 제13조)
축산 시설	입지불허	· 허가대상시설 입지불허(우사 : 450㎡ 이상, 약 40마리, 돈사 : 500㎡ 이상, 약 350마리) · 신고시설 입지가능(우사 : 350㎡ 이상, 돈사 : 250㎡ 이상)	·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허가대상 : BOD 및 SS 50ppm 이하로 처리 -신고대상 : BOD 1,500ppm 이하로 처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공장건립면적 500㎡ 이상 신·증설, 이전, 업종변경 금지(법 제20조)
양식장	입지불허	·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불허	· 신규입지 및 면허기간 연장불허	
일반 건축물	주택(100㎡ 이하, 영농시설, 공공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연면적 800㎡ 이상 입지불허 -하수처리구역은 제한없이 입지가능 -공공복리시설은 제한없이 입지가능	· 규모에 관계없이 입지하여 BOD 20ppm 이하 처리 또는 하수처리장 유입·처리시 입지허용	
골프장	입지불허	입지불허(1995년 2월 9일부터)	입지불허(1995년 2월 9일부터)	

표 16. 양평군의 토지이용 규제현황

구분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권역		상수원	개발 보호구역	군사시설 제한구역	수변구역 보호구역
		1권역	2권역				
면적(km ²)	878.21	371.6	242.7	25.7	17.2	3.25	44.1
총면적대비(%)	100	42.3	27.6	3	2	0.4	5



그림 8. 양평군의 토지이용규제 대상지역

표 17. 양평군 상수원 보호구역 대상지역

구분	지정일시	지정면적	지정지역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1975. 7. 9	25.7km ² (3%) 3면 10리	강하면	
			양서면	양수리, 용담리, 목왕리, 부용리, 신원리, 도곡리, 대심리, 국수리 일부
			서종면	문호리 일부
양평 상수원 보호구역	1995. 6. 30	0.542km ² (수면고지) 2읍면 6리	양평읍	회현리, 도곡리, 원덕리
			개군면	석장리, 공세리, 양덕리

2) 특별대책지역

1990년도 이후 팔당 상수원 수질이 1.0ppm 이상으로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도 맑은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1990년 7월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을 고시하였다. 그리고 양평군을 비롯하여 남양주·이천·용인·여주·광주·가평 등 7개 시·군에 대하여 총 2,101.9km²를 1·2권역으로 구분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음식·숙박시설 및 각종 건축물 등 오수 배출 시설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였다. 수질보전 특별 종합대책의 수립주체는 환경부장관이며, 필요한 경우 시·도 지사는 토지이용 및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특별대책지역은 호소수질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으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²⁴⁾ 팔당호 수질특별대책지역 1·2 권역의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2,102km²가 지정되어 있다.

표 18. 경기도내 특별대책지역 지정 현황

(단위 : km²)

행정구역	면적		
	계	1권역	2권역
양평	613.3(29.2%)	370.6	242.7
남양주	187.1(8.9%)	104.7	82.4
용인	207.4(9.0%)	50.4	157.0
이천	236.2(11.2%)	-	236.2
여주	249.2(11.9%)	218.8	30.4
광주	431.7(20.5%)	431.7	-
가평	177.0(8.4%)	78.3	98.7
총계	2,101.9(100%)	1,254.5	847.4

표 19. 양평군 특별대책지역 대상지역

(단위 : km²)

구분	1권역	2권역	제외지역
계	7읍면(371.62)	4면(242.77)	4면 일부(263.87)
대 상 지 역	양평읍(41.39)	용문면(101.04)	양동면 전체
	강상면(37.89)	청운면(18.53) : 여불·비룡	청운면 : 용두·가현·갈운·
	강하면(41.40)	단월면(49.13) : 향소·부안·덕수·	도원·신론·삼성·다대
	양서면(59.46)	보룡·봉상·삼산	단월면 : 명성·산음·석산
	옥천면(66.23)	지제면(73.42) : 송현·월산·지평·	지제면 : 무왕·일신
	서종면(92.31)	망미·대평·곡수·수곡·옥현	
	개군면(32.44)		

24)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특별대책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같이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타당하나, 지정 당시부터 해당지역 주민의 반대로 건축규제 수준이 매우 미약하여 오염원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는 사실상 적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90년초 규제완화 욕구가 분출하면서 자연보전권역의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1994년 국토이용관리법을 전면 개정할 때 전국토의 26%에 달하는 준(準)농림지역의 개발을 대폭 허용하면서 오염원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별대책지역 면적의 36%(747km²)에 달하는 준농림지역이 광범위하게 개발되어 팔당호 주변에 수많은 음식점 및 숙박시설이 들어서자, 1997년 9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준농림지역에 이들 시설의 건축을 다시 제한하기에 이르렀다.

3) 수변구역

수변구역(水邊區域)은 공공수역으로의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완충지대 혹은 보호지대로서 수질관리를 위한 일종의 유역관리구역이다. 수변구역 지정은 보안림 지정·오염 총량제 등과 함께 주요 오염예방대책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수변구역의 지정과 관리는 정부가 1998년 11월 확정 발표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의 주요 예방대책 중의 하나이다. 수변구역은 하천 및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설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자정과정 없이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수변구역 지정기준은 특별대책지역은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로 되어 있고, 농림지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상수원 보호구역 등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과 하수처리구역·도시지역·취락지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된다. 수변구역이 지정되면 음식점·숙박시설·목욕탕·축사·공장의 설치는 일체 금지된다. 다만 특별대책지역 밖의 수변구역에서는 공장만 설치할 수 없고 나머지 시설은 일정요건하에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수변구역내 일정토지는 한강수계 관리위원회가 주민과 협의·매수하여 수변녹지로 조성하도록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에 계획되어 있다. 양평군의 수변구역 예정지 전체 면적은 74.4km²로 전체 예정지 428.3km²의 17.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상수원 보호구역 등 법정제외지역 면적 30.2km²를 제외한 44.1km²가 수변지역 지정·고시지역이다. 수변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의 면적은 총 59.7km²로 전체 대상지역의 80.2%를 차지하며, 나머지 하수처리구역·도시지역·취락지역·자연부락 등이 19.8%를 차지하고 있다.

1999년 9월 30일 양평·용인·이천·여주·광주·가평 등 6개 시·군에 대하여 특별대책 지역 내에는 하천·호소의 경계로부터 양안 1km 이내, 특별대책지역 외에는 양안 500m 이내 지역 중 상수원 보호구역·군사시설 보호구역·하수처리 구역 중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 중인 지역, 하수처리 예정지역·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중 기존 취락지역을 제외한

표 20. 양평군 수변구역 현황

(단위 : km²)

읍면별	리별	지정면적	읍면별	리별	지정면적	읍면별	리별	지정면적
양평읍	계	5.476	강상면	세월리	1.762	옥천면	아신리	2.128
	양근리	0.027	강하면	계	6.622	서종면	계	8.219
	오빈리	1.75		운심리	2.950		문호리	5.445
	덕평리	0.146		왕창리	1.459		수입리	2.774
	도곡리	0.094		전수리	3.213	개군면	계	6.310
	회현리	2.222	양서면	계	5.230		하자포리	0.897
	창대리	1.237		신원리	0.238		구미리	1.094
강상면	계	9.151		도곡리	0.683		양덕리	1.351
	병산리	2.983		대심리	1.923		석장리	0.979
	송화리	0.473		국수리	0.504		부리	0.302
	교평리	2.276		북포리	1.882		상자포리	1.687
	신화리	0.119	옥천면	계	3.095			
	화양리	1.538		옥천리	0.967			

표 21. 수변구역 규제 현황

구분		특별대책지역내	특별대책지역외
신규 오염원 입지제한	가축사육시설	설치금지	신고대상규모 이하 허용(축산폐기 물 전량 공공처리장에 유입처리하 거나 지원화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설치금지	설치금지
	음식·숙박시설	설치금지	허용(오수처리기준을 10mg/l로 강화)
기존 오염원 고도처리		· 기존 음식·숙박시설 및 목욕탕은 10mg/l로 강화(2002년 부터) · 공동오수처리 제도 도입	
수변 녹지대조성		· 토지매수 또는 장기임대하여 초목지대, 인공습지 등을 조성하여 비점오염원 유입 최소화 · 지역특성에 맞는 수변녹지대 조성	
용도지역변경 제한		보전용지 및 준농림지역을 개발용도로 용도변경 제한	

지역 195km²를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폐수배출시설·축산폐수 배출시설·식품 접객업·목
육업·관광·숙박업의 신규입지를 금지하고 개발행위를 유발시키거나 환경오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용도 지역 및 지구의 지정(변경 포함)을 제한하고 있다.²⁵⁾

25) 송미영, 1999, 『경기도 지역수질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4) 한강오염 총량 관리제 및 물 이용 부담금 제도

2,000만 수도권 인구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경우, 오염원을 절감시킬 목적으로 각종 토지이용의 규제를 통해 '안전한 물의 충분한 공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집중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팔당호 수질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 상수도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심화되었다. 이와 같이 농도규제 중심의 배출수 관리와 상수원을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규제만으로는 오염총량의 증가를 억제할 수 없어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었으며, 유역내 주민과 기업의 자발적인 오염저감 및 배출저감 기술의 개발·도입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팔당유역은 수도권에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고 유역에 오염원이 상당히 입지하여 수질관리에 더욱 어려움이 있었다.²⁶⁾

이에 정부는 1998년말 '팔당호 등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에서 오염원의 총량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인 오염총량 관리제를 도입하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한강상수원수질보전및주민지원에관한법률이 1999년 2월에 통과되었다. 오염총량 관리제란 '특정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수질 오염물질을 한데 묶어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로 시장 및 군수가 오염 발생량의 연차적 삭감계획 등을 마련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해당 지자체에는 오·폐수처리장 설치비 등을 국가로부터 우선적으로 지원받게 되며, 축산시설 등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오염총량 관리제는 팔당상수원 보호와 이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공장, 음식점 등 각 업소에서 배출하는 폐수의 총량을 지역별로 정해 이 한도 내에서 허가를 내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양평군이 2000년 7월 최초로 이 제도의 시행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다른 지자체들도 잇달아 시행을 결정하였다. 양평군은 2003년부터 오염총량제를 실시하기 위해 용역조사를 이미 의뢰한 상태인데, 오염총량은 자치단체별로 앞으로 5년 동안의 지역개발계획과 인구 자연증가에 따른 오염물질 증가량 등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또한 "팔당호 및 팔당댐과 하류의 한강 본류 하천 구간에서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서울, 인천, 경기도 22개 시·군 지역의 최종수용자는 물을 이용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취지하에서 물 이용 부담금이 설정되었다. 물 이용 부담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심의·의결을 거쳐 시·군에 설치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배분되며, 시·군에서는 사업결과를 매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기금운영 계획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물 이용 부담금은 99년 기준으로 상수도 사용량 1톤당 80원 수준으로 부과되었고, 2001년 도에는 1톤당 110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이 월 2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요금 규정에 의한 수도 요금 외에 2000년에는 1,600원, 2001년에는 2,200원 정도

26) 송미영, 2000, 「물 이용 부담금 이용상의 문제점 및 과제」, 『경기논단』 가을호, 7~41쪽.

가 추가로 부담된다. 물 이용 부담금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주변 주민들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에 사용되도록 되어 있으며, 한강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물 이용 부담금은 2005년까지 2조 177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민지원사업은 한강법 제11조 및 시행령에 의거, 상수원관리지역 지정·관리로 재산권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는 규제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득 및 복지증진 등 재정지원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소득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상수원 수질보전 정책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유도를 목적으로 한다.²⁷⁾

표 22. 상수원 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적용기준

구 분	직접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대상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1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 1, 2권역
지원사업 분야	심야전기보일러 주택개량 학자금지원 어민의 이주, 전입 수계위가 인정하는 사업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기타 수계 위가 인정하는 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주민 소득증대와 관련한 수질 및 토양개선사업, 기타 수계위가 인정하는 사업
참고사항	상수원관리지역(예: 상수원 보호구역)의 배분액이 다른 상수원관리지역 (예: 수변구역 또는 1권역)으로 사업비가 전용되지 않아야 함		

각종 규제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수도사업자의 출연금과 환경개선 특별회계 국고지원금의 일부채원을 확보하여 4개 시·군 만 명을 대상으로 1996년부터 1999년까지 304억 원을 지원하였다. 2000년부터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까지 확대하여 8개 시·군 8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증진,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 주민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²⁸⁾

표 23. 주민지원사업의 변화

연도	근거법	재원	지원대상	지원액(억원)
1996~ 1999년	수도법 제6조	· 수도사업자 출연금 (수도판매 수입금 3%) : 70% · 환경개선특별회계 : 국고 30%	상수원보호구역 4개시· 군 1만명	304
2000년 이후	한강수계법 제11조	· 한강수계관리기금 (물 이용 부담금)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 역, 특별대책지역 8개 시·군 8만명	· 2000년 : 524 · 2001년 : 644

27) 이기영·이철우, 2000,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오염총량 관리제의 효율적인 시행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8) 경기도, 앞의 책.

조성된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은 1개 보호구역이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인구비율로 나누며, 1개 시·군에 2개 이상의 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보호구역별 출연 규모로 분배한다. 1997년 지원실적으로 보면 팔당댐 상류지역 4개 시·군(남양주시·광주시·양평군·하남시)에 63억 원이 지원되었다.

5) 상수원변 유해물질 수송차량 통행금지

양평군은 유류 및 유독물 차량 등의 전복 또는 추락으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2000년 10월 23일부터 팔당 상수원 주변 3개 구간 35.8km를 차량통행 제한도로로 지정하여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질오염 사고에 대비한 방제훈련을 상·하반기에 2회 실시하고 있다. 통행제한 차량은 유류·유독물·특정수질 유해물질·액체상태의 지정폐기물·농약·방사성 물질 등을 수송하는 차량이다. 유해물질 수송차량 중 농가에 농약 등을 운반하는 차량 등 부득이 통행해야 할 경우 통행제한 도로구간의 시작점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통행제한 도로 및 구간은 팔당호 주변 6번 국도(남양주시 팔당대교~양수대교~용담대교~양평군 양서면 신원리)와 45번 국도(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337번 지방도(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양평군 강하면 운십리) 등이다.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기로 되어 있다.

표 24. 상수원 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도로 현황(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

도로명	구간현황	구간길이
국도 6호선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12km
국도 45호선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7km
지방도 337호선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양평군 강하면 운십리	16.8km
계		35.8km

2. 맑은 물 사랑을 위한 노력

“맑은 물 사랑”은 우리 나라가 2006년부터 물부족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물 오염으로 인한 지구 전체의 위기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자손만대에 깨끗한 물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양평군은 군정의 최우선 시책 사업으로 “맑은 물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2002년 현재 양평군 총 예산의 35.2%가 “맑은 물 사랑” 실천 예산으로 잡혀 있을 정도로 양평군은 “맑은 물 사랑”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맑은 물 사랑을 위해 양평군에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9. 양평군 심벌마크



그림 10. 물 사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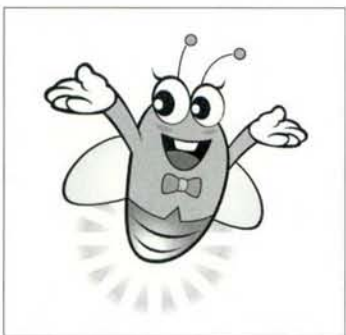


그림 11. 반딧불이



그림 12. 허수아비

1) 전군민적인 맑은 물 사랑 캠페인

양평군에서는 전군민적인 맑은 물 사랑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화 통화시· 모든 공문서· 회관· 간판· 입간판· 차량· 버스정류장· 각종행사· 플레카드 등에 “맑은 물 사랑”을 표시하고 있다.

양평군의 맑은 물 사랑을 위한 노력은 군(郡)의 심벌마크에서부터 잘 나타나 있다(그림 9). 심벌마크의 의미를 보면, 천년 역사를 간직한 은행나무를 소재로 하여 용문산과 남한강· 북한강의 합류를 나타내며, 태극형상은 양평군의 농업과 환경의 조화· 자연과 인간의 조화· 문화와 자연의 조화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녹색은 양평의 환경농업과 푸른 자연을 나타낸 것이며, 청색은 양평의 맑은 물을 상징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양평의 영문 이니셜 Y를 나타내면서 미래를 향해 뻗어나가는 양평의 밝은 미래상을 표현하고 있다. 양평군의 “맑은 물 사랑”에 대한 노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는 양평군의 주요 캐릭터가 있다.

- 물 사랑이 : 양평의 맑은 물을 지키는 수호신을 컨셉으로 하여 은행나무 잎을 망토로 두른 귀엽고 뚱뚱한 물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형상화하였으며, 캐릭터의 역동적인 동작은 활기차고 신선한 양평인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10).

- 반딧불이 : 양평의 맑은 물과 양평 친환경농업-21을 나타내기 위해 청정한 환경에서만 사는 반딧불이를 귀엽고 친근감 있게 형상화하였으며, 반딧불이 음악회와 같은 양평의 각종 행사와 농산물 포장에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그림 11).
- 허수아비 : 양평의 맑은 물과 양평 친환경농업-21을 나타내기 위해 허수아비를 '양평의 환경가족'으로 표현, 허수아비 축제 등 각종 행사에 다양하게 이용하며 농산물 포장 등 양평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그림 12).

2) “맑은 물 사랑”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양평군에서는 “맑은 물 사랑”을 위한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partnership)을 형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노력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2000년 11월 10일에는 국제 환경 지자체 협의회(ICLEI)에 가입하였다. 이 협의회는 총 59개국·340개 단체가 가입한 협의회로 국내에서는 경기도, 양평군 등 9개 단체가 가입하고 있다.
- 2001년 1월 15일에는 단체 및 개인을 포함하여 전국 최초로 중앙 NGO에 가입하였다. 중앙 NGO에는 경실련·환경운동연합·녹색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녹색미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2001년 5월 4~6일에는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50개국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2회 아시아-태평양 지자체 환경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 2001년 6월 8일에는 「한국 반딧불이 연구회 심포지엄」을 유치하여, 반딧불이 사례 연구 및 발표회, 반딧불이 탐사 등을 거행하였다.
- 2001년 6월 28~30일에는 전국 환경운동가 및 환경단체 대표 300명이 참석한 「제6회 전국 환경활동가 워크숍」을 유치하였다.
- 2001년 8월 21~23일에는 남한강 수련원에서 350명의 학자 및 행정가들이 참여한 「맑은 물 보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을 유치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한·중·일의 상수원 관리 정책 및 지자체 NGO 활동에 관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 2001년 11월 26~29일에는 일본 가나가와 현(縣)에서 일본 20세기 클럽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20세기 클럽 워크숍」에 참석하여 한·중·일의 수질환경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3) 수문환경 복원사업 및 시설설치 사업

양평군에서는 2000년 이후 생태복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초지 및 습지조성사업과 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반딧불이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양평군이 2000년 이후 개최한 주요 수문환경 복원사업 및 시설 설치사업은 다음과 같다.

- 2002년 6월에는 강하면 성덕 3리 마을 주민들의 주최로 반딧불이 마을 축제를 거행하였다. 이 사업에서는 반딧불이 탐사·그림 그리기·사진찍기 등이 거행되었다.
- 2001년 4월부터는 2004년 완공을 목표로 양평군 초지·습지조성 사업(1,157,000㎡)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대상 지역은 양서면 두물머리·용늪·궁들·개미기 도랑·레포츠 공원 주변 5개 지역으로, 수생식물공원·수변테크·자연 학습장 등 생태 수변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001년 3월부터는 2001년 연말을 목표로 자연친화형 양근천 정비사업을 거행하고 있다. 공사구간은 양평읍 양근리~공흥리(남한강 입구~길병원 앞) 일대로, 이 공사가 완료되면 자전거 도로·분수대·휴게 테크·목조 다리·각종 초화류 식재(植栽)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2002년에는 용문면 광탄리 경기도 내수면 개발시험장 내에 토종 민물고기 생태학습관을 건립하였다. 이를 통하여 인공호수 생태수조·멸종위기 담수어·자연특산어류·담수수초·영상 학습관·낚시 게임실·엑침 표본실·박제실 등이 건립되었다.
-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오염총량 관리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 용역의 세부내용으로는 배수 구역별 하천수질검사·오염부하량 및 허용총량 조사·오염물질 삭감계획 및 이행 평가 모니터링·재원조달 방안 조사·21세기 지속가능 환경비전 기반 마련·용역결과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 수용 여부 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 2001년 12월 14일에는 군민회관에서 「양평군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 심포지엄」을 유치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양평군의 친환경 농업과 그린투어리즘의 잠재력 전망 및 발전방향 모색·양평군 생태마을 조성 가능성과 녹색체험 상품개발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 대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신설 및 증설되고 있다. 신설되는 처리장은 지평 처리장(1,000㎡/일)·곡수 처리장(900㎡/일)·단월 처리장(2,900㎡/일)이고, 증설되는 처리장은 양평 하수종말처리장(기존 7,000㎡/일 13,000㎡/일)으로 2002년 9월 완공되었다.
- 2001년에 시공되어 2004년 준공을 목표로 고도처리시설 3개소가 개선된다. 개선 대상 처리시설은 하자포 처리장(300㎡/일), 강하 처리장(3,600㎡/일), 서중 처리장(900㎡/일)이다.
-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거나 설치중에 있다. 지체면 무왕리 외 9개소에는 2002년 말까지 9개의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고, 양평군 외 7개면 237km 구간의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오수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될 계획이다.

제3절 환경농업의 메카 양평군 : 양평환경농업-21

소득증대에 따라 소비자 가게 소비 중 식품에 대한 지출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편 식품소비 패턴의 고급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좀더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용되는 비료의 소비량은 1995년을 기준으로 질소비료 22.3ton/km², 인산 비료는 10.6ton/km²으로 OECD 가입국 중 최고의 수준이다.²⁹⁾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인구의 감소에 따라 화학비료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비료 중 식물에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대기 중으로 날아가든지 아니면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게 된다는 것이다. 상수원의 부영양화에 가장 주요 요인인 인(磷)은 토양에 공급된 양의 1~10%가 식물에 이용되기 때문에 토양에 공급된 90~99%의 인은 하천으로 흘러들어 오게 된다. 따라서 하천오염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요망되는 현시점에서 환경농업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1. 환경농업의 도입과 성과

양평군에서는 법적·제도적 제약조건을 갖고 있는 상수원 관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의 일환으로 전문화된 환경농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는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환경농업을 육성함으로써 도시민에게는 맑은 물과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현지 농민들에게는 타지역에 비해 농가소득 증대사업을 자유롭게 추진할 수 없는 제약에 따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환경농업으로 보존되는 맑은 수자원으로 인한 관광수입 증대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³⁰⁾

양평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축산환경 여건이 좋지 않다. 이는 지역이 상수원보호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있어 가축 오폐수 문제 등 각종 환경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대책지역에서 축산규제는 허가대상 이상의 시설을 불허하고 있으며(우사 : 450m² 이상, 돈사 : 500m² 이상), 새로 제정된 상수원특별조치법에서는 신고대상 농가까지 신규참여를 규제

29) OECD, 1998, *The State of the Environment*, OECD.

30) 유택기·윤주이, 1999, 「환경농업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양평지역을 중심으로」, 『동국사회과학연구』 7, 303~320쪽.

하고 있다.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시설도 영세농가가 많이 하고 있는 톱밥축사를 권장하고 있다. 각 축종(畜種)별 현황을 보면 비교적 축산분뇨의 농도가 낮은 한우와 닭의 경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젓소와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수는 크게 줄고 있다. 양평지역의 축산전망은 축산분뇨 처리문제가 구체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사육두수 및 농가는 계속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양평군의 농업여건은 다른 지역에 비해 좋지 않다. 앞으로도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농업여건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경부가 팔당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양평지역을 상수원 특별수변구역으로 지정하여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으며, 비료·농약 사용을 억제하고 있어 관행농업은 많은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평지역의 농업 여건은 이처럼 제약요인도 있지만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고품질 농산물을 필요로 하는 2,000만 수도권 시민의 소비시장에 인접해 있으며, 현재 6번 국도 확장공사가 완료되고 전철복선화 공사가 완공되면 획기적인 교통여건 개선으로 많은 인구가 양평지역을 찾거나 경유하게 되어 유동인구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평지역은 이러한 지리적, 자연적 환경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을 특성화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군 전체를 환경농업화함으로써 팔당호의 수질개선은 물론 농업이 수질오염원이라는 오명에서 탈피하고 타지역과의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고가의 가격지지를 유도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환경농업 육성법에 의하면 환경농업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육 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사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농산물의 분류는 일반 환경농산물, 유기 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저농약 농산물, 저투입 농산물로 구분하고 있다.

그 동안 양평군은 군 전체를 친환경농업지역으로 추진하기 위한 3단계 8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1997~1999년)로 친환경농업 기초환경 다지기 해로 정해 유기농업 사용과 무농약 재배, 제초제·화학비료 저투입을 실천하였고, 2단계(2000~2002년)의 환경농업 보급단계 2년을 실천한 결과 1997년에 비하여 총 9,236 농가 중 50.6%인 4,674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군 전체에서 실천하는 새 모델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농약 사용농가는 당초 39,624kg 사용량보다 52.4%가 감소한 18,830kg, 화학비료 사용은 23.6%가 감소한 5,890톤을 사용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사용은 상대적으로 153%가 증가한 8,200톤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농업의 증가는 물론 정착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단체, 농민단체, 외국인 등 41개 단체 3,000여 명이 친환경농업의 벤치마킹을 실시하였으며, 삼성경제연구소 및 농업진흥청·공무원 교육 등 타 시·군의 초청강연회를 9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고 농림부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농림사업 평가에서 5개 분야에 우수 군으로 선정돼 5억 2천만원의 상금을 수상했다.

아울러 양평군은 1·2단계의 환경농업 기초환경 다지기와 보급단계를 내실 있게 추진한 결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국제인증기관인 SGS(Survilan General System)로부터 국내 최초로 농업부문에서 ISO14001(환경농업 경영 시스템)를 인증받았으며 지난 10월에는 미국·네덜란드·일본·중국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세계 친환경·유기농업포럼 양평-21」의 국제 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속의 양평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한편 군 당국에서는 오는 2005년까지를 “환경농업 정착의 해”로 삼고, 총 9,236 농가 중 유기·자연농업 실천농가를 10%, 무농약 농업 20%, 비료·제초제·농약 저투입 농가 70%의 목표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양평군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경영 프로그램과 함께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도 향후 군(郡)의 발전 방향을 환경과 관광의 복합적인 기능을 최대한 개발한 지역의 이미지를 형상하고, 이를 활용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 환경농업이 지역농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양평환경농업-21” 실천과정

그 동안 자의든 타의든 팔당호로 인하여 개발이 규제됨으로써 양평군은 수도권에서 가장 환경이 잘 보전된 청정지역이라는 명성을 얻었다.³¹⁾ 그런데 최근 들어 수질이 날로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업이 수질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이러한 오명을 벗고 농약과 화학비료로 날로 황폐화되는 농경지를 보호하고자 양평군 전체를 환경농업지구로 육성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고가의 가격지지를 유도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의 실천을 위해 지난 1997년 말 IMF 직후 당시 민병채 군수는 제2의 농업부흥운동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은 행정력만으로 한계가 있어 관내 생산자 단체·소비자단체·정계·학계의 농업전문인으로 구성된 100명 내외의 민간인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전 군민이 참여하는 순수 민간운동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31) 환경부, 1998, 「팔당호 오염현황과 특별대책수립계획」, 「팔당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32) “양평환경농업-21”을 나타내는 YEAM은 Yang-Pyong Environmental Agriculture Movement의 약자로, 여기서 Y는 Yang-Pyong(양평), E는 Environment(자연환경), A는 Agriculture(농업), M은 Movement(사회적 운동)를 지시한다. 총체적으로는 21세기를 앞둔 양평군의 깨끗한 자연환경과 청정농업을 같이 지키자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표 25. “양평환경농업-21” 추진 방침(8개년 계획 추진)

단계	시기	추진내용
1단계 환경농업 기초확립 단계	1988~1999년	· 양평 환경농업 21 용역 의뢰 · 양평군 환경농업의 정의, 목적 설정 · 환경농업 정보망 구축 · 현재 실천가능한 환경농업 기술정립 및 시범사업추진 · 환경농산물 유통체계 정비 · 양평환경농업 필요성 등을 군민에게 홍보하여 공감대 형성 · 양평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 및 기술개발확대
2단계 환경농업 보급단계	2000~2002년	· 지역단위(읍·면별) 환경농업 추진계획 수립 · 개발된 환경농업의 기술보급 · 축산분뇨 자원화· 비료의 기술발전 보급 · 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응용기술개발 보급
3단계 환경농업 정착단계	2003~2005년	· 농업의 전문분야에서 환경농업 실시기반 확립 · 생산유통과 소비자 홍보 및 브랜드화 정착 · 새로운 기술 및 자재의 활용으로 차원 높은 환경농업 실천 · 양평 환경농업 생산 및 유통체계 정착

1998년 2월 27일 “양평환경농업-21”(YEAM-21)³²⁾을 발기하기에 이르렀다.

“양평환경농업-21”이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의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업 형태로서 농업 생산의 경제성 확보와 환경보전, 그리고 농산물의 안전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농업이다. 우리의 삶의 근원인 환경의 시대에 대비하여 식량자급기반 확충과 더불어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생산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농업으로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시책이다.

1999년 봄 양평군은 전국 최초로 제초제의 사용 억제를 주요 시책으로 시행하였다. 시행 초기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으나 현재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조만간에 양평 관내에서는 제초제 사용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책은 환경관련 세미나에서 친환경 정책의 성공사례로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매스컴에도 자주 소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양평군의 친환경정책은 1999년 가을에 개최되었던 ‘양평 맑은 물 사랑 허수아비 축제’로 절정에 달했다.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개최된 허수아비 축제는 지역 이미지 창출에 건인차 역할을 했다.

이와 같은 양평군의 친환경농업시책은 21세기 환경을 우선시하는 무한경쟁시대에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농업·안전적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농업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농업·농업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농업을 “양평환경농업-21”의 최종 목표로 달성하고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발돋움하여 농업이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손색이 없도록 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표 26. “양평환경농업-21” 추진 경과

추진날짜	추진내역
1997. 12. 8	“제2의 농업부흥운동” 선언
1998. 1. 23	“제2의 농업부흥운동” 추진 발기인협의회 개최 · 명칭결정 : 양평환경농업-21(YEAM-21) · 추진위원회 구성 : 6개분과 174명(군·읍면) 운영규칙 및 목표연도 결정
1998. 4. 18	「양평환경농업-21」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전국 최초로 “친환경 농업지역” 선포
1998. 5. 16	농림부 이동장관실 운영 추진계획 보고
1998. 11. 25	「양평환경농업-21」 상징마크 등 로고 결정
1998. 12. 28	「양평환경농업-21」 추진계획 용역의뢰(서울대학교 농업개발연구소)
1999. 2. 11	「양평환경농업-21」 상징마크 상표등록 특허 출원
1999. 3~12	1999년도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추진 - 친환경농업 읍·면 시범사업 등 총 33건 70억 원
1999. 3. 24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지도자 육성교육(236명)
1999. 6. 8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민·관 합동교육(179명)
1999. 6. 11	‘99 친환경농업 논오리 풀어내기 행사 개최
1999. 8. 7	제조제(농약) 사용억제 홍보포스터 및 현수막 제침
1999. 9. 7	양평군 BMW 플랜트 착공
1999. 9~10	“메뚜기잡기” 및 “허수아비축제” 행사 개최(12개 읍면)
1999. 10~11	그린 농업(푸른들가꾸기) 단지조성(588ha)
1999. 11~12	1999년산 오리농산물 수매(1,744가마)
1999. 12. 13	친환경농업 선도 농가 및 육성사업대상자 교육(478명)
2000. 1. 3	ISO14001 환경농업 경영시스템 인증획득(농업부문 세계최초)
2000. 1. 19	ISO14001 환경농업 경영시스템 인증수여식 및 「양평환경농업-21」 평가 및 발전과제 세미나 개최(532명)
2000. 2. 19	“3가지 안하기, 3가지 하기” (3T, 3L) 운동 추진 · 3가지 안하기 : 농약·제조제·화학비료 사용 안하기 · 3가지 하기 : 메뚜기·반딧불이·허수아비들판 만들기
2000. 2~3	친환경농업 선도농가(마을) 선정 및 키토산 농법 실천교육 · 선도농가 : 474명(행정리별 2농가) · 선도마을 : 12마을(읍면별 1마을) · 실천교육 : 3회 1,776명
2000. 3~8	2000년도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추진 - 친환경농업 선도농업인 육성사업 등 총 71건 170억 883십만원 · 키토산 공급 701리(500g) · 논오리 공급 75,795수(611농가) · 왕우렁이 공급 694kg(30농가)
2000. 4. 3	「양평환경농업-21」 상징 마크 상표등록 완료 - 4개류 25개군 40개 세목

추진날짜	추진내역
2000. 4. 19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및 마을 홍보 표창 제작설치(486개)
2000. 4. 22	BMW 활성수 및 키토산 시험포 설치(35개소)
2000. 4~6	친환경 농업인 읍·면 협의회 및 군 연합회 결성
2000. 6. 1	2000 맑은 물 사랑 친환경농업 논오리 풀어내기 행사 개최
2000. 6. 19	「양평환경농업-21」 제2회 민·관 합동교육(212명)
2000. 7. 25	양평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발대식 및 BMW 플랜트 준공식(792명)
2000. 10~11	겨울철 그린(Green) 농업단지 조성(푸른들가꾸기) 850ha
	메뚜기잡기 행사 및 허수아비 축제(12개소)
2000. 11~12	「양평환경농업-21」 사단법인 설립 허가(경기도 지사)

3. 환경농업을 위한 실천내용과 노력

양평군은 양평환경농업-21을 시행함으로써 친환경농업에 보다 더 활력을 가하여 확산·보급시키기 위해 환경농업 선도농가 및 마을 육성, 친환경 농산물 전시 판매장 설치, 잔류농약 검사기기 공급사업 등 환경농업실천 기반조성 및 유통망 구축사업과 산화-전해 이온수 설치, 오리농법, 유기질 비료 공급지원으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선진 환경농법인 BMW³³⁾를 도입, 현재 1일 1톤 생산규모의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시험가동중에 있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생물 활성수를 3월부터 농업인에게 공급하여 환경농업에 접목할 예정으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경오염부하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도모한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소비자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재 양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환경농업을 위한 실천내용과 노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환경농업-21 읍·면 시범사업

환경농업-21을 실천하기 위한 읍·면 시범사업이 있다. 이 사업의 사업량은 5개 부문 7개 사업으로 모두 12개소(읍·면별 1개소)에서 시행되고 있다(표 27). 이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원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저농약·저화학 비료 사용, 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시설을 군비(郡費)로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유도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33) 가축의 소변을 박테리아와 미네랄로 활성화시킨 물을 농업에 이용, 가축분뇨를 방류하지 않고 자원으로 만드는 순환형 농업시스템을 의미한다.

표 27. 읍면별 환경농업 실천내용

읍면별 집단적 사업현황	
양평읍 : 반디나물 재배	강하면 : 동충하초 재배
옥천면 : 영지버섯 재배	서종면 : 표고버섯 재배
양동·용문면 : 환경농업 견고추 생산단지	개군면 : 땅두릅 재배
강상·양서·단월·청운·지재면 : 환경농업형 시설하우스 설치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이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지역단위로 친환경 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함으로써 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최대한 줄이고 농업환경을 유지 보전하며, 안전 농산물 생산 공급체계를 확립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확산·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중심으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② 지역실정에 맞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농약·화학비료 및 축산분뇨 등 오염원 경감, 농토배양을 통한 흙 살리기 확산, 유기농업 등 친환경농업 실천), ③ 환경오염방지로 농촌생활 환경개선(축산폐수 및 폐영농자재 수집 등), ④ 안전농산물 생산체계 확립, ⑤ 기술지도 및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조기 확산 등을 시행하고 있다.

□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이 있다. 이는 벼 재배에 있어 병해충 종합관리기술(IPM)과 작물양분 종합관리기술(INM)을 종합적으로 실천하는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농약·화학비료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쌀을 생산하도록 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① 마을 및 들녘 단위로 50ha 이상 집단화된 벼 재배지역에서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원하는 농업인 또는 영농조직을 시범마을로 선정하여, 친환경 벼 재배 기술을 3년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스스로 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② 시범마을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 무공해 오리농법 실시

무공해 오리농법을 실시하여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류지역에 독성이 강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줄여 무공해 청정지역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본답(本畓) 잡초의 효과적인 제거와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환경오리 농법을 추진, 고품질의 쌀 생산은 물론 양평환경농업-21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 벼농사에 있어 잡초나 해충을 자원(오리의 먹이)으로 전환하고, ② 그 동안



친환경적 오리농법

표 28. 친환경오리농법 사업현황

구분	지원면적(ha)	오리두수(천수)	지원액(백만원)	비고
계	198.3	60	119	· 지원액 : 군비 50% 농협 50% · 1997년부터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최초 실시
1997년	22	7	13	
1998년	57	17	34	
1999년	119.3	36	54	
2000년	277	83,080	194	

이용하지 않았던 논둑을 오리사육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③ 화학비료나 농약을 이용한 다수확 벼농사가 지배적이었던 기존의 농업의 가치관을 자연생태계 보전을 동시에 이룩할 수 있는 가치관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좁은 경작 면적에서만 가능했던 지금까지의 환경농법과는 달리 넓은 면적에서도 환경농법이 가능하게 되었고, 농약 등으로 인한 위협에서 탈피할 수 있고 벼와 오리와의 동시·동반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되었다.

□ 왕우렁이농법 지원

양평군에서 독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적 농법 가운데 꼽을 수 있는 것은 왕우렁이농법이다. 양평군에서는 왕우렁이농법을 양평환경농업-21의 무농약 친환경농법 벼 재배기술에 확대 보급하고, 제초제 사용을 억제하며 왕우렁이를 이용하여 잡초를 제거함으로써 무공해 청정지역으로 만들고,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인 우렁이 쌀을 생산, 양평쌀의 이미지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왕우렁이를 이용하여 벼를 재배하는 신기술이 보급되었고, 이에 따라 벼를 재배하는 데 제초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결과 양평 쌀의 이미지가 제고되었고, 왕우렁이

쌀과 오리농법쌀 생산으로 양평의 이미지가 향상되었으며, 왕우렁이농법 추진으로 벼 재배 후 왕우렁이를 식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되었다.

□ “3가지 안하기, 3가지 하기(3T, 3L)” 운동 전개

양평군에서는 친환경적 농업 실천을 구체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3가지 안하기 : 농약 사용 안하기 · 제초제 사용 안하기 · 화학비료 사용 안하기」와 「3가지 하기 : 메뚜기 서식지 만들기 · 반딧불이 서식지 만들기 · 허수아비 들판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은 ① 농약 · 제초제 · 화학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여 ‘맑은 물 사랑’과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② ‘메뚜기와 반딧불이’가 생동하고 ‘허수아비’가 춤추는 청정지역 양평군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③ 자연생태계를 되살리고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여 군정 목표의 하나인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을 앞당겨 실현할 수 있고, ④ 양평환경농업-21에 활력을 불어넣어 ‘친환경 농업의 메카’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질 수 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환경농업 선도농가 및 마을육성

양평군은 농업이 환경적 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 · 지원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기 위해 환경농업 선도농가 및 마을을 육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기 농업 · 자연농업 · 무농약 선도농가를 선정하여 환경농업을 확산 · 실천하고, 특히 퇴비와 유기질비료 중심으로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 농가를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는데, 2001년 현재 21개 마을에 452 농가가 선정되었다.

4. 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동호회

양평군에는 군 당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정책을 농민이 자발적으로 지원하고 이의 실천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체계적인 농업인 동호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는 “친환경농업의 메카”로서의 양평군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사단법인 「양평환경농업-21」

사단법인 「양평환경농업-21」은 양평군에서 가장 규모가 큰 환경농업 관련 농업인 동호회로 양평환경농업-21 추진을 위한 농업인을 선도하는 데 그 주목적이 있다. 이 단체에서 주로 관심을 갖는 분야는 ① 환경 농산물의 생산기술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② 생산된

환경 농산물의 유통에 관한 사항, ③ 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농업인 및 소비자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다.

표 29. 2001년 환경농업 선도농가 및 마을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내역

(단위 : 명/평)

읍면	마을명	대표자	참여 농가	대상품목	재배농법	작물	경지면적			실천면적		
							계	전	답	계	전	답
계	21마을		452				1,653,885	368,199	1,285,686	629,933	57,156	572,777
양평	오빈1리	이한규	5	수도작	무농약	벼	21,000	4,000	17,000	7,500		7,500
			12	수도작	무농약	벼	145,887	28,718	117,169	12,000		12,000
강상	화양1리	윤재순	11	수도작	무농약	벼	43,874	16,829	27,045	11,140	11,140	
	화양2리	김용희	14	시설채소	유기농업	채소	49,500	20,500	29,000	5,700	5,700	
강하	성덕2리	류창열	38	과채류	유기농업	채소	168,000	90,000	78,000	9,000	9,000	
양서	도곡리	여홍구	16	수도작	무농약	벼	46,800		46,800	46,800	46,800	24,212
	중동2리	강응구	14	특작	무농약	고들빼기	8,100	8,100		8,100	8,100	23,913
옥천	아신2리	박화천	23	수도작	오리농	벼	80,042		80,042	24,212		12,000
서종	정배1리	유동희	32	수도작	무농약	벼	80,201	37,352	42,849	29,357	5,444	12,000
	문호5리	김상기	15	수도작	무농약	벼	60,000	15,000	45,000	12,000		3,600
단월	덕수2리	원영희	15	수도작 시설재배	무농약	벼, 반디	49,950	14,450	35,500	12,900	900	120,000
	보룡2리	백용현	15	채소류	저농약	채소	59,370	11,080	48,290	5,700	2,100	90,000
청운	비룡1리	서성태	50	수도작	무농약	벼	150,000		150,000	120,000		
	비룡2리	김해동	34	수도작	저농약	벼	150,000		150,000	90,000		
양동	계정1리	이근수	12	시설재배	유기농	고추	49,500	19,000	30,500	5,000	5,000	90,000
	단석3리	이세용	10	과채류	무농약	고추	49,910	20,050	29,860	4,500	4,500	34,752
지제	수곡2리	권영정	38	수도작 노지재배	무농약	벼	165,800	45,220	120,580	93,800	2,900	58,200
	망미1리	이을표	35	수도작	유기농업	벼	74,634		74,634	34,752		8,900
용문	마룡1리	조순행	22	수도작	무농약	벼	81,000	22,800	58,200	58,200	2,372	15,000
	덕촌2리	조운상	13	수도작	무농약	벼, 고추	20,000	5,000	15,000	11,272		15,000
개군	양덕리	한장희	13	수도작	무농약	벼	61,650	10,100	51,550	13,000		
	계전1리	김길재	15	수도작	무농약	벼	38,667		38,667	15,000		

□ 양평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양평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는 친환경 농업 선도농가 및 마을의 농업인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체는 친환경농법의 지식과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친목과 유대강화로 화합을 도모하고 양평 환경농업 21을 초기에 확산·보급·정착시키기 위해 조직되었다.

조직의 명칭은 행정구역별로 군 단위는 「양평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읍면 단위는 「○읍(면)친환경 농업인 협의회」로 구분되어 있으며, 조직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군 단위

의 양평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는 읍·면별 작목반 협의회를 군 작목반 연합회로 연결하고, 군 작목반 연합회를 하나로 묶는 연합회로 구성되어 있다. ② 읍·면 단위의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는 리(里)별 작목반을 읍·면 작목반 협의회로 연결하고, 읍·면별 작목반 협의회를 하나로 묶는 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다.

제4절 지속가능한 생활공간을 위한 양평군의 노력

1. 환경에 대한 양평군 지역정서의 변화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은 과연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양평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양평군은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수도법(水道法)·환경정책기본법·한강수계법·산림법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지역개발의 제한으로 인해 지역내 총생산량인 GRDB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에 머무를 정도였다. 수도권 2,500만 인구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법령으로 양평군의 발전 의욕은 좌절되기 일쑤였다. 결국 지역정서는 패배주의와 적대감이 지배하고 있었으며 부정적인 지역정서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정서는 1995년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된다. 법령과 규제에 대해 맹목적인 핑계에서 벗어나 양평군이 처한 상황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수자원을 비롯한 자연환경 보전이 결국은 양평의 훌륭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군민들에게 인식시켜 나갔다. 개발은 제한되어 있고 상수원은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서 제한에 묶여 불평만 할 것인지, 아니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할 것인지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한 양평군민들은 타지역과는 다른 발상의 전환을 하게 되었다. 이미 개발이 제한되어 있다면 철저하게 지역을 환경친화적인 생태지역으로 바꾸자는 것이었다. 농약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아예 제조제와 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농사를 짓고, 농사에 우렁이나 오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물론 처음엔 농민들이 꺼리기도 하였지만 과감하게 실시한 결과, 지금은 오히려 부가가치 높은 유기농 작물들을 수확하게 되었고, 논에는 거머리와 메뚜기, 마을에는 반딧불이가 되돌아왔으며, 토지와 수질 오염도는 크게 떨어졌고, 이는 결국 팔당호의 수질 향상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양평군은 국내 최초로 마을 하수도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12개가 운영되고 있고 9개가 설치중인데 마을 하수도는 자연부락 단위의 소규모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여 하수처리를 마을에서 직접 방류하는 것으로 대단위 하수처리 시설을 만들 경우 생기는 누수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설은 선진국에서 널리 장려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양평군은 초지(草地)와 습지(濕地)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는 습지가 생기면 물의 인과 질소 함유율을 떨어뜨리는 자연정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는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를 비롯해 많은 새들이 서식하고 있고, 이를 계기로 초지와 습지를 점점 더 넓혀갈 계획이다. 결국 양평군이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 되면 그 지역 자체의 부가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

양평군민은 지금까지 환경을 위해서 개발을 제한하면 그 지역의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소득이 낮아지는 것으로만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환경이 우선이고 환경적으로 우수한 상품과 지역이 미래의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³⁴⁾ 결국 환경을 살리는 것은 결국 사람을 살리고 부유하게 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미래를 멀리 내다보고 환경을 적극 보호하는 것이 지역을 개발하는 앞선 대안이라는 것을 양평군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1999년 5월 자연사박물관 유치 염원과 맑은 물 사랑 실천의지를 담은 조형물 건립을 위한 '8만 군민이 한 장씩, 벽돌 8만장 모으기 운동'에 15만장의 벽돌이 모임으로써 양평군민의 새로운 의식을 알 수 있는 좋은 좌표가 되었다. 그리고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양평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양평 주민의 85%가 양평군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데 동의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2. 군(郡) 행정당국의 정책적 노력

1)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각종 행사

양평군은 1999년 이후 친환경적인 양평군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 행사는 기본적으로 군 행정당국의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지만, 친환경적인 생활공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양평 맑은물 사랑 예술제 : 1999년 6월에는 '양평 맑은물 사랑 예술제'가 개최되어 지역

34) 이영민·허남혁, 2001, 『농촌지역 환경갈등과 농촌주민 환경운동의 역할과 의미 : 양평군 팔당지역 유기농업운동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4), 18~32쪽.



양평 맑은물 사랑 예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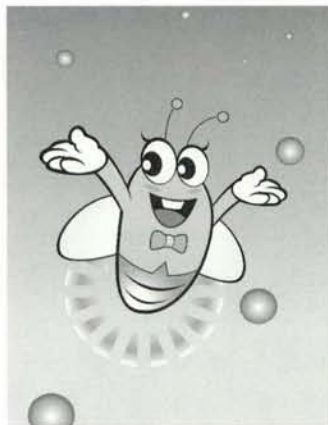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개막 행사로 중미산 휴양림에 마련된 무대에서 임헌정 지휘로 거향된 뉴서울 필하모닉 협연의 '숲속의 음악회'에는 2,000여 명의 서울시민과 3,000여 명의 양평군민이 운집하여 물 문제로 야기된 정서적 편차를 씻어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 산림청의 숲속문화 체험행사 개최 : 산림청은 전국 자연휴양림을 순회하며 '청소년 숲속 문화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그 첫 행사가 2001년 5월 27일에 양평군 옥천면 신북리 중미산 자연휴양림에서 청소년 등 1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행사에서는 숲속 걷기·시 낭송회·음악회·나무 가공품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다.
- 산더덕 캐기 축제 : 팔당호와 인접한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기슭에서 2001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산더덕 캐기 축제'가 열렸다. 해발 300~400m 부근 10만평에 심은 5년생 토종 산더덕(평균 지름 1~3cm, 길이 10~20cm)을 캐는 이 축제에서 '용문산 산더덕 영농조합법인'은 참가자들에게 팽이와 장갑·더덕 담는 봉지를 나눠주었다. 또한 더덕을 캐는 요령과 더덕의 약효·요리법·보관 방법 등도 알려주었다.
- 허수아비 축제 : 양평군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허수아비 축제'는 국도변·농경지·메뚜기 집단 서식지 등을 중심으로 12개 읍·면 전역에 2,200개의 허수아비를 설치한 뒤 허수아비 심사전, 허수아비 사생대회, 허수아비 백일장, 허수아비 사진 공모전 등이 거행된다.
- 메뚜기 잡기 행사 : 수도권 시민들에게 메뚜기 잡을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의 찌든 삶에 청량감을 줌과 동시에 옛 정취를 물씬 맛보게 하는 한편, 양평군민이 맑은 물을 만들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무분별한 농약 사용을 자제하는 등 친환경농업을 적극 실천한 결과 자연생태계가 좋아지고 물이 맑아지고 있는 것을 대내외에 부각시켜 친환경산물 생산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 양평군 반딧불이 축제 : 2001년 6월에 용문산 국민관광지에서 '양평군 반딧불이 축제'가 개최되었다. 반딧불이 축제는 환경 청정지역의 푸르른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환경축제이며,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며 만들어 가는 생태축제이다. 이 축제를 통해 환경과 자연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으며 환경 청정지역 양평군의 맑은 물과 산에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문화축제가이기도 하다.

2) 반딧불이 보전대책 : 반딧불이의 천국 양평군

양평군이 '반딧불이 고장'으로 변신했다. 양평군은 12개 읍·면별로 반딧불이가 가장 많이 서식하는 한 곳을 '반딧불이마을'로 지정했다(그림 13, 그림 14). 강하면 성덕3리 나무레기골·용문면 양수2리 성황당마을·서종면 도장2리 국로소마을 등이 마을 내에서 농약 및 제초제 사용이 제한되었다. 또 주변 지역 하천 5곳에는 '다슬기 보호구역'이 설정돼 반딧불이의 먹이가 되는 다슬기와 논달팽이 등 민물 생태계 복원사업이 진행된다. 이 외에 먹이 방사 및 습지와 수로 복원 등 서식환경 조성사업도 이뤄졌다. 이와 함께 반딧불이 관광명소 조성사업도 벌여 1억 원을 들여 용문산 국민관광지 내에 200평 규모의 "애반딧불이 실외 사육장"을 조성, 일반에 개방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농약 및 제초제 사용을 줄이는 등의 청정 환경농업을 시행한 덕분에 반딧불이가 돌아온 것이다.



반딧불이 캐릭터

양평군에서는 반딧불이를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반딧불이 보전사업을 통하여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반딧불이 관련 이벤트 사업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평군에서 반딧불이 보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대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반딧불이 서식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슬기, 달팽이와 같은 반딧불이 먹이류를 방사하고, 반딧불이 서식지 주변 농가에 대해 농약 및 제초제 사용 억제를 지도하고 있으며, 반딧불이의 서식지에 대한 실태 조사로 반딧불이의 종별 보전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반딧불이의 생물학적 특징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파파리반딧불이).

둘째, 2002년 월드컵 개최와 관련한 반딧불이 이벤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양평군의 반딧불이 홈페이지를 통해 양평군의 반딧불이와 보전방안에 대해 세계 각국으로 활발하게 홍보하였으며, 월드컵 기간중에는 서식지 탐사 등 반딧불이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그림 13. 양평군의 반딧불이 서식지역



그림 14. 양평군의 반딧불이마을 위치도

3) 양평군의 생태공원화를 위한 노력

(1) 에코 닥터스 타운

양평군은 2002년 군정 방향에서 양평군 전체를 생태공원화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에 군은 2002년도의 군정목표를 “양평군 전체를 생태공원화하기 위한 에코 닥터스 타운(Eco-Doctors Town) 기반구축의 해”로 정하였다. 이에 지금까지 맑은 물 사랑의 최선봉으로서 환경친화적인 자연보전과 조화로운 지역개발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246억 8,000만 원의 물 이용 부담금을 지원받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업 추진에 있어서는 보급단계 2년차로서 친환경농업 실천에 활력을 가하여 농업의 환경적 보전기능을 증대시켰으며 ‘제1회 세계 친환경·유기농업 포럼 양평 21’의 성공적 개최와 전국의 32개 기관단체 1,700명이 벤치마킹을 통해 군의 이미지를 향상시켰다.

(2) 그린투어리즘

그린투어리즘(Green Tourism)이란 “농촌의 농업인 또는 비농업인 스스로 합의 형성에 의해 관광사업 경영이 중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자연 욕구 충족과 농촌 체험학습이란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공생·공존·공영의 길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

2002년도에는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경쟁력 있는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건설’을 위한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지구책을 강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자연 관광과 농촌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군은 일차적으로 서종면 명달리에 2005년까지 30억원을 들여 토속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체험형 농촌마을’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산림박물관내 농·임산물 직판장을 마련하고, 야생화단지·환경체험학교·산림체험코스 조성, 에코닥터스타운 조성의 시범모델로 활용할 복안이다.

한국관광농업학회(회장 류승우)와 푸른신문사는 2001년 12월 4일 양평 군민회관에서 양평군수를 비롯하여 한국관광농업학회 회원·군관내 친환경 농업인·경기도 및 각 시군 담당자·언론계 인사 등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평군의 친환경농업과 그린투어리즘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최근 환경과 자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건강과 안전한 휴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된 이번 심포지엄은 그 동안 양평군이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기조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많이 수행해 왔고, 자타가 공인하는 친환경적인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어 각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3.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노력

양평군에는 앞에서 살펴본 '친환경적 생활공간' 으로서의 양평을 건설하기 위한 군 행정당국의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기 위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군 곳곳에서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환경문제에 대한 양평군민들의 정서 및 가치관이 변화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이와 같은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은 향후 '개발과 보전의 조화' 를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생활공간 확립' 이라는 21세기의 전지구적 화두의 메카로서 양평군이 자리잡을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양평군 부녀회 '사나사 계곡을 사랑하는 모임'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의 사나사 계곡은 토종 동·식물의 보고이다. 천연기념물은 아니지만 중투라지·메기·다슬기·피라미 등 갖가지 수중생물, 개나리·진달래와 이름 모를 꽃·풀·나무들이 어우러져 있다. 이 계곡을 지키는 손이 '사나사 계곡을 사랑하는 모임' 이다. 이 모임은 옥천면 용천3리 부녀회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1992년 5월부터 순수 민간 환경운동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수도권 2,000만 주민의 식수원일 뿐만 아니라 귀중한 천연 관광자원인 팔당호 상류계곡과 야산이 행락객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오염되어 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접 고쳐보기로 하고 이 모임을 결성하게 된 것이다.

부녀회원들은 환경정화에 의기투합해 본격적으로 계곡 보호운동과 쓰레기 수거에 나섰다. 행락객 발길이 뜸한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의 매주 한 차례, 행락철인 5~9월에는 매일 계곡과 강변을 누비면서 환경정화를 하였다. 연락수단은 마을방송으로 하였으며, 10~15명이 번갈아 모였다. 이들은 강변과 산기슭을 돌면서 하루 평균 경운기 2대분 이상의 오물을 수거한다. 행락철이면 이들은 환경 지도요원이 되어 강변의 행락객들에게는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넣고 가도록 협조를 구하고, 계곡에서 세차를 하는 운전자를 발견하면 상수원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들은 자치단체로부터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 민간 환경모임이다. 쓰레기봉투마저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구입한다.

□ 양평군 지자체 첫 환경NGO 가입

양평군은 2천만 수도권 주민들에게 맑은 물과 깨끗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기 위해, 2001년 1월 15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환경시민 NGO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양평군이 가입한 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시민연대 등 4개이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 제3자의 입장에서 물·환경농업 문제를 관찰하던 시민단체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맑은 물 사랑 운동”과 “양평환경농업-21” 두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군은 2001년 6월 다
른 NGO들과 함께 가칭 ‘물 관련 전국 단위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2001년 9월에는 ‘환경
농업 관련 대토론회’도 함께 개최하였다. 그리고 ‘맑은 한강 보존 주민연대’ 등 관내 69개 시
민·사회단체 소속 주민들을 군청내 관련부서에 상주하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견
을 군 행정에 반영해 나가고 있다.

□ ‘팔당호 살리기’ 상징물 조성

8만 양평군민들이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 팔당호를 살려내겠다”며 2000년 7월 19~30일
‘벽돌 8만장 모으기 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을 주최한 양평예술인협회는 주민들로부터 벽돌
한 장씩을 자발적으로 기증받거나 벽돌 한 장 가격의 성금을 모아 기증받은 벽돌과 성금으로
팔당호 인근 양평읍 양근리 군민회관 앞 500평 부지에 ‘맑은 물 지킴이’ 상징 조형물을 조성
하였다.

이는 “이웃들이 생명수로 나눠 마실 팔당물을 살리는 운동에 벽돌 한 장을 쌓는 정성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 운동에 시동을 건 양평예술인협회는 1999년까지만 해도
팔당호 주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상수원과 관련한 각종 규제제도 철폐 및 완화를 요
구했던 단체여서 더욱 관심을 끌었다.

양평 주민들은 특히 상수원 추가규제 조치에 맞선 극렬한 반대운동을 통해 인근 수도권 지
역주민들에게 각인된 부정적 이미지를 이 운동을 통해 씻어보겠다는 목적도 있었다. 이 단체
는 앞으로 남한강변과 팔당호 주변에서 환경음악회·환경세미나·맑은 물 사랑 강변 걷기
대회·환경 시화전(詩畵展) 등 다양한 환경보호 캠페인 및 행사도 열어 팔당호 살리기 운동
붐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제5절 새천년 친환경적 생활공간을 위한 비전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한다.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ESSD : Environ-
mentally Sound Sustainable Development)’로 요약되는 새천년의 비전에서 환경은 과거와
같이 지역의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한 부문에 국한되기보다는 지역사회 전체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한 국가 또는 지역의 자연환경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후손에게 넘겨주어야 할 민족의 영속적인 자원이다. 건강한 생태자원이 유지될 때 지역사회의 변형과 지역문화의 창달이 기대될 수 있다.

어찌 보면 우리 민족이 5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지속시켜 왔던 것도 금수강산이라고 일컬어왔던 건강한 한반도의 생태자원의 혜택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960년대 이래 산업화와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자원의 소비와 폐기물의 배출이 급증하면서 맑은 공기와 물을 공급하고 폐기물을 동화시키던 국토의 생태자원이 훼손되고 축소되면서 오히려 삶의 질을 위협하는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맑은 공기와 물, 생물종을 보양하던 습지생태계, 건강한 토양자원의 일부는 관리소홀 때문에, 일부는 무분별한 사용으로 말미암아 최소한 자원으로 축소되고 있다. 생태자원에 관한 지식의 부족으로 사라지기도 했고,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대형 토목사업의 성급한 계획과 집행으로 말미암아 필요 이상의 해를 입기도 했다. 대부분의 생태자원은 개발을 위해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어렵고 그 악영향의 범위와 정도도 쉽사리 추정되지 않는다.

우리 국토는 산림, 하천, 연안, 농경지, 도시 등 다양한 생태자원과 토지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상호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자원의 한 가지 측면만 고려한 개발은 해당자원의 고갈과 함께 다른 자원에 악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선형적 관리방식을 통해 생태자원이 현저히 축소되어 왔다. 그러나 환경의 세기를 맞이한 지금은 자원과 자원 사이에 발생하는 창발성(創發性, emergent properties)이 보전되는 형태의 생태적 관리가 적용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환경 관리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양평군은 우리 나라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자연생태계 및 생태자원의 보전상태가 우수한 친환경적 생활공간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친환경적 생활공간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역 생태자원 관리 원칙을 지향하여야 한다.

1. 지역 생태자원 관리의 원칙

1) 수자원

물은 지구 생물체의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인간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많은 요인들에 의하여 지표수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 무분별한 도시화, 산업화, 농경활동 등이 그 예인데, 잘못된 토지이용 및 무분별한 삼림벌채는 담수자원의 고갈과 함께 토양유실을 야기한다. 토양의 유실은 토양 비옥도 감소로 이어지는데,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과도한 화학비료와 농약은 산성비와 함께 담수자원의 산성

화를 초래하는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산업폐수 및 생활하수의 유입과 하천, 호수의 염류화 역시 지표수의 질을 저하시켜 인체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제 21」은 전세계 개발도상국 인구의 80%가 오염된 담수를 식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1989년 수돗물에서 중금속 검출, 1990년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인 트리할로메탄 검출,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 1992년 한강 물고기 폐죽음 사건, 1995년 대구 성서공단의 폐수 무단방류 사건 등 지표수의 오염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표수 관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지표수 공급의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인류에게 수자원 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보다도 이용 가능한 물 공급을 늘리는 것이었으며, 댐과 저수지를 만들거나 유역변경을 통하여 물 공급을 늘려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결국에는 인구와 식량생산의 증가, 산업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예측치 못한 물 공급의 변동 등의 문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댐 개발 적지의 고갈, 농지와 취락의 수몰에 따른 보상비의 증가와 사회적 갈등의 증폭, 하구언의 건설과 간척지의 담수화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불필요한 이용과 낭비를 줄임으로써 물 이용의 효율을 높여 수자원을 보호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유용한 접근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 이에 적절한 지하수 개발, 대형 댐을 대체할 수 있는 소규모 댐의 건설, 용수의 오염방지, 용수 절약시설의 개발, 물 절약 의식고취 등의 다양한 접근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물이 비교적 풍부한 자원으로 간주되어 왔던 우리 나라에서는 지하수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정부의 관리 및 규제대상에서도 최근까지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많은 지하수의 문제점은 지하수 관리가 이제 우리 나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하수의 과도한 개발로 인하여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지하수면(water table)의 저하이다. 지표수에서 지하수로 유입되는 양보다 취수량이 많아지면 대수층(aquifer)에 저장된 물의 유출입의 균형이 무너진다. 지하수면이 낮아짐에 따라 더 깊은 시추공(試錐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악화되어, 한 지역의 전체 생태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지하수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하수의 지역적인 부존량을 산정해내고 취수량이 유입량을 지나치게 넘지 않으며 시기적으로도 집중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수에 대해서도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할 경우 지표로부터 오염물질이 직접 지하수층으로 유입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2) 산림자원

식물은 광합성 작용을 하고 다른 생물체에게 먹이를 제공하므로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산자 또는 '생태계의 기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림은 각종 생물체의 먹이 사슬과 서식지 역할을 한다. 산림은 또한 인간생활의 주무대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민족도 각종 건축재, 연료, 구황식량 등을 모두 산림지역에서 얻어왔듯이 산림은 인간과 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이다. 산림은 이 외에도 다양한 생태적 기능들을 수행한다.

산림파괴의 원인은 다양하다. 자연적인 원인도 있지만 대개는 인간의 개발활동으로 인한 것이다. 경지확장, 그리고 임산물에 대한 수요증가 등이 산림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부적절한 산불관리, 무분별한 벌채, 대기오염 등의 원인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원인은 바로 산림 가치에 대한 이해와 정보의 부족이라 할 수 있다.

산림은 크게 자연식생과 이차식생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식생(natural vegetation)은 인간의 간섭이 미치지 않은 처녀림과 같이 자연이 가장 잘 보존된 곳에서 드물게 관찰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잘 보호되어 온 국립공원의 일부 면적과 백두산 고산 툰드라의 단층 자연초지 형태로 미약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양평군과 같이 자연회복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연식생지역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이차식생(secondary vegetation)은 교란작용에 의하여 파괴된 자연식생이 이차적으로 회복해 가는 천이과정에 있는 식생을 의미하는데, 우리 나라에 분포하는 식생의 대부분은 이차식생이다. 최근에는 휴경지의 증가에 따라 점차 이차식생의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1960년대 이후 치산녹화(治山綠化) 사업과 입산금지 등 산림보호 정책에 의하여 양적으로는 향상을 이루었다. 그러나 획일적인 생태계로 계획되어 관리되어 왔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지역관광 개발과 인간활동 범위의 확대에 따라 자연식생의 면적은 오히려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산림생태계의 단편화가 늘어나고 있다. 한편, 우리 나라 대부분의 산림을 구성하고 있는 이차식생이 자연식생으로 발전할 잠재력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이차식생의 초기 단계에 발생하는 토양의 침식이나 무기염류 세탈 등과 같은 토지의 질 저하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3) 습지생태계

습지(wetland)는 수상생태계와 육상생태계가 만나는 경계지대에 형성된 독특한 생태계로, 수문, 토양 및 생물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정의되고 있다. 습지는 해안에서 내륙 고산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열대지역에서 극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세와 기후지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이와 어우러져 있다. 습지는 크게 내륙의 하천이나 호수 주변에 분포하는 담수습지(freshwater wetland)와 바다와 육지의 접이지대에 나타나는 해안습지(coastal wetland)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생태·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습지의 다양한 기능과 가치 때문에 수십년 전부터 해외에서는 습지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훼손된 습지를 복원시키려는 움직임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습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은 편인데, 최근 들어서야 미약하나마 일부 학자와 정책입안자에 의하여 습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습지생태계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서는 습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식의 전환과 함께 체계적인 습지생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생태조사를 바탕으로 보전과 복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과거의 지도와 문헌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에는 하천 주변, 농경지 사이의 소하천, 호수 주변에 많은 담수습지가 있었다. 이는 습지를 가리키는 포(浦), 담(潭), 소(沼) 등의 이름이 다양한 지명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담수습지는 일제시대의 농경지 개발과 취락구조 개선사업,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 국토개발 등에 의하여 대부분 사라졌으며 현재는 일부 지역에만 남아 있을 뿐이다. 현재 남아 있는 담수습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보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맑은 물의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전, 홍수조절 등의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휴경지, 하천과 호소 주변을 중심으로 과거 습지를 복원하는 노력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생활 오폐수나 축산 오폐수의 발생이 빈번한 지역에는 인공습지를 조성하여 자연의 정화능력을 최대한 이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양평군이 1990년대 후반부터 외곽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군내 초지 및 습지 복원 및 조성사업은 시기적으로나 생태적으로 보았을 때 매우 적절한 활동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일회성에 국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4) 농경생태

농경지를 친환경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토양유실을 줄여 지력을 유지시키고 비료와 농약 등 합성물질로부터 토양을 보호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토양 보전경운(conservation-tillage farming, 일명 minimum tillage 또는 no-till farming)과 등고선 경작을 통해 토양유실을 크게 줄이고 있다. 우리 나라는 조림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했고 습윤기후대에 속하기 때문에 건조·반건조 지역에 비하여 토양침식이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특히 논은 소형담 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토사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침식은 주로 파괴된 산림지나 밭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토양유실은 30cm 내외의 얇은 토양생태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하천에 흘러들어 수질오염과 함께 저수지나 댐을 메워 그 기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농경지에 사용하고 있는 화학합성물질은 잘 관리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화학비료의 효율을 높이고 오염효과를 낮추어야 한다. 또한 유기농업과 같은 생태적 원리를 존

중하는 영농방식의 연구와 응용도 권장해야 한다. 농경생태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연관시켜 관리해야 한다.

5) 도시생태계

도시는 인간에 의해 형성된 생태계이다. 도시생태계는 자연생태계와 기술생태계(techno ecosystem)간의 물질, 에너지 교환에 의하여 그 기능이 유지된다. 그러나 이 두 체계는 상반된 특징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자연생태계는 태양의 도움을 받아 광합성 작용에 의해 스스로 에너지를 생산해내고, 그 부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반면에 기술생태계는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생태계로부터 많은 양의 에너지와 물질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은 기술생태계가 자연생태계에 종속되어 있고, 대도시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우리가 겪고 있는 도시환경문제는 이 두 체계간의 에너지, 물질순환 관계의 단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많은 지역은 인구집중과 이에 따른 다양한 토지개발로 말미암아 시가지 면적은 늘어난 반면, 농경지와 산림지는 줄어들었다. 대도시의 과다한 토지개발이 바로 도시 녹지의 훼손과 파괴의 주범인데, 현재 대도시의 녹지는 대부분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에 있으며 서울의 경우 행정구역으로 보면 대부분 시 외곽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도심 내에 있는 잔류 녹지공간도 도시공해로 계속 축소되거나 그 자체 또한 심하게 오염되어 있어 생육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도시지역은 원래 극상 상태의 산림이나 초지가 분포해 있던 저지대나 구릉지가 대부분이다. 도시화가 배후 농촌지역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변화와 도시 내부의 각종 오염문제 발생은 생활의 질 또는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다. 1971년에 설정된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역 환경의 질에 큰 기여를 해왔다. 최근에는 정부의 그린벨트 조정이 발표되면서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다.

그린벨트는 주로 산림보존이 양호한 산지나 대도시 근교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그린벨트가 '집중'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도시화 지역에서 나오는 각종 환경문제가 배후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지대, 생활의 질과 관련하여 도시환경의 질을 유지하는 중요한 녹지자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린벨트의 규모는 도시의 규모에 상응해야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린벨트에 관해서는 지정 당시 충분한 연구와 검증을 거치지 못했고,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생태자원의 고갈에 따라, 그리고 경직된 운영으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왔다. 환경의 세기에는 그린벨트에 대한 발상이 '개발을 제한하는 지대'라는 소극적이고 방어적 패러다임에서 '환경을 지키고 복원의 씨를 마련하는 생태지대'라는 적극적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도시규모와 산업규모에 상응하는 녹지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질이 저하된 녹지대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기보다는 생태적 질을 복구하고, 녹지대의 연결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그린벨트에 흡수되어야 한다. 불합리한 그린벨트의 설정, 예컨대 오히려 개발이 가능한 평지 등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우는 체계적인 생태조사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도시의 구성요소는 도시생태계의 물질대사나 에너지의 흐름을 따라 서로 유기적으로 그리고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은 단순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통한 개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시환경을 공간구조, 생활양식 그리고 도시의 경제구조까지 포함하는 하나의 유기체로 파악하여 관리할 때 가능하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는 ① 환경용량(경제적·사회적·환경적) 내에서의 적정한 인구수용, ② 기초환경시설의 적정한 공급, ③ 환경오염의 적절한 처리, ④ 에너지 및 기타 자원(원료)의 절약적 이용, ⑤ 도시 구성요소간의 생태적 연관관계에 입각한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순환구조의 도시건설, ⑥ 자연과 자연스럽게 연결된(ecological corridor) 도시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는 ① 도시 토지이용을 위한 에너지 절약, ② 순환형 도시체계 구축, ③ 도시내 녹화추진 및 자연과의 공생 등을 들 수 있다. 제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양평군의 경우에는 군의 대부분이 녹지 및 준녹지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생태계가 주를 이루는 도시역은 면적이나 기능면에서 보았을 때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양평군은 현재와 같은 토지피복 및 토지이용 형태를 유지·발전시키기만 하여도 건전한 도시생태계의 발달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6) 생물다양성 관리

우리 나라의 자연 생태계를 대표하면서 가장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잠재자연식생은 “신갈나무 - 철쭉꽃 군목(Rhododendro - Quercetalia mongolicae)”으로 이 식생은 약 700여 종으로 구성된다. 한편, 우리 나라의 식물상은 현재 유관속식물 4200여 종, 해초류 50여 종, 선대류 700여 종, 균류 820여 종, 담수조류(淡水藻類) 1400여 종, 해수조류(海水藻類) 500여종의 총 7,470여 종으로 밝혀져 있으며, 동물은 30여 종의 양서파충류, 420여 종의 조류와 95종의 포유류가 서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각각 40%, 17.1%, 22.1% 정도가 희귀종으로 보호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생물의 번식률과 종 보전에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개체 수는 매우 빈약한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양평군과 같이 산림생태계가 주를 이루는 지역은 환경보전이라는 성격과 함께 국민의 보건, 정서, 그리고 휴양에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산림지역은 잘 보존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훼손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산림지역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산림지역은 건강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으며, 생물다양성을 가장 풍부하게 보존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은 곧 건강한 생태계로 이어지고 이것은 곧 산림지역 관리

목표의 핵심을 이룬다.

생태계의 안정도는 교란받지 않은 면적과 비례한다. 면적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생태계는 안정적인 반면, 도로나 등산로 등에 의해 산림지나 생태계의 면이 잘리거나 나누어지면 생태계의 안정성은 떨어진다. 단편화와 함께 잘려진 각각의 생태계, 즉 환경 섬들은 분리되기 전보다 생태적 안정성이 떨어진다. 산림지역 관리 목표는 이제 환경보전에 맞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산림지역 관리의 성과는 건강한 생태계의 복원에 따른 종 다양성의 확보도 평가되어야 하며, 관광지의 의미는 축소되어야 한다. 탐방도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환경교육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산림지역의 파편화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파편화를 초래했던 도로는 원래의 자연으로 돌리는 복원대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의 생물다양성 파괴에 가장 심각한 원인은 서식지의 구조적 단편화(structural fragmentation)이다. 우리 나라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이용을 위해서 생물다양성의 보전, 즉 유전자, 종, 생태계의 보전 및 유지를 추구해야 하는데, 이것은 생물다양성협약에 따른 국가적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서 현지내(in situ) 보전, 서식지 보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핵심종(keystone species)의 보호 및 서식지 단편화 방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7) 토지이용 및 관리

토지는 자연적 실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생태자원이 내재되어 있는 복합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토양, 광물, 수자원, 동식물의 다양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은 토지 내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환경의 생산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토지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이용을 둘러싼 경쟁(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적 이해간의 경쟁, 인간과 환경 사이의 경쟁, 장기적·단기적 이용 사이의 경쟁)은 매우 심하다. 최근까지의 토지이용 및 관리정책은 토지의 이러한 통합적인 속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호연관성이나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시되어 왔다.

이러한 토지이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적 토지이용 정책이 제안되어 왔다. 통합적 토지이용 정책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성과 변화를 수용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다음의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토지이용에 있어서 환경·경제·사회적 요소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토지이용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인간의 다양한 토지이용이 환경과 생태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관찰하고 고려하여야 한다. 즉, 인간의 토지이용이 대기, 수문, 토양,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해서는 명확한 경계를 가지면서 내부적으로는 생태학적 공통성

을 담보할 수 있는 단위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역생태계(watershed ecosystem)가 적합한 단위로 간주되어 왔다.

지금까지의 토지관리는 대부분 악화된 토지를 복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즉, 토지의 남용으로 인한 토양침식, 국지적인 범람, 용수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생을 재생하고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주된 과정이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유역관리정책은 사후대책이 주를 이루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인 토지이용 정책은 유역단위 내에 방제업무를 설정하고 이를 유지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간적·시계열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는 유역에서의 인간의 활동이 효과적으로 조정되고 계획되어야 한다. 토양침식이나 수해·한해 등 수문현상의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이용 형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미국이나 구미 선진국가들은 유역관리 원칙을 구체화한 토지이용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제1단계 : 유역내 토지이용의 유형 구분

제2단계 : 공간적 형태 파악 및 관리

제3단계 : 환경영향에 민감한 보호대상 지역 설정

제4단계 : 유역내 에코톱(ecotope) 사이의 공간적 연결성과 의존성 평가

제5단계 : 각종 영향의 구조 파악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 유역 내의 토지이용정책을 도출할 수 있다.

- 지배적인 토지이용 유형이 유일한 유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즉, 최소한 일정 면적 이상³⁵⁾은 다른 유형에 할당되어야 한다. 동시에 토지이용 유형의 다양성과 함께 지배적인 토지이용 내에서의 다양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 유역내 면적 가운데 일정 면적 이상은 자연생태계에 할당되어야 한다. 이 비율은 야생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는 최소면적으로 이것은 전 지역에 고루 분산되어 있어야 하며 각각의 에코톱 사이에는 연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면적을 10%라고 한다면 요구법칙은 산림 지역 같은 곳에서는 역(逆)으로 작용하여 인공시설물의 면적이 10% 이하의 면적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규칙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또한 도시내부에도 도시외곽의 그린벨트와 연계를 가지는 근린공원·수변공원과 같은 자연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연생태계는 하나의 생태적 통로로서 연결성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난제는 장기적 이용과 단기적 이용,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생존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이다. 그러나 현 세대의 수요 때문에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권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정책결정도 유역경계, 상류와 하류 지역의 연계, 장기적 생산성

35) 지역환경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일반적으로 10% 내지 15% 정도를 가리킨다.

에 대한 토지이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생산성과 환경의 보호는 유역의 수문과 관리를 명백하게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 친환경적 생활공간으로서의 양평군을 위한 제언

양평군의 친환경적 생활공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팔당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대해 정부와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 그리고 하류의 물 이용자와 시민환경단체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씩 실천해 나아갈 때에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각 주체가 합의하는 팔당상수원 주변지역의 발전원칙과 전략을 정립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 하면 지역의 발전을 이루어낼 것인가에 온갖 관심을 쏟고 있다. 이러한 관심사가 올바른 정책으로 유도되지 못할 때 엄청난 예산 낭비와 환경과파괴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팔당유역 역시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민감한 조건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자연환경에 부합하는 환경친화적 개발전략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팔당유역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수질보전과 녹지공간의 효율적 관리, 그리고 지역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생산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환경농업 및 유기농업을 들 수 있다. 특히 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꾸준히 진전되면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비점오염원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서의 환경농업·유기농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접근은 산지 사면 경사지 경작에 따른 농경지 침식문제와 같은 토지이용 문제에 대응하는 과학적인 환경농법에서부터 비료와 농약을 근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 및 환경부 등과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팔당 유기농 운동본부의 환경농업은 수도권의 소비자들에게 그 가치와 신뢰를 인정받아 수질보전과 지역특성을 살린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대표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음으로는 농업분야와 함께 오염부하를 극소화하면서 지역재정을 살찌울 수 있는 청정산업이 개척되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팔당유역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특성을 살린 문화·생태관광을 들 수 있겠다. 양평 허수아비축제 지역의 자연적·문화적 특성을 잘 살린 청정상품이라 할 만하다. 이외에도 물 박물관이나 자연학습장 건립, 환경연구시설 유치 등을 통해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는 부가가치 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환경친화적인 개발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팔당유역 주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다. 이미 정부는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한강수계법에 물 이용 부

담금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주민지원을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특히 생산적인 방향에 적극적으로 투자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물은 생명이다. 하지만 유한할 뿐만 아니라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한 자원이다. 특히 팔당상수원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가치를 지닌 자원이다. 수도권 2,000만 주민이 한마음으로 이 소중한 물을 지키는 대장정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천혜의 수자원, 다양한 형태의 초지 및 습지, 친환경적 농업의 성공, 지역환경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일치된 노력과 단결 등이 어우러져 다른 어느 지역보다 건강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양평군이, 앞서 제시한 전향적인 지역 생태자원 관리 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지금과 같은 의욕적인 자세를 지속적으로 견지한다면 친환경적 생활공간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기개발연구원, 1997, 『팔당상수원 수질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원, 1997,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구상(1997~2011)』.
 국토개발원, 1997, 『자연친화적 산지개발에 관한 연구』.
 경기도, 2001, 『경기도 환경백서』.
 김귀곤, 1994, 「생태도시와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과 생명』 여름호.
 민병채, 1999, 「지방정부의 발전전략 21 : 양평군 편 - 21세기 꿈과 희망의 고장! 양평 건설」, 『자치공론』 56, 109~125쪽.
 박의준, 2001, 「예방적 차원의 도시환경문제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응용지리』 제22호.
 산림청, 1996, 『국토탐방로 연결계획구상』, 산림청 산지계획과.
 산림청·대한지리학회, 1997, 『백두대간 실태조사 및 합리적인 보전방안 연구』.
 송미영, 1999, 「경기도 지역수질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송미영, 2000, 「이용 부담금 이용상의 문제점 및 과제」, 『경기논단』 가을호, 7~41쪽.

- 양평군지편찬위원회, 1991, 『양평군지』, 양평군.
- 양평군, 2000, 『양평군 통계연보』, 통계청.
- 유덕기·윤주이, 1999, 「환경농업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양평지역을 중심으로」, 『동국사회과학연구』 7, 303~320쪽.
- 이기영·이철우, 2000,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오염총량 관리제의 효율적인 시행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이상대, 2000, 『수도권 지역구조 및 생활권 분석과 개편전략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 이양주·박경미, 1999, 「상수원 주민의 환경의식 조사 : 양평군을 사례로」, 『경기연구』 4, 137~153쪽.
- 이영민·허남혁, 2001, 「농촌지역 환경갈등과 농촌주민 환경운동의 역할과 의미 : 양평군 팔당지역 유기농업운동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7(4), 18~32쪽.
- 전성휘·정휘철, 『1999, 생태·자연도 작성 및 활용을 위한 원격탐사 기법 연구 I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최지용, 1998, 「팔당상수원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방안」, 『팔당상수원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최지용, 2000, 「한강 오염총량관리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 『경기논단』 가을호, 43~79쪽.
- 최혁재, 1998,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국토개발연구원.
- 환경부, 1998, 「팔당호 오염현황과 특별대책수립계획」, 『팔당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Cutter, S.L. and Renwick, W.H., 1999(3rd edition), *Exploitation, Conservation, Preservation : A Geographic Perspective on Natural Resource Use*, John Wiley & Sons.
- Howells, G., 1990, *Acid Rain and Acid Waters*, Ellis Horwood.
- McKnight, 1994(5th edition), *Living in the Environment*, Saunders Publishing.
- OECD, 1998, *The State of the Environment*, OECD.
- Ruzicka, M. and Miklos, L., 1990, *Basic Premise and Methods in Landscape Ecological Planning and Optimization*, Springer-Verlag.